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성산일출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Activation of Geotourism for the Sustainable  
Tourism in Jeju Island  
-A case of Seongsan Ilchulbong Peak-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김 범 훈

2014년 8월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성산일출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Activation of Geotourism for the Sustainable  
Tourism in Jeju Island

-A case of Seongsan Ilchulbong Peak-

지도교수 손 명 철


김 범 훈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김범훈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 상 철 


위 원

정 광 중 


위 원

전 영 귀 

위 원

이 진 희 

위 원

손 명 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8월



## 국 문 초 록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브랜드에 힘입어 2013년 사상 처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라는 메가 투어리즘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관광객의 수적 증가에 치중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담론이 확산되고 관광지과 지역 공동체와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시급한 현안에 직면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유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산섬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나아가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 명소이며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 논문과 관련 보고서 등의 국내외 문헌 연구, SWOT 분석과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지오투어리즘은 1990년대 초기에는 지형 및 지질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적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광의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상의 범위 역시 지형 및 지질자원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자연은 오랜 세월동안 제주인들의 역사·문화와 삶이 깃든 인문화된 자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는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실태를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진단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해 제주 식생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지대인 꽃자왈 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찰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제주경마장 이용객의 도박 중독문제와 그에 따른 심각성을 진단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섬지코지 사유화 및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을 다루었다. 이들 사례는 제주사회에서 관광개발로 인해 대두된 부정적 담론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WOT 분석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 지형 및 지질자원의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해녀의 삶 체험 지속화,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5개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였다.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은 자연 및 인문자원의 콘텐츠들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관건으로 판단하였다. 성산일출봉의 경우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가 지역의 장소성·상징성·정체성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지원과 유산마을인 성산리 주민들의 주관 하에 매월 1일, 1년 12회에 걸쳐 성산일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세계유산마을이라는 자부심이 갈수록 약화되던 지역주민들에게 성산일출봉이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월 1일 개최되는 성산일출제에는 주제별로 한국사회 갈등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예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산일출제는 희망의 축제, 소통의 축제, 감동과 즐거움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분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유산마을은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이 찾지 않음에 따라 성산일출봉 관광과 단절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주차장 이전 확충 문제는 마을의 최대 현안이다. 또한 면적이 협소한 성산리의 토지를 장기 점유하면서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경관까지 해치고 있는 KBS 제주송신소의 이전 문제도 해결 과제다. 현 오일시장의 매일 민속시장화 추진 문제 역시 주민소득 창출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다. 이들 사업은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의 공존 여부가 달린 현안으로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다.

본 연구는 성산일출봉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 3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핵심적인 지오투어리즘 콘텐츠를 개발해야한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의 마을 경유가

지속화돼야 한다. 셋째, 이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하는 토대로써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를 제주의 지형 및 지질자원 뿐 아니라 문화·역사와 주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실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주관광을 대표하는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인 성산리의 단절 양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콘텐츠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존의 장을 모색하였다. 셋째, 국내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지리학, 지형학, 지질학, 관광학 등 각 분야에서 별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제학문간 연계와 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큰 틀의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연계 개발과정에서 ‘해양관광 및 내수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선비 묵객들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개발’ 분야를 논의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지오투어리즘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본격화된다면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지와 주민들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제주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성산일출봉.



# 목 차

국 문 초 록 .....	i
<b>I. 서론 .....</b>	<b>1</b>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과 연구 지역의 설정 배경 .....	4
3. 연구 흐름도 .....	6
4. 주요 용어의 정의 .....	7
5. 지오투어리즘의 국내중점외 연구 동향 .....	9
<b>II.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 .....</b>	<b>19</b>
1.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적 배경 .....	19
1)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과 원칙 .....	19
2)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전략 .....	25
2. 대중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 .....	27
1) 대중관광의 문제와 전망 .....	27
2) 새로운 관광유형의 등장 .....	30
3) 대중관광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전개 .....	32
<b>III.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와 해외 사례 .....</b>	<b>34</b>
1. 지오사이트의 개념과 현황 .....	34
2. 지오파크의 개념과 현황 .....	42
3. 지오투어리즘의 개념화 .....	51
1) 지오투어리즘의 등장 .....	51
2) 지오투어리즘의 개념과 상이한 관점 .....	53
3) 지오투어리즘과 지속가능한 관광 .....	59
4) 지오투어리즘과 다른 관광유형과의 관계 .....	61
4.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 .....	63
5. 해외 지오투어리즘 사례 .....	74

1) 해외 지오투어리즘 트렌드 .....	74
2) 위험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	75
3) 해외 지오투어리즘 사례 .....	79
<b>IV.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논의</b> .....	93
1.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와 관광 환경의 트렌드 변화 .....	94
1)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 .....	94
2) 관광 환경의 트렌드 변화 고찰 .....	97
2.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진단 .....	102
1)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	102
2)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측면 .....	107
3)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 .....	112
3.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논의 .....	115
1)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 .....	116
2)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 .....	117
3)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필요성 .....	119
4) 제주지역과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현황 .....	122
<b>V.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b>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사례로) .....	130
1. 비전과 목표 .....	130
2. 사례 연구 흐름도 .....	132
3. 지리적 여건 .....	133
4.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현황 .....	137
5. 방문객 현황 .....	139
6.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	142
7.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에 대한 설문 조사 .....	153
1) 설문 조사 개요 .....	153
2)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55
3)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58

4)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62
5)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66
6) 설문 조사 결과의 집단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69
8.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	177
1)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 .....	178
2) 지형 및 지질자원 가치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90
3) 제주해녀의 삶 체험 지속화 .....	203
4)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	213
5)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231
9. 지오투어리즘 코스 개발 .....	239
10. 지오투어리즘과 지역 공동체의 공존 모색 .....	246
<b>VI. 결론</b> .....	250
<b>참고문헌</b> .....	255
<b>부록</b> .....	275
〈부록 1〉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소속 대학 명단 .....	275
〈부록 2〉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소속 대학 명단 .....	275
〈부록 3〉 성산일출봉의 사례로 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설문 조사 .....	276
〈부록 4〉 성산일출봉의 사례로 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	278
〈부록 5〉 성산일출봉의 사례로 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설문 조사 .....	280
<b>ABSTRACT</b> .....	282

## 표 목 차

〈표 1〉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다양한 개념 .....	20
〈표 2〉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 .....	22
〈표 3〉 기존의 대중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차이점 .....	28
〈표 4〉 지형 및 지질자원의 가치 분야 및 종류 .....	37
〈표 5〉 제주도 지역별 관광지 현황 .....	39
〈표 6〉 유네스코 보호제도에 의한 지정 대상의 특성 비교 .....	41
〈표 7〉 제주 세계 지오파크 내 주요 지오사이트 .....	46
〈표 8〉 제주 세계 지오파크 추가 후보지 .....	47
〈표 9〉 유네스코와 지오파크의 관계 공식화 방안에 대한 논의 .....	49
〈표 10〉 지오투어리즘의 주요 정의들 .....	57
〈표 11〉 SWOT 분석에서 고려되는 예상 질문들 .....	66
〈표 12〉 해설에 관한 이슈 확인 예상 질문들 .....	71
〈표 13〉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과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현황 .....	76
〈표 14〉 위협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현황 .....	77
〈표 15〉 2000년 이후 연도별 제주방문 국내외 관광객 현황 .....	94
〈표 16〉 최근 3년(2011-2013년) 제주방문 관광객 형태별 입도 현황 .....	96
〈표 17〉 최근 3년(2011-2013년) 제주방문 관광객 목적별 입도 현황 .....	97
〈표 18〉 2014년 제주도 관광시장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	98
〈표 19〉 미래 환경 변화 요인과 제주관광의 대응 과제 .....	100
〈표 20〉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요인과 정책 우선순위 .....	114
〈표 21〉 제주도의 화산지형 .....	123
〈표 22〉 제주도의 해안지형 .....	124
〈표 23〉 제주도의 풍화지형, 하천지형, 습지지형, 주빙하 지형 .....	124

〈표 24〉 성산 마을의 주요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분포 .....	138
〈표 25〉 2006년 이후 연도별 성산일출봉 방문객 현황 .....	140
〈표 26〉 최근 5년(2009-2013년) 성산일출봉 방문객 월별 현황 .....	141
〈표 27〉 성산일출봉 SWOT 분석에서 과제로 집약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	152
〈표 28〉 성산일출봉에 대한 설문 조사의 개요 .....	154
〈표 29〉 설문 조사 대상 집단별 설문지의 구성 .....	155
〈표 30〉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56
〈표 31〉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59
〈표 32〉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빈도 .....	161
〈표 33〉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이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	162
〈표 34〉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63
〈표 35〉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빈도 .....	165
〈표 36〉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	165
〈표 37〉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166
〈표 38〉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빈도 .....	168
〈표 39〉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들이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	169

〈표 40〉 4개 조사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도 비교 .....	170
〈표 41〉 4개 조사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 이유 비교 .....	171
〈표 42〉 4개 조사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불만족 이유 비교 .....	172
〈표 43〉 3개 조사 집단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1순위 지목빈도 .....	173
〈표 44〉 3개 조사 집단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 비교 .....	174
〈표 45〉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콘텐츠와 공존 콘텐츠 .....	178
〈표 46〉 제1회(1994년)~제21회(2014년) 성산일출축제의 주제 ..	180
〈표 47〉 2012년 1월1일 해돋이를 감상하지 못했을 때의 성산일출축제 평가(요약) .....	181
〈표 48〉 2014년 1월1일 해돋이를 감상했을 때의 성산일출축제 평가(요약) .....	181
〈표 49〉 최근 10년(2004~2013년) 성산일출봉 일출 시간대의 날씨 현황 .....	186
〈표 50〉 최근 10년(2004~2013년) 1월1일 성산일출봉 일출 감상 현황 .....	187
〈표 51〉 최근 10년(2004~2013년) 매월1일 성산일출봉 일출 감상 현황 .....	187
〈표 52〉 매월 1일 소통의 축제로 가는 성산일출제의 예시 .....	188
〈표 53〉 성산일출봉 해너 물질공연 참여 연령대 현황 .....	205
〈표 54〉 성산일출봉 우뚝개 해녀의 집 연도별 운영 실적 .....	207
〈표 55〉 제주 4·3 사건 전개 상황 .....	229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	6
(그림 2) 지속가능한 관광의 3대 축 균형 모델 .....	21
(그림 3)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지도 .....	23
(그림 4) 지속가능한 관광 10단계 .....	24
(그림 5) 대중관광과 대안관광의 개념 비교 .....	33
(그림 6) 지역 환경과 관리 단위에 따른 지오사이트 분류 .....	36
(그림 7) 지오파크의 개념도 .....	44
(그림 8) 제주 지오파크의 대표명소 10개소 .....	46
(그림 9) 지오투어리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54
(그림 10) 지오투어리즘의 스펙트럼 .....	55
(그림 11) 지오투어리즘 개념도 .....	58
(그림 12) 지속가능한 관광 내의 지오투어리즘의 위치 .....	59
(그림 13) 지오투어리즘과 생태관광, 문화관광, 모험관광과의 관련성 비교 .....	62
(그림 14)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해관계자들 .....	64
(그림 15) Belize Barrier Reef Reserve System의 Gerat Blue Hole .....	78
(그림 16) Echo Point에서 세 자매봉과 탁 트인 산악공원지대 .....	80
(그림 17) English Riviera Geopark에서 공원 가이드와 어린이 .....	84
(그림 18) Lesvos Global Geopark 야외 전시장의 석화 나무 모습 .....	86
(그림 19) 대만의 Yehliu Geopark 전경 .....	89
(그림 20) Chemainus 방문객들의 벽화 감상 마차투어 .....	91
(그림 21) 제주도 꽃자왈 분포도 .....	103
(그림 22) 제주경마공원 경마 시행 모습(2014년 5월 3일) .....	109
(그림 23) 섭지코지 사유화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출입금지 안내판 .....	112

(그림 24) 지오투어리즘 모델 .....	121
(그림 25) 한라산 관음사 코스에 설치된 생태계 설명 표지판 .....	125
(그림 26) 성산일출봉의 비전과 목표 .....	131
(그림 27) 사례 연구 흐름도 .....	132
(그림 28) 제주지역 최대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성산일출봉 .....	133
(그림 29) 성산일출봉과 성산마을, 그리고 원경의 한라산 .....	134
(그림 30) 성산포 내수면에서의 조개잡이 체험 .....	136
(그림 31) 제20회 성산일출제 포스터 .....	137
(그림 32)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 일대의 주요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	139
(그림 33) 2006년 이후 연도별 성산일출봉 방문객 추이 .....	140
(그림 34) 최근 5년(2009-2003) 성산일출봉 방문객 월별 추이 .....	141
(그림 35) 2014년 1월 1일 성산일출봉 일출 장면(위), 일출 전 소원 빌기(아래 왼쪽), 일출 후 환호하는 탐방객들(아래 오른쪽) .....	179
(그림 36) 성산일출봉 탐방로의 등경들 .....	189
(그림 37) 성산일출봉 형성 및 재퇴적 과정에 대한 모식도 .....	190
(그림 38) 성산일출봉 및 주변 지질도 .....	191
(그림 39) 성산일출봉 남동 사면에 형성된 화산기원 1차 퇴적지층(절벽 하단)과2차 퇴적지층(절벽 상단) .....	192
(그림 40) 성산일출봉이 파도 등에 씻겨 만들어진 신양리층 노두 .....	193
(그림 41)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확대된 경관 .....	193
(그림 42) 응회구 가장자리 화쇄난류 퇴적작용을 보여주는 노두 .....	195
(그림 43) 성산일출봉 방문객센터와 내부의 제주 세계자연유산 사진전시회 .....	195
(그림 44) 성산일출봉 탐방로에 설치된 지질 설명 표지판 .....	196
(그림 45) 2013년 9월 새롭게 조성된 성산일출봉 탐방로 하산길 .....	197
(그림 46) 급증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혼잡한 성산일출봉 탐방로 입구 .....	200



(그림 47) 성산일출봉 북쪽 해안 우뚝개 전경 .....	205
(그림 48) 우뚝개 해안에서 해녀들의 물질공연 중 해녀노래 장면(2014년 2월 28일) .....	206
(그림 49) 성산일출봉 해녀물질공연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향 ....	210
(그림 50) 해녀 체험장 예상되는 일출봉 북쪽 해안 오정개 .....	212
(그림 51) 탐라순력도의 성산관일 .....	215
(그림 52) 옛 성산성의 추정 터 .....	216
(그림 53) 절벽 하단 검정색으로 입구가 드러난 일본군 동굴진지 .....	217
(그림 54) 서북청년단이 주둔하였던 옛 성산동초등학교의 폐건물 ....	220
(그림 55) 터진목 4·3 유적지 안내판(왼쪽)과 제주 4·3 성산읍 희생자위령비 .....	220
(그림 56) 수마포 해안의 일본군 동굴진지 설명 표지판 .....	222
(그림 57) 터진목 인도 변에 설치된 석제 위령 패널 .....	224
(그림 58) 양민 집단 학살터였던 성산일출봉 우뚝개 동산 .....	225
(그림 59) 한산한 4·3 유적지(왼쪽)와 봄비는 유채꽃밭 .....	226
(그림 60) 일본군 동굴진지를 설명하는 패널들이 들어설 수 있는 수마포 해안의 소규모 쉼터 예상지 .....	228
(그림 61) 제주 4·3 사건을 정리한 패널들이 들어설 수 있는 터진목 모래언덕의 소규모 쉼터 예상지 .....	230
(그림 62) 성산리 오일시장 터 .....	233
(그림 63) 일출봉 주차난으로 마을도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서 일출봉으로 향하는 관광객들 .....	234
(그림 64) 성산일출봉 내수면 주차장 조성(안) .....	236
(그림 65) 성산리에서 차지하는 KBS 제주송신소의 땅 규모 .....	237
(그림 66) 성산일출봉 절벽 하단부에 나타나 있는 탄낭 구조 .....	239
(그림 67) 제주해녀와 시인과 함께하는 길인 탐방코스 A와 주요 사이트 ....	242
(그림 68)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의 길'인 탐방코스 B와 주요 사이트 ...	243
(그림 69) '세계자연유산 오일시장 가는 길'인 탐방코스 C와 주요 사이트 ...	245

# I.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 지오파크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관적·학술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화산섬이다. 이에 힘입어 제주관광은 2013년 사상 처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27일자).

문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제주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 기반인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외래문화와 제주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지닌 향토 문화 간에 문화적 접변이 일어나면서 제주의 정체성 역시 갈수록 훼손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대중관광 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방문객의 수적 증가에 치중하는 외형적 성장은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유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 있는 일로 사료된다.

지오투어리즘은 199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과 호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되면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Stokes *et al.*, 2003; Dowling & Newsome, 2006; Gates, 2006; Hose, 2008; 전영권, 2010; Farsani *et al.*, 2012). 지오투어리즘은 초기에는 지역 또는 장소의 지형 및 지질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적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광의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

다. 그 대상 역시 지형 및 지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지오투어리즘은 방문객들에게 천혜의 자연자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보전 인식을 넓혀주며 문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나 이득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속가능한 관광이다(Farsani *et al.*, 2012).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는, 지오투어리즘의 도입 역사가 10여 년 남짓한 짧은 관례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원 발굴과 이를 활용하는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김범훈, 2013).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탐방하는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Stokes *et al.*, 2003). 이에 따라 지형경관과 지질자원의 보전 및 활용 방안과 연계한 인문자원의 내재적 가치인 고유성, 특이성, 상징성 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확산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을 기존의 ‘Geological Tourism’이란 협의적 개념에서 ‘Geographic Tourism’이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제주인들의 삶과 동떨어진 단순한 물리적인 자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질곡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인문화 된 자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은 제주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이며 명확한 개념 설정으로 판단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형과 지질 중심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는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로 범위를 넓히고 그 대상을 인문적 특성, 곧 문화·역사와 주민의 일상적 삶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과 세계 지오파크 등 유네스코 브랜드를 획득한 화산섬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한마디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내 곳곳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트레일 걷기 코스가 개설되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과정도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형 및 지질자원과 역사·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하는데 있어 방문객들의

다양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의 지역 공동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방문객들의 증가세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나아가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 연구 지역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인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이론적 배경부터 고찰한다. 이어 새로운 관광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해외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를 통해 제주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방안으로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를 필요성을 논의한다.

셋째,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사례 연구 지역으로 하여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위한 콘텐츠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 성산리 지역주민들이 공존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 2. 연구 방법과 연구 지역의 설정 배경

### 1)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와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어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지역인 성산일출봉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산일출봉 방문객 등 전국적인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오투어리즘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연구의 기본 틀을 확립하였다. 문헌연구의 토대 위에서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제주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제주지역에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지역의 현지 평가를 위해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인 이해관계자들과 동행하여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산일출봉 방문객 189명,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188명,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61명,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69명 등 전국적인 4개 집단 총 507명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5가지를 선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 3가지도 제안하였다.

### 2) 연구 지역의 설정 배경

연구 지역은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 지역과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적용 사례 연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 지역은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점, 제주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 명소라는 점, 유산마을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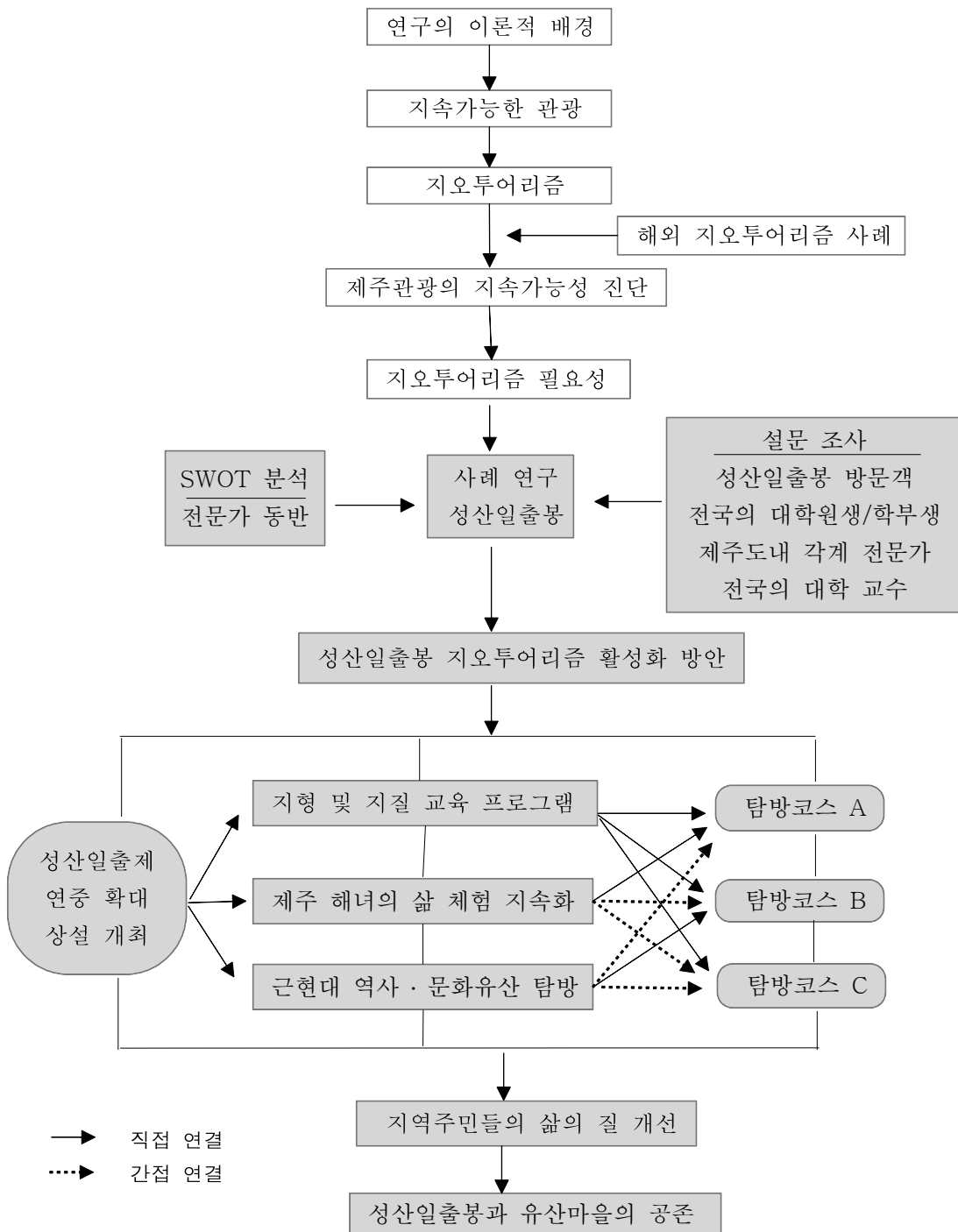
체와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세계자연유산인 호주의 Greater Blue Mountains Area, 세계 지오파크인 영국의 English Riviera Geopark와 그리스의 Lesvos Global Geopark, 국가 지질공원인 대만의 Yehliu Geopark, 지역공동체 기반 관광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캐나다의 Chemainus 등 5개 지역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제주 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로 삼았다.

성산일출봉을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적용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설정한 배경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성산일출봉은 지형 및 지질학적 자원들이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공인 브랜드 획득에서 알 수 있듯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제주의 대표적인 대중관광지라는 점에서 방문객 급증세라는 외형적 성장에 따른 문제점 역시 대표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성산리는 성산일출봉과 연계한 마을의 역사·문화유산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등 지리적 특성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를 토대로 기존 대중관광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 성산리가 공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성산일출봉은 수중에서 분출한 대표적인 수성화산으로써 삼면이 가파른 단애로 드러나 있다. 화산체의 형성 과정과 이후의 침식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지형 및 지질학적 그리고 경관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인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풍부한 신화와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특히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해녀의 삶터, 일제 강점기에 최후의 방어진지로 구축된 일본군 동굴진지 요새화의 현장,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의 집단 학살터 등 생생한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의 현장이며, 조선시대 선비 묵객들과 현대 문학인들의 심상 공간이기도 하다. 성산일출봉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학문적, 보편적 가치와 로컬 수준에서의 고유성이 잘 어우러진 관광지라 할 수 있다.

### 3. 연구 흐름도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그림 1)과 같이 전개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 4. 주요 용어의 정의

### 1)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1987년 유엔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의 보고서인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 처음으로 공식 등장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WTO, 1993). 21세기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 자원개발, 산림, 농업, 어업, 공업, 제조업, 관광 등 현대사회의 모든 개발형태를 지배하는 개발규범으로 확산되고 있다(강미희, 2007; 변형석, 2010). 지속가능한 개발의 영문 어원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적 개발, 영속적 개발, 영속 가능한 발전, 지탱 가능한 개발, 생명유지 개발, 보전적 개발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공식문서인 세계자연보전전략(WCS)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97).

### 2)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 분야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세계관광기구(WTO, 1993)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존, 필수적인 생태계 과정,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명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기존 대중관광의 대체가 아니라 이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역사회, 관광사업자, 방문객, NGO 등)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현재 관광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utler, 1998).



지속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방문객(또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경험 제공, 지역주민과 방문객 공히 환경의 질 유지 등 크세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들 목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3가지 축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은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위주여야 한다(최영국, 2000).

### 3) 지오사이트(Geosite)

유럽에서는 지오사이트를 1차 지오사이트(Primary Geosite)와 2차 지오사이트(Secondary Geosite)로 구분한다. 1차 지오사이트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정해진 영역 내에서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채석장과 자연 절벽에서부터 광산과 동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특징은 보존 보다는 오히려 관리 보호를 필요로 한다. 2차 지오사이트는 하나의 구조 내에서 지형 또는 지질의 역사와 개발 등 지역적 특징을 갖는 곳으로 박물관, 유산센터 또는 방문객센터, 지구과학자 기념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Hose, 2007).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지오사이트는 지형·지질 명소, 지질 장소, 지질 명소, 대표 명소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개개의 광물에도 지오사이트로 명명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일본에서는 따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그대로 지오사이트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이수재 등, 2008).

### 4) 지오파크(Geopark)

지오파크는 지오사이트가 여러 개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한다. 지오파크는 일반적으로 1차 지오사이트와 2차 지오사이트라는 두 가지 유형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규모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를 지원하는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오파크는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형 및 지질 현장으로써 생태학적, 고고학적, 문화적 유산을 동시에 보존하면서 연구·교육에 활용하고 무엇보다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오파크는 개방형 관리를 지향한다. 핵심적인 보호대상을 제외하고는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지오파크의 큰 특징이다.

## 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세계적으로 볼 때,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는 두 가지 관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하나는 지형 및 지질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1995년 영국의 Hose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제안되었다. 이후, 지오투어리즘은 지오사이트 관광을 장려하고, 이의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형 및 지질 다양성의 보존과 지구과학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관광으로서 geo-trail, view-point, guided-tour, geo-activity, visitor-center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Dowling & Newsome, 2010a).

다른 하나는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1997년 미국의 Tourt ellot에 의해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지오투어리즘은 어떤 장소의 환경, 문화, 미학, 유산,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 등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관광으로서 그 장소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독특한 가치를 포함하는 자연여행으로 정의하고 있다(National Geographic, <http://nationalgeographic.com>).

## 5. 지오투어리즘의 국내·외 연구동향

### 1) 국내의 연구동향

국내에 지오투어리즘이란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다.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된 것은 전문학회지 논문게재(정강환, 2000), 전문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김근미 등, 2000),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강좌(박종관 교수의 Let's go 지리여행, [www.jotra.com](http://www.jotra.com)) 등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고 있다(김범훈, 2013). 국내 연구동향과 관련, 그동안 발표되었던 주요 연구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광학계의 경우 정강환(2000)은 지오투어리즘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하면서 지질관광으로 번역하였다. 지질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질자원을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며 보존의 중요성을 도모하는 지질관광 활성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질학계의 경우, 허철호·최상훈(2007)은 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각종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을 주 대상으로 내재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자연보존을 촉진하는 지질관광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형 등 지리학계의 경우, 전영권(2010)은 국내에 도입된 지오투어리즘의 경우 지질학 관련 학자들은 대상 분야를 주로 지질적 자원(지형자원 포함)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 지오투어리즘 분야 연구는 국내·외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경관자원의 발굴 및 성인론적 해설, 자연관찰 학습장 및 탐방프로그램 구성, 주제별·체류기간별 탐방로 선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개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없을뿐더러 지오투어리즘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형경관 및 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민영(2012)은 국내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표준화된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지리학, 지질학, 관광학 등을 비롯한 제 학문 간에도 각자의 논리적 전개와 관점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박경·김창환(2012)은 제주도가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즉 Global Geoparks Network(GGN) 가입으로 국내의 지형 및 지질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국내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학문적 접근 및 국내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권동희(2013)는 지오투어리즘은 최근 국내 지형학자들이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응용지형학적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동안 국내 지리학계는 지형경관의 응용차원에서 지오투어리즘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직접 지오투어리즘이란 용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최근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경(2012)은 응용지형학의 발전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응용지형연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지오투어리즘 분야이며 환경보

전과 자연재해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하였다.

김범훈(2013)은 국내의 지형 등 지리, 지질, 관광 분야의 전문학회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발표된 논문 172편(2000~2013년 5월 기준)을 대상으로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지형학, 지리학, 지질학, 관광학 등을 비롯한 제 학문간 각각의 논리적 전개와 관점에 따라 지오투어리즘과 관련한 연구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형학 등 지리학계에서는 지역의 가치 있는 지형 및 지질자원 개발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연구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지질학계는 대상 분야를 주로 지질적 자원(지형자원 포함)의 보존 등에 국한하고 있다.

연구 주제별<sup>1)</sup>로는 가치 있는 지형 및 지질경관자원 발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등 자원개발에 관한 논문이 113편으로 지오투어리즘 관련 전체 논문(복수 주제 포함 181편) 가운데 6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모델 제안과 지오파크 추진을 위한 학계의 역할 등 정책적 접근을 다룬 논문(40편, 22.1%)이 뒤를 이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문화지형 경관자원으로의 스토리텔링 개발에 관한 연구물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영권(2012)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지형 개발 관점에서의 접근은 인류의 문화·역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지형을 문화지형이라 일컫고, 문화지형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야말로 해당 지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오투어리즘은 어느 특정의 학문 영역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학제간의 통섭 학문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1) 김범훈(2013)은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연구 역사가 10여 년 남짓한 짧은 점에서 국내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의 주제별 분석틀을 Dowling & Newsome(2010a)이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5가지 주요한 방향으로 제시한 ‘가치 있는 지형 및 지질자원 개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 ‘지구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넓히는 교육적 인프라 개발’, ‘지오투어리스트(geotourist) 만족도 높이기’,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 및 경제성 제고’를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을 ‘자원개발’, ‘보존·관리’, ‘교육적 인프라 개발’, ‘지오투어리스트’, ‘주민참여 및 홍보·마케팅’ 등 5가지 분야에다 국내의 지오투어리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라는 항목을 더해 6가지 주제를 분석틀로 삼았다.

보존·관리 분야(발표 논문 13편)에서 이수재 등(2003)은 순수하게 지형학적 또는 지질학적 형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조사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다. 이는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 추진과 관련된 지질학계의 성과물로는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적 인프라 개발(8편), 지오투어리스트(4편), 주민참여 및 홍보·마케팅(3편) 등의 분야는 지오투어리즘 관련 학문 연구의 균형 차원에서 볼 때 발표 논문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아쉬운 측면이다. 다만, 지오투어리스트 분야에서 정강환(2000)의 연구는 지질관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질관광 대상지에서의 관광객의 방문동기, 선호하는 상품, 행동특성과 이벤트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장세분화를 촉구한 것으로 이는 지질관광 분야에서 선구자격인 연구라 하였다(김성섭·이희승, 2008).

또한 김창환(2009)은 지오파크의 중요한 테마가 되는 지형, 경관, 자연사, 지역사 그리고 지오파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광과 그에 따른 지역 진흥계획 등과 관련하여 지리학은 지질학 분야와 함께 크게 공헌할 수 있다며, 한국 지오파크 네트워크(KGN) 설립에 지리학자와 지질학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국내의 지오투어리즘은 비록 10여 년이란 짧은 도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오투어리즘 연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전영권, 2010). 연구 주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고, 지리학과 지질학 등 관련 학문 간의 연계노력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오투어리즘 연구 주제는 자원개발 등 특정 분야의 편중에서 벗어나 보존·관리방안, 교육적 인프라 개발 방안, 지오투어리스트의 경향성과 동기 부여 연구, 주민 참여 및 홍보·마케팅 개발 등 연구 주제를 다양하게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학문 간 연계 노력을 하나씩 가시화해 나가야 한다.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는 지형학, 지질학, 관광학 등 제 학문 간 연계노력이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에 대한 명칭문제부터 학제 간 의견을 통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2) 해외의 연구동향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국내보다 불과 10년 남짓 앞서 있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오투어리즘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형 및 지질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지오투어리즘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연구, 지오투어리즘 명소 개발에 관한 연구, 지오사이트의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지오투어리즘의 동기 부여와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 지오투어리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지오투어리즘 해설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등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첫째,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다. 초기의 지오투어리즘 정의는 영국의 Hose(1995)가 새로운 패키지 관광 상품과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 저널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National Geographic은 1997년 수석편집자인 Tourtellot이 그의 부인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창안한 ‘Geographic Tourism’이라는 관점의 지오투어리즘을 2003년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등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상이한 관점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도 국가별 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융·복합되면서 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형 및 지질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다. 지형 및 지질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이러한 유산자원의 특징과 경관을 확인할 필요성에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들 자원에 대한 유산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지형 및 지질유산 목록을 리스트화하고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Slomka *et al.*(2006)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2006년 지오투어리즘 대상 목록을 완성하였다. 연구자들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지오사이트 600곳을 제안하였다. 이

---

2)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초보단계인 국내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동향의 주제별 분류를 전영권(2010), Dowling & Newsome(2010a), Allan(2012), Farsani *et al.*(2012)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가운데 100개 사이트를 한 그룹으로 하는 일련의 지형 및 지질학적 구조, 프로세스 해설 목록표를 구축하였다. 이 목록은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지오사이트 정보의 출처로 인정받으면서 지방행정 당국, 관광회사, 지역공동체로부터 미래개발을 위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Malaki *et al.*(2008)은 모로코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조사하여 화산 지오사이트 목록을 만들어냈다. 연구의 목표는 지역개발 가능성을 가진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유산보존 가치를 갖는 사이트들 간 관광개발과 홍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화산 사이트들의 보호와 홍보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지역 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Joyce(2010)는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자국 내의 광대한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의미 있는 지형 및 지질유산 경관자원을 목록화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자원의 유산적 가치 기준도 제시하는 등 미래에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국가적인 지오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셋째, 지오투어리즘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연구다. 지오투어리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은 많다. 이 그룹은 국가 또는 지방행정 관리자, 해당 보호지역 책임자, 관광사업자,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지역공동체, NGO, 지역주민, 최종적으로 관광객 자신까지를 포함한다.

Gebhard *et al.*(2007)은 관광개발과 관리의 주요한 도전은 경쟁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 이들의 참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Vollmer & Megerle(2004)는 이해관계자들이 다각적인 소통 전략 하에 참여할 때 지오투어리즘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방안으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하고, 각 파트너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각 파트너들을 위한 윈윈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명소 개발에 관한 연구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 개발이 자연 및 인문자원의 보존과 함께 방문객들에게는 새로운 의미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에

게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관광유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학계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발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Burlando *et al.*(2009)은 Beigua Geopark가 2005년 Global Geopark로 인증을 받은 직후부터 지방정부, 관광협회, 기업가, 대학과 연구학회, 학교, 농부, 자원봉사자와 환경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고 강조하였다. Beigua Geopark는 Global Geopark를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을 고안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전략은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토론의 결과물이었다. 이로써 Beigua Geopark는 그들의 독특한 지형 및 지질경관, 역사문화 유산, 지역의 전통음식과 스포츠 편의시설들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Beigua Geopark에서의 지오투어리즘 활동은 지역의 유산적 가치를 진작시켜나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Kavčič *et al.*(2009)은 슬로베니아의 Idrija 지역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는 광산 지역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지질 소장품을 보여주면 방문객들은 수는 광석 매장층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박물관 주위에는 지질학, 지형경관과 수문학, 식물학, 동물학을 테마로 기초한 다양한 걷기 트레일이 갖추어져 있어서 학교그룹, 가족, 등산객, 자연과학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지오사이트의 위험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다. Dowling & Newsome(2010a)은 관광의 황금규칙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지만,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 활화산, 빙하지대, 해양지역, 고산지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지대 등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항상 위험의 경계를 넘나들려 한다고 우려하였다. 체험관광산업은 이러한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해야하는데 생태관광은 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지오투어리즘 개발과 성공적인 지오투어리즘 산업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위험 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 대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arkut(2010)은 활화산 지대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처한 위기와 관광객들의 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유엔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국제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하였다. 이탈리아의 Vesuvius 화산의 경우 내부의 즉각



적인 위험인 ‘레드 존’, 외부의 일부 위험인 ‘옐로우 존’과 ‘블루 존’이라는 3가지 위험지대 모델을 만들었으나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들이 이러한 비상계획을 무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국의 경우, King(2010)은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에서 얻어진 방법들을 공론화하면서 방문객 위험 관리야말로 공원 스태프들에 의해 지오사이트 관리의 중추적 역할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화산 현장 방문객의 위험과 자원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지오사이트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여섯째, 지오투어리스트의 개념 정립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다. 관광에 대한 평가는 그 개념의 정확성과 함께 일반적인 정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오투어리스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지오투어리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연 지오투어리스트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특정 지오사이트를 여행을 하는가, 그들은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지오투어리스트의 특성은 지오투어리즘의 본질 및 범위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Hose(2008)는 지오투어리스트를 두 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목적으로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그룹을 일컫고, 다른 하나는 즐거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적 자극을 목적으로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그룹이라는 것이다.

Newsome *et al.*(2012)은 어느 곳에서나 지오투어리스트들은 독자적인 개인이나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그룹 모두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연지역 또는 도시나 건설된 영역에서 지질학적 관광 명소를 여행한다고 하였다.

Allan(2012)은 지오투어리스트의 정의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지금까지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지오투어리스트는 중요한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특성을 가진 사이트를 보고, 그러한 특성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스트는 다른 형태의 관광으로부터 지오투어리즘의 질을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Robinson(2008)은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의 공급 측면에 대해 많은 조사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상품을 위한 수요인 지오투어리스트의 동기 부여나 경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ao *et al.*(2009)은 호주의 지질학회 회원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행 이유는 지오사이트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 호기심 만족을 위해, 인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많았다는 점에서 그룹 투어보다는 독립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특히 응답자인 지오투어리스트들은 지질 및 지형과 역사에 대한 지식 욕구의 증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 야외활동 즐기기, 소박한 숙박시설에 머물기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오투어리스트의 동기 부여와 경향에 대한 일반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상당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지오투어리즘 교육과 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다. 지오투어리즘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발표되는 논문들에서는 중등교육 기관과 대학 수준의 범위로 부상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오투어리즘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오투어리즘 교육과정은 세계 각국별 실제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어도 필드 연구의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Briha(2009)는 포르투갈의 몇몇 대학의 학위과정에는 지질학, 지리학, 생물학을 이수 단위에 넣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지형 및 지질유산과 이들 유산의 보존에 관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질학과 지리학에 관한 석사 학위 과정은 선택이수 단위로 지형 및 지질보존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Dowling & Newsome(2010a)은 호주의 Perth 도시에 소재한 Edith Cowan 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오투어리즘 단원은 비즈니스학부에서 관광학위 부분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다.

Moreira *et al.*(2010)은 브라질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Paraná 도시에 있는 Ponatzgrossa 주립대학의 관광학과는 Araucaria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교육단체들과 지방정부까지 참여한 ‘관광연구 주일-Geotourism’을 개최한 사실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지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최초의 이벤트로서 강의와 세미나, 현지 견학 여행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에게 지오파크 설립의 잠재성도 알려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여덟째, 지오투어리즘 해설(Interpretation : 설명)에 관한 연구다. 이 분야에서는 지오투어리즘 해설을 통해 창조되는 상호작용은 적절하고 충분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의 조화로 인해 지오투어리스트들은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움직이거나 인식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고,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 지형 및 지질세계는 보다 더 좋게 이해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Wittlich & Palmer(2010)는 뉴질랜드 Auckland Waitemata Harbour에 있는 화산섬 Rangitoto에 대한 관광객 경험의 매체가 되는 안내판, 포스터, 안내 쉼터, 가이드투어를 설명하면서 이들 가운데 안내판이 지오투어리스트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매체(7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안내판이 그들 자신의 페이스대로 원하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Hughes & Ballantyne(2010)은 지오투어리즘 해설 소재 개발의 근본 원칙뿐만 아니라 해설에 있어서 이해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방문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비유와 유머를 통해 해설을 연결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해설이 되려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퀴즈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에 해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II.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

지오투어리즘을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대중관광과의 관계 등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지오투어리즘이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과 원칙부터 들여다보는 것은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관광 형태가 아니다. 기존의 대중관광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대안적인 노력에서, 관광분야에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이 본격 등장한 것은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인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서다.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Rio Declaration)과 의제 21(Agenda 21)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제시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서 추구해야할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이희연·차승훈, 2004 ; 오상훈·강성일, 2005).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진화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단순히 시간적 연장으로서의 지속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무엇을 유지시키고 향상시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담겨있다.

### 1.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적 배경

#### 1)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과 원칙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개념이지만 관광의 목적과 관광 요소, 관광자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표 1). 일반적으로 세계관광기구(WTO, 1996)의 정의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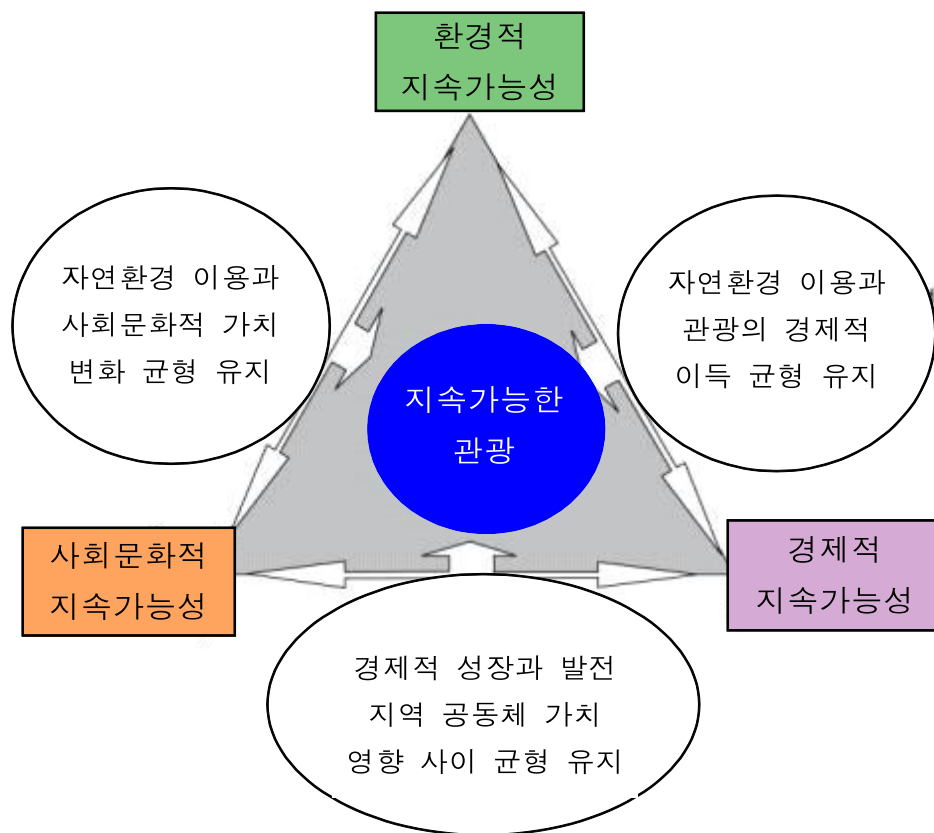
<표 1>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다양한 개념

연구자(연도)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Cronin(1990)	관광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그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관광수용력과 관광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Inskip(1991)	지속가능한 관광은 문화적 고유성과 생태계 순환, 생태계 다양성, 생명지원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Curry(1992)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관광산업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활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Bramwell & Lane(1993)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산업과 관광객, 환경, 지역사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줄이는 접근방법으로, 자연 및 인간환경의 질과 장기간의 지속성을 추구한다.
Harris(1995)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생물다양성을 보존 증진시키고, 생명부양체계와 문화보전을 유지하면서 관광산업의 경제적인 욕구와 관광객의 경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WTO(1996)	미래세대를 위한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온전성,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1997)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 여행자에게 양질의 경험 제공, 지역사회와 여행자를 위한 양질의 환경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김남조·조광익 (1998)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장으로서, 미래에도 관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관광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 관광자원 등을 보전하면서 현재의 관광지와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최영국(2000)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자원과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환경교육 요소를 통하여 관광객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관광이다.
오정준(2003)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관광으로서,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회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충족시킴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사회 간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이다.
UNEP(2011)	지속가능한 관광은 수요측면에서 볼 때 책임 있는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관광객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도 관광 프로젝트와 환경을 지지하거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욕구를 고려하는 정책, 실천, 프로그램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점점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기후 친화적이 되기를 열망한다. 이를 테면, 물 소비를 더 줄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생물 다양성과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상호 문화 간 이해와 관용을 지원하며,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생활 개선과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것을 열망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1997), 김남조·조광익(1998), 최영국(2000), 오정준(2003), UNEP(2011)를 연구자가 재구성.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향점이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방문객에게 양질의 관광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생물·물리적, 사회·문화적)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강신겸 등, 2004).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의미하며, 이 세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의 보전,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2).



(그림 2) 지속가능한 관광의 3대 축 균형 모델

출처: Dredge(2008)를 연구자가 재구성.

WTO(1997)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을 11가지로 제시하였다(표 2).

<표 2>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WTO, WTTC, The Earth Council)

구분	내 용
1	관광으로 자연과 조화롭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한다
2	관광은 지구 생태계의 보존, 보호, 회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3	관광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에 기초하여야 한다
4	관광, 평화, 개발, 환경보호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5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는 무역보호주의를 철폐한다
6	환경보호는 관광개발 과정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7	계획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광개발문제 다룬다
8	정부는 관광지와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를 경고한다
9	관광은 지역의 여성과 주민의 완전고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관광개발에는 일체감, 문화, 주민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환경보전 국제법은 관광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WTO(1997), 김성일(2001. WTO 인용)을 연구자가 재인용.

UNEP & WTO(2005)는 ‘더 많은 지속관광 만들기 :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12가지 의제로서 ①경제성 ②지역의 번영 ③고용의 질 ④사회적 공정성 ⑤방문객 충족 ⑥지역적 규제 ⑦지역사회의 복지 ⑧문화적 풍요 ⑨물리적 무결성 ⑩생물학적 다양성 ⑪자원의 효율성 ⑫환경의 순수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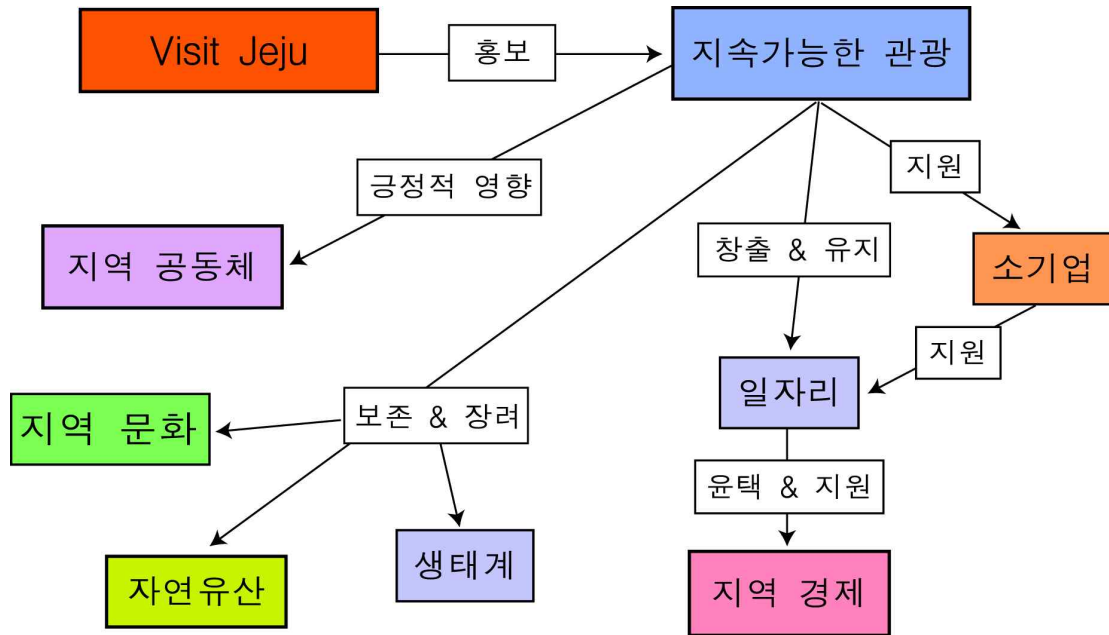
김진성 등(2006)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실천 방안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은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 특정 유형의 관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관광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한 관광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객, 관광산업, 환경(관광자원), 지역사회의 4요소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관광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관광개발과 관리

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영역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관광업계의 개별적 행동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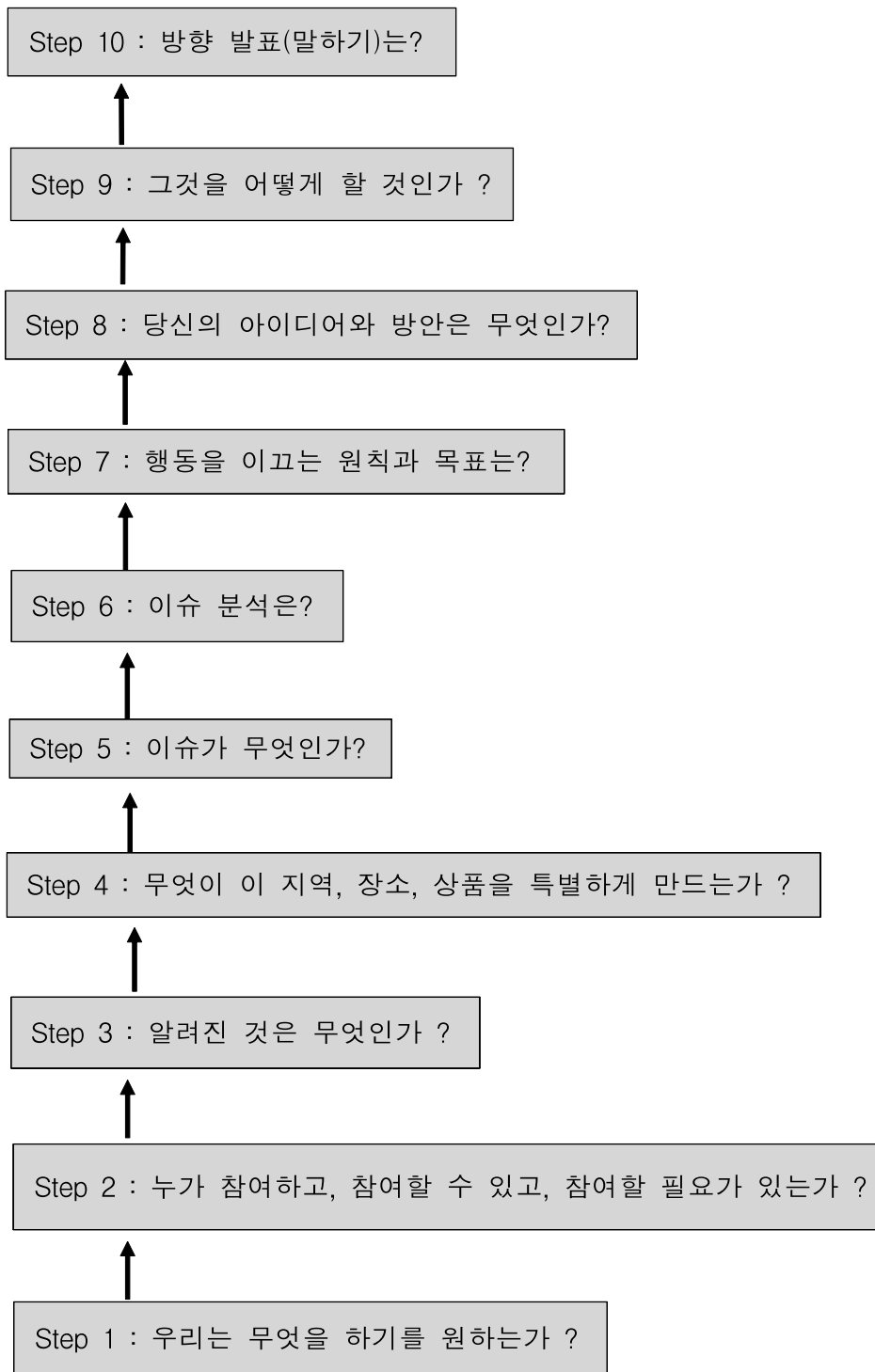
(그림 3)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지도

출처 : IHMC Cmap Tools(<http://enviro.lclark.edu/Concept maps>)을 연구자가 재구성

넷째,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은 특정 목적지 또는 지역사회에 달려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은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것이지만, 그 실천 방안은 목적지와 지역의 관광시장,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특수해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개념과 원칙, 지표와 인증 수준에서 빠르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생태관광 등의 일부 분야가 아니라 (그림 3)에서 보듯이 지역의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관광’이 아닌 ‘대중관광’을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는 것이다(강신겸 등, 2004).





(그림 4) 지속가능한 관광 10 단계

출처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of Australia Government(2004)를 연구자가 재구성.

## 2)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전략

지속가능한 관광은 장기적인 목표이다. 그 중심에는 지역, 장소, 관광 상품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느냐가 있다. 여기에는 4가지 핵심적인 관점이 있다. 관광 사업자, 관리자, 방문객, 지역사회의 관점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는 저마다 독특한 아이디어, 이슈, 관심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면, 그 관점들을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 정부의 환경과 유산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of Australia Government, 2004)가 개발한 ‘지속가능한 관광 10단계’(그림 4)는 주목을 끈다.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그룹들의 견해를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통합, 디자인하였다.

제1단계는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전후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으며, 누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언제, 어떻게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참여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효과적인 작업 관계를 개발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단계는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나 정보의 소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현재 및 잠재시장 정보를 찾아 요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4단계는 무엇이 이 지역, 장소, 상품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이 단계는 지역, 장소 또는 상품에 대해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도움이 된다.

제5단계는 이슈들이 무엇인가? 이 단계는 지역, 장소,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슈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로는 방문객의 경험, 지역사회의 경험, 환경 및 문화유산 관리 및 영향, 인프라 문제, 시장과 마케팅 문제, 관광제품의 유용성, 경제적 비용과 편익 문제, 전략과 자원 상황, 승인 및 규제가 있다.

제6단계는 이슈 분석이다. 이 단계는 이슈들은 분석하고 명확히 하며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주요 분석방법들로는 시장분석, 유산보전 분석, S

WOT 분석, 상황분석, 비용-편익 분석, 우선순위 분석 등이 있다. 이들 분석법은 전략 기획에서 사용되는 표준 접근법들이다.

제7단계는 행동을 이끄는 원칙과 목표이다. 이 단계는 일련의 원칙과 목표의 설정을 통해 향후 실천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원칙이나 목표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8단계는 당신의 아이디어와 옵션은 무엇인가? 이 단계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옵션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9단계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계는 당신의 아이디어 또는 원하는 옵션을 구현하는 데, 그것들이 다른 관련 계획과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데,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요인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10단계는 방향의 발표이다. 이 단계는 유산자원, 주요 이슈, 합의된 행동과 향후 방향을 식별하고 그러한 과정의 결과와 제안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발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어 왔다. 강신겸 등(2004)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성공조건으로 ①관광개발 방식의 전환(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의 전환), ②타당성 있는 수익모델의 설정(지속가능한 수요의 창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의 설정), ③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투자재원의 다각화, 사업시행체계의 개선), ④추진 주체의 조직과 및 협력강화(추진 주체의 조직화와 리더의 양성, 주민참여 및 역할 증대,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협력체계), ⑤환경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관리(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체계 확립, 생태 및 녹색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김성일 등(2008)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성공 10계명을 제시하였다. ①비전을 설정하라 ②미래는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③우리 지역이어야만 하는 것을 발견하라 ④지역 안에서부터 찾으라 ⑤한계를 정하라 ⑥지역이 주인임을 잊지 마라 ⑦양(量)보다 질(質)이다 ⑧협력과 네트워크가 살 길이다 ⑨평가는 발전을 가져옴을 인식하라 ⑩책임 있는 변화를 피하라고 하였다.

## 2. 대중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은 매스 투어리즘(Mass tourism) 즉, 기존의 대중관광에 대해 단순하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관광자원의 효과적 보전 및 활용을 통해 대중관광의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에 미치게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형의 관광을 일컬어 대안관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안관광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관광이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교육적인 가치와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할지라도, 실제 행동에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유지와 향상이라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과 목표를 저버릴 경우에는 대안관광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대중관광도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거듭날 수 있다. 대중관광이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양호한 관광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관광이다(Butler, 1998).

따라서 대중관광이나 대안관광과 같은 관광의 유형만을 놓고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의 관광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관광지 관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Pollock, 2013).

### 1) 대중관광의 문제와 전망

기존의 대중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항목별 비교는 (표 3)과 같다. 대중관광은 한마디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 하여 가능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문에 관광지에는 자원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양한 관광활동의 도입과 인위적인 관광시설들이 입지한다.

<표 3> 기존의 대중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차이점

구분	기존의 대중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특성	△양적인 관광 △관광객 대규모 유치가 관건	△질적인 관광 △자원을 고려한 적절한 규모의 관광
관광 목표	△자연자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자원의 관광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관광수입의 극대화)	△자연자원의 독특한 특성 유지 △자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을 함께 고려(관광수입의 지역적 배분)
계획 수립 방향	△개발과 보전의 조화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접근성 제고, 최대한 다양한 활동 △명소 가까이 시설물 유치 △자연환경을 위주로 한 관광 △관광지 계획수립(대상관광지 우선 고려) △관광객 선호에 부합하는 관리목표 수정	△환경보전 우선(지속가능한 발전) △관광객 경험의 질을 제고 △접근성 안내, 자연환경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 발굴 위주, 환경 우선 시설물 배치 △자연환경 및 지역문화를 고려한 관광 △지역계획과 함께 수립(주변관광지 배려) △자원특성에 부합하는 관리목표 설정
관광 활동	△모든 유형의 활동 도입을 추진 △단순 활동 위주 (보는 것, 인위적 시설 이용한 활동) △개인적인 참여 가능	△자원특성에 적합한 제한된 활동 도입 △제한된, 그러나 다양한 활동 위주 (체험, 교육, 자연과 함께 하는 활동) △전문가 또는 가이드와 함께 참여
관광의 3단계	△계획→참여→회상 △계획단계에서 참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할 수 없어 관광경험의 단순화초래	△계획→참여→생활 △계획단계에서 참여활동 유형을 결정하며 참여 전에 정보 확보로 경험의 질을 제고
관광객 관리 수단	△강제적 수단 위주, 제도에 의존 △별도의 관리인 필요 △적절한 관광객 수 유치가 관건	△비규제적 수단 위주, 정보 제공 △지역주민 모두가 관리인 역할 가능 △자원에 적합한 기능 유지가 관건
지역 주민 역할	△개발은 외주인 위주, 주민은 종사원 및 방관자 전락 △전통문화의 훼손 △지역정서에 부정적 영향 : 열등의식	△개발에 참여 가능 주민은 관리자, 가이드, 감시자 역할 △전통문화의 발굴 촉매 △지역정서에 긍정적 영향 : 자부심
지자체 역할	△관광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부담 (기반시설 설치, 환경훼손 방지, 범죄증가 등) △지자체 역할 : 민원해소에 주력	△초기 기반시설 외 대부분 개발업자 부담 △지자체 역할 : 지역주민 교육 등에 치중 (관광객, 지역주민, 개발업자 있는 역할)
자원의 관광화 결과	△자원을 변형하여 사용→자연훼손으로 인한 관광자원의 매력 감소 △관광객과 지역주민 정서 괴리에 의한 고유 전통문화 상실→환경인식 저하 △다양한 활동 도입 및 시설 유치→자연훼손 → 본래 관광객 이전→관광객 감소→지역관광 산업 쇠퇴→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함 △대규모 시설 유치→외지인 투자 중심의 개발 →이웃 관련시설과 중복투자 및 경쟁→비수기를 고려한 요금체계→바가지요금 및 종사원 불친절→지역주민 외면	△자원을 그대로 활용→자원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관광 매력 유지 △전통문화의 유지에 따른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환경인식 제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자연보전 우선→관광객 규모와 성격유치→적정한 관광산업 유지→소규모이지만 지역경제에 도움 △소규모 시설 및 기능 유치→지역자본 우선 →이웃한 도시시설 활용 우선, 관광지 시설과 보완관계→비수기 없음→종사원 친절→지역주민 대상 교육 자발적 동참

출처 : 최영국(2000).

문제는 이로 인하여 물리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관광은 그들 자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불가능한 관광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sup>3)</sup>

Pollock(2013)은 지금의 세계 관광은 환경과 문화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있다면서 대중관광이 지속 불가능한 관광인 이유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중관광은 대량화 패키지화된 상품의 조합, 분배,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그 결과로 하나의 상품은 또 다른 상품을 위한 대용이 될 수밖에 없다. 독특한 것의 상품화는 균질화, 표준화, 자동화라는 비용절감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관광객들은 관광 목적지를 여행하면서 관광자원에 대한 경외감이나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관광 목적지가 방문객들로 활기차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관광지 입장 장벽이 낮고 규제 또한 제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문객 수의 증가라는 외형적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관광개발 투기마저 조장한다. 지역 정치인들과 중종 외부의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성장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수용력 초과 등에 의해 야기된 위기에 대처해야할 정도로 오래 견디지 못한다.

셋째, 관광 상품은 영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에 기반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품은 마냥 채워둘 수도 없다. 따라서 관광 상품은 증가하는 데 비해 수요가 떨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은 가격 할인뿐이다. 가격 할인은 또 다른 문제는 야기한다.

넷째,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각종 기술 정보의 접속 가능성과 가격 비교는 고객의 구매력을 옹기게 한다. 그러면 고객은 되풀이되는 할인에 의해 값싼 여행이 특권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하향 압력을 가속화할 뿐이다.

---

3) 그동안 관광형태의 주종을 이루었던 대중관광은 대규모 단체 이용자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로 새로운 시설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과도한 이용이 관광매력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관광지의 대기과 수질의 오염을 유발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공해와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등 관광지 환경을 크게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진희, 2006).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방문객들을 환영하지만 이들의 값싼 여행이 자신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게 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값싼 여행은 관광 운영자의 마진 하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비율로 땅값, 음식, 물, 주택, 관광 인프라 가격을 인상시키게 한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많은 관광은 지역사회에 이득은 적고 비용 부담은 많이 할 뿐이다.

여섯째, 관광지의 공동체는 특정 분야에서 쓰레기, 탄소, 물 부족, 기타 외재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다시 분열된다. 자신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 관광 또는 녹색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 있는 관광업체들의 수가 더딘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중관광 체계는 철저하게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국내 학계는 대중관광의 이러한 부정적 개념의 관광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는 관광 발전을 위한 당연한 흐름이라 하겠다(박석희, 2001).

이에 대중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관광유형(또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대안관광)을 살펴보는 것은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새로운 관광유형의 등장

전통적인 대중관광은 가능한 관광 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관광객 편의 위주의 양적인 팽창을 계속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관광 개발을 지지하게 되어 심각한 환경의 훼손과 사회 문화적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새로운 관광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연을 파괴시키던 기존의 관광이 자연 친화적인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역시 지역경제의 부흥과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기존 대중관광의 대안적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농촌체험관광(Agri-tourism)도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관광(Low-carbon green tourism), Pro Poor 투어리즘(Pro Poor Tourism),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공정관광(Fair tourism), 자원봉사 관광(Volunteer tourism), 접근이 편한 관광(Accessible Tourism) 등도 있다(김남조, 2010). 최근에는 지오투어리즘(Geotourism)과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Newsome *et al.*, 2013).

생태관광은 199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학자들과 국제기구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국제생태관광학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가 내린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의 보존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이다(김성일·강미희, 2002 ; 이진희, 2006).

농촌체험관광은 말 그대로 농어촌 현장에서 농민들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몸소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도 인식케 하는 관광으로 그 대상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추진되고 있다.

Pro Poor 투어리즘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순편익을 증가시키는 관광으로 빈곤지원 관광이라 부른다. 이 관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관광사업체간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책임관광은 여행자라면 여행지 환경과 문화를 존중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관광이다. 이를 테면 여행하는 곳의 현지인들이 좋아할 선물을 준비하거나, 여행지의 전통을 따르며,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이다.

공정관광은 관광현상이 발생하는 곳에서 사람, 자연환경, 지역경제를 위해 장기적인 편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관광이다. 공정관광은 성·국적·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도 어린이를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한다.

자원봉사관광은 관광객들 스스로가 지역주민 또는 자연환경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주력하는 관광이다. 이 관광은 대체로 관광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종교적, 사회적인 비영리단체(NGO)와 관련이 있다.

접근이 편한 관광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노약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관광 목적지, 상품과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관광이다. 공공이나 민간의 모든 관광지에 적용된다.



저탄소 녹색관광은 현재의 자원을 가능한 과도한 변형 없이 활용하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이다. 결과적으로 탄소발생량이 적은 관광형태를 말한다. 관광 시설에 저탄소, 저에너지 시설(고효율설비 설치)을 적극 도입한다. 특히 관광 개발시 친환경 건축양식 도입, 탄소제로 관광여가시설 도입, 기후변화 취약성 대책개발, 녹색문화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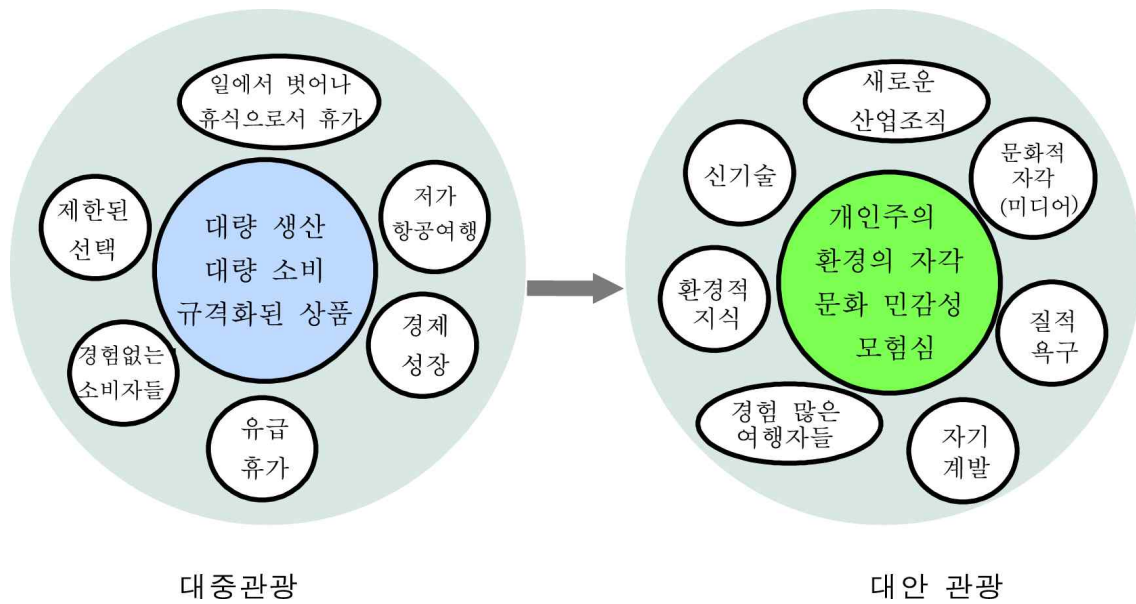
본 연구의 소재인 지오투어리즘은 자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관광과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이 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관적·학술적 가치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관광, 모험관광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광의 특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Newsome & Dowling, 2006).

이들 관광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유형들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관광의 유형이든지 그것이 지속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무리 환경 친화적인 생태관광이나 대안관광이라 할지라도 잘 계획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못한 관광이 되는 것이고, 대중관광이라 할지라도 잘 계획되거나 관리된다면 오히려 지속가능한 관광이 된다는 개념이다(오정준, 2003).

### 3) 대중관광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개

Pollock(2013)은 대중관광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개와 관련, 우리의 의식 개선부터 촉구하고 있다.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을 착취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보호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방문객을 단순히 소비 대상의 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치유하고 변모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고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은 양적으로 적고 덜 혼잡하며,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관광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5)는 대중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대안관광의 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개선하고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은 불분명하나, Vanhove(1997)는 다음의 3가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5) 대중관광과 대안 관광의 개념 비교  
출처 : 지오아카이브(<http://blog.naver.com/geoarchive>)

첫째, 시간·공간·상품 측면에서 방문객들의 소비행동에 적극 대응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문객들은 문화, 취미, 스포츠, 건강, 자연, 생태관광, 소규모 관광과 관련된 특화된 상품에 더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비용을 예상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가 얼마인가가 리조트나 관광지 개발에서 중요하다.

셋째, 방문객이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 목적지의 문화, 자연, 사람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적 자유보다 사회공동체적 자유를 맞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Ⅲ.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와 해외 사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인증에 뛰어 들고 있다. 세계 지오파크 인증은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 GGN)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유네스코 GGN을 설립할 당시 회원은 4곳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 말에는 무려 100곳으로 급증하였다. 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 지오파크의 핵심 활동이 자연보전 및 교육활동과 함께 지오투어리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우경식, 2013).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수요는 상업적인 관광 개발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다(Farsani *et al.*, 2012).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은 유럽에서 GGN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형 및 지질 명소 개발과 함께 광산과 채석장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지형 및 지질유산의 보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유럽에서 GGN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Schutte, 2009; Hose, 2011). 여기서 나오는 지형 및 지질 명소, 광산, 채석장 등이 바로 지오사이트이다.

지오파크는 하나의 지오사이트 또는 여러 개의 지오사이트가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오파크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는 지오사이트와 지오파크의 이론적 배경부터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으로 사료된다.

#### 1. 지오사이트의 개념과 현황

##### 1) 지오사이트의 개념

지오사이트는 지오파크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또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지오투어리즘이 지오파크의 핵심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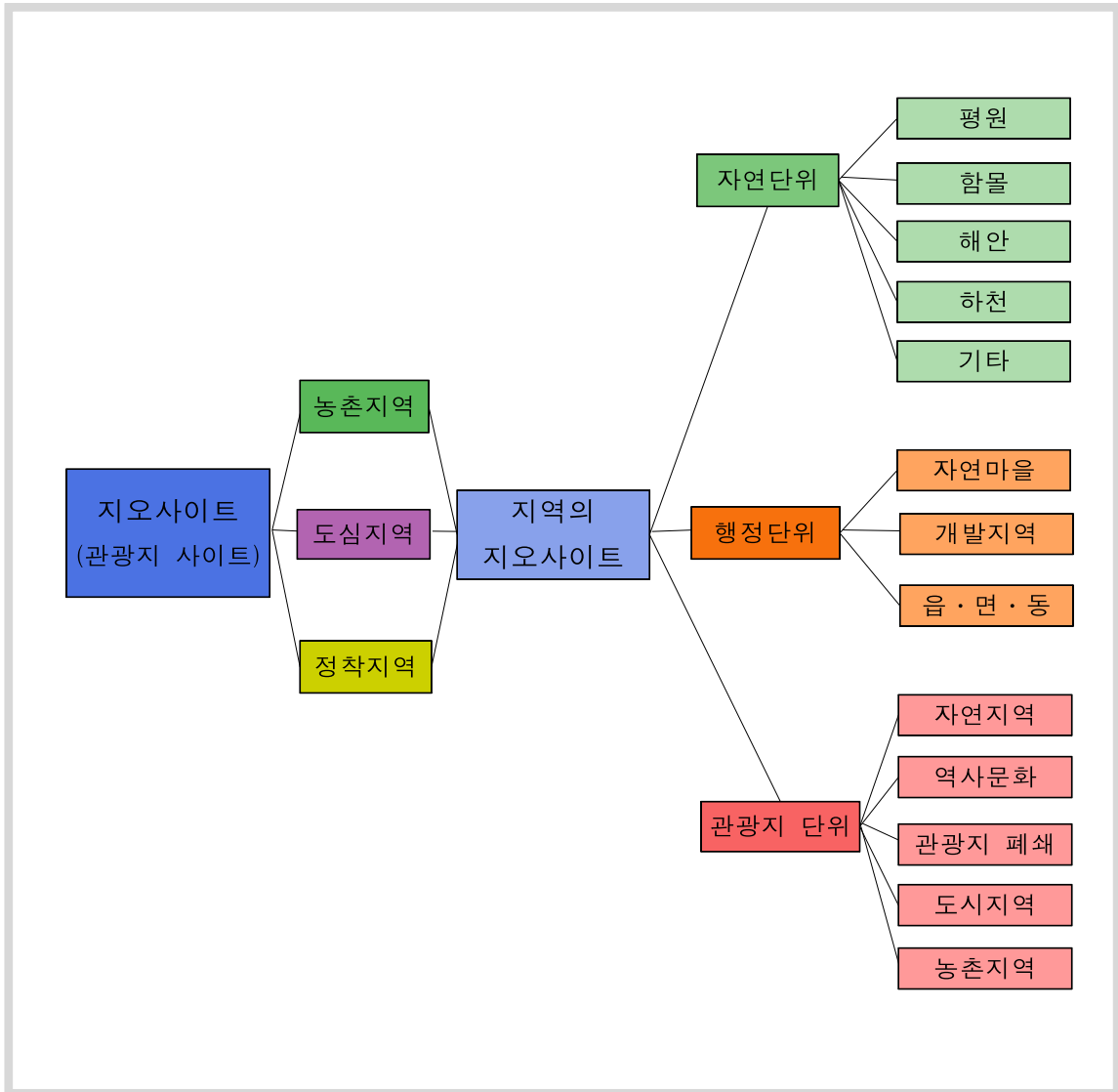
1995년 지오투어리즘을 처음 제안한 Hose(1996)은 지오사이트를 대규모의 토목 공사나 오랜 기간의 침식으로 인해 드러난 노두 또는 지층, 화석, 퇴적 기원을 알려 주는 특정한 광물이나 암석, 침식·퇴적·침강·용기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질 및 지형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Hose(2003)는 지오사이트를 1차 지오사이트와 2차 지오사이트로 구분하였다. 1차 지오사이트는 지질 또는 지형학적인 특징을 가진, 자연적 또는 인위적 그리고 영구적으로 노출된, 적어도 과학적·교육적·해설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닌 사이트라고 하였다. 앞서 Hose가 예시한 것들은 대부분 1차 지오사이트에 해당된다. 2차 지오사이트는 인공 구조물 또는 일정의 영역 내에서 1차 지오사이트의 일부 특징을 갖는 박물관과 도서관 소장품, 유산 센터 또는 방문객 센터,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며 체재하였던 지역, 기념관과 기념품 등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Newsome & Dowling(2006)은 어느 지역의 경관, 그룹 지어진 지형들, 단일 지형, 암석 노두, 화석층, 화석, 동굴, 운석 충돌 분화구, 화산, 광산 등을 지오사이트로 명시함으로써 Hose보다 광범위하게 분류하였다. 지오사이트는 지형 및 지질학적 중요성을 지녀야하고, 크기에서는 몇 m<sup>2</sup>에서 수 km<sup>2</sup>에 이르는 장소 또는 지역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지형·지질 특성(광물, 구조, 지형적 특성)은 걸출함(가치 있거나 희귀한 존재, 취약하거나 멸종위기의 단계)으로 평가, 분류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 각국들은 국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역의 뛰어난 지질 및 지형학적 사이트의 대상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과 원칙들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한 지질학적 사건이나 프로세스의 증거로 선택할 수 있는 지오사이트의 주제 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지오사이트는 지구과학 교육, 지형 및 지질자원 보전, 유산자원의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Joyce, 2010).

이상을 종합하면, 지오사이트는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장소의 지형 및 지질 특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과 연계된 역사·문화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지역 환경과 관리 단위에 따른 지오사이트 분류  
출처 : Ielenicz(2009)를 연구자가 재구성.

지오사이트의 정의에서 보호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개념은 자연 경관적, 생태적,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이수재 등, 2003). 이는 지형·지질의 가치 축을 자연과학적 가치와 인문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고 이들이 혼합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표 4). 지오사이트는 지역과 관리 단위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표 4> 지형 및 지질자원의 가치 분야 및 종류

분야	종류	사례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무생물적 자연 그 자체
문화적 가치	전승 혹은 민속적 가치	Giant's Causeway(영국), Devil Tower(미국)
	고고/역사	Stonehenge(영국), 도구 등 고고학적 유물
	영적 가치	북미 인디언 신앙지역(미국), Uluru(호주)
	상징적 장소	Dover의 White Cliffs(영국), Gibraltar의 암석
심미적 가치	지역 경관	해안가, 전원 트레일, 토속 건물
	지오투어리즘	그랜드 캐니언(미국), 피요르드(노르웨이), 로키산맥(캐나다)
	여가활동 지역	동굴탐험, 암벽등반, 래프팅, 화석수집지 등
	원격 현지감상	TV, 신문, 잡지 등에서 소개되는 것
	자발적 활동	도보로 조성, 광산 복원
	미적 영감지	문학(Hardy), 음악(시벨리우스), 그림(Turner)
연구 및 교육 가치	과학적 발견	화산작용, 지표환경의 변화, 지질과정, 지질공학 등
	지구 역사	진화, 지구의 지사, 지질고고학
	환경 감시	오염 감시 지역, 해수면 변화지역
	교육 훈련	야외조사, 전문적 훈련지
	연구 이력	지질과정의 최초 인식지역(부정합, 화성작용 등)
기능적 가치	대지	건축 혹은 기반시설 대상지
	저장과 순환	토양에서 탄소 순환, 수문순환
	건강	무기 영양소 및 광물질, 경관 치유
	매장	묘지, 매립, 지하 저장소
	오염 통제	토양과 암석의 정화작용, 차폐작용
	수 화학	광천수, 위스키
	토양 기능	농업, 삼림, 포도재배
	순환작용	충적-해안-기성 작용 등
	생태 기능	생물 다양성
경제적 가치	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지열, 수력, 조력
	산업광물	장석, 형석, 고령토, 암염
	금속광물	철, 구리, 크롬, 아연, 금, 은
	건설광물	암석, 골재, 석회암, 석고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아게이트
	화석	티라노사우르스(암컷 Sue)
	토양	식품 생산, 목재, 섬유, 주류

출처 : Gray(2004), 이수재 등(2008).

## 2) 제주의 지오사이트

화산섬 제주도는 2002년 12월 유네스코로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인정받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6월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 OUV)라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자원의 경관적·심미적 가치,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의 빼어남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의 과학적 중요성과 희소성,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 교육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부문 역시 한국 최초로 제주도 전역이 GGN에 가입되었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볼 때 캐나다의 스톤헤머 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sup>4)</sup>

이런 세계적인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토대가 바로 지오사이트라 할 수 있다. 지오파크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2009년 GGN 가입 인증을 받기 위해 한라산, 성산일출봉 응회구, 만장굴,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암돔, 용머리해안 응회환, 수월봉 응회환 등 9개 지오사이트를 대표 명소로 신청하여 이듬해인 2010년 국제 공인을 받았다(표 7). 이와 함께 제주도는 향후 10~15년에 걸쳐서 GGN 가입 추가 후보지로 14개 지역 16개의 지오사이트를 예시하였다(표 8).

제주도내 지오사이트는 이 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청은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641곳에 이르는 지역별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 명소에는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 등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지오사이트들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명소,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사적지, 유적지, 민속자료 등 국가 차원에서 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사이트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도 자연절경, 기념물, 박물관 등 자연 및 문화역사 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사이트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자체만 놓고 보면 관광 명소와 지오사이트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4)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은 일정 기간(생물권 보전지역 10년, 세계자연유산 6년, 세계지오파크 4년)을 전후하여 재평가 또는 재심사를 통과하여야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표 5> 제주도 지역별 관광지 현황

관광명소	전체	제주시 권역				서귀포시 권역			
		제주시 중심부	동부	서부	소계	서귀포 중심부	동부	서부	소계
산	10	2	0	0	2	1	2	5	8
오름	337	58	65	70	193	33	73	38	144
해수욕장	19	2	8	3	13	2	2	2	6
섬 속의 섬	19	2	4	2	8	5	1	2	8
동굴	9	0	2	4	6	1	1	1	3
폭포/계곡	10	1	0	1	2	7	0	1	8
휴양림/수목원	9	3	2	1	6	2	1	0	3
자연절경	43	8	7	5	20	12	6	5	23
유적지/사적지	50	15	5	1	21	3	2	24	29
테마공원/공연장	26	7	3	4	14	2	6	4	12
박물관/전시장	43	8	8	4	20	13	6	4	23
미술관/도서관	5	1	0	1	2	3	0	0	3
캠핑장	4	2	1	0	3	1	0	0	1
온천/찜질방	2	0	0	0	0	1	0	2	2
골프	4	0	0	1	1	0	2	1	3
수렵/활쏘기	2	0	0	0	0	2	0	0	2
ATV/카트	4	1	0	0	1	0	1	2	3
승마	6	1	0	2	3	1	1	1	3
해양스포츠	7	0	2	1	3	2	1	1	4
패러글라이딩/기타	2	1	0	0	1	0	0	1	1
체육시설	31	7	2	4	13	13	3	2	18
회의시설	1	0	0	0	0	1	0	0	1
전체	641	119	109	104	332	105	108	96	30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관광정보/관광명소)를 연구자가 재구성.

그러나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내세우고 있는 지역별 관광 명소는 제주도내 관광과 관련된 지역, 장소, 시설을 망라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제주시 중심부 119곳, 제주시 동부지역 109곳, 제주시 동부지역 104곳, 서귀포시 중심부 105곳, 서귀포시 동부지역 108곳, 서귀포시 서부지역 96곳에 이른다(표 5).<sup>5)</sup>

5) 제주시 권역의 제주시 중심부는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정식 출범하기 이전인 제주도와 4개 시·군 행정체제 당시의 제주시 지역을 말한다. 제주시 권역의 동부는 예전의 북제주군 동부 지역, 제주시 권역의 서부는 북제주군 서부 지역을 일컫는다. 또 서귀포시 권역의 서귀포시 중심부는 예전의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권역의 동부는 남제주군 동부 지역, 서귀포시 권역의 서부는 남제주군 서부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이들 모두가 지오사이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윤용택(2004)이 가장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경관으로 평가한 제주의 오름은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보호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특성을 지닌 지역이나 장소, 주민들과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유산의 범주에 들지 않는 지오사이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 관광당국은 지오사이트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들 유산자원의 보존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지오사이트와 관광 명소의 성격을 구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3) 세계의 지오사이트

세계의 지오사이트는 세계유산 사이트(World Heritage Sites)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국제기구 또는 각 나라들은 지구 과학적 특징과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유산 사이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법과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GGN) 등을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있다(표 6).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사이트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사이트로 구분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민족적, 예술적 관점에서 가치를 지닌 유적, 건축물, 장소를 지칭한다. 자연유산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지형·지질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함께 보유한 지역을 말한다. 세계유산의 지정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이다. 세계유산은 그 지역에서만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수재 등, 2009).

생물권보전지역은 일찍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발전된 개념이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계를 말한다. 이 경우 생태계를 지켜주는 지형·지질 사이트들은 지오사이트의 범주에 속한다.

지오파크는 학술적으로 중요하거나 미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이들 지형 및 지

질자원의 특성을 보전하며 우수한 보전 방법을 탐구하고 보여준다.

이들 3가지 유네스코 주관 및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세계유산은 법적 보호수준에서 가장 강력하다. 세계유산 지역은 그 취지에 부합할 경우,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지오파크로도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먼저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오파크 인증까지 중복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장굴과 성산일출봉도 세계지오파크의 대표명소로 중복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표 6> 유네스코 보호제도에 의한 지정 대상의 특성 비교

구분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오파크
지정목적	인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추구	지형·지질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추구
지정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곳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주요 생물지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미적 가치를 지닌 지형·지질 현장을 포함한 지역
지정조건	-자연유산은 경관, 지형·지질, 생물다양성, 생태가치 중 하나 이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문화와 자연유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복합유산으로 등재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핵심지역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완충, 전이 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필요	지형·지질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형·지질교육과 지오투어리즘 등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제시
보호수준	행위 제한 강함	행위 제한 비교적 강함	행위 제한 거의 없음

출처 : 이수재 등(2009)을 연구자가 재구성.

국가별 지오사이트 보호제도의 경우, 영국은 자연유산을 가장 잘 인식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형·지질유산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적 특별흥미 장소’(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 SSSI), ‘지질보전장소’(Geological Conservation Review sites : GCRs), ‘지역적 중요 지질장소’(Regionally Important Geological sites : RIGs)는 순수하게 지형·지질유산 사이트들의 보호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물보존구역을 설정하면 지형·지질의 보존효과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빼어난 경관 등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이므로, 주로 지형학적 호기심 그리고 몇 개의 중요한 화석지대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는 호주유산위원회법(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 Act)에 의해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을 운영하고 있다. 지형·지질유산 보호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호주에서는 지형·지질유산 사이트에 대하여 IDEM 방식 즉, 식별(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이수재 등, 2008).

## 2. 지오파크의 개념과 현황

### 1) 지오파크의 개념

세계 지오파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오파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형 및 지질현장으로, 생태학적·고고학적·문화적 유산을 동시에 보존하면서 연구·교육·보급에 활용하고 여기에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제도이다(<http://www.unesco.org>). 2012년 1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가 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된 국내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존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지오파크의 명칭은 특정 분야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sup>6)</sup>.

지오파크는 세계지리학연합(IGU)과 세계지질학연합(IUGS)의 상호협력 관계로 출발한 것이다.

지오파크에서의 활동은 지역의 지형·지질을 비롯한 자연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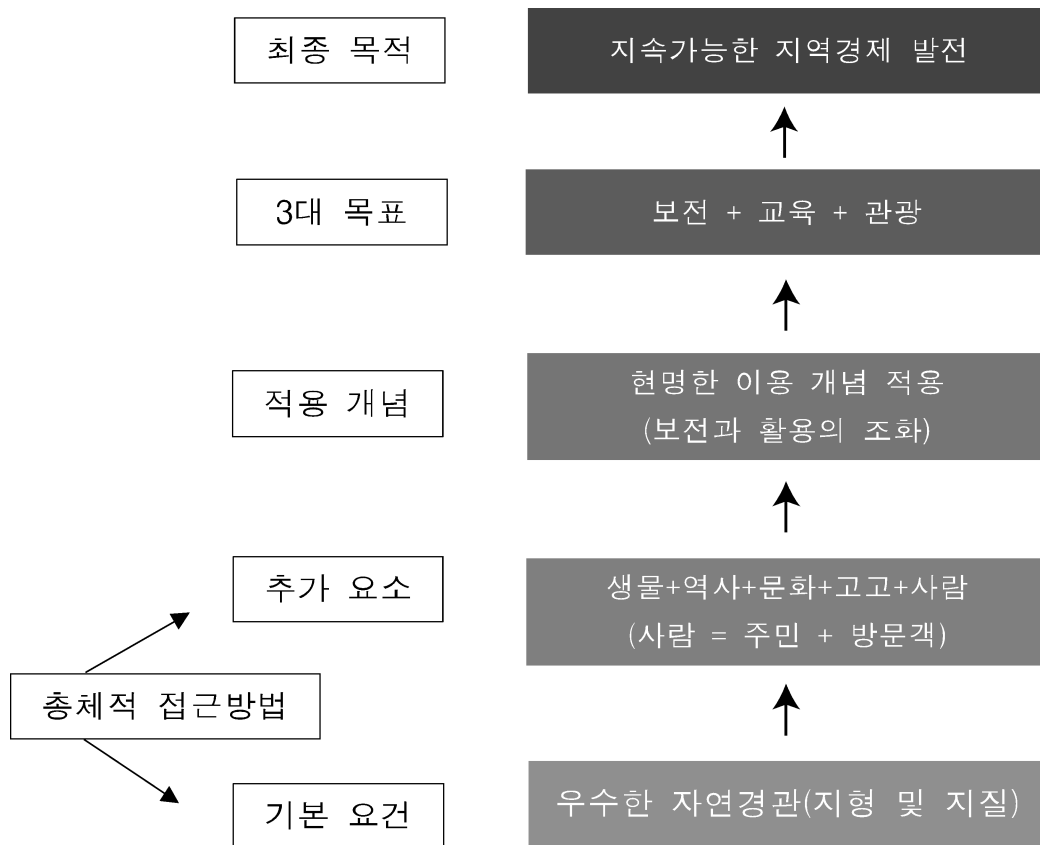
6)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세계 지오파크 인증을 기점으로 지오파크를 지질공원으로, 지오투어리즘을 지질관광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의 합의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 또는 고유명사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Geopark'는 영문 명칭대로 지오파크, 'Geotourism' 역시 지오투어리즘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지오파크는 어느 특정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지오파크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오파크의 명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오파크는 ‘지질공원’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다. ‘지질공원’이란 명칭은 유네스코에서 지오파크 제도를 만들 당시부터 활동한 중국의 Zhao가 지질학자였던 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지오파크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國際地質公園’이란 명칭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결국 ‘Geo’를 ‘지질’로 한정시켜버린 자의적 번역의 결과, 중국의 ‘國際地質公園’은 지질학 이외의 ‘Geoscience’를 제외시켜 버리게 되었다. 역으로 ‘地質公園’을 영어로 번역하면 ‘Geological park’가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오파크라는 단어 또는 개념은 1991년 일본의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하였다. 이때의 지오파크는 ‘Geology+park’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오파크 관계자들도 GGN의 ‘Geopark’ 상의 Geo는 Geology (지질학) 뿐 아니라 지구를 의미하는 접두어로 Geography(지리학), Geomorphology(지형학) 등도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토이가와시의 Geopark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3개소, 2010년 1개소가 GGN에 가입된 일본의 경우 각 지오파크 홈페이지에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세계 지오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한국 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질공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오파크 관련 기관은 환경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질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지형학회 등이다. 지오파크와 관련된 기관들은 지오파크의 명칭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김창환, 2011).

2012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연공원법에는 지질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오파크는 지질공원으로, 내셔널 지오파크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법적 명시 되었다. 결국 명칭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오파크 정착에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인 사례로 지오파크, 지오투어리즘이라는 명칭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김범훈, 2013).

지오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기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때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Martini, 2011). 그러므로써 제주 세계지오파크는 지역의 모든 자원 즉, 지형·지질, 생물, 고고, 역사 및 문화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보전·교육·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그림 7). 지오파크는 개방형 관리를 지향한다. 핵심적인 보호대상을 제외하고는 각종 규제에 의한 행위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일례로 국가의 천연기념물, 습지보호지역 등 기존의 법적 보호대상은 행위제한이 있어

서 지역주민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오파크는 핵심 대상만을 지오 사이트로 지정하고 별도의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림 7) 지오파크의 개념도  
출처 : 환경부 등(2013)을 연구자가 재구성.

이렇듯 활동 주체가 지역과 지역주민에 있다는 점,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오파크는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의 여타 환경보전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하겠다. 다시말해 행위제한이 엄격한 세계자연유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세계 지오파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오파크는 물론 자신의 지역은 물론 국가까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기대를 모은다. 세계지오파크가 21세기 자연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하겠다.

당초 지오파크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인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이수재 등, 2009). 세계유산의 경우, 그 지정 기준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지역 즉, 세계 1등만이 세계유산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아무리 우수한 대상이라도 먼저 등재된 것이 있으면 후순위로 등재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보호를 위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도 토지이용 관리방안으로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다른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벨파스트 총회(Belfast Conference)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지오파크의 장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지오파크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격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원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후 지오파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형·지질, 문화, 역사, 고고 분야의 가치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오파크 인증 신청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오파크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지역 지오파크,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지오파크(National Geopark), 대륙별 주변 국가 간에 서로 연결망을 구축한 유럽 지오파크 네트워크(EGN) 및 아시아·태평양 지오파크 네트워크(APGN), 세계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오파크(GGN)가 있다.

## 2) 제주도 세계 지오파크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세계지오파크 인증에 필요한 활동을 본격 시작하였다. 2010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도 전역이 'Jeju Island Geopark'라는 명칭으로 GGN 회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9개 지오사이트가 대표 명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2012년 12월 제주도 전역은 울릉도·독도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도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 지오파크의 대표 명소는 세계 지오파크의 9개소에다 선홍 꽃자왈이 포함된 10개소이다(그림 8).



(그림 8) 제주 지오파크의 대표 명소 10개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http://geopark.jeu.go.kr>).

<표 7> 제주 세계 지오파크 내 주요 지오사이트

지오사이트	법적인 관리상태	지형 및 지질 특징
한라산 지오사이트 군	천연기념물 182호 한라산 국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구	제주도 상징이자 순상화산의 중심.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 국립공원구역 내 40여 개의 오름 등 다양한 화산지형. 백록담은 조면암질 용암돔이 형성된 이후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분화구 형성
성산일출봉 응회구	천연기념물 420호 세계자연유산 지구	약 5,000년 전 얇은 해저에서 수성화산 분출로 형성된 사발모양 분화구를 가진 전형적인 응회구. 전 세계 수성화산 분출과 퇴적과정 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만장굴	천연기념물 98호 세계자연유산 지구	길이 7.4km로 제주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굴. 내부보존상태 양호, 학술적 경관적 가치 큰 동굴로 평가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연기념물 195호	제주도 지질진화와 밀접한 관계. 서귀포층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천자연폭포	천연기념물 27호(무태장어) 163호(담팔수), 379호(난대림지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제주 화산섬의 독특한 지질학적 변화과정의 결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443호	해안을 따라 약 2km 발달.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대 최대 높이 25m.
산방산 용암돔	천연기념물 376호	조면암질 용암돔, 인근의 용머리 응회환과 함께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지형.
용머리 응회환	공유수면보호지구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수성 화산 활동에 의한 응회환.
수월봉 응회환	천연기념물 513호	수성화산 활동에 의한 응회환의 일부. 해안절벽 화산쇄설암층에서 다양한 화산퇴적구조가 관찰.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http://geopark.jeju.go.kr>).

화산섬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다 세계지오파크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져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월봉 지역은 국제 트레일 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광훈 등, 2013).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세계지오파크 인증 신청 때 예시한 대표 명소들의 추가 인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1단계로 2014년 우도, 비양도, 선흘 곳자왈을 추진키로 하였다. 2단계(2015~2009)에는 발자국 화석산지, 문섬·범섬·섬섬, 산굼부리, 한림공원, 송악산, 섬지코지, 하는 분화구, 물영아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 추진계획인 3단계는 가파도, 단산, 마장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8).

<표 8> 제주 세계 지오파크 추가 후보지

제주 지오파크 내 지오사이트 추가 후보지	법적인 관리상태	지형 및 지질 특징
우도	천연기념물 438호	응회구, 해식동굴, 홍조단괴 해변
비양도	천연기념물 439호	호니토(hornito), 대형 화산탄
선흘 곳자왈	람사르 국제습지 등록 생태관광지역 선정	클링커, 파호이호이용암, (각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464호	사람·동물 발자국
문섬, 범섬, 쇠섬	천연기념물 421호	연산호(천연기념물 442호), 후박나무, 흑비둘기, 파초일엽(천연기념물 18호), 습지
산굼부리	천연기념물 263호	분화구(육상 동·식물)
한림공원	천연기념물 236호(용암동굴)	석회질 사구, 탄산염 성분의 동굴생성물이 자란 용암동굴
송악산	천연기념물 442호	이중 화산체, 응회환, 퇴적구조 및 퇴적상
섬지코지	.	화산탄, 모래 사구
하논 분화구	.	마르 지형
물영아리	람사르 국제습지 등록	분화구, 습지
가파도	.	순상용암
단산	.	응회환/응회구
마장굴	.	용암동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등(2009)을 연구자가 재구성.

제주 세계지오파크의 지오사이트 추가 인증에 긍정적인 신호는 2013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오파크 네트워크(APGN) 총회에서 나왔다. 세계 25개국 500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각국의 참가자들은 제주도가 자연환경의 보호와 활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제주의 소리, 2013년 9월 13일자).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제주도가 GGN 가입을 신청할 당시 약속한 관리계획과 미래실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APGN 제주총회 이전까지만 하여도 제주도 당국의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기대 이하였다. 가까운 사례로 제주도정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내내 스위스의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가 주관하는 국제적 이벤트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였다. 당시 제주도정은 제주도와 대한민국 브랜드 천년의 글로벌화를 위한 단 한번 뿐인 기회라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추진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당연히 지오파크에 대한 예산지원 등은 뒷전일 수밖에

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제주 화산섬은 2011년 11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해외 관광객 급증 등 경제적 효과부터 엄청난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국내의 매스컴들로부터 7대 자연경관 추진 과정이 무작정 전화투표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제주일보, 2012년 2월 10일자).

정책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다. 정책 입안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관심과 지원을 계속할 때, 그 정책은 빛을 발하게 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비록 한 가지 사례만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우리의 옛말처럼 제주도정은 자각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도 세계 지오파크 인증 후의 추진 과제는 뒷전이고 겉으로 생색을 내는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전적으로 제주도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3)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 GGN)

세계 지오파크는 세계유산과는 달리 아직까지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은 아니다. 유네스코는 특별지원 활동으로 세계 지오파크를 지원하고 있다(표 9).

<표 9> 유네스코와 지오파크의 관계 공식화 방안에 대한 논의

논의 방안	유네스코 회원국의 역할	GGN의 관리	유네스코에 대한 영향	지오파크 및 지역주민 혜택	재원 조달 가능성	유네스코 우선사항의 이행
(방안-1) 현 상태유지-GGN에 대한 특별 지원	특별 지원을 요청	불변	유네스코의 역할 약화. 지오파크의 발전에 약함. GGN, 대중 및 회원국 간 혼동	낮음	낮음	불충분
(방안-2) 국제유네스코 지오파크 주창	선택적 국가 위원회를 통해 인증된 GGN에 대한 지명	최소 변화 : 회원국을 위한 역할 증대	회원국 내에서 유네스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	강함	강함	충분

(방안-3) 국제유네스코 지오파크 프로그램	국가 위원 회를 통해 인증된 GGN에 대한 지명	대폭 변화 : 회원국 위한 역할 증대. 그러나 법정회의 필요	유네스코 내에서 지오파크 역할 상당히 강화. 그러나 재정지원 및 관리 필요한 국제 프로그램을 만들	강함	강함	충분
(방안-4) 정부간 지오파크 프로그램	정부간 조정평의 회·국가 위원회가 신규 지오 파크 지정	현재의 구조 가 폐기되는 아주 큰 변 화: 국제평 의회에 의한 교체	유네스코 내에서 지오파크 역할 상당히 강화하나, 재정지원, 관리 필요 정부 간 프 로그램을 만들	강함	강함	충분

출처 : 환경부 등(2013)을 연구자가 재구성.

그러나 세계 지오파크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면, 지오파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여러 혜택이 강화되기 때문에 GGN 관계자들의 노력이 주목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GGN에 가입한 세계 지오파크는 모두 29개국 100곳에 이른다. 2013년 9월 제3차 APGN 제주 총회에서 10곳이 추가된 결과다. 전체적으로 유럽에 60곳, 중국에 29곳이 밀집되어 있다. GGN 태동 10년 동안 지역적 편중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지오파크가 지형·지질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유네스코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세계 지오파크 인증이 폭 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세계 지오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관건은 외형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공식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적인 편중 해소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지오파크의 내부적 측면에서는 지오파크의 3대 목표인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의 보전, 일반 대중을 위한 지형·지질교육,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지오투어리즘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 3. 지오투어리즘의 개념화

#### 1) 지오투어리즘의 등장

지오투어리즘 관련 해외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지오투어리즘의 등장은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sup> 하나는, 영국과 폴란드 등 유럽지역의 경우다. 광산과 채석장 개발 및 복원 과정에서 비롯된 지오사이트의 노출 또는 파괴 현장을 찾아 지형과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태동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인근 지역의 문화자원까지 이해하기를 원하는 잠재적인 여행객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우선, 지오투어리즘의 바탕이 되는 자연유산 사이트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오투어리즘의 등장 배경은 아래의 내용으로 대변할 수 있다.

1970년대 말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휴양시설 개발 압력에 밀려 석탄 채광 광산들이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채석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 도시개발 또는 관광개발이란 미명 하에 광산과 채석장을 매립하고 복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의 지질학과 학생들은 지역 형성의 지도화 실습 과정에서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전에 주요 경제활동으로써 채광과 가공 산업으로 성행했던 지역에서조차 예전의 현장을 개발하고 복원하는 사업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들 현장들은 17세기 후반부터 많은 동굴과 광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해 개척되고 개발된 사이트였다. 이에 지구 과학자들은 이들 지오사이트의 과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중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대적으로 볼 때에도 채광 현장은 미적 경관과 함께 지형·지질의 거대한 노두이다. 지구 과학자들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현장들을 지오투어리즘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였다. Hose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들 지오사이트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설을 갖추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7)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Frey *et al.*(2006), Gates(2006), Schutte(2009), Slomka & Mayer(2010), Hose(2011) 등이 있다.

이르렀다. 이런 연구 사례들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는 마침내 본격적인 지오투어리즘 연구 프로그램으로 이끌게 되었다. 영국에서 지오투어리즘을 통한 지형·지질 보전을 촉진하는 도전은 화석과 오래된 광산 사이트의 연구, 동굴 탐험과 같이 적절하게 규제된 레저 활동 등 정부 차원의 지형·지질보전 전략에 의해 강조되고 추진되었다(Hose, 2011).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의 지오투어리즘 등장 배경도 광산이었다. 아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의 경우는 영국보다 더 오래된 시대로 거슬러간다.

이미 14세기부터 당시 유명한 Wieliczka 소금 광산에서는 일부 방문객들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왕실의 허락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들은 지하의 광대한 미로, 그곳의 고유한 매력과 신비에 감탄하였다. 역사적인 문서는 15세기 말 무렵부터 광산에서 관광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방문하는 그룹의 규모는 작고 일부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 목적은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광산 방문은 문화와 교육에 집중하는 방문으로 성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오투어리즘의 시작이었다. 폴란드의 Wieliczka 소금 광산은 중세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지오사이트이다. 오늘날에는 관광 코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이곳의 가이드는 광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Schutte, 2009).

이들 유럽지역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국립공원이 그 기반이 된다.<sup>8)</sup> 1872년 옐로우스톤(Yellowstone)이 일반 대중에게 혜택과 즐거움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설립된 이후 1세기 이상 지오투어리즘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

---

8)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은 391곳(2008년 4월 현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8400만 에이커(약 34만km<sup>2</sup>)에 달한다. 이들 중 국립공원의 명칭으로 지정되어있는 유닛은 58곳이다. 다른 명칭의 단위로는 미국 국립 기념물, 미국 국립 역사공원, 미국 국립 보호구역, 미국 국립 기념물, 미국 국립 역사 가도, 미국 국립 풍경 가도, 미국 국립 유산 지역, 미국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 미국 국립 경관 하천, 미국 국립 호반, 미국 국립 해안, 미국 국립 군사공원, 미국 국립묘지가 있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지질 및 지형 프로세스를 통해 각각의 특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수적으로 훨씬 많은 지역공원과 기념물들도 지질 유래와 함께 지형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도 휴가객들을 위한 목적지로 넓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휴가객들은 단지 목적지의 지질 특성보다는 경관적 아름다움과 호기심에 더 끌렸다. 19세기에 걸쳐 지질학은 미국에서(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과학이었지만, 20세기 들어 그것의 인기와 흥미는 현저하게 변하였다. 미국에서 지형 및 지질에 대한 흥미가 최고조로 오른 때는 1970년대 에너지 위기로부터 나왔다. 이즈음에 주로 길가를 따라 암석의 노출을 보고 배우는 책들이 발간되었다. 1970년대 말 지오투어리즘에서의 또 다른 진보가 미국 국립공원의 지형과 지질에 대한 입문수준의 대학 과정의 개설이다. 이처럼 성공적이고 광범위한 대학과정, 인기 있는 서적발간, TV 다큐멘터리 방영, 계속 증가하는 휴가객, 국립공원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지오투어리즘 홍보를 위한 광고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 즉 잠재적인 휴가객들은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하고 싶어 했다(Gates, 2006).

이에 National Geographic은 1997년 ‘지속가능한 관광’과 ‘생태관광’을 아우른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는 지오투어리즘을 개발하였다. 이어 2003년 미국 여행업협회와 함께 이를 공식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영국 등 유럽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지질과 지형의 감상과 이해라는 학습차원에서 태동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잠재적인 휴가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리적 특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데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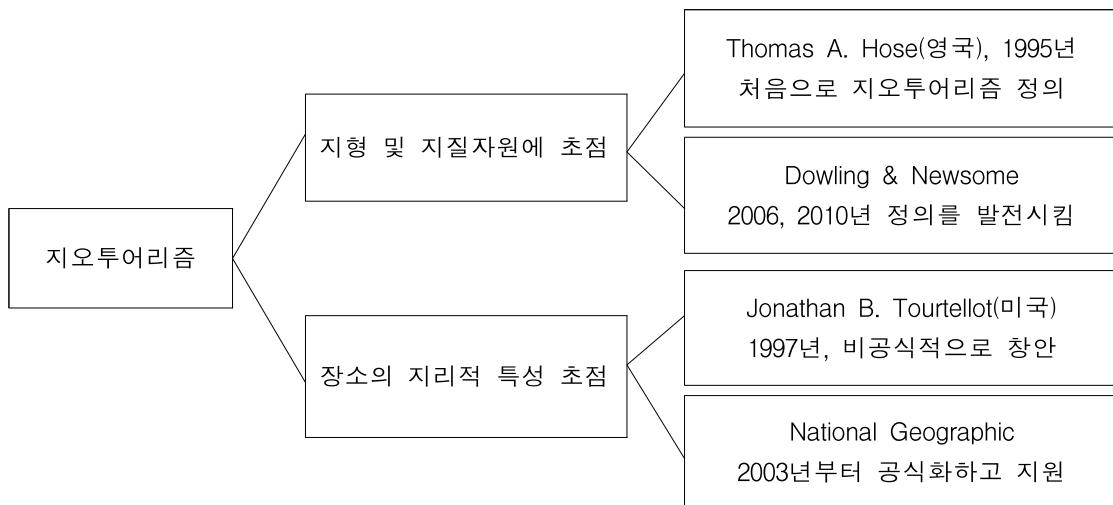
## 2) 지오투어리즘의 개념과 상이한 관점

지오투어리즘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다양하고도 뛰어난 지형 및 지질자원과 관광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어온 지오투어리즘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여가적인 관광형태와는 달리, 지형학과 지질학에다 지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Gray(2004)는 독립적인 관광이든, 생태관광의 한 부분으로서든 지오투어리즘 활

동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오투어리즘의 성장을 4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많은 관광객들은 농촌과 자연 경관에서 휴일을 즐기고 싶어 한다. 둘째, 많은 인기 있는 지형·지질 사이트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높은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의 지구과학 활동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다는 점이다. 지질 트레일, 화석 채집, 박물관과 방문객 센터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끌게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은 동굴탐사, 산악 등반, 빙하 하이킹과 같은 많은 매력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오투어리즘 공식화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관광 문헌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나 정의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Alla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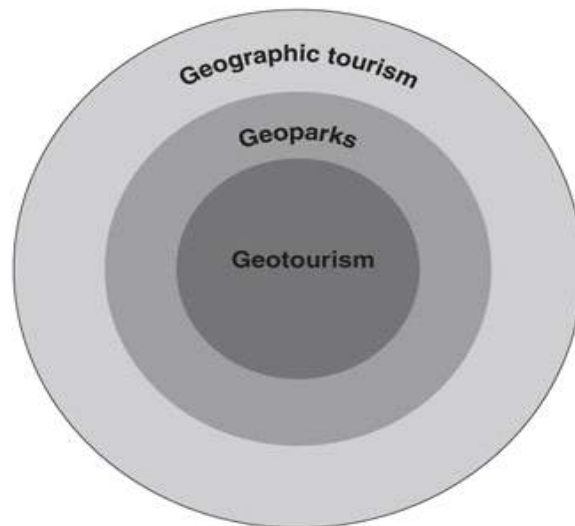


(그림 9) 지오투어리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출처 : Allan(2012)을 연구자가 재구성.

지오투어리즘은 세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그림 9).

먼저, 지형 및 지질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Hose(1995)가 지오투어리즘을 지형 및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해 미적인 감상수준을 넘어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관광객들도 현장의 지형과 지질의 학문적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데 기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공식 정의하면서 출발하였다. Slomka & Kicinska-Swidorska(2004)는 지오사이트에서 얻어지는 미적 경험과 함께 지형·지질의 프로세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관광과 모험관광으로 정의하였다. Newsome & Dowling(2006)은 지오투어리즘은 기존의 관광 스펙트럼 내에 위치한다면서 구체적이고 간결한 정의를 제안하였다. 즉, Geotourism의 ‘Geo’는 지형과 지질에 속하고 이러한 지형과 지질의 특성을 창조하는 프로세스를 감상하는데 중점을 둔 경관, 지형, 화석층, 암석과 광물 등 비생물적 자연자원에 기초한 관광이라는 것이다.



(그림 10) 지오투어리즘의 스펙트럼

출처 : Newsome & Dowling(2006).

Newsome & Dowling(2010)은 기존 정의들의 모호함에서 진전된 구체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오투어리즘은 특별히 지질과 지형 경관에 초점을 맞추는 자연지역 관광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관광을 지오사이트까지 홍보하고, 지



형·지질다양성의 보전,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구과학의 이해를 촉진한다. 이것은 자유로운 방문, 지오 트레일과 전망 포인트 이용, 가이드 투어, 지오 활동, 지오사이트 방문객 센터의 지원을 통해 달성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간 것이 지오파크이고 더 확장된 것이 '지리 관광'이라는 관점이다(그림 10).

반면에,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장소의 지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1997년 National Geographic의 수석편집자인 Tourtellot과 그의 부인은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오투어리즘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후 이 개념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어왔으나, 2003년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잡지와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해 공식 소개되었다(Stokes *et al.*, 2003).

이에 따르면 '지오투어리즘은 어떤 장소의 환경, 문화, 미학, 유산, 그리고 지역 주민의 행복 등 지리학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관광으로서 그 장소의 문화·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독특한 가치를 포함하는 자연여행'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지역의 자연적 관광자원들을 바탕으로 인문적인 관광자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까지 제공하고 있어 다른 관광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 개념의 본산격인 National Geographic은 홈페이지 상의 'Center for Sustainable Destinations'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National Geographic의 이러한 관점과 관련, 지질과 지형 특성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이 있다(Newsome & Dowling, 2010; Ollier, 2012). 특히 National Geographic의 정의는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다(Allan, 2012). 지오투어리즘,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그리고 지리관광의 혼합이라는 다차원적인 활동으로 확장하고 최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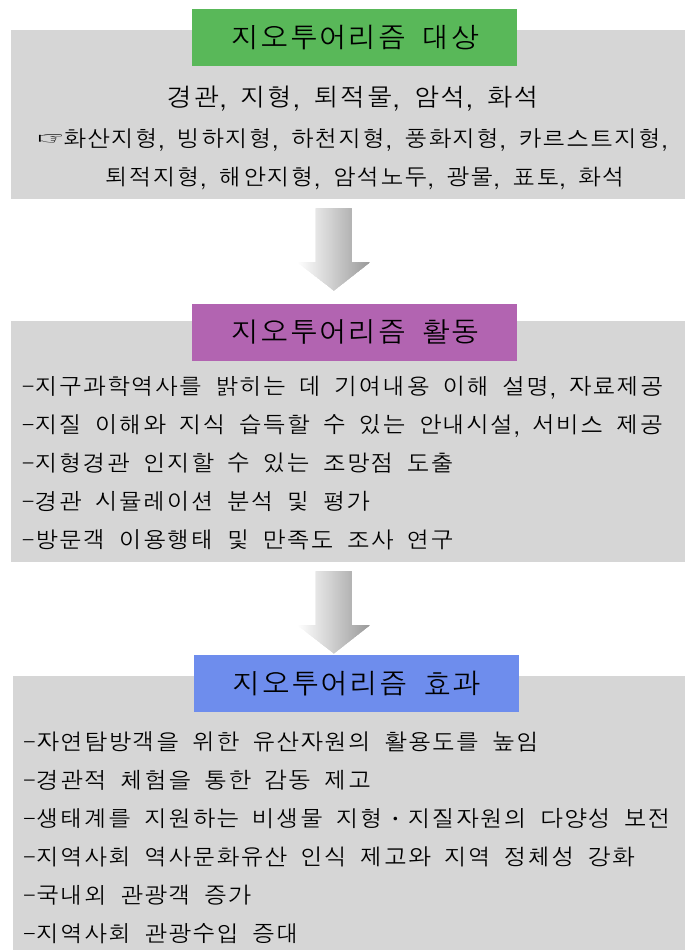
이러한 지적에 대해 National Geographic은 장소의 진정한 의미를 보호하며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원칙들은 지오투어리즘은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공동체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장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장소의 순수성(보전)을 지원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위대한 여행을 의미 한다 등이다.

<표 10> 지오투어리즘의 주요 정의들

연구자 및 단체	지오투어리즘의 정의
Hose(1995)	지오투어리즘은 지형 및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해 미적인 감상수준을 넘어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관광객들도 현장의 지형과 지질의 학문적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데 기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National Geographic (1997)	지오투어리즘은 어떤 장소의 환경, 문화, 미학, 유산, 그리고 지역 주민의 행복 등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관광으로서 그 장소의 문화·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독특한 가치를 포함하는 자연 여행이다.
Stokes 등(2003)	지오투어리즘은 지속가능한 관광 내에서 최근 생겨난 틈새관광으로 한 장소의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Fennel(2003)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의 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자연을 경험하고 배우는데 초점을 두는 관광에 기초한다,
Slomka & Kicinska-Swidorska(2004)	지오투어리즘은 지오사이트에서 얻어지는 미적 경험과 함께 지형·지질의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관광과 모험관광이다.
Pralong(2006)	지오투어리즘은 흥미 있는 지구과학적인 현상을 교훈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명소와 경관을 개발하는, 다양한 흥미를 가진 관광.
Boley(2006)	지속가능한 관광의 범주 안에서 생태관광은 자연교육과 환경관리 요소를, 공동체기반 관광은 주민복지를, 문화유산관광은 지역문화 보호를 통해 관광객들은 지오투어리즘의 진정성을 경험케 한다.
Joyce(2006)	지오투어리즘은 지리학의 관광의 부분집합이다. 지리관광객들은 지형·지질을 배우기 위하여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이다.
Dowling & Newsome (2006)	지오투어리즘은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이해, 감상과 보전, 그리고 지역의 이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지구의 지질 및 지형학적 특징을 경험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는 관광이다.
James & Hose (2008)	지오투어리즘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명소, 숙박시설, 투어, 활동, 해석, 계획과 관리와 같은 관광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 '형태와 과정'의 지질 요소로 구성된다.
Newsome & Dowling (2010a)	지오투어리즘은 특별히 지질과 지형 경관에 초점을 맞추는 자연 지역 관광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관광을 지오사이트까지 홍보하고, 지형, 지질다양성의 보전,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구과학의 이해를 촉진한다. 이것은 자유로운 방문, 지오 트레일과 전망 포인트 이용, 가이드 투어, 지오 활동, 지오사이트 방문객 센터의 지원을 통해 달성 된다
전영권(2010)	지오투어리즘은 단순히 지질학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지질관광'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보다 광의의 개념인 '지리관광'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오투어리즘 분야의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지질 또는 지형자원 자체로 관광 대상을 국한하기 보다는 문화, 역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문화 지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할 것이다.

출처 : Newsome & Dowling(2010a), Farsani *et al.*(2012), 박민영(2012)을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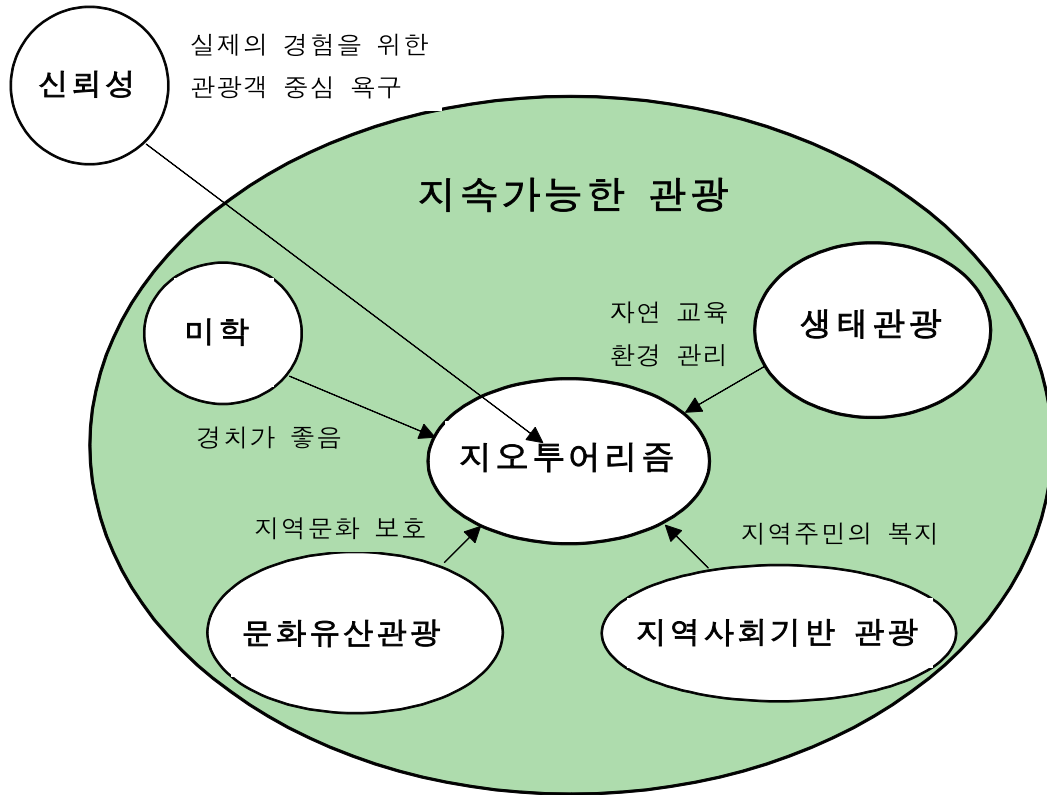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2000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이들 두 가지의 관점을 융·복합한 개념으로 인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질학계나 관광학계보다 지형학 등 지리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림 11) 지오투어리즘 개념도

출처 : Newsome & Dowling(2006), 김성용(2004)을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1)은 협의적 관점에서 지오투어리즘의 프로세스를 개념화한 것이다. (그림 12)는 지속가능한 관광 내의 지오투어리즘의 위치에 대한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과 달리 이 그림은 지오투어리즘의 정의에 대한 본질을 지리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지속가능한 관광 내의 지오투어리즘의 위치  
출처 : Boley(2009)을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2)는 지속가능한 관광 내의 지오투어리즘의 위치에 대한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은 지오투어리즘의 정의에 대한 본질을 지리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 3) 지오투어리즘과 지속가능한 관광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국내에 비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 연구의 틀 속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키워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지오투어리즘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임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은 자연적인 자원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자원까지, 그리고 자연 지역만이 아니라 도심 지역까지, 또한 교통·접근성·숙박시설과 서비스·훈련된 스태프·계획과 관리 등 관광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정부·지자체·투자자·주민·지역공동체·환경단체와 대학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의 발전은 곧 지역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주목한다.

Dowling & Newsome(2010a)은 지오투어리즘 자체가 지역 명소의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보전 의식고취와 함께 전통적인 고유한 역사·문화를 감상과 이해의 방법으로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모으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규정한다.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자원이 있는 곳이면 자연적 경관과 인위적 경관 모두가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해설과 안내를 통해 지형·지질자원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전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관광객에게 만족도 높여주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지오투어리즘 세부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이상적인 대안관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rsani *et al.*(2012)은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오투어리즘은 관광활동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마케팅에 있어 토착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은 여행자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문화적 소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National Geographic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무엇보다 관광목적지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안전을 의사의 윤리 강령처럼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본으로 받아들인다.

국내의 경우, 지오투어리즘 도입 역사가 10여 년 남짓한 짧은 관계로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지형 및 지질자원 발굴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

리적 특성을 탐방하는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Stokes *et al.*, 2003). 이에 따라 지오투어리즘 연구에서도 지형 및 지질자원의 보전 및 활용 방안과 함께 지형 및 지질자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문자원의 내재적 가치인 고유성, 특이성, 상징성 등과 연계하여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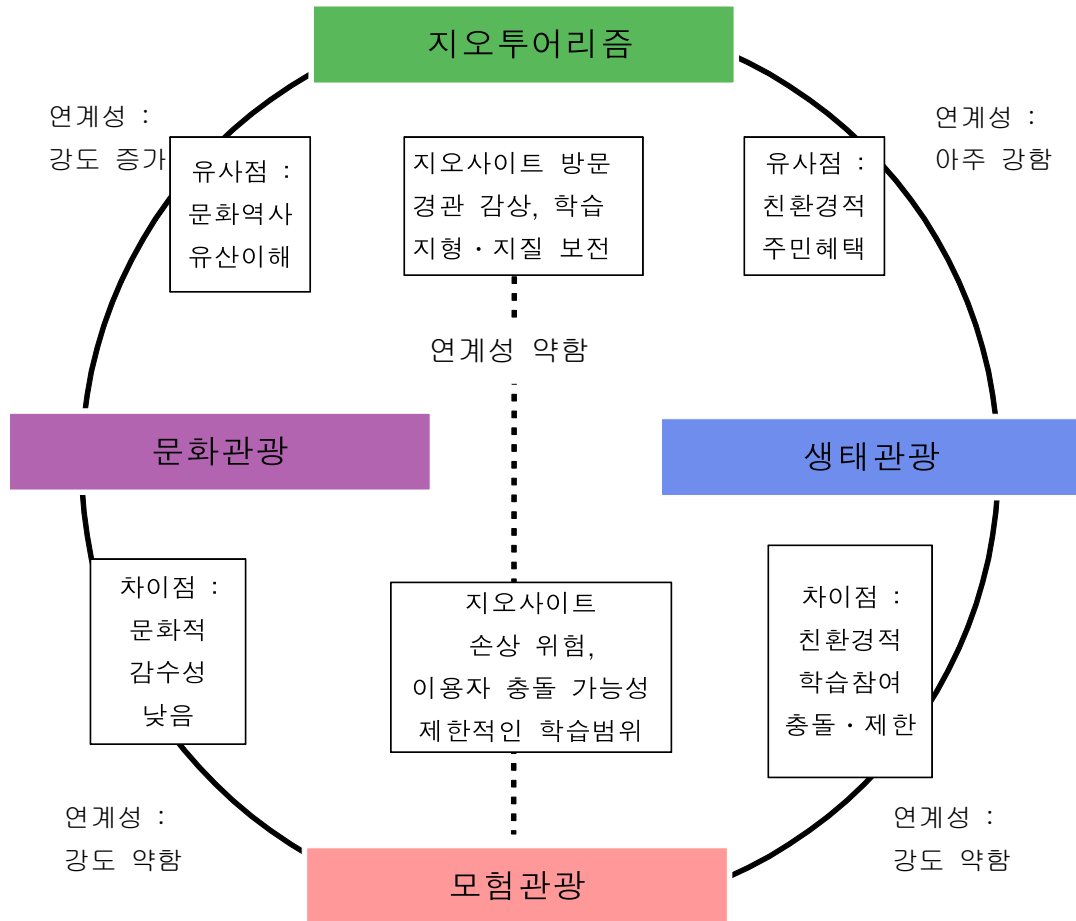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을 기존의 ‘Geological Tourism’이란 협의적 개념보다는 ‘Geographic Tourism’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제주인들의 삶과 동떨어진 단순한 물리적인 자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질곡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인문화 된 자연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형과 지질 중심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는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로 범위를 넓히고 그 대상을 인문적 특성, 곧 문화·역사와 주민의 일상적 삶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럼으로써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이야말로 제주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이며 명확한 개념 설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화산섬 제주의 지형 및 지질자원의 가치를 감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존 마인드를 길러준다. 이와 함께 제주의 탄생 설화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와 제주 4·3사건 등 근현대사에 이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이로써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 4) 지오투어리즘과 다른 관광 유형과의 관계

Pralong(2006)에 따르면 지오투어리즘은 자연과 문화 관광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흥미롭게도, Brozinski(2009)는 지오투어리즘의 명확한 정의의 결핍은 많은 예상치 못한 논쟁들을 가져온다고 전망하였다. 어떤 논쟁들은 기대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지만, 다른 논쟁들은 창조적이면서도 예기치 않은 파생적

인 활동을 이끌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오투어리즘 캐나다 웹사이트의 경우, 지오투어리즘을 지오키싱(geocaching)<sup>9)</sup>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13) 지오투어리즘과 생태관광, 문화관광, 모험관광의 관련성 비교  
출처 : Newsome & Dowling(2010) 을 연구자가 재구성.

Buckley(2009)는 지오투어리즘을 생태관광을 위한 관련 용어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owling & Newsome(2010a)은 생태관광과 지오투어리즘의 특성 사이에 친환경적이고 주민 혜택을 추구한다는 등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분명

9) 보물찾기 놀이의 일종으로 보물의 좌표가 주어지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해 찾아내는 방식이다.

한 차이점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은 주로 지형과 지질 등 비생물적 자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생태관광은 식물상과 동물상의 범주처럼 살아있는 생태계 환경의 주요한 특성에 집중한다. 둘째, 지오투어리즘과 생태관광은 행해지는 장소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생태관광은 주로 자연지역에서 가능한 반면, 지오투어리즘 활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자연지역에서든, 인위적인 장소에서든 어디서든 가능하다. 지형과 지질 등 비생물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4계절 관광이 가능함으로써 계절적 제약까지 받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또한 지오투어리즘은 어떤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다양한 여행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이나 해안지역 또는 산악지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심지역까지 관광목적지로 경험케 하는 등 생태관광과의 차별적 특징이 다양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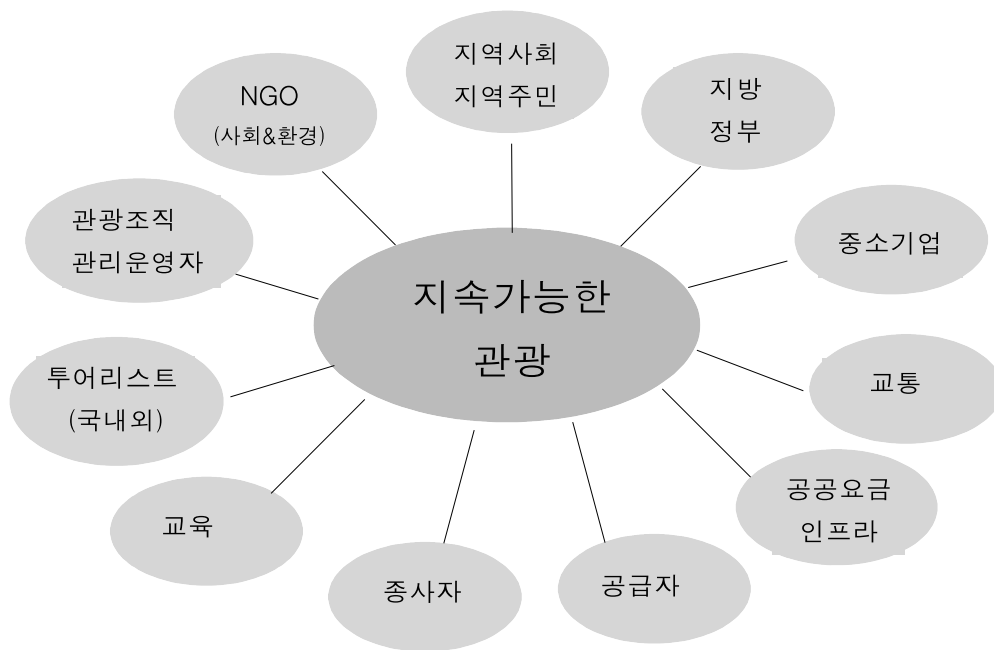
여기에 문화관광과 모험관광까지 포함한 논의는 (그림 13)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 그림은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지형 및 지질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 4.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유산 관리자, 관광 사업자, 방문객,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환경을 보전하며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 관리하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단계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현황 분석→ 비전과 목표의 설정→ 지오투어리즘 상품 개발→ 방문객 지향 해설→ 평가와 모니터링이라는 5단계의 과정으로 살펴본다.<sup>10)</sup>

10)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5단계 과정은 'Principles on Implement of Sustainable Tourism'(UNEP, 2004), 'Steps to Sustainable Tourism : planning a sustainable future for tourism, heritage and the environment'(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of Australia Government, 2004), 'South Australian Tourism Plan'(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07),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그림 14)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해관계자들

출처 : Conservation International an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2005),  
APEC TOURISM WORKING GROUP(2010)을 연구자가 재구성.

### 1) 이해관계자의 참여

관광은 변화의 주요한 견인차이다. 특히 21세기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관광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낳고 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지역사회가 관광의 이러한 모든 결과와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는 관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광의 잠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관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광이 지속가능하게 전개되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고, 누가 참여하여야 하

---

Planning in Biosphere Reserves-A methodology guide'(Gebhard *et al*, 2007), 'Effective Community Based Tourism : A Best Practice Manual'(APEC TOURISM WORKING GROUP, 2010)에서 제안된 지속가능한 관광의 방법론을 인용, 종합 하였다.

는지 등 관광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관리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각종 개발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의 계획된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 과정 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계획 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담론 형성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현대적 접근방식은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조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Gebhard *et al.*, 2007). 그 목적은 지역의 관광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관광관리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비전에 기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해관계자들은 (그림 14)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어쩌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자연 및 인문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며,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관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하고 타당한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양할 터이지만, 호주 정부의 환경과 유산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of Australia Government, 2004)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기존 보고서를 읽어보기, 필요한 경우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개인 또는 단체를 찾아봄으로써 이해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충적으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과 이해관계자가 갖는 관심의 본질을 이해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모임, 소규모 단위의 워킹그룹, 서면 제출, 신문·방송 등 미디어에 의견 개진, 공공 전시, 정보 안내 투어, 회의 또는 워크숍 참가 등 다양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가능한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여러 단계의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 2) 현황 분석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전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이슈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은 전개 과정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현재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정밀 검사하는 데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의 평가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내부 환경은 외부 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어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외부 환경은 내부 환경과 달리 자체가 갖는 잠재성이 높을 수 있다. 경쟁적인 다른 비즈니스 및 시장 환경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내부 및 외부 환경의 정확하고 철저한 평가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De Bruyn *et al.*, 2005).

<표 11> SWOT 분석에서 고려되는 예상 질문들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 우위는 국제적인가?</li> <li>-지방행정의 미래 혁신 능력은?</li> <li>-운영조직의 시스템 분배는 체계적인가?</li> <li>-마케팅 능력의 향상은?</li> <li>-브랜드 인지도의 향상은?</li> <li>-투자비용 대비 수익 우위는?</li> <li>-접근성은?</li> <li>-지오사이트 자원의 강점은?</li> <li>-관광객들의 평판/이미지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 및 오염시설이 있는가?</li> <li>-관리능력은 현실 안주형인가?</li> <li>-브랜드 질의 저하가 제기되는가?</li> <li>-마케팅 이미지의 취약성은?</li> <li>-연구와 개발역량의 취약성은?</li> <li>-마케팅 능력은 취약한가?</li> <li>-자금력이 부족한가?</li> <li>-운영비용은 높은가?</li> <li>-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은 부정적인가?</li> </ul>
기회(Opportunities)	위기(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오사이트 추가 개발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의 파괴 훼손 정도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시장 진입 가능성?</li> <li>-확대되는 위협에 대처 능력은?</li> <li>-여행업자와의 개선은?</li> <li>-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은?</li> <li>-마케팅 능력 개선은?</li> <li>-규제에 대한 개선은?</li> <li>-국제적 인지도 향상 지속가능성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개발압력은 가중될 것인가?</li> <li>-새로운 경쟁자가 있는가?</li> <li>-마케팅 성장속도는 느린가?</li> <li>-고객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비하는가?</li> <li>-경기둔화는 지속될 것인가?</li> <li>-규제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가?</li> <li>-인구 변화는?</li> </ul>
---	---

출처 : Schutte(2009)를 연구자가 재구성.

무엇보다 관광은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현황 분석은 지역 관광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현황 분석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오투어리즘의 SWOT 분석이다. 이는 간결하면서도 문제를 확실하게 식별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체계적인 분석방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미래의 기회와 위기의 가능성을 고려한다(호주 정부의 환경과 유산부, 2004).

여기서 강점은 지역관광이 경쟁자들을 통해 우위를 갖는 자원 또는 능력을 말한다. 약점은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회는 지역관광 환경이 갖는 잠재적인 유리한 조건들이다. 위기는 지역관광 환경의 현재 또는 미래 위치에 대한 불리한 여건이나 장애를 일컫는 것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표 11).

SWOT 분석의 주요 항목은 지역의 이미지, 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체계, 지역적인 이해관계자들, 교통, 숙박시설과 음식 서비스 수준,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인프라, 이벤트,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후조건, 관광의 현황을 들 수 있다(Gebhard *et al.*, 2007). 따라서 SWOT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해당 지역의 관광활동에 해결해야 하는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의 분석방법은 지오투어리즘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석이다. 관광개발을 위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고려사항도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은 관광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소들이 상호 연결을 갖는 맥락에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석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다.

UNEP(2004)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환경의 질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광의 환경적 분석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관광산업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일컫는 것으로 관광이 지역사회의 가치체계나 행동에서 변화를 야기할 때 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관광의 긍정적인 결과는 관광이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개발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광의 경제적 영향은 지역사회와 방문객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영향과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경제개발은 긍정과 부정적인 결과 모두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3) 비전과 목표의 설정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참여시킨 가운데 SWOT 분석을 통해 관광 및 문화유산의 가치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를 갖게 되었다면,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다음 단계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보를 토대로 무엇을 달성하고자하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계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비전과 목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해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비전과 목표의 구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행동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호주 정부의 환경과 유산부, 2004).

Gebhard *et al.*(2007)에 따르면 비전은 개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 상태를 말한다. 비전은 세부 목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달성하기위한 것이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상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비전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때로는 환상에 그치고 불가능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비전을 창조하는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검색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탐구하면서 공통점을 찾기 위한 민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공통 비전이 창안되면 다음 단계는 비전을 다른 목적들로 나누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각각의 목표로 다시 세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첫 질문은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단계가 바로 목표의 설정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명확한 목표로 부터 예상되는 결과를 만들고, 활동을 적용할 장소를 정해야 한다. 실천 활동에 필요한 정치, 법률, 조직, 유익한 정보, 경제 등의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된 목적들은 프로그램 및 주요 활동들로 그룹화하여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제시된 목표는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이상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우선순위는 각각의 목표에 대한 기간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 4) 지오투어리즘 상품 개발

사실 관광 상품이 시장성이 없다면, 방문객들은 찾아올 이유가 없다. 따라서 관광 상품을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오투어리즘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상품 개발은 관광 목적지의 지역사회 특징과 자산을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형 및 지질유산 특징을 지닌 지오사이트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자산과 지역의 강점, 이를 테면 지역적 환대의식, 공예품, 문화축제도 상품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관광 상품은 이러한 자연과 문화적 자산 주변에 구축되는 경향성을 갖는다. 관광상품의 특징 목록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제공하고 싶은 관광경험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APEC TOURISM WORKING GROUP(2010)은 잠재적인 자산의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문객들이 무엇을 보러 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광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잠재적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산지, 숲, 경관 같은 자연적 특징과 자원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축제, 지역 음식과 복장, 전설을 포함하는 문화적 사이트, 전통, 역사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자산이나 관광 상품을 지역 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광 사이트와 근접 위치하고, 서비스와 능력 있는 관리자를 확보하며, 국가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고, 관광 명소나 활동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 5가지 사안을 구비할 때 관광 상품이 효과적으로 팔릴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5) 방문객 지향 해설

관광 목적지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표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Weaver(2006)은 해설은 설명 매체를 통한 사실적인 정보 전달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의 독특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Hose(2006)는 많은 경우에 현장 설명식의 해설은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지적하는 이유들은 세세함의 정도가 부족하고, 해석을 듣고 이해하는 청중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으며, 방문객과 소통하기 위한 해설의 규칙이나 원칙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방문객 지향 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표 12> 해설에 관한 이슈 확인 예상 질문들

질문	상세한 질문
해설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지형·지질유산 가치는 방문객에게 얼마나 잘 해설되고 전달되고 있는가? -어떤 유산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강하게,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어떤 관점이 해설에 도입되고 있는가? -해설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있는가? -해설은 방문객의 활동범위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가? -해설 프로그램에서 교육적 요소들은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가?

출처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of Australian Government(2004)을 연구자가 재구성.

(표 12)는 호주정부의 환경과 유산부(2004)가 제시한 관광 목적지의 방문객 경험을 대상으로 해설에 관한 이슈들을 확인하는 예상 질문들이다. 해설 방식으로는 현장 대화식 이야기, 방문객 센터, 축제와 이벤트, 가이드 또는 셀프 가이드 트레일, 해설 안내판, 잡지를 포함한 다양한 간행물, 전시, 슬라이드 쇼, 비디오 등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다. 해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방문객의 즐거움과 편의 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방문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도 있는 경제적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지오투어리즘 목적지에서 방문객 지향 해설의 중요한 사례다.

호주의 대표적인 바위 구조로써 길이 100여m, 높이 10여m 규모로 늘어선 화강암의 자연 돌출 벽이 마치 해변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그대로 정지한 것 같다는 Wave Rock. 이 암석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소리도, 상호 작용도 없다. 지오투어리즘 측면에서의 해설은 암석에 대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방문객들에게 ‘살아있는(alive)’ 상태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Wave Rock과 관련된 이슈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Wave Rock을 보려면 걸어서 4시간의 힘든 여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단지 Wave Rock을 보기 위한’ 긴 여정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제대로 된 트레일도 없고 해설을 미흡했다는 불평을 쏟아냈다. 이의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Wave Rock 경험의 확장’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즐거움의 기대를 산산 조각나게 했던 긴 여정에 Wave Rock에 도달하기까지 중간 중간에 해설이 있는 이야기 현장을 발굴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도 높일 수 있었다(Newsome & Dowling, 2006).

결국 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소의 이해를 높이고 즐거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방문객 지향 해설의 포커스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 6) 평가와 모니터링의 이행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의 마지막 단계는 성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의 이행이다. 모름지기 대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에서조차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리계획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이들 기업은 평가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이행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Thompson & Strickland(1995)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 목적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결코 끝이 없으며, 성과를 평가하고 주위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며 모니터링에 의한 조정과정은 필수적인 관리과정임을 강조하였다. De Bruyn & Klopper(2005)는 기업의 전략적인 관리 과정은 기업 목표, 성과 평가, 피드백(또는 시정조치)이라는 세 가지 기본요소를 갖는데, 이들 모두는 관리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성과를 평가하는 주된 목적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관리계획이나 전략적인 추진 과정의 문제 영역을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능 평가는 실제 성과와 계획된 성과를 우선 비교하게 된다. 기업의 성과 평가는 목표에 대한 실적 평가뿐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와의 비교 평가에도 유용할 것이다.

모니터링은 관광관리 계획의 목적과 목표, 실행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한다(Gebhard *et al.*, 2007).

평가와 모니터링은 다른 시간적 척도를 가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작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중기적으로는 계획 목표의 결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작업의 영향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

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데이터 수집, 평가, 보고라는 세 항목의 연속 단계로 구성된다. 평가 및 보고는 수집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효 데이터의 심층적인 편집은 좋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지역 사회의 참여이다. 모든 모니터링은 전문가들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지역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을 데이터 수집과 같은 업무를 맡긴다면 모니터링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찰력은 모니터링 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Gebhard *et al.*, 2007).

Dwyer & Edwards(2003)은 관광계획의 평가와 모니터링은 관광계획이 지속가능한 실천을 달성하고 있는지와 미래의 도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당초 계획된 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자원들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미래의 도전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전과 목표는 여전히 적절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달성의 전제조건은 관광 상품이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을 달성한 화산섬 제주도의 경우를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모든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은 세계자연유산 구역인 한라산 국립공원,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상대 기초과학연구소, 2009). 모름지기 평가와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 자원의 완전성(보전성)을 유지, 향상 또는 복원하고, 자원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데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관련 학계와 학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 5. 해외 지오투어리즘 사례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는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성산일출봉이 제주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라는 점과 유산마을 공동체와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자연유산인 호주의 Greater Blue Mountains Area, 세계지오파크인 영국의 English Riviera Geopark와 그리스의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 국가지질공원인 대만의 Yehliu Geopark, 지역공동체 기반 관광을 실천하고 있는 캐나다의 Chemainus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앞서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트렌드부터 살펴보고 유네스코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사이트로 평가를 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실패(위험에 처한 세계자연유산)한 사례부터 짚어보았다.

### 1) 해외 지오투어리즘 트렌드

Dowling(2011)은 세계적으로 지오투어리즘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트렌드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그동안 잠재해 있던 지오투어리즘이 빠르게 가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 범위만 하여도 지오투어리즘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까지 적용이 가능 범위가 넓다. 자연지역을 위주로 하는 생태관광과는 달리 지형 및 지질 자원 등 무생물을 주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이르기까지 장소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또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트너십 구축은 성공적인 지오투어리즘으로 가는 핵심이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Grand Canyon Skywalk’를 들 수 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서쪽 인디언 땅 위에 자리한 Skywalk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원주민 Hualapai 부족을 위해 설립한 관광 시설이다. 2007년 개장한 이후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장 큰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Skywalk는 그랜드 캐니언의 바닥에서 4,000피트(약 1,200m) 올라온 협곡의

가장자리에서 말의 편자모양인 켈틸레버식 다리가 130피트(약 40m) 규모로 세워진 관광시설이다. 관광객들은 협곡의 가장자리에서 공중으로 뻗어나간 유리 재질의 다리에서 ‘새의 눈’(bird’s eye)을 갖고 협곡의 바닥은 물론 갖가지 경이로운 지형과 지질학적 형상들을 감상할 수 있다. Hualapai 부족은 자신들의 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숨이 막힐 듯한 경관 인프라까지 공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자족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뛰어난 해설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오투어리즘 개발 가운데서 두드러진 트렌드는 우수한 해설 개발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북미 지오투어리즘 가이드북 24권 시리즈인 ‘Roadside Geology’는 지역의 역사, 지질, 지형을 지도와 도표, 사진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넷째, 세계 각국이 유네스코의 세계지오파크 인증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지오파크 회원들 간 각국의 중요한 지오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지식, 경험,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위협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 (1) 현황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자손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산이다. 그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며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자연 및 문화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2014년 1월 현재 세계 190개 국가에서 981곳이 등재되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은 759곳, 자연유산은 193곳, 복합유산은 29곳이다.<sup>11)</sup>

11) 유네스코는 1972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전 세계 국가와의 협력을 다짐하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약칭 ‘세

그러나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번 파괴된 유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래처럼 다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산 관리자, 관련 공동체, 지역주민 등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은 지오투어리즘을 통한 활용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지오파크와는 달리, 보존 및 보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로 하여금 유산의 보존 상태와 보호활동에 관하여 6년을 주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륙별로 나누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보고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 조치 가운데 하나가 문제의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당사국은 해당 유산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존현황과 복원대책 등을 매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산재해 있는 많은 세계유산들은 지진, 화산활동, 쓰나미 등의 지각변동에 의한 요인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홍수, 폭풍우 등의 기상적인 요인과 지구온난화에 엘니뇨와 같은 기후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 인간의 무분별한 동식물의 포획과 살상, 경작지 확대를 위한 파괴,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 무분별한 개발정책 등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다(임근욱·진현식, 2010).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간 유산 가운데 파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특별히 관리해 오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유산이 26개, 자연유산이 18개이다.

<표 13>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현황

(2014년 1월 기준)

구분	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계유산	981	759	193	29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44	26	18	

출처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www.unesco.org>)

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고, 2014년 1월 현재 19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표 14> 위협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현황

(2014년 1월 기준)

구분	위협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세계유산 등재 연도	위협유산 목록 연도
벨리즈	벨리제 산호초 보호지역	1996	200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마노보-군다 성 플로리스 국립공원	1988	1997
콜롬비아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	1994	2009
코트디부아르	코모에 국립공원	1983	2003
코트디부아르/기니	님바산 자연보호지역	1981	1992
콩고	비롱가 국립공원	1979	1994
콩고	가람바 국립공원	1980	1996
콩고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	1980	1997
콩고	오카피 야생생물 보호구역	1996	1997
콩고	살롱가 국립공원	1984	1999
에티오피아	시헨 국립공원	1978	1996
온두라스	리오 플라타노 생물권보전지역	1982	2011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열대우림	2004	2011
마다가스카르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2007	2010
니제르	아이르 테네레 자연보호구역	1991	1992
세네갈	니오콜로-코바 국립공원	1981	2007
솔로몬제도	동 렌넬	1998	2013
미국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1979	2010

출처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www.unesco.org>)

(2) 위협에 처한 사례 : 벨리제 산호초 보호지역(Belize Barrier Reef Reserve System)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의 벨리제 산호초 보호지역은 ‘산호초의 천국’, ‘카리브 해의 보석’으로 불린다. 북반구에서 가장 큰 산호초, 해양 산호섬, 수 백 개의 모래 암초, 해안 석호와 사구, 그리고 연연지역의 산림생태계인 맹그로브 숲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빼어난 자연 시스템을 지닌 해양 지역이다.

특히 벨리제 산호초 보호지역의 그레이트 블루홀(Great Blue Hole)은 폭 300m, 깊이 125m 규모로 수많은 산호초와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는 청정 해역이다. 세계 10대 스쿠버다이빙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지구의 블랙홀’이라고도 부른다(그림 15).



(그림 15) Belize Barrier Reef Reserve System의 Great Blue Hole

출처 : <http://www.cnn.com>

그러나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개발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공공용지까지 팔려나가면서 해양 보호지역의 산호초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통제되지 않은 관광개발과 이로 인한 해양오염, 여기에다 해양 운송과 마구잡이 어선 행위로 인해 산호초가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의 상승,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산호초 파괴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관광개발 등으로 인해 산호초가 대량으로 백화현상에 시달리고 이는 결국 산호초의 파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98년 이후 자연그대로의 산호초의 40% 이상 손상된 상태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였다(Wikipedia, <http://en.wikipedia.org>).

그런가하면 맹그로브 숲이 각종 관광시설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벌채 되었다. 맹그로브 숲의 60% 이상 파괴되었고, 모래와 자갈 준설로 채워졌다. 결국 이러한 파괴는 그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해양생물의 피난처를 제거하는 제2, 제3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파괴된 지역의 약 5%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지원으로 다시 식목되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에 의한 불법어로 행위가 성행하고 외래종의 침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도 이루어지고 있다(임근욱 · 진현식, 2010).

이처럼 보호지역으로서의 기능 상실에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관리능력 부재와 관련 공동체 및 지역주민들의 공동협력 또한 부재한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IUCN은 2009년 벨리제 산호초 보호지역을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매년 보존 및 복원대책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 3) 해외 지오투어리즘 사례

#### (1) 호주의 Greater Blue Mountains Area

##### ①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

블루 마운틴 산악지대(Greater Blue Mountains Area)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칼리나무의 산림 숲으로 뒤덮인 해발 1,100m 전후의 광활한 사암 고원으로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시드니 근교의 손꼽히는 휴양 관광지이다.

해발 1,000m이하에서 최고 1,300m 이상 솟아있는 산들이 대부분 붉은 색을 띠는 채로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험준한 수직 협곡, 힘차게 굽이쳐 내리는 폭포 등으로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부를 만큼 웅장하고 위엄 있는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산악 국립공원이다.

특히, 블루 마운틴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의 신비로운 진한 푸른빛이다. 이 푸른빛은 유칼리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의 태양광선을 통과할 때 파장이 가장 짧은 푸른빛을 반사하면서 빛어지는 푸른 안개 현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롭게 다가온다.

블루마운틴 산악지대에서 연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카툼바 지역의 에코 포인트(Echo Point)이다. 짙은 원시림을 배경으로 들어선 전망대에서는 세 자매(Three Sisters)의 전설을 간직한 특이한 세 개의 기암 봉우리를 비롯하여 블루마운틴의 탁 트인 절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세자매봉은 비슷한 세 개의 사암층 바위가 융기한 형태다. 이곳은 에코 포인트에 아름다운 세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왕이 이들을 자기의 아내로 만들려하자 주술사가 이들 세 자매를 보호하려고 세 개의 바위로 만들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그림 16).





(그림 16) Echo Point에서 보는 세자매 봉과 탁 트인 산악공원지대

출처 : <http://www.westernsydney.nsw.gov.au>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블루 마운틴 산악지대에서 우점하고 있는 유칼리 나무가 곤드와나 대륙시대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고립된 채 진화하여 오면서 보여준 적응성, 상당수의 희귀종과 멸종 우려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잘 대표하는 지역이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 ② ‘Leave No Trace Australia’ 교육 프로그램

블루 마운틴 산악지대는 매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자연훼손 또는 파괴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수질오염과 쓰레기 발생 등에 의해 세계적인 자생식물과 야생동물이 받는 스트레스와 위해 현상이 갈수록 증가 우려에 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세계자연유산 보존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Leave No Trace Australia)는 캠페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블루 마운틴의 야외 윤리로써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Plan Ahead and Prepare), 단단한 표면 위에서 여행하고 야영한다(Travel and Camp on Durable Surfaces),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한다(Dispose of Waste Properly),

당신이 발견한 것을 그대로 둔다(Leave What You Find),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한다(Minimize the Impact of Fires), 야생동물을 존중 한다(Respect Wildlife), 당신을 맞이하는 사람들(특히 원주민)과 다른 방문객들을 배려한다(Be Considerable of Your Hosts and Other Visitors) 등 7개의 원칙을 통합하고 있다(Jaworski-Neilson, 2010).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 가운데, ‘당신이 발견한 것을 그대로 둔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를 존중하기, 과거를 보존하기, 자연물을 방해받지 않게(파괴되지 않게) 그대로 놔두기, 외부 침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당신을 맞이하는 사람들(특히 원주민)과 다른 방문객들을 배려한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 소유자와 그들의 전통적인 거주 지역을 존중하기, 다른 방문객과 그들의 경험의 질을 존중하기, 협력정신을 유지하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기, 전자게임이나 라디오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기 등을 내놓고 있다.

이 캠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소책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은 방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미래의 방문자에게 주는 선물이며, 현재의 방문자가 즐기면서 누렸던 환경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다.

### ③ 시사점

방문자들의 윤리지침 성격인 ‘Leave No Trace Australia’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 가운데 핵심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이었다. 트레일 도중에 발견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에서부터, 문화 소유자인 원주민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다른 방문객들을 배려하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방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지속가능한 유산활동으로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적 파괴는 심각한 양상이다. 더구나 사회문화적 폐해마저 제주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지닌 향토문화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외래문화 간 문화적 접변이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양상이다. 제주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방문객들도 제주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는 방문객 윤리강령 숙지도 절실한 상황이다.

## (2) 영국의 English Riviera Geopark

### ① 세계 최초의 도시형 지오파크

영국 남부 잉글랜드 Devon 주의 해변 휴양지 Tobay에 위치한 리비에라 지오파크(Riviera Geopark)는 2007년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GGN)의 회원으로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도시 지오파크’(Urban Geopark)이다(Laura, 2007).

리비에라 지오파크는 Tobay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obay 지오파크로도 알려져 있다. 대서양 연안의 아름다운 경치와 지중해성 떨기나무와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따뜻한 기후로 인하여 연간 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4계절 내내 몰려오며, 각종 국내외 회의 개최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거주인구 약 13만 명 가운데 약 1만5,000명이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지역 총생산의 13.5%가 관광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다. Tobay 지역의 관광산업은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가장 큰 공헌자는 지오파크이다. 이에 따른 지오투어리즘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English Riviera Geopark 홈페이지, <http://www.englishrivierageopark.org.uk>).

Tobay 지역의 매력요인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해안지대에 숨겨져 있다. 지질학적으로 해양 테본기의 석회암과 사암의 노출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안가에 눈에 띄는 석회암 곶(headland)은 Tobay가 적도의 남쪽이었음을 알려준다. 이 곳은 바다 해저에서 산호초가 번성하였던 약 4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이 일대를 탐구하면 당시 번성하였던 산호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방문객센터는 이 같은 지형, 지질유산과 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연중 실시되고, 보다 더 많은 모험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오파크는 다양한 흥미로운 방법들을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지오파크로 성장하였다(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비에라 지오파크는 2007년에 설립된 잉글랜드 리비에라 지오파크 조직기구(English Riviera Geopark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지오투어

리즘, 지오교육(Geoeducation), 지오사이트 보존(Geosite Conservation), 지오파크 협동(Geopark Coordination)이라는 4가지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온 결과이다.

## ② 다양한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잉글랜드의 리비에라 지오파크는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이 야외 현장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의 가치를 인식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원 당국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지역사회 성인그룹에 이르기까지 방문을 환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그룹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토양과 암석의 이해, 해안지형 및 해안지형의 이해, 지역사회와 환경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과학, 지리, 역사 문화, 시민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에 걸쳐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제1단계는 다른 환경을 탐험하면서 지역의 환경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시간여행, 지역에 보다 친숙함을 갖게 하는 짧은 지오파크 트레일, 서로 다른 유형의 화석 등을 수집하는 해변의 보물찾기, 지역의 과거 또는 현재의 해양 생물을 선택하여 그 모형을 만들어보게 하는 해변 예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17).

2단계는 일일 탐험가는 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선사시대의 화석을 발견하고 탐색하는 데 사용할 고대 지도의 조각들을 모아 완성하게 된다. 이들은 암석의 종류에 대해 배우고 해안 침식 지역에서 화석의 흔적들을 찾아 나선다.

마지막 단계는 공동 발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과거에 우리의 지역이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를 기초적으로 터득하게 한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의 지형 및 지질학적 형성과정과 관광 레저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설을 던져주고 가능한 결과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사고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 17) English Riviera Geopark에서 공원 가이드와 어린이  
출처 : English Riviera Geopark 홈페이지(<http://englishrivierageopark.org.uk>).

### ③ 시사점

영국의 English Riviera Geopark는 세계 최초의 도심지역 지오파크로서 다양한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지오파크로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에게 야외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환경부터 이해하고, 나아가 지형 및 지질 자원의 가치를 인식케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해설의 역할이 돋보인다.

화산섬 제주의 지형 및 지질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전토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미래의 주인공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야외 현장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천혜의 지형 및 지질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 제주도와 교육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는 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들을 준수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대학생은 물론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 현장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3) 그리스의 Lesvos Global Geopark

#### ① 지오투어리즘의 명소

Lesvos Global Geopark는 제주도 세계 지오파크와 마찬가지로 화산섬인데다 섬 전역이 지오파크로 확장 지정되어있다. 예전 세계 지오파크로 인증을 받을 당시에는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로 명명되었다.

동지중해 해역인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레스보스(Lesvos) 섬은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2004년 그리스에서 첫 번째 세계 지오파크가 되었다. 이곳은 1만 5,000 헥타르의 광대한 영역에 걸쳐 2,000만 년 전 강력한 화산폭발에 의해 섬 지역이 화산쇄설물로 덮일 때 화석화된 나무줄기와 잎 등이 숲을 이룬 채 마치 ‘식물의 폼페이’ 처럼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곳의 지오투어리즘 실천은 세계적인 수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Dowling, 2011). 자연사 박물관 투어를 비롯하여 주제가 있는 가이드 안내 견기를 통해 광범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이벤트들이 매년 새롭게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편성되고 있다. 또한 국제 박물관의 날, 지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등 해마다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테마가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레스보스 지오파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광기업, 소규모 호텔, 게스트 하우스, 레스토랑 등을 지오파크 내 방문객 흐름의 증가와 연계함으로써 많은 고용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레스보스 지오파크는 일찍부터 세계적인 기관들로부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8년 세계관광리더전문가협회(SKAL's)로부터 국제 생태관광상을 수여하였다. 2009년에는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이익창출 공로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으로부터 ‘유럽의 최고 여행지(European Destination of Excellence, EDEN)’라는 상을 받았다.

#### ②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

레스보스 섬의 서쪽 마을 Sigri 언덕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은 메인 건물과 야외의 석화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을 거슬러 2,000만 년 전의 여행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킨다. 방문객들은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여있는 석화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면서 당시 강력한 화산폭발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위험에도 나무뿌리는 물론이고 줄기와 잎까지 생생하게 석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8).

레스보스 화석 숲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of the Lesvos Petrified Forest)은 화석화된 거대한 숲을 잘 보존하고 연구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이 투어는 섬 지역의 석화된 생태계의 가치 인식 뿐만 아니라 에게 해의 지질학적 진화와 함께 지진 및 화산활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 그리스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림 18) Lesvos Global Geopark 야외 전시장의 석화 나무 모습.

출처 : <http://www.visitgreece.gr>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해마다 과학, 환경,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원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지구 유산, 지역의 화석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활동을 비롯하여 화석의 발굴, 보존, 복원, 기록과 이름 붙이기를 포함하는 화석 보존 활동이 있다.

또한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를 테면 아이들이 화석 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여 식별하게 하는 ‘The Young Palaeontologists’ 프로그램, 에게 해의 화산활동과 레스보스 섬의 화석 숲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

추는 ‘Volcanoes’ 프로그램, 사람들에게 자연재해 보호와 지진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지진 시뮬레이션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설문지를 통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특정 영역의 정보제공과 활동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연수생들에게 적합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며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스보스 자연사 박물관은 이러한 책임 있는 화석 숲 관리 및 활용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지오파크로 인증받기 전인 2001년 Eurosite Management 상을 받았다. 이어 레스보스 지오파크가 2008년 SKAL's 상과 2009년 유럽 최고의 여행지라는 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③ 시사점

그리스의 Lesvos Global Geopark는 자연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매년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이벤트들을 만들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 내 관광기업, 소규모 호텔, 게스트 하우스, 레스토랑 등이 방문객 증가에 힘입어 고용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관리당국, 지역주민, 방문객 모두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자연보존 노력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이 이어질 때 실현되어 가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이다. 그동안 대규모 관광개발에 치중해왔던 제주관광은 구각을 탈피하고 마을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주도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 (4) 대만의 Yehliu Geopark

### ① 방문자의 적정 관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에서 북동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예류 지오파크는 해수욕장과 온천 체험도 즐길 거리이지만 무엇보다 사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해식지형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그림 19).

특히 수 십 만년 동안 용기, 풍화, 침식작용이 교대로 일어나면서 빚어낸 희귀한 모형의 바위와 암석이 모여 있는 선상암 군락은 예류 관광의 필수코스이다.



이들 암석 가운데 이집트 왕비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는 ‘여왕 머리바위’는 예류 관광의 상징이 되고 있고 있다.

비록 중국의 1국가 원칙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또는 세계 지오파크 인증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지질공원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이미 유네스코, IUCN, 관련학계 등에서는 예류 지오파크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다.<sup>12)</sup> 다만 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문객 증가율이 2003년 대비 140%에서 38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2012년에는 269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류 지오파크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력 과잉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었다.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의 보존 문제가 지역사회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관광당국은 관광객들을 장기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반하는 관광 가이드는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간, 월간, 시간대별 관광객들의 방문을 적정 수준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피크 시간대의 예약 시스템

예류 지오파크 관광당국은 장기관찰 결과, 관광객들은 연중 3월, 4월, 5월, 10월, 11월에 몰리고 있으며, 하루 중에는 오전 9시 30분~11시대와 오후 1시 30분~3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단체 관광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당국은 바로 이러한 점이 예류 지오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도입한 방안이 월별성수기 관광객 수 2,500명을 상한으로 하는 총량제 실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관광 가이드에게는 이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년 3~5월과 10~11월, 시간대는 오전 9시 30분~11시대와 오후 1시 30분~3시대에 적용하고 있다. 관광당국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이러한 예약 시스템을 점차 실시하면서 2013년부터 피크시간대 방문객이 2,500명 넘을 경우 공원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12) 2013년 9월 유네스코 등이 지원하여 제주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태평양 지오파크 총회 및 제주 심포지엄에서 예류 지오파크 관광당국은 예류 지오파크의 가치를 발표하였다.



(그림 19) 대만의 Yehliu Geopark 전경

출처 : <http://en.wikipedia.org>

우선, 방문자 수가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원 입구 매표소 및 개찰구 전광판을 통하여 붉은 색 조명이 켜진다. 이는 공원이 혼잡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은 단체 관광객들은 입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공원 입장객 수는 1인씩 통과하는 개찰구를 통하여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다.

방문자 수가 3,000~2,500명인 경우에는 노란색 조명이 켜진다. 이는 공원이 혼잡하기 때문에 통제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인근 명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신호다. 방문자의 수가 2,500명 이하인 경우, 전광판은 공원 입장이 완전히 열려있다는 신호인 녹색 조명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자 통제시간대 외에는 공원 전광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 ③ 예약 시스템의 도입 효과

2013년 3~5월의 경우, 오전 9시 전 입장객이 2012년 동기보다 17.4% 증가하였다. 오전 11~오후 1시 입장객도 전년보다 10% 증가하였다. 반면에 오전 피크 시간대의 방문자 수는 15.6% 하락하였다. 오후 피크시간대에도 12.5% 하락하는 등 방문자 분산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류 지오파크 관광당국은 앞으로도 공원 보호차원에서 피크 시간대 공원 입장객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Chao-Hui *et al.*, 2013).

#### ④ 시사점

대만의 Yehliu Geopark의 경우는 급증하는 방문객들에 의해 자연유산들이 파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제주관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요한 사실은 피크시간대 방문객 수를 2,500명 이내로 제한하는 예약 시스템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정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는 인근 관광지로 방문객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제주관광은 대만의 사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주는 국내의 관광객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섬 관광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라산 국립공원은 몰려드는 탐방객들로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초래한 지가 오래다. 올레 탐방객들의 답압으로 특정지역의 탐방로 역시 지각이 벗겨지고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본적으로 관광지의 자연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객들이 무작정 찾게 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실현될 수 없다. 이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성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 당국은 더 이상 늦기 전에 탐방객 정원제 실시 등 환경의 수용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5) 캐나다의 Chemainus

##### ①세계적인 벽화 마을

슈메이너스(Chemainus)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동차로 2시간 쯤 걸리는 밴쿠버 섬 동남쪽에 위치한 인구 4,500명의 조용한 해안마을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벽화 마을’로 잘 알려진 슈메이너스는 예전엔 목재산업이 마을의 주요 산업이었다. 하지만 목재산업이 1970년대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주민들은 강제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점차 외지로 빠져나갔다. 이에 1980년대 초반 주 정부와 지역사회는 벽화 그리기를 통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40여 점에 이르는 대형 벽화들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다. 주민 수보다 100배 이상 많은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 발길이 도로에 새겨진 노란색의 안내 발자국을 따라 벽화를 감상하는 유명 관광지가 된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벽화 그리기가 ‘마을의 운명’을 바꾼 셈이다(APEC TOURISM WORKING GROUP, 2010; 서울신문,

2007년 6월 25일자).



(그림 20) Chemainus 방문객들의 벽화 감상 마차 투어

출처 : <http://have1aristreamwilltravel.blogspot.com>

## ② 마을 역사와 문화의 관광자원화

슈메이너스 마을 중심가에는 방문객들이 마차를 타고 벽화를 감상하며 마부의 해설을 듣는 관광코스가 있다(그림 20). 그렇다고 마을 벽화가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벽화 그리기를 마을 부활의 프로젝트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슈메이너스 벽화마을은 ‘사미니스’라는 인디언 부족의 거주지였다. 1800년대 중반 목재산업이 마을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살았던 동네다. 1800년대 후반 캐나다 철길공사를 위해 동원된 중국인과 일본인 등 동양인들의 거주가 증가하였다. 광산과 산림업 등에 독일인과 스코틀랜드인들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마을 벽화에는 일반 주민에서부터 유명인사에 이르기까지 당시 존재했던 인물들을 그려 넣는 등 다양한 인종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과 마을 개척의 모습, 별채운반 모습, 증기기관차가 다리를 지나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실감할 수 있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마을의 대소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마을의 모습도 기록하였다. 지역만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자

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부활을 이루어 낸 것이다(박신정, 2011).

### ③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상의 기적과 같은 결실을 이루어내기까지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벽, 정원 담벼락까지 벽화 그리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내놓았다. 비영리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매년 벽화축제를 개최할 때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홍보에도 직접 나섰다.

슈메이너스의 사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살리기 관광 프로젝트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일깨워주고 있다. 주민들은 단기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끝만 요란한 건물을 짓거나 제조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마을 벽화라는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주도가 되었다. 그럼 주제 또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담아낸, 한마디로 주민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슈메이너스 마을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택함으로써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④ 시사점

벽화마을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캐나다의 Chemainus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관광의 모범 사례다. 예전에 주요 산업이었던 목재 산업이 1970년대 쇠락을 길을 걸으면서 주민들은 강제로 일자리를 잃어 점차 외지로 빠져 나가는 즈음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벽화 그리기를 통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IV.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논의

화산섬 제주는 2013년 사상 첫 제주방문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라는 메가 투어리즘(mega tourism) 시대를 맞았다. 향후에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 여하에 따라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승훈·송재호, 2013).

문제는 그럴수록 제주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 요인인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부터 고유의 역사·문화유산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유무형의 파괴 압력과 훼손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유네스코로부터 빼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제주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지닌 향토 문화와 관광객들에 의한 외래문화 간에 문화접변이 일어나면서 제주의 정체성 역시 갈수록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방문객의 수적 증가에 치중하는 외형적 성장은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하는 심각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크게 주목할 것은 최근 유럽, 미국, 호주 등지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관광 유형으로 지오투어리즘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Allan, 2012; Farsani *et al.*, 2012). 특히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이 그동안 관광의 녹색화를 선도해 왔듯이, 자원의 보물창고인 지형 및 지질자원의 경관을 감상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Dowling & Newsome, 2010a).

## 1.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와 관광 환경의 트렌드 변화

### 1)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

제주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부터 살펴보면 제주관광은 1960년대 부터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한 이래로 1983년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88년 200만 명, 2005년 500만 명, 2011년 800만 명, 2012년 900만 명을 넘어 2013년 11월 제주관광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시기를 이겨내면서 2000년 들어서부터 다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추세를 지속하여왔다.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는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증가율(2009년 12.1%, 2010년 16.2%, 2011년 15.3%, 2012년 10.9%, 2013년 12.0%)을 기록하면서 전체 관광객 연 평균 증가율은 13.3%의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15).

<표 15> 2000년 이후 연도별 제주방문 국내외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전체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의 비중(%)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의 비중(%)
2000년	4,110	12.1	3,822	11.8	93.0	288	17.1	7.0
2001년	4,197	2.1	3,907	2.2	93.1	290	0.6	6.9
2002년	4,515	7.6	4,226	8.2	93.6	289	-0.2	6.4
2003년	4,913	8.8	4,692	11.0	95.5	221	-23.7	4.5
2004년	4,932	0.4	4,603	-1.9	93.3	329	49.0	6.7
2005년	5,020	1.8	4,641	0.8	92.5	378	15.0	7.5
2006년	5,312	5.8	4,852	4.5	91.3	460	21.6	8.7
2007년	5,429	2.2	4,887	0.7	90.0	541	17.6	10.0
2008년	5,822	7.2	5,281	8.1	90.7	540	-0.1	9.3
2009년	6,523	12.1	5,891	11.6	90.3	632	17.0	9.7
2010년	7,578	16.2	6,801	15.4	89.7	777	22.9	10.3
2011년	8,740	15.3	7,695	13.1	88.0	1,045	34.6	12.0
2012년	9,691	10.9	8,010	4.1	82.7	1,681	60.8	17.3
2013년	10,851	12.0	8,517	6.3	78.5	2,333	38.8	21.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http://www.hijeju.or.kr>).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199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에서 1998년 IMF의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세와 정체기를 이어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다시 상승 국면을 타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1%라는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8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관광객 수 추이를 보면 2009년 63만2,000명, 2010년 77만7,000명, 2011년 104만5,000명, 2012년 168만1,000명, 2013년 233만3,000명으로 연평균 34.8%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관광객은 단연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에 힘입어 2009년 25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47.8%로 큰 폭으로 뛰면서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0년 40만6,000명, 2011년 57만명, 2012년 108만4,000명, 2013년 181만2,0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2.2%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규모는 2013년 기준 제주방문 외국인 점유율 77.7%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3명당 1명 이상 꼴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제주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2008년까지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에게 넘겨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급기야 2013년 12만8,000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 5.5%까지 추락, 제주관광의 태동 이래 20만 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1,000만 명 시대 개막의 원동력으로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 타이틀 획득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라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 파워와 콘텐츠 확보, 저가 항공의 활성화와 국제 직항노선의 확대, 크루즈 관광의 급성장,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의 성공적 개최, 대형 기업체의 인센티브단 유치, 제주 올레길 등이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보도자료, 2013년 11월 27일자).

최근 3년(2011~2013년) 내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형태는 (표 16)에서 나타났듯이 개별관광객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개별관광객은 전체 내국인 관광객 가운데 81.1% → 82.4% → 85.3%를 점유하면서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단체 및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은 그 비중이 18.9%→17.6%→14.7%로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형태는 2012년의 경우 패키지여행<sup>13)</sup>이 51.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개별여행 31.1%, 에어텔(airtel)<sup>14)</sup> 16.9%의 분포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 관광객이 패키지여행을 선호하였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개별여행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용건 등, 2012).

<표 16> 최근 3년(2011~2013년) 제주방문 관광객 형태별 입도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관광객 수	점유율	관광객 수	점유율	관광객 수	점유율	
총 계	8,740		9,691		10,851		
내국인	소계	7,695	100%	8,010	100%	8,517	100%
	개별관광	6,238	81.1%	6,600	82.4%	7,268	85.3%
	단체관광	1,457	18.9%	1,409	17.6%	1,248	14.7%
외국인	1,045		1,681		2,333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www.jjeju.or.kr)를 연구자가 재구성.

관광 목적별 입도 추이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표 17)에서 보듯이 휴양 및 관람 목적이 63.1%로 압도적이다. 레저 스포츠(17.0%)가 그 뒤를 따라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 탐방, 올레길 걷기 등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규모로 이뤄지던 기존의 단체관광객들의 행락관광은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목적도 휴가 및 순수여행 비중이 84.1%로 가장 높아 자연경관을 선호하는 내국인들의 관광 패턴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서용건 등, 2012).

13) 패키지여행은 여행업자가 주관하는 단체여행이다. 미리 정해진 관광일정에 따라 각종 교통편과 숙박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용과 그 비용 따위를 일괄하여 여행사에서 관장하는데, '한 묶음 여행'으로도 불린다.

14) 에어텔은 항공권과 호텔숙박 만을 예약하는 것으로, 소위 해외출장의 배낭여행이라 할 수 있다. 에어텔은 이미 전 세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표 17> 최근 3년(2011~2013년) 제주방문 관광객 목적별 입도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관광객 수	점유율	관광객 수	점유율	관광객 수	점유율		
총 계	8,740		9,691		10,851			
내 국 인	소 계	7,695	100%	8,010	100%	8,517	100%	
	레저 스포츠	1,386	18.0%	1,359	17.0%	1306	15.3%	
	회의 및 업무	918	11.9%	911	11.4%	906	10.6%	
	휴양 및 관람	4,445	57.8%	4,844	60.5%	5378	63.1%	
	친지 방문	248	3.2%	247	3.1%	290	3.4%	
	교육 여행	603	7.8%	558	7.0%	508	6.0%	
	기 타	93	1.2%	89	1.1%	127	1.5%	
외 국 인	소 계	1,045	100%	1,681	100%	2,333	100%	
	아 시 아 권	일 본	173	16.6%	180	10.7%	128	5.5%
		중 국	570	54.6%	1,084	64.5%	1,812	77.7%
		홍 콩	26	2.5%	38	2.3%	39	1.7%
		대 만	31	3.0%	51	3.0%	38	1.6%
		싱가포르	55	5.3%	63	3.8%	56	2.4%
		말레이시아	53	5.1%	76	4.5%	74	3.2%
		기 타	60	5.7%	101	6.0%	101	4.3%
	서 구	미 국	26	2.5%	25	1.5%	21	0.9%
		기 타	47	4.5%	60	3.6%	59	2.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www.jijeju.or.kr)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 2) 관광 환경의 트렌드 변화 고찰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내외 관광여건 분석과 관광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4년 제주방문 관광객 유치목표를 내국인 900만 명, 외국인 250만 명 등 1,15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2014년을 ‘제주관광 질적 성장 원년의 해’로써 ‘제주관광 2,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관광 제2의 중흥의 시대를 열어나간다고 밝혔다(헤드라인 제주, 2014년 1월 4일자).

이의 근거로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6·4 지방선거와 국내 항공 공급석 포화, 대형 태풍예상 등의 부정요인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시행되는 연휴와 휴일 겹칠 시 실시되는 대체 휴일제, 전국체전 제주개최 등의 긍정 요인에 힘입어 2013년 실

적보다 6.5% 증가한 900만 명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크루즈 입항 증가예상 등의 긍정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새로운 여행법인 여유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 관광시장의 급증세가 한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8> 2014년 제주도 관광시장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구 분	국 내	해 외
기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대체 휴일제 적용 : 추석연휴 4일→5일</li> <li>△우호적인 연휴(3일 연휴) : 2013년 4회 →2014년 6회</li> <li>△저가항공사 수송 분담률 확대 : 2012년 49.6% →2013년 54.3%</li> <li>△국내마케팅 거점 확대(5개소) : 수도권 3, 영·호남 2</li> <li>△관광숙박시설 확충 : 2012년 13,956실 →2013년 15,649실</li> <li>△전국체전 제주개최(10월) : 6만 명 수요</li> <li>△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3월) : 5만 명 수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제주도 관광산업 육성이지 : 비자완화, 인천-김포무비자환승 등</li> <li>△중국인 해외여행 증가 : 2013년 9,400만 명 →2014년 1억 명</li> <li>△크루즈 관광객 증가 전망 : 2013년 186회(38만 명) →2014년 250회(50만 명)</li> <li>△동남아관광객 제주방문증가 : 2010년 8만 명 →2013년 23만 명</li> <li>△국제직항노선 확충 노력 : 2010년 18개 →2013년 60개 이상</li> <li>△방한 외국인관광객 지속증가 : 2012년 1,000만 명 →2013년 1,250만 명 ※2014년 1,300만 명 목표</li> </ul>
위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4전국동시 지방선거</li> <li>△항공공급석 제약 : 5% 증가수준</li> <li>△수학여행시장 정체 : 8%대 감소</li> <li>△주말 항공좌석난 심화 : 2013년 금/토 예약률 84%대</li> <li>△원화강세로 국민 해외여행 선호 : 1,248만7,000명(10월기준) 7% 증가</li> <li>△대형 태풍발생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한중일 정치·외교지형 : 2013년 4월 북핵 위협 사례</li> <li>△중국인 여유법시행 증가세 둔화 : 2013년12월 관광객 16.3% 증가</li> <li>△원화 강세(달러/엔화약세) 기조</li> <li>△개별 관광객 수도권 집중 현상</li> <li>△내국인 중심의 수용대세</li> </ul>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www.hijeju.or.kr).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시장 회복지연 등의 부정요인을 극복하고 향후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하기 위해 2013년 증가율 38.8%보다 대폭 감소한 8.

7% 증가 수준인 250만 명으로 책정하였다고 밝혔다(표 18). 결국 2014년 제주도의 관광시장 환경이 국내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예상되지만 외국,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권의 경우 증가세 예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이어져왔던 급증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거시적 차원의 관광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트렌드들이 형성되어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빠르게 결합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트렌드를 정확히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이재성,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 트렌드의 분야별 분석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제주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제주도는 섬 관광목적지이기 때문이다. 관광객 수의 증가에 의존하는 양적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각종 부정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하에 질적 성장과 제주자원의 가치창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관광시장의 트렌드 변화 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승훈·송재호, 2013).

일반적으로 트렌드란 변화된 특정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 동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렌드는 필연적으로 현재 지향적이다. 그러나 일정 부분 역사적이고 경험적이어서 과거지향적인 부분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트렌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심원섭, 2010).

이재성(2010)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그에 따른 관광수요의 트렌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거시환경의 트렌드 변화를 사회, 경제, 기술, 환경 등 4개 부문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와 관광 트렌드 변화로써 건강 지향적 관광확산 및 개별관광과 참여중심의 체험관광 수요 증대를 들었다. 이어, 경제적 이슈와 관광 트렌드 변화로는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함께 고급형과 일반형의 차별화된 관광수요의 등장을 예시하였다.

<표 19> 미래 환경 변화 요인과 제주관광의 대응 과제

구분	여건변화 분석		
	메가 트렌드	관광분야 환경변화와 과제	제주관광의 과제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버넌스 강화 및 분권화</li> <li>△남북한 경제협력 통합과 진전</li> <li>△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경쟁심화에 대응한 관광경쟁력 강화</li> <li>△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치 체계 구축</li> <li>△지역의 특성고려 및 자율성에 입각한 관광개발</li> <li>△중장기적 전망 하에 남북한 관광교류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관광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li> <li>△지역 내 민간사업체와 협력사업 (비전 공유, 공동마케팅 등)</li> <li>△중앙정부, 타 지자체, 외국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li> <li>△남북교차관광사업 실현</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및 아세안 경제의 부상</li> <li>△지역 및 국가간 경제협력강화(FTA확산)</li> <li>△경제위기심화가능성</li> <li>△저성장과 재정불안 등으로 소비기간 지속적으로 위축</li> <li>△U-헬스산업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증대에 따른 국민 여가시간 변화 대응</li> <li>△국민 여가지출 변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li> <li>△신흥관광시장의 부상과 성장에 대한 대응</li> <li>△관광산업 노동시장 개방 요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세분화된 관광 상품 개발</li> <li>△관광시장의 다변화 추진</li> <li>△고부가가치 관광시장 공략</li> <li>△선진화된 관광생태계 조성</li> </ul>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 심화</li> <li>△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가치인식 증대</li> <li>△다문화사회 진입</li> <li>△여성의 지위 향상과 소비력 증대</li> <li>△세계적으로 문화중심의 창조경제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핵심 관광소비계층의 등장과 특화시장 개척</li> <li>△고부가가치 융복합형 관광상품의 지속적 개발 추진</li> <li>△한류 콘텐츠 개발과 품질관리, 시장 확산 정책 추진</li> <li>△웰빙, 힐링투어리즘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니어층, 여성시장 집중공략</li> <li>△연령별·소득계층별 맞춤형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li> <li>△관광품질관리체계 확립</li> <li>△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관광, 웰빙관광, 힐링관광, 크루즈관광, 문화관광 등 융복합 관광 육성</li> <li>△신한류 활용 정책 마련</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BT·NT·신소재 기술의 융합</li> <li>△사물간 통신(M2M) 부상</li> <li>△교통기술의 발달과 대중교통체계의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기술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융복합 가소</li> <li>△대중교통체계 변화 및 친환경 교통체계 확산에 대응한 관광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기술 등과 연계한 관광지, 관광자원, 마케팅의 가치창출</li> <li>△녹색교통수단 도입 강화</li> </ul>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의 부상</li> <li>△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심각성 확대</li> <li>△자원위기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개발 억제, 공간재생을 통한 관광환경 정비</li> <li>△관광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관광원칙 확립</li> <li>△유희공간을 활용한 시설·자원의 재생 추진</li> <li>△제주도의 안전 이미지 강화 및 관광객 안전관리체계 강화</li> <li>△도보관광, 자전거 여행, 생태관광 등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보강, 기반 강화</li> </ul>

출처 : 정승훈·송재호(2013).

또한 기술적 이슈와 관광 트렌드 변화로는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을 선두로 무선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주도하는 관광시대의 도래와 각종 지능형 고감도의 개별적 관광서비스의 가속화를 들었다. 환경적 이슈와 관광 트렌드 변화로는 기존의 대량관광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뉴 투어리즘(New Tourism :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형태)의 부상과 함께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관광개발이 도모되는 추세임을 강조하였다.

정승훈·송재호(2013)는 미래 환경변화 요인과 제주관광의 대응과제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자연환경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19).

이상으로 제주관광을 포함한 글로벌 미래 관광환경의 트렌드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무엇보다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석호(2010)는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이 기존 트렌드의 대체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990년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 중시 형태의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대중관광을 대체하지 않았으며 생태관광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도 대중관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기회와 문제가 기존의 관광 트렌드와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 제주관광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섬 관광목적지로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왔다. 그에 수반하여 도내 관광사업체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미래의 관광 트렌드에 치중하고 현재의 관광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적 성장을 도외시할 경우, 우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는 관광사업체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관광환경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제주관광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2.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진단

앞서 관광환경의 트렌드 변화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어떠한 미래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변미리·김목한, 2012).

특히 관광은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매력물 또는 명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 관광자원들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더 이상 관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광에서의 지속가능성은 관광환경 트렌드의 대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속가능한 관광을 완전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써, 제주관광의 경우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만 가는 여행업체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해를 들 수 있다. 결국 질적인 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제조업 등 타 산업진출이 제한된 제주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 사회·문화적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실현가능한 수준에서부터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겠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은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의 추구이다. 다시 말해 관광개발은 환경적으로 지탱할 수 있어야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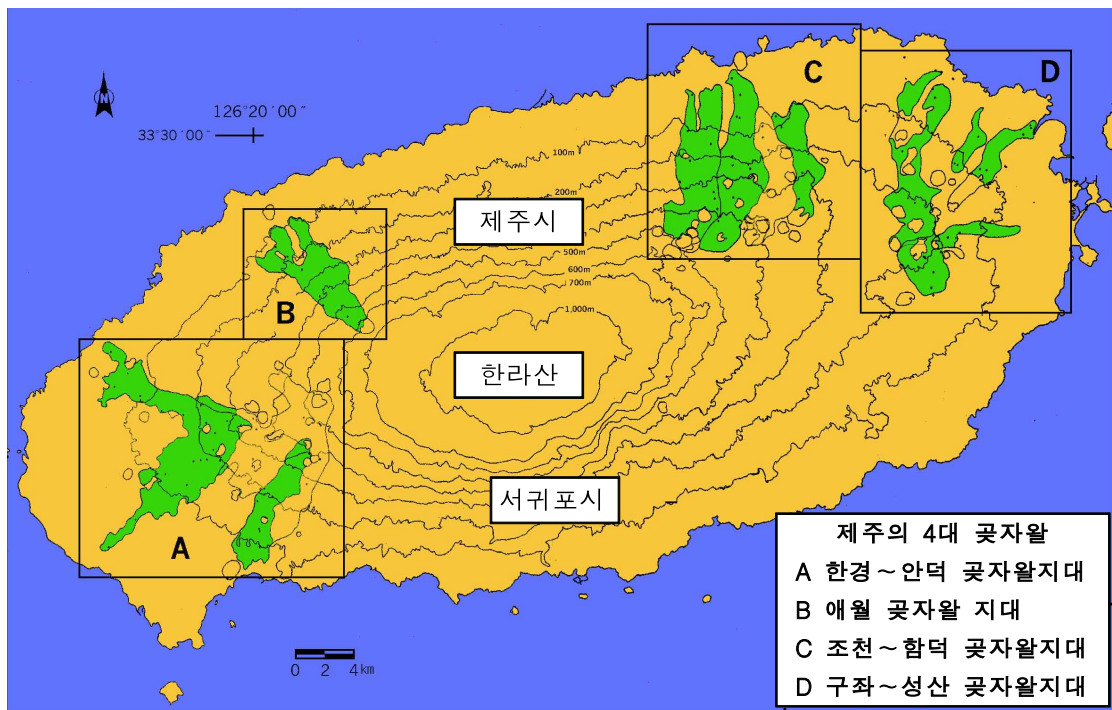
따라서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제주관광에서 제기되어온 부정적인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 1)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 보존의 원칙하에 관광자원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등장하면서 가장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양극화를 치닫는 환경논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꽃자왈 등 중산간 환경파괴를 들 수 있다. 순수한 제주어인 꽃자왈은 2014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꽃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피지대로 숲과 덩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림 21)은 제주도내 꽃자왈 분포도이다.



(그림 21) 제주도 꽃자왈 분포도

출처 : 송시태(전 꽃자왈사람들 대표) 제공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versation Congress : WCC)는 ‘제주도 용암숲 꽃자왈은 섬 전체의 약 6%인 109.87km<sup>2</sup>로서,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빌레용암과 꽃자왈용암으로 된 독특한 지질자원이며, 제주인의 주된 식수원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고, 풍부한 생물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숲 이용 관점에서 독특한 전통지식의 활용에서도 중요한 지역임을 인정한다'면서 꽃자왈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 의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WCC는 '꽃자왈 중 사유지가 60%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을 활용한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꽃자왈이 지니는 본래의 특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파괴적 개발이 계속된다면 꽃자왈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꽃자왈공유화재단, <http://www.jejustrust.net>).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4년 2월 제주도에 제출한 꽃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꽃자왈 지역 내 지형 및 지질적 형질변경을 초래한 개발사례를 조사한 결과,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로 인해 마라도 면적(0.3km<sup>2</sup>)의 68.7배에 해당하는 20.6km<sup>2</sup>(꽃자왈 전체면적의 18.8%)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개발사례를 보면 골프장과 관광시설이 전체 훼손 면적의 67.6%(13.9km<sup>2</sup>)를 차지하면서 꽃자왈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렇듯 골프장 건설이 제주 식생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지대인 꽃자왈 등 중산간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들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끊이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예래환경연구회, 한라산지킴이 등 제주도에 5개 환경단체는 28일 제13회 세계 노골프데이(NO GOLF DAY)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제주도의 골프장 정책에 적색경보를 내린다면서 환경경영, 환경윤리의식이 결여된 골프장 사업자측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제주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갈수록 골프장에서의 환경파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하수 함양지대인 꽃자왈 지역 내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 사업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하였다(제주일보, 2005년 4월 29일자).

골프장 건설은 꽃자왈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전체를 파괴하며 제주도민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행위로 부각되어 등장한다. (...). 골프장 건설은 단순히 꽃자왈의 파괴에 따른 동물 서식지와 식물 자생지의 파괴나 중산간 지역의 경관적 가치의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골프장은 부수적으로 도로 건설이나 관련 부대시설(연습장, 골프텔 등)의 건축, 다량의 농약사용 등으로 식수원의 오염을 비롯

한 공기정화기능의 저하, 도시부와 산간부의 완충기능의 저하, 조망권 침해 등 두고 두고 제주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뢰로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꽃자왈이나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 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정광중, 2012).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꽃자왈 관광개발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최근 제정된 제주도 꽃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꽃자왈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보호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이 없는 등 현재로서는 선언전 의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조례가 보다 실질적인 꽃자왈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 당국이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로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된 송악산 관광지구를 들 수 있다. 1999년 남제주리조트개발(주)이 마라해양군립공원을 포함한 사업변경을 신청하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중시하는 개발의 논리와 송악산의 보존가치를 중시하는 보존의 논리가 맞서기 시작하였다.

논란의 핵심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천혜의 해양관광지이면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이중화산으로써 학술적 가치가 높은 송악산의 정상 분화구 내에 호텔과 카지노 등 대규모 관광시설을 들여놓겠다는 데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개발 찬성과 환경단체 및 지질학계 중심의 개발 부당성 논리가 심화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권상철, 2001).

결국 2001년 3월 대법원이 개발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송악산 논쟁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명제를 조화롭게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황경수·고태호, 2004). 이 사업은 외자유치 무산으로 최종 마감시 한까지 착공계를 내지 못함에 따라 2002년 7월 사업승인이 취소되었다. 환경에 대한고려가 없는 개발계획과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허술한 외자유치 문제가 빚어낸 결과였다.

세 번째 사례로 제주지역 해발 200~600m 일대에 휴양형 대규모 관광시설 추진 등 중산간 난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기를 부르고 있다. 이들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암묵적인 개발 저지선인 산록도로를

넘어 한라산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과괴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산간 개발전략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2012년 9월 제주 WCC 개최에 힘입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환경수도와의 역행하는 일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은 이 뿐이 아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개별관광객이든, 단체관광객이든 간에 이들이 내딛는 답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역이 환경적으로 심하게 앓아가고 있는 문제 역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화산섬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의 각 탐방로에는 노면침식, 노폭확대, 뿌리노출, 암반노출과 같은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정원옥·정평희, 2010). 오름과 올레길도 탐방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답압에 의한 노면침식 등 환경파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현재의 자연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에도 자원의 이용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환경성의 가치 중심, 형평성, 미래지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의 답압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개발은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오정준(2003)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체험어장의 경우,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을생활(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 쓰레기 문제 발생, 기타 문제(지하수, 수질, 토양침식) 발생 등의 부정적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종달리 체험어장은 조개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광행위 장소로써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으나,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조개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조개가 멸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관광지의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찾게 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실현될 수 없다. 특히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보편적 탁월한 가치(OUV)를 지닌 섬 관광목적지로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관광객 수의 증가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물 부족 심화,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증가, 쓰레기 증가, 혼잡도 증가로 인한 관광객 만족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정승훈·송재호, 2013).

이는 환경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질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이 부분은 지역의 자연자원 보존과 주민의 경제적 편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환경의 수용력에 대한 대비는 사회·문화적 수용력까지를 감안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사회적 영향의 최소화와 의식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관광사업자와 관광객,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관광자원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여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관광이다. 이 부분의 지속가능성은 관광지의 지역 공동체가 사회·문화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활력 있게 유지 성장할 수 있는지와 관광객의 만족도가 지역의 관광문화를 지탱 및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광코스 소개되고 있는 제주경마장 이용객의 도박 중독 문제와 그에 따른 심각성을 들 수 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한라산 기슭 해발 450m 지대에 면적 72만㎡ 규모로 조성된 제주경마장은 제주도의 토종말인 제주마(조랑말 : 천연기념물 제347호)를 보호·육성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10월 개장한 이후 2000년 1월 제주경마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소풍, 야유회, 체육공간 등 제주도민의 휴식처로도 개방하고 있다. 제주경마공원은 2013년의 경우 레저세 723억 원, 교육세 289억 원 등 지방세 1,022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제주지역 기업 가운데 지방세 납부액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문제는 제주경마공원이 제주마 산업을 선도하고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경마 배팅에 의한 대표적인 사행성 조장기업이라

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두 얼굴의 기업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영근(2007)은 제주경마공원의 도입 취지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의지 결여와 더불어 이용객의 약 94% 이상이 제주도민이고, 관광객은 극히 일부 점유율인 6%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도박 중독자 양산,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다고 하였다.

현미열·조옥희(2012)는 경마 배팅을 목적으로 제주경마공원을 방문한 530명을 대상으로 도박 심각도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전 경마군은 36.6%에 그쳤다. 반면에 문제도박 경마군은 39.4%, 병적 도박군은 24.0%로 분석됨으로써 경마장 이용객 3명당 2명은 경마를 오락적 성격을 가미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보다는 도박성 게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알코올 관련 문제도 심각하였다. 병적 도박군의 28.7%, 문제도박 경마군의 14.0%가 알코올 의존에 해당하였다. 이 연구는 경마장 이용객들을 위한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검증 연구를 제안하였다.

2013년 8월에는 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 현직 교사가 수업시간까지 뒤로 한 채 경마장에 몰래 드나들면서 경마도박을 하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경마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당시의 언론보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 인용한다.

수업도 팽개치고 경마를 즐긴 현직 교사 등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감사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특정감사)을 벌여 수업시간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경마장을 찾은 일선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수업시간 무단이탈, 수업 외 근무시간, 출장지 무단이탈 등의 방식으로 총 1497회에 걸쳐 2200여 만 원에 이르는 액수를 배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교직원 B씨와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 C씨도 경마에 빠져들었다.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모 우체국의 D국장도 출장시간에 경마장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보건환경원 직원 E씨도 근무지와 출장지 무단이탈 등의 방식으로 제주경마장에서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소속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제주의 소리, 2013년 8월 5일자).

2014년 5월에는 제주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전국적인 세월호 참사(4월16일 발생) 희생자 추도분위기 속에서도 경마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림 22) 제주경마공원 경마 시행 모습(2014년 5월 3일)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m.com>)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도 분위기 속에서도 경마를 강행,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에도 경마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사회 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제주경마공원에서는 각각 9회씩 총 18회에 걸쳐 경마가 시행됐다(그림 22). 이에 따른 매출액은 중계경주까지 포함해 120억~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마사회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하는 뜻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행사가 대부분 축소 또는 취소된 것과는 달리 4월 25~27일 경마 취소를 내린 뒤 불과 1주일 만에 경마를 재개, 범국민적 추도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4월 18일과 19일에도 총 18회의 경마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35·서귀포시)는 “그렇지 않아도 사행산업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경마를 벌써 재개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마저 외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제민일보, 2014년 5월 6일자).

이렇게 되면 경마 배팅을 목적으로 경마장을 찾는 이용객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병적 도박중독으로 빠져들고,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는 도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 하는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병적인 도박은 당사자에게는 가산탕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다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자살, 이혼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이나 사회에도 커다란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현미열·조옥희, 2012). 그럴수록 제주사회에는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가하면, 긴장과 갈등이 장시간 내재되거나 표출되는 사례도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들어간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추진 논란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제주 유일의 비회원제인 중문골프장(95만4,767㎡, 1,050억 원대), 관광센터 건물과 토지, 야외 공연장, 미분양 토지(10만6,708㎡, 450억 원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문관광단지는 1978년부터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 211만㎡(현재 총면적은 365만2,000㎡)를 당시 실거래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3㎡당 평균 5,000~1만 원선이란 헐값에 강제 수용하였고, 현재 개발사업 추진실적도 6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조선일보, 2012년 5월 31일자).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국책사업이라 하여 토지를 헐값에 팔며 지금까지 환경적 피해 등을 감수해온 결과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희생양이냐며 민간매각추진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의 사유화는 결국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르며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의 파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관광의 안전사각지대 문제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사례로는 2012년 7월 제주 올레길 제1코스에서 발생한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은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5년 여 동안 치유와 사색의 길을 표방하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로서 피로한 사회,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쉽터가 되어가던 느낌의 미학의 상징인 올레길 걷기에 찬물을 끼얹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거된 피의자가 올레길 제1코스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는 지역주민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제1의 관광목적지로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제주사회에 제주의 고유성 상실이라는 뼈아픈 성찰의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올레는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어, 대문이 없는 제주전통의 돌담과 돌담으로 이어진 안식처로 가는 길이며, 주민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교감하는 길이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올레길에는 경찰의 자전거 순찰대와 올레지킴이가 배치되는 등 안전대책에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상과 성찰을 생명으로 하는,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공간인 올레길을 각종 감시체계 아래 두는 것은 평화로운 제주의 고유성 상실을 부추기는 격이다. 제주 올레길의 안전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주민들이 지역 환경의 실상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안전대책 역시 주민들에게 맡기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선행 연구로 송재호·이성은(2004)은 제주도내 대학교수, 신문방송기자, 시민단체 책임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등 관광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문화 부문의 문제요인을 구성하는 변수가 빈부격차와 이혼·도박·청소년문제 등 사회문제임을 볼 때,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환대의식 저하는 관광 종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문화적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관광개발에 인하여 지역사회가 받게 되는 영향, 예컨대 사회구조나 전통문화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문화의 상품화, 기타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강미희, 2007).

따라서 핵심은 관광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방식을 정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하며, 또 지역사회가 개발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의한 환경보전이나 경제적 편익창출은 장기적으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개발의 효과가 역내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 방식은 지역주민의 참여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자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발철학과 전략이 관광 개발에 반영될 때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관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은 이러한 철학과 전략에 배치되고 있다. 무엇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제주도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제주도의 국제해양관광 거점육성 차원에서 1977년 서귀포시 성산포 섬지코지 일원 417만7,000㎡에 지정되었다. 이후 경제난 등으로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으나, 2003년 사업자 국제공모를 통해 국내기업인 (주)보광과 휘닉스개발투자(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까지 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주)보광은 대규모 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당초 예정한 해중전망대 등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보다 숙박시설 건립 등을 우선함으로써 제주 천혜의 해안절경지로 손꼽히는 섬지코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다(그림 23).



(그림 23) 섬지코지 사유화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출입금지 안내판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

게다가 제주도민 고용 실적도 2012년 11월 현재 당초 계획(882명)의 27%(239명)에 불과 하는 등 지역경제 기여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민일보, 2013년 3월 1일자).

또한 (주)보광은 사들인 공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 지구 내 미개발 토지를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넘김으로써 이른바 ‘땅장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연합뉴스, 2013년 3월 18일자).

2012년 10월 굴삭기를 동원하여 철거된 TV드라마 ‘태왕사신기’ 대형세트장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부정적 사례이다. 이 세트장은 제작사 (주)청암영상테마파크가 2005년부터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지 일대 20만8,000㎡ 부지에 한류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중심 인프라에 해당된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대규모 한류관광단지 투자유치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제주의소리, 2012년 2월 8일자).

그러나 투자자인 제작사는 드라마 세트장만 짓고는 다른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2년 2월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생태계보존 협력금·산지복구비·지방세 미납에다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은 채 투자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손을 털어버림으로써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꼴이 되었다.

제주지역 제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이 2013년 8월 최종 부도 처리돼 제주에서 운영 중인 나머지 27개 골프장도 연쇄 부도 우려를 낳고 있는 점, 제주시~중문관광단지를 잇는 평화로에 관광명소로서 기대를 모았던 아일랜드호텔(구 르네상스호텔)의 건축공사가 무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자금난이겠지만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에 부정적 사례들이다.

이들 사례는 제주관광개발의 효과가 역내에 정착되지 못하고,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제주도에 투자된 자본이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실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주도 당국은 투자유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자본의 건전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로 오상훈·이성은(2002)은 호텔·골프장·여행사·면세점 등 제주도 내 관광사업체 관계자와 제주도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지속성(2.78)은 사회·문화적 지속성(2.79)과 함께 5점 만점 척도의 중간 수준인 3점을 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환경적 지속성(3.10)은 평균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20).

<표 20>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요인과 정책우선 순위

구분	평가요인	정책우선 순위
경제적 지속성	장기적 편익	10
	지역 경제	7
	지역 고용	2
사회·문화적 지속성	주민 생활	1
	문화 전통	6
	주민 참여	11
환경적 지속성	생태 보전	3
	제도 및 모니터	15
	환경 교육	8
관광객 경험적 지속성	환경 의식	17
	지역문화 존중	12
	관광기업 책임	14
	관광활동 보장	16
관광사업체 운영 지속성	책임 여행	9
	지역 지향	4
	관광상품 질 향상	13
	환경 경영	5

출처 : 오상훈·이성은(2002).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3.19점으로 ‘잠재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정책우선순위는 주민생활, 지역고용, 생태보전, 기업의 지역지향, 기업의 환경경영, 지역의 문화전통 유지, 지역주도 경제, 환경교육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행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겠지

만, 미래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는 조사시기가 10여 년이나 지난 지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한 것은 현 상태에서 볼 때, 고용창출 문제에 관한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체 간의 괴리는 예나 지금이자 여전히 골이 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사례로, 앞서 성산포 섬지코지 개발과정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광사업체는 당초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정 부분 고용을 약속하였으나, 고용 실상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한직의 고용직 또는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강미희(2007)가 발표한 친환경적 생태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의 숲속학교와 주민공동 펜션운영의 성공사례는 벤치마킹의 모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르면 총 7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시골마을에 2000년 이후 30가구가 새로 이주하여올 정도로 환경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편익이 창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태산촌마을 조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간 수 차례 걸친 토론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숲속학교와 펜션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되 주민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와 NGO,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논의

지금까지 제주관광이 환경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현재의 실상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보완·개선해야할 점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목하는 것은 관광환경 트렌드의 변화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시장들의 급부상으로 에너지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및 급격한 인구증가로 물 부족, 석유 자원고갈,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위험 등 친환경적 청정에너지가 부상하는 글로벌적인 친환경적 흐름과 더불어

어, 관광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대량관광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뉴 투어리즘’(New Tourism)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재성, 2010). 뉴 투어리즘은 기존 대중관광의 대안적 모델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의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태관광을 비롯하여 농어촌관광, 책임관광, 공정관광 등이 있고 최근에는 지오투어리즘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오투어리즘은 지형과 지질이라는 비생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이로 인해 4계절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태계의 식물과 동물상에 초점을 맞춘 생태관광보다 활용 폭이 확장된 개념이다.

특히 지오투어리즘은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의 핵심적인 활동으로써 뉴 글로벌 관광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산섬 제주 전역이 지오파크인 제주도로서는 현재의 관광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지오투어리즘은 더 없이 필요한 관광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새로운 관광유형으로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원칙과 합의에 관한 사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

제주관광이 지속가능하려면 화산섬으로서의 고유 특성과 섬 특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환경의 질 유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관광사업체의 경제성 보장,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이 관광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UNEP & WTO(2005)는 ‘더 많은 지속관광 만들기 :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광의 핵심 구성 요소인 환경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하여 생태적 프로세스의 유지와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진정성을 존중하여 역사·문화적 유산과 생활문

화, 그리고 전통 가치의 보전 및 상호 이해와 관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관광업체의 활력 있고 장기적인 경제적 운영이 보장되고 고용과 소득 기회 등 사회 경제적 편익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넷째, 관광객에게 높은 수준의 만족과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관광객들도 지속가능한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실현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UNEP & WTO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일정한 합의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나갈 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실현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원하고 관리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화산섬 제주를 법적 제도적으로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을 담보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람사르 습지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제주도가 유일한 데도 제주도가 지닌 국제적인 환경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통합적인 관리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문화재보호법(세계자연유산), 자연공원법(국가 지오파크)과 같은 개별법령에 의한 관리는 부분적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분적 관리의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상충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측면이 높으며 이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상호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우선순위의 문제로 대상지역의 보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발생 소지도 높다(김태윤, 2012).

관광개발 측면에서는,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은 지역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인 제주시 권역(옛 제주시 동지역)과 남쪽인 서귀포시 권역(옛 서귀포시 동지역과 중문관광단지)은 관광개발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동부와 서부 권역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골프장 건설과

일부 대규모 휴양형 리조트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이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관광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갈등의 소지가 크다. 특히 최근 중국자본에 의한 관광시설이 제주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중산간 난개발과 함께 역사문화유산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소득 증대 등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문제도 불확실하다.

관광유형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생태관광에서조차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탐방객들이 특정 탐방로에 집중되면서 식생과 토양이 파괴되는 답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답압에 의한 환경영향인 ‘지표식생 파괴→ 표토 유실→ 심층 토양 유실→ 기반암 노출→ 식생 및 토양침식’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공우석, 2008). 결과적으로 이 같은 악순환이 제주도내 자연관광지 전역으로 갈수록 확산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프로그램 콘텐츠개발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지오사이트를 관광용, 교육용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와 함께 지오사이트별 관광안내 표지판과 뷰포인트 개발 등 기본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는 일부에만 국한되고 있어 제주관광의 균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광안내 측면의 경우, 무자격 가이드 채용에 의한 부실관광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최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에 의한 관광안내는 제주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의한 저가 쇼핑객→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끼리의 과도한 경쟁→ 무자격 가이드 채용→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관행처럼 달고 다녔다. 결국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하였고,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 관광객 수용태세(숙박, 음식, 쇼핑, 해설 등)에 대한 불만, 지역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http://www.tour.go.kr)).

이와 관련 중국은 2013년 10월부터 자국민 국외여행의 권익 보호와 질을 높이고 여행자원의 합리적 이용이란 명목을 내걸어 새로운 여행법인 여유법을 시행하고 있다.<sup>15)</sup>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

15) 중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민의 국외여행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행법인

사 그리고 제주도내 관광업계는 무자격 중국인 가이드 및 저가관광의 퇴출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광소비 측면의 경우, 제주를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이 해외의 경쟁도시들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점 역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44만 원 대로서 미국 하와이(182만원)와 대만(181만원)의 25% 수준, 일본 오키나와(93만원)의 4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원, 2013 ; 고계성, 2013).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의 경우, 그동안 관광사업자들은 행정의 지원 속에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그럼에도 개발사업 시작 이전인 사업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학계,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주관광에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어렵게 하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적지 않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기존 대중관광의 대체가 아니라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나가는 과정이다. 이 같은 불확실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모아져야한다.

### 3)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필요성

본 연구는 제주관광이 새로운 관광유형인 지오투어리즘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화산섬 제주에는 지오투어리즘의 기반이 되는 보존가치가 있거나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 지오파크 인증 등 유네스코 브랜드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더

---

여유법을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여유법의 핵심은 덤핑관광 금지, 강압적 쇼핑유도 및 옵션관광 금지, 질 낮은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지로 요약된다. 중국 현지의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 패키지상품과 관련하여 30~50%의 가격 상승 요인을 가져오고, 패키지 단체관광은 40~6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동일·정지형, 2013).



육이 지오투어리즘은 이들 자원이 있는 곳(장소 또는 지역)이면 자연적인 생태환경이든, 인공적인 도시환경이든 상관없다. 지오투어리즘은 비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하기에 4계절 관광이 가능하다. 화산섬 제주는 산지에서 중산간,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이든 1시간대로 이동도 가능하다. 지오투어리즘으로서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다.

단순화된 방식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은 비생물적(Abiotic), 생물적(Biotic), 문화적(Cultural)이라는 'ABC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Dowling & Newsome, 2010a). 이를 관광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화적 특성은 과거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재의 공동체 관습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이드 해설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상과 동물상의 생물적 특성은 생태관광을 통해 이해되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생물적 특성은 관광에서 가장 덜 관심을 받는 산지 경관 등 지형, 암석 형성 등 지질, 이들 지형·지질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그 결과 비생물적 특성은 가장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오투어리즘의 실제 힘이다.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지오투어리스트들의 관심은 지리분야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은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감상과 이해의 최전면으로 가져올 수 있다(Dowling & Newsome, 2010a).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는 화산섬 제주의 보편적 탁월한 가치와 경이로움은 제주관광만이 지닌 경쟁력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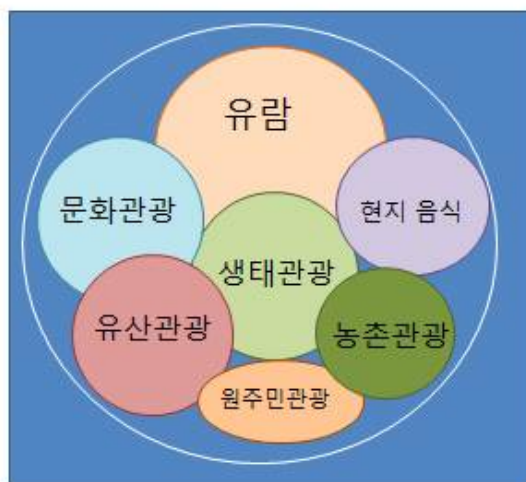
둘째, 지역의 생태계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또한 지형과 지질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모름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공간은 지형·토양·암석이라는 구조적 구조, 이를 바탕으로 물·공기라는 순환적 구조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체계가 형성되는 한편, 생물적 요소인 식물·동물·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치 거대한 유기체와 같다. 이러한 삼자간의 상호작용은 지리적 공간에 따라 달라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공간적 특징을 만들어내고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지역적 특색을 이루게 된다. 그 차별화된 특색이 지역의 고유성이고, 정체성이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과 삶의 궤적을 함께 지속하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이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역의 고유한 다양한 유산들을 보존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오투어리즘은 유네스코가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지오파크의 핵심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세계지오파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지형·지질자원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생태, 역사, 문화, 고고 등의 자원을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가치를 알리고 보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이다. 지오파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생물권 보전지역과는 달리 행위제한이 거의 없으며 보존과 개발의 병행이 가능한 형태여서 세계 각국에서는 세계지오파크 가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오파크의 핵심인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전역이 세계지오파크인 화산섬 제주로서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담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이득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형 및 지질자원을 보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오투어리즘은 생태관광처럼 선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관광목적지인 어느 지역의 인식에 도움을 주는 관광의 모든 특성을 통합, 확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지의 모든 양상, 이를 테면 지형 및 지질경관뿐만 아니라 식물상과 동물상, 역사, 고고학, 전통 건축물, 현지 음악, 향토 공예, 미술 작품을 장소의 의미로 통합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24) 지오투어리즘 모델

출처 : National Geographic(<http://www.nationalgeographic.com>)

(그림 24)는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유산관광’은 지역의 역사와 관습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관광’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맛을 향유하고자 하는 투어리스트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농촌관광’은 농장이나 목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원주민 관광’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원주민들 자신의 미술품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지 음식’은 방문하는 지역의 음식문화와 음식축제를 특징으로 한다. ‘유람’은 독특한 문화와 자연 명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이들 관광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제주지역과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현황

##### (1) 제주지역의 지오투어리즘 현황

그동안 제주도의 관광 프로그램 또는 관광 상품은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섬 지역 전체에 걸쳐 하루는 동쪽을 중심으로, 또 하루는 서쪽을 중심의 2박 3일 유람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군 진지동굴과 제주 4·3 유적지 탐방과 같은 제주의 역사문화유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상품도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주올레 탐방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레코스 완주라는 개별관광방식이 확산일로에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지오투어리즘은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실상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2000년 전문학회지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데서 파악할 수 있듯이 지오투어리즘이라는 용어부터가 생소하다. 관련 전문가는 물론 해설 가이드도 태부족하다. 지오투어리즘을 생태관광과 같은 관광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

화산섬 제주는 2014년을 기준할 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7년째, 세계지오파크 인증 4년째를 맞고 있다. 국내 다른 지역보다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여건이 훨씬 앞서있지만, 실상은 국내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권동희(2012)는 제주도의 지형을 계통적으로 풍화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습지지형, 주빙하지형, 화산지형 등 6개 지형으로 분류하였다. 지리 및 지질 특성 상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형은 화산지형과 해안지형이며 풍화지형, 하천지형, 습지지형, 주빙하지형이 국지적으로 분포한다고 하였다. 제주도의 지형을 분류한 (표 21), (표 22), (표 23)에서 예시한 곳은 지오투어리즘의 상품으로 이미 개발 또는 잠재적인 개발 특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현재 제주도내 곳곳에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트레일 걷기 코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과정도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형 및 지질자원과 역사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하는데 있어 방문객들의 다양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제주도의 화산지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사례지역	
화산 지형	동굴	용암동굴		만장굴, 소천굴, 빌레못동굴 등	
		위중유굴		당치물동굴, 용천동굴 등	
	화산	복성화산	하와이형 순상화산		한라산
			단성 화산	분석구	스코리아 콘
		스코리아 마운드			송악산 주변 일부
		수성 화산		응회구	성산일출봉
				응회환 (마르)	수월봉, 용머리해안
		이중 화산		응회환 +분석구	송악산, 당산봉, 두산봉, 하논
				응회구 +응회환	단산
				응회구 +분석구	소머리오름
		용암원정구		산방산	
		아이슬란드형 순상화산		모슬봉	
	화구	분화구	화구 호	복성화산(순상화산)	한라산 백록담
			화구 호	단성화산	물영아리오름, 사라오름 등
	용암 지형	함몰화구		산굼부리	
		주상절리		대포동 지삿개와 색달동 깎막 등	
호니토		비양도 애기엮은 돌			
투물러스		월정리, 한동리 해안			

출처 : 권동희(2012)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22> 제주도의 해안지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사례 지역		
해안 지형	침식 지형	해식애	정방폭포, 갯각해안		
		과식대	새섬, 강정리 해안		
		해식동	우도 동안경굴, 외돌개 해안, 범섬 등		
		시아치	마라도		
		시스택	외돌개, 섭지코지 선돌바위 등		
		마린포트홀	용머리 해안		
	퇴적 지형	해빈	패사해빈	협재·중문·표선해수욕장	
			모래해빈	검은모래해빈	우도 검멀레해안, 삼양해수욕장 등
			홍조단괴해빈	우도	
		자갈해빈	우도 먹돌해안		
		사력해빈	갯각해안		
		암석해빈	김녕해수욕장 등		
		해안사구	김해·협재·중문해수욕장, 섭지코지		
		육계사주	성산, 섭지코지		

출처 : 권동희(2012).

<표 23> 제주도의 풍화지형, 하천지형, 습지지형, 주빙하 지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사례 지역
풍화지형	풍화혈	타포니	쇠소깍 해안, 용머리 해안, 성산일출봉 등산로 주변, 문섬 해안, 산방산 산방굴 주변 외
		벌집형 타포니	서귀포 해안
	토르	한라산 영실기암, 백록담 화구륜, 탐라계곡 장구목 등사면, 성산일출봉 사면	
하천지형	침식지형	폭포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포트홀	서귀포 효돈촌
습지지형	산지습지	분지습지(하구호습지)	물영아리 오름, 물장오리 오름 외
		사면습지	100고지 습지, 동백동산 습지, 숨은물뱅디습지 외
주빙하지형	구조토	유상구조토	한라산 백록담 화구원(화구지)
		애추	산방산, 한라산의 여러 사면

출처 : 권동희(2012)를 연구자가 재구성.

제주의 지오투어리즘 하드웨어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2개 행정시 및 읍·면·동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초·중·고·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 자생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화산섬 제주의 환경보존 실천노력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이끄는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김범훈, 2012).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국립공원의 등반로, 성산일출봉 탐방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탐방로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제주 세계지오파크의 대표명소들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전국에 느낌의 미학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제주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제주 올레길은 이들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 이로써 화산섬 제주의 곳곳은 소중한 자연자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오투어리즘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부 지오사이트들을 제외하고는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각 탐방로에 설치된 설명 표지판을 보면 지질 및 지형 형성과정 관련 표지판이 생태계 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등반로의 경우만 하여도 입구부터 백록담 동릉 정상까지 설명 표지판이 22개 설치돼 있으나 지형 및 지질자원 해설은 단 1개도 없다. 표지판 대부분은 식물과 동물 등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뿐이다(그림 25). 성판악 코스, 어리목코스, 영실코스, 돈내코 코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실정이다.



(그림 25) 한라산 관음사 탐방코스에 설치된 생태계 설명 표지판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어리목·영실·성판악·관음사·돈내코 등 5개 코스에 걸쳐 탐방객 1,207,661명을 기록한 한라산에서의 전반적인 탐방 형태는 정상인 백록담 등정만을 지향하는 기존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한라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방 형태는 국내 최고봉이라는 지리적 특성만이 고려된 정상 등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등정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관 감상이나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과 같은 단순한 탐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탐방객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학여행단과 산악회의 단체 탐방객 일수록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그 결과 한라산이 갖고 있는 뛰어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탐방객이 한라산에서 체험하는 질적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한라산에서는 현재 관음사 탐방로, 어승생오름 탐방로 및 1100고지 습지에서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한라산 탐방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탐방 프로그램에 한라산의 특성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산지와는 여러 면에서 차별되는 한라산의 특성이 잘 반영된 탐방 프로그램을 탐방로별, 계절별 또는 탐방객 유형별로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태호, 2012).

제주 세계 지오파크에서의 지오투어리즘 현황은 대부분 기존 대중관광 패턴의 답습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정은 세계지오파크 인증 2개월 뒤인 2010년 12월부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다시피 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지오파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세계지오파크 인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는 대부분 계획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전문직 등 관리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이 태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지오파크 지역 내 설명 안내판 보강, 국제세미나 개최, 해외의 세계지오파크와 자매결연 확대와 이를 통한 각종 정보교환, 특히 2013년 9월 아시아·태평양 지오파크(APGN) 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기할 점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2011년부터 세계지오파크 인증 기념

으로 해마다 수월봉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지질공원 국제 트레일 대회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이벤트로 평가를 받을 일이다.

특히 지질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수월봉 가이드 북을 만들어 배포하는 가하면 지역주민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해설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어 기획이 스토리텔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지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전의식이 제고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또한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단 수월봉 지오사이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천지연폭포와 서귀포층 등 제주 세계지오파크의 대표명소들은 지형 및 지질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권(2010)은 다소 경관성이 떨어지더라도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스토리로 엮어 잘만 구성한다면 자연이 가지는 독특함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 이상으로 훌륭한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구성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주목할 일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지역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무적인 일도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2개 행정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6억 원이라는 마을특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형·지질 트레일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특화 상품개발에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사업에 포함된 핵심지역은 서귀포시 권역으로 안덕 지역(산방산, 용머리해안), 서귀포 지역(서귀포층 패류화석, 천지연폭포), 중문지역(대포 주상절리대), 성산 지역(성산일출봉), 제주시 권역으로 구좌 지역(만장굴 및 세계자연유산구역), 환경지역(수월봉)이다.

## (2)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현황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현황은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범훈(2013)은 그동안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연구가 ‘자원개발’ 분야를 다룬 논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지오투어리즘이 아직은 초보 단계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원개발을 주제로 다룬 논문들은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및 자연관찰로가 생물자원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생물 자원인 지형 및 지질자원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탐방 프로그램 및 자연관찰로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영권(2010)은 국내 지오투어리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의 형성 과정이나 지질관련 해설판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에 필요한 인력 양성, 정부·지자체내 전담부서 신설, 지리학 및 지질학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탐방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관련 정부부처, 대학 간의 민·관·학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0년 현재 전국 국립공원에는 총 56개소의 자연관찰로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 중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이 가능한 40개 자연관찰로에는 총 794개의 탐방자원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다(www.knps.or.kr). 이 가운데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해설판은 35개로 전체 해설판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 해설판의 내용을 보면 동·식물 자원의 경우 해당 종들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이 전문가들의 감수 아래 기록되어 있으나, 지형·지질 자원들의 해설판에는 그러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름난 지형 자원, 예를 들어 토르(tor)와 같은 바위 곁에는 그에 대한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는 전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필모 등, 2010).

국내 지오투어리즘 연구 성과물 중 연구대상지로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많았다. 즉 설악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팔공산도립공원, 비슬산국립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립공원의 기능과 국립공원이 가지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오투어리즘 분야 연구에 있어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공원에 대한 지오투어리즘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전영권, 2010).

허민 등(2011)은 지오투어리즘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질유산의 조사 및 연구, 지오사이트 운영 및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지오사이트 간의 이동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역사문화지도 및 각 지역 정보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각종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을 주 대상으로 내재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자연보전을 촉진하는 지질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일관된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서 친환경적 테마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질테마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개발 등의 구체적인 수요자 지형형의 지질관광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의 손쉬운 이해와 지질학적 생성과정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질관광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Komoo, 1997; Hose, 1998; 정강환, 2000)에서와 같이 지질관광객들이 지질관광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응하는 것은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며, 다음으로는 “전시물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해설문” 항목이었다(허철호·최상훈, 2007).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는 아름다운 경관 뿐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 여러 곳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다. (...). 지질관광의 최적지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활용하여 관광과 함께 교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질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산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과 연계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관광차원을 넘어서 교육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광과 연계한 야외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한 형태로 운영되던 야외학습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관광과 교육이 연계한 지질관광 학습을 야외학습의 한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조규성, 2013).

결론적으로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10여 년이란 짧은 도입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탐방 프로그램이나 트레일 코스 개발과 같은 특정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현주소는 아직도 초보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V.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 -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사례로 -

지오투어리즘은 일반적으로 지형 및 지질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형 및 지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역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를 포함할 때,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을 기존의 ‘Geological Tourism’이라는 협의적 개념에서 ‘Geographic Tourism’이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럼으로써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은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으로서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단순한 물리적인 자연이 아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인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인문화 된 자연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지형과 지질 중심의 지오투어리즘 논의에 인문적 환경, 곧 문화·역사와 주민의 일상적 삶까지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는 제주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체험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이며 명확한 개념 설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지역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로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오파크의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을 설정하였다. 성산일출봉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의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적합한 관광지라 할 수 있다.

#### 1. 비전과 목표

‘비전’이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 성산리 일대의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지역 발전의 미래상을 말한다.

성산일출봉의 비전은 유산자원의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반영하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콘셉트(concept)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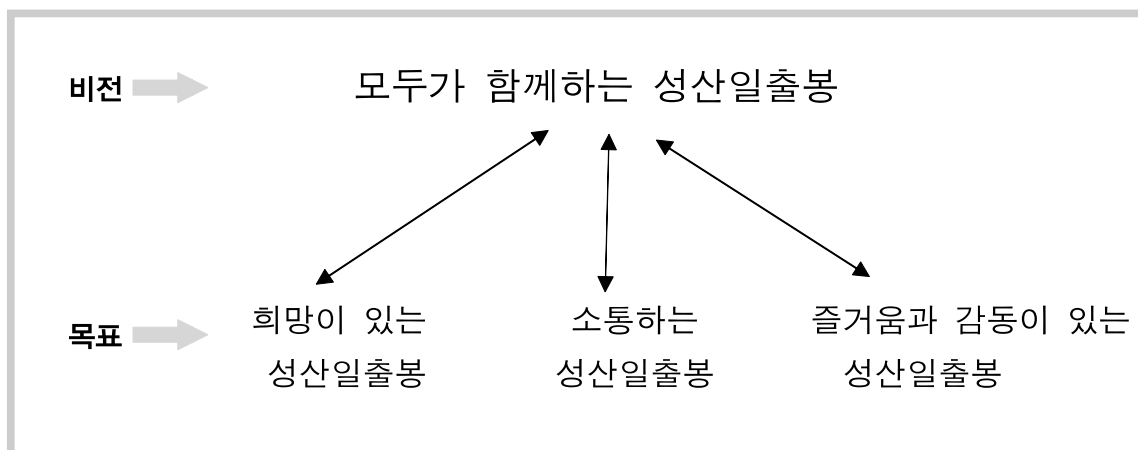
이에 성산일출봉의 비전을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으로 설정하였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이란 콘셉트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적 통섭이며 공간적 통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목표는 ‘희망이 있는 성산일출봉’, ‘소통하는 성산일출봉’,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성산일출봉’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6).

‘희망이 있는 성산일출봉’은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봉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새 희망이 이뤄지기를 기원하고자 함이다.

‘소통하는 성산일출봉’은 우리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이념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등을 넘어 서로가 신뢰하며 존중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이다.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성산일출봉’은 희망과 소통을 통해 탐방객들에게는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즐거움과 감동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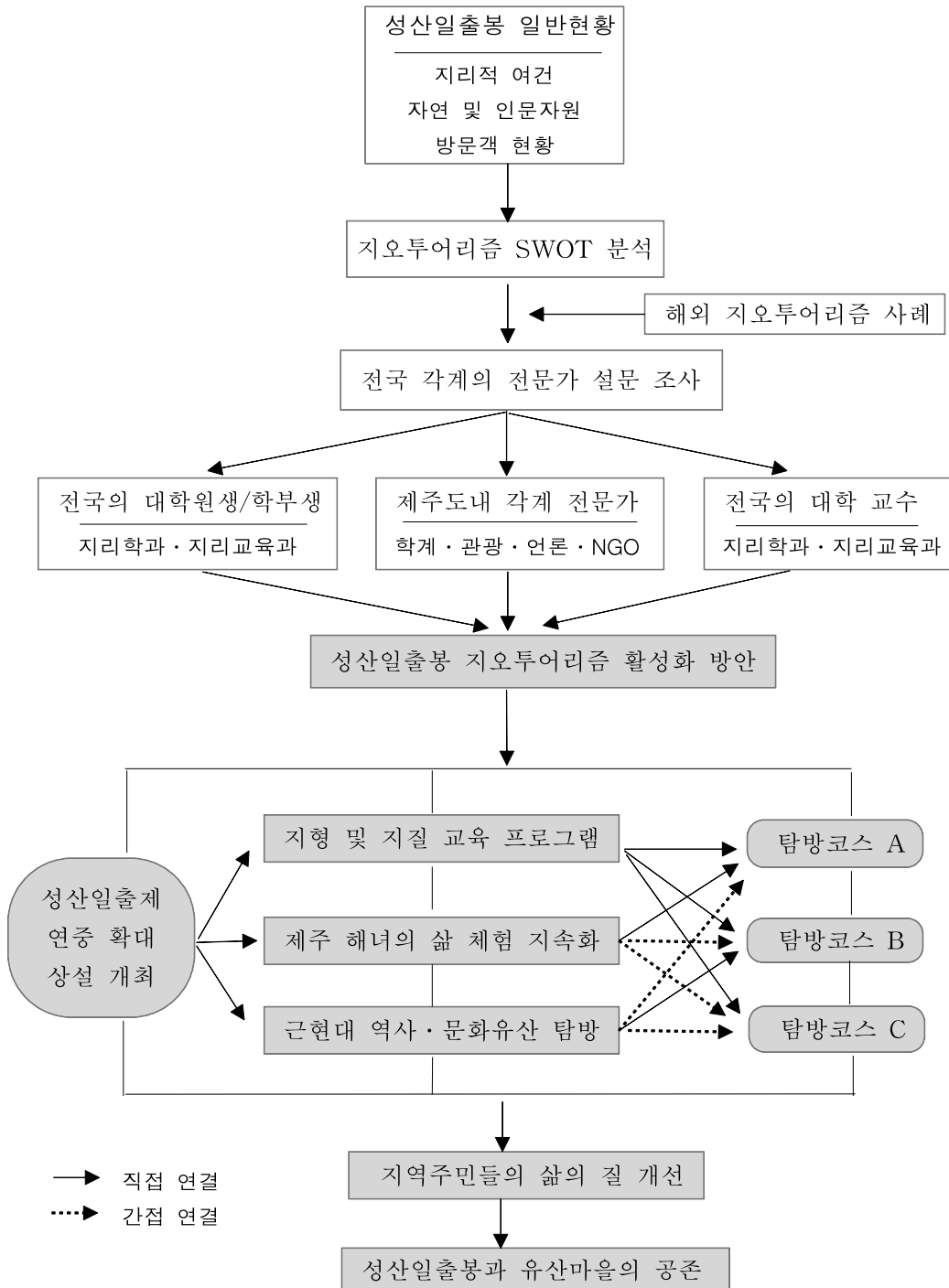


(그림 26) 성산일출봉의 비전과 목표

출처 : 연구자가 구성

## 2. 사례 연구 흐름도

사례 연구는 (그림 27)과 같이 전개하였다.



(그림 27) 사례 연구 흐름도

### 3. 지리적 여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동쪽 연안에 거대한 고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성산일출봉은 성산반도의 끝머리에 위치한 수성화산체로서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되었다. 2007년 6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함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성산일출봉의 빼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 등이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sup>16)</sup> 2010년 10월 제주도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로 인증되면서 9개 대표 명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성산일출봉은 2013년 말 기준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면서 제주지역 최대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였다(그림 28).



(그림 28) 제주지역 최대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성산일출봉

16)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인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는 등의 2개 조항을 충족하였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극찬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관련 내용은 기준 (vii)의 경우, “바다에 솟아 있으며 요새와 같은 성산일출봉은 극적이고 뛰어난 경관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기준 (viii)의 경우, “화산의 구조와 퇴적학적 특징들이 잘 노출되어 있는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석치형 화산분출을 이해하는데에는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해가 뜨는 오름으로도 불리는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약 5,000년 전 현재의 해수면과 비슷한 환경인 얇은 수심의 해저에서 분출하여 해수면 위로 성장하였다. 셋치형 화산<sup>17)</sup>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화산체이다. 성산일출봉은 셋치형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퇴적구조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산일출봉은 과거 화산활동과 퇴적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분포하는 수성화산들의 화산분출 및 퇴적작용 해석의 토대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세계적인 화산체로 평가받고 있다. 그 근거는 일출봉이 형성된 이후 수 천 년 동안 바닷물이 화산재층을 깎아 침식 절단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Sohn & Chough, 1992).



(그림 29) 성산일출봉과 성산리 마을, 그리고 원경의 한라산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http://www.jeju.go.kr>)

바다와 직접 접하고 있는 성산일출봉은 높이 180m, 분화구 직경 600m, 분화구 바닥 해발고도 90m, 면적 377,872m<sup>2</sup> 규모다. 서쪽 사면을 제외한 3면이 깎아지른 듯한 해식애를 이루고 있다. 99개의 바위 봉우리로 둘러싼 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과 같다하여 성산(城山)<sup>18)</sup>이라 하였다. 예로부터 해돋이가 유명하여 일출봉이라고 불렀

17) 1963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바닷가 한 곳에서 바닷물이 부글거리며 끓고 용암이 분출하여 화산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섬이 수면 가까이 성장하게 되자 용암분출이 멈추고, 바닷물에 뒤섞인 검은 화산재와 물방울, 그리고 하얀 수증기가 거대한 분수와 같이 하늘로 향해 치솟았다. 이렇게 몇 달간 지속된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 바로 셋치(Surtsey) 화산이다(박기화 등, 2006).

18) 성산리의 옛 이름은 ‘성산’ 또는 ‘성산오름’이다. 고로(古老)들에게서 ‘성산오름’이라는 음성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성(城)이 산(山/立) 오름’이라는 데서 ‘성산오름’이라 하다가 나중에 ‘성산’을 한자차용표기인 성산(城山)으로 굳어졌다. 『신동국여지승람』(1530) ‘권38, 정의현, 산천’에서 “ ‘성산’

다.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분화구는 둘레 1,704m, 면적 214,400㎡로서 내부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을 방불케 한다(그림 29).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는 일찍이 성산일출봉의 능선 기슭에 자리를 잡아 해가 뜨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성산리는 동쪽으로 우도, 서쪽으로 성산읍 신양리와 고성리, 북쪽으로 성산읍 오조리와 이웃하고 있다. 해안선을 잇는 일주도로를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 시내에서 각각 45km와 47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위도 상으로는 동경 126° 56′ 57″, 북위 33° 27′ 10″에 위치한다. 성산리의 마을 면적은 1,224,456㎡이다<sup>19)</sup>.

성산리는 일제 강점기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바닷물 갈라짐 현상이 일어났던 터진목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육계도를 형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면이 거의 바다로 둘러싸인 성산반도다.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한 오름인 대수산봉에 올라 성산반도를 바라보면 마치 용이 용트림하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듯 환상에 빠져든다(성산리 마을회, 2004).

성산읍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산리 인구는 2013년 말 기준 1,687명(남성 890명, 여성 797명)이다. 전년도 1,742명보다 55명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 추세다. 인구는 20년 전 1993년 2,685명, 10년 전 2003년 2125명 등 10년 단위로 평균 500명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산리가 제주도 동부의 어업 중심지로서 배의 선원으로 전입하였다가 전출하는 인구가 많은 때문이라고 한다.

성산리의 산업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에 위치한 탓에 땅이 비좁고 척박하여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지리적 여건상 주민들 대다수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산업 60%, 관광업 관련 30%, 농업(야채 경작) 10% 비율이다.

현재 성산리 일대는 수산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은……지세가 개미허리와 같다. 돌 벽을 깎아 세워서 둘레를 담과 같이 둘러 있다.”라고 하고, 임제의 『남명소승』(1577)에서는 ‘성산섬’이라는 표기인 ‘城山島’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산오름’과 ‘성산’은 일찍부터 성산리에 있는 오름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성산오름’ 아래쪽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마을을 성산리(城山里)라 한 것이다. 김상헌의 남사록(1601-1602)에는 “그 꼭대기에는 돌 봉우리가 둘레를 빙 둘러 있어서 자연적으로 산성과 같다(성산이라 한 것은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오창명, 200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19) 성산리 마을의 지목 현황은 임야 353,661㎡(전체 면적의 28.9%), 잡종지 285,427(23.3%), 전 241,495㎡(19.7%), 대지 216,967㎡(17.7%), 도로 74,515㎡(6.1%), 기타 52,391㎡(4.3%) 등 순이다(성산리 마을회, 2004).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의 중간지점으로써 제주도 동부의 어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성산~우도 도항선 운항이 꾸준하다. 여기에 성산~전남 장항간 여객선 운항으로 도외 지역까지 해상 교통연결이 지속되면서 관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주올레와 만나는 곳이다. 평화와 행복과 치유의 아름다운 길을 표방하는 제주올레의 제1코스가 성산일출봉과 성산마을을 지난다. 성산리 입구인 한돌목 성산항 갑문~일출봉 북쪽 해안가의 이생진 시비공원과 오정개 해변~성산일출봉 입구 주차장~일출봉 남쪽 해안가인 수마포 해변~제주 4·3 유적지인 터진목~광치기 해변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이 연이어진다. 올레 탐방객들과 성산일출봉 탐방객들 간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성산리 내수면으로 오조리와 연결된 성산포만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창흥동 습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저수지와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저어새의 핵심 월동지다. 해마다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는 탐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름철에는 썰물 때를 이용한 조개잡이 체험 어장으로도 각광을 받는다(그림 30).



(그림 30) 성산포 내수면에서의 조개잡이 체험  
출처 : 김완병(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이렇듯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은 새해 첫날 모처럼 공존의 장을 연출한다. 성

산일출봉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출 축제를 개최하면서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아름다운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그림 31).



(그림 31) 제20회 성산일출제 포스터

#### 4.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현황

마을자원은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마을자원은 일정한 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거나 전승되어온 유·무형의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자원은 해당 마을을 널리 알리고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들 마을 자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마을자원은 자원 자체의 속성과 더불어 해당 마을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나아가서는 마을 주민들의 정신과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소중한 실체라는 사실이다(정광중, 2009).

성산리 일대의 마을자원은 이러한 기본인식 하에 조사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도 활용 가능성 크다고 판단되는 자원들을 정리하여 (표 24)와 (그림 32)에 제시하였다.<sup>20)</sup>

성산 마을의 자원분포의 특징은 터진목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육계도를 형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면이 거의 바다로 둘러싸인 성산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마을자원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내 해안가 마을 대부분의 자원분포가 자연자원은 주로 해안가에 집중하고, 인문자원은 마을 안쪽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과도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성산리의 마을자원이 다른 마을의 자원가치와 차별성을 가지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이는 성산일출봉이라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연자원과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간직해 오고 있는 인문자원들이 공존할 때 가능한 일이다.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표 24> 성산 마을의 주요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분포

자연자원			인문자원		
명칭	학술적 개념	위치	명칭	시대	위치
성산일출봉	응회구	마을동쪽 끝	성산일출제	현대	일출봉 정상
치너바위	기암괴석	탐방로	만남의 광장	현대	일출봉 입구
등경돌	기암괴석	탐방로	해녀물길공연	현대	우뭇개
초관바위	기암괴석	탐방로	이생진시비공원	현대	오정개 옆
곰바위	기암괴석	탐방로	마을 포제	근현대	시비공원 옆
우뭇개	자연포구	일출봉 북쪽	유물산포지	탐라시대	성산항 입구
오정개	자연포구	일출봉 북쪽	여객터미널	현대	성산항
한돌목	바다	갑문 일대	우뭇개 동산	근현대	우뭇개 입구
성산포만	내수면	일출봉 서쪽	방문객센터	현대	일출봉 입구
통발알	내수면	조개체험장	동굴진지	근현대	수마포 동쪽
수마포	포구	일출봉 남쪽	터진목 학살터	근현대	터진목
너른모살	검은모래해변	수마포 남쪽	옛 초등교 터	근현대	통발알 앞
터진목	육계도	성산리 입구	오일시장	근현대	마을 중심
새끼청산	작은 바위	일출봉 동쪽	서성로	현대	해안도로

출처 : 현지 조사에 의해 연구자가 작성.

20) 성산마을의 자연 및 인문자원은 이 외에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겠지만, 마을단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원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농·수산 자원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자연 및 인문자원 조사는 2014년 3월3일 한천복 전 성산리마을지 편찬위원장이 동행하여 자문하였다.



(그림 32)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 일대의 주요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 5. 방문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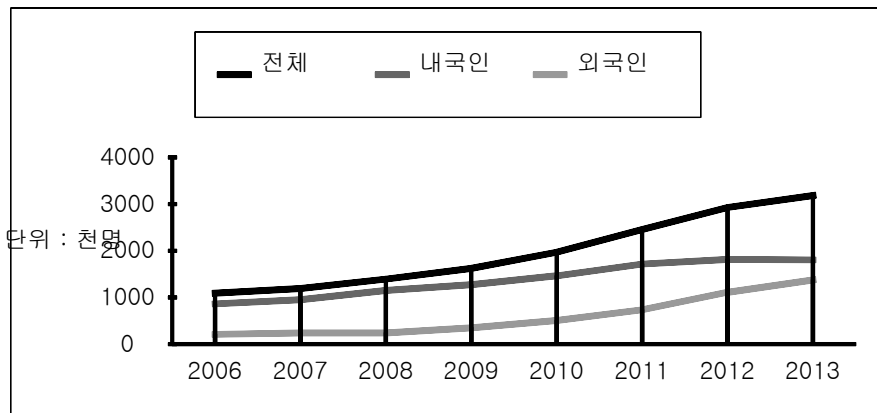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자료에 따르면 성산일출봉 방문객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2007년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13년에는 사상 처음이자 제주도내 단일 관광지로는 최대인 300만 명을 돌파하였다(표 25) (그림 33). 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성산일출봉이 국제적인 브랜드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효과에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로 인증을 받은 효과에 힘을 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5> 2006년 이후 연도별 성산일출봉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증감률 : 전년 대비)

연도	전체 방문객		내국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비중	인원	증감률	비중
2006	1,093	—	863	—	79.0%	210	—	21.0%
2007	1,193	9.2%	954	10.5%	80.0%	238	13.3%	20.0%
2008	1,394	16.9%	1,152	20.8%	82.6%	242	1.7%	17.4%
2009	1,624	16.5%	1,273	10.5%	78.4%	351	45.0%	21.6%
2010	1,970	21.3%	1,464	15.0%	74.3%	506	44.2%	25.7%
2011	2,455	24.6%	1,717	17.3%	69.9%	738	45.9%	30.1%
2012	2,928	19.3%	1,817	5.8%	62.1%	1,111	50.5%	37.9%
2013	3,182	8.7%	1,805	-0.7%	56.7%	1,377	23.9%	43.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그림 33) 2006년 이후 연도별 성산일출봉 방문객 추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전체 방문객 점유율에서도 해마다 상승세를 탔다. 2013년에는 전체 방문객의 절반에 가까운 43.3%를 기록하였다. 전체 방문객 2명당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전체 방문객 가운데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내국인 점유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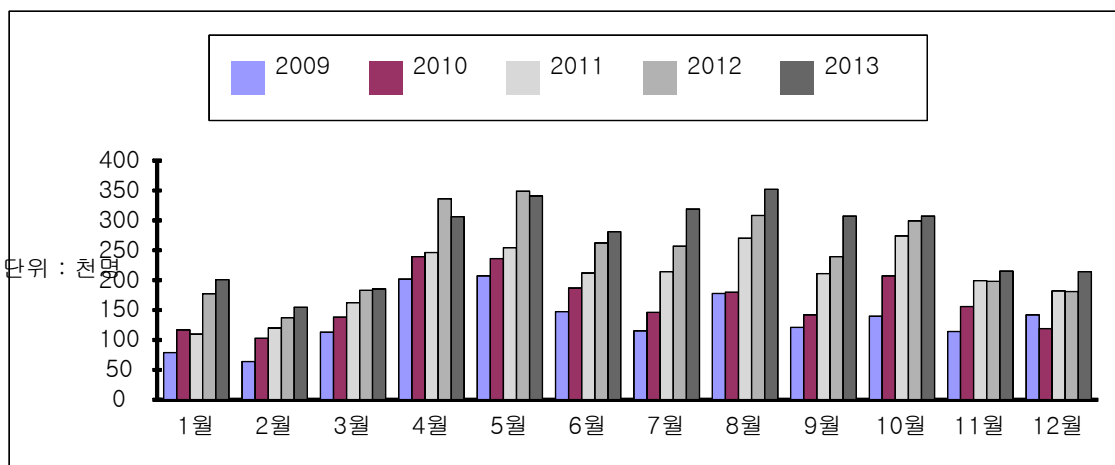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의 증가율은 2012년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전국적으로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내 경기의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된다.

<표 26> 최근 5년(2009-2013년) 성산일출봉 방문객 월별 현황

(단위 : 천명, 비중 : 1년 중 월 점유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계	1,624	100%	1,970	100%	2,455	100%	2,928	100%	3,182	100%
1월	79	4.9%	117	5.9%	110	4.5%	177	6.0%	201	6.3%
2월	64	3.9%	103	5.2%	120	4.9%	137	4.7%	155	4.9%
3월	113	7.0%	138	7.0%	162	6.6%	183	6.3%	185	5.8%
4월	202	12.4%	239	12.2%	246	10.0%	336	11.5%	306	9.6%
5월	207	12.8%	236	12.0%	254	10.3%	349	11.9%	341	10.7%
6월	147	9.1%	187	9.5%	212	8.6%	262	8.9%	281	8.8%
7월	115	7.1%	146	7.4%	214	8.7%	257	8.8%	319	10.6%
8월	178	11.0%	180	9.2%	270	11.1%	308	10.6%	352	11.1%
9월	121	7.5%	142	7.2%	211	8.6%	239	8.2%	307	9.6%
10월	140	8.6%	207	10.5%	274	11.2%	299	10.3%	307	9.6%
11월	114	7.0%	156	7.9%	199	8.1%	198	6.8%	215	6.8%
12월	142	8.7%	119	6.0%	182	7.5%	181	6.3%	214	6.7%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 34) 최근 5년(2009-2013년) 성산일출봉 방문객 월별 추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최근 5년(2009~2013년) 연중 월별 방문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5월>4월>8월의 순, 2010년에는 4월>10월>5월의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2011년에는 10월>8월>5월>4월의 순, 2012년에는 5월>4월>8월의 순, 2013년에는 8월>5월>7월의

순으로 연중 월별 방문객 비중이 10% 대 이상을 점유하면서 다른 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중 방문 비중이 가장 낮은 달은 2월로 나타났고 이어 3월이 그 뒤를 이었다(표 26) (그림 34).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5년간 방문객 비중이 높은 달은 5월, 4월, 8월, 10월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비중이 낮은 달은 2월과 3월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자료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성산일출봉 방문객의 체계적인 관리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6.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

SWOT 분석은 내부적으로 볼 때 현재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볼 때 미래의 기회와 위기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SWOT 분석은 강점과 기회를 십분 활용하되,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약점을 최소화 또는 해소하며,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읽게 한다. 이에 따라 SWOT 분석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SWOT 분석을 위해 현장의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지역주민, 학계, 관광업계, NGO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을 위해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은 연구자와 토론을 거쳐 이루어졌다. 현장 방문은 2014년 2월 15~16일, 22~23일, 3월 1~2일 등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sup>21)</sup>

SWOT 분석 결과는 강점, 약점, 기회, 위기의 요인들을 자연자원 분야와 인문자원 분야로 세분하였다.

21) 성산일출봉 SWOT 분석을 위해 현장에 동행 또는 자문에 응한 제주지역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다. △지질 분야 : 강순석(제주도 지질연구소장), 전용문(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역사 분야 : 박찬식(제주4·3평화재단 조사단장),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생태 분야 : 강문규(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김완병(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NGO 분야 :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남규(제주민주화운동사료 연구소장) △관광 분야 : 강인철(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 김대훈(제주로투어 대표) △주민 대표 : 정영기(성산리장), 한천복(해 뜨는 마을 성산리 편찬위원장), 고송환(전 성산리 어촌계장) △관리 분야 : 이철현(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자연유산관리팀장).

## 1) 강점

### (1) 자연자원 분야

- 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 지오파크 인증으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 ② 제주의 지형·지질 경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국제관광지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다.
- ③ 대표적인 셋치형 수성화산체로써 외국의 지질학자들이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④ 셋치형 수성화산체의 지질 및 지형학적 특성 관찰과 교육 장소로 이용이 가능하다.
- ⑤ 해안선에서 바다로 돌출된 반도형의 지형으로써 탁 트인 바다 조망은 물론 한라산 방향으로의 경관 조망이 탁월하다.
- ⑥ 성산일출봉 정상에서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2인 1조 2시간 교대 간격으로 탐방객들에게 10분 내외에 걸쳐 화산섬 제주와 성산일출봉의 화산활동 등 지질 및 지형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⑦ 성산리와 오조리로 이어지는 성산포만 내수면의 조류 생태환경이 우수하다. 해마다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탐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⑧ 성산포만 내수면에서는 여름철이면 썰물 때를 이용한 조개잡이 체험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 ⑨ 성산일출봉 주변의 독특한 식생 및 해양생태계 보존이 양호하다.
- ⑩ 근거리에 섬 속의 섬인 우도와 신양리 섬지코지 관광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 (2) 인문자원 분야

- ① 설문대할망 설화를 지니고 있다.
- ② 탐라순력도 등 성산일출봉에 대한 옛 기록들이 뛰어나다.
- ③ 영주십경 가운데 제1경인 성산출일(城山出日)의 장소로써 매년 성산일출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 ④ 그동안 성산일출봉 탐방로가 폭 2m 내외, 길이 600m 규모의 1개뿐으로 인해 정상을 오르고 내리는 탐방객들로 정체현상과 혼잡이 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로부터 주민들이 일출봉 분화구에서 소, 말을 기르기 위해 정상을 오르내리는데 이용하였던 옛길 400m를 폭 2.5m로 2013년 9월 복원하여 하산 전용 탐방로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 ⑤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진지동굴 18개소, 성산 마을입구 터진목에서 자행된 제주 4·3 사건 양민 집단 학살터, 서북청년단의 고문 등 온갖 만행이 자행된 옛 성산초등학교 건물 등 제주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들이 생생하다.
- ⑥ 성산리 해녀들이 성산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에서 직접 물질작업을 시연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등 제주해녀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⑦ 성산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 해녀의 집 일대를 시·종점으로 한 수상보트가 일출봉 해상을 돌아보는 해상탐방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⑧ 조선시대 선비 묵객들과 현대 시인들의 심상 공간의 장으로 일출의 희망과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미지를 알려주는 이생진 시인의 시비공원이 있다.
- ⑨ 어업 전진기지, 성산~우도와 성산~전남 장흥 뱃길 등 제주지역 동부 해상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⑩ 유람선 관광, 쾌속 보트관광, 조개잡이 등 주변 바다와 내수면을 이용하는 해양관광 및 체험의 장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 ⑪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 성산리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서 일출봉 방문객들의 마을 접근성이 뛰어나다.
- ⑫ 성산 마을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마을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하다.
- ⑬ 성산 마을의 오폐수를 성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 처리함으로써 완벽할 정도의 청정바다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 ⑭ 유네스코의 협약준수에 따른 국제적 지원 및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약점

### (1) 자연자원 분야

- ① 현세인 5,000년 전에 분출한 수성화산체이지만, 현재 활화산이 아니어서 분화구에서 수증기 분출 등 화산활동의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다.
- ② 오름이라고 부르는 단성화산체들 가운데, 성산일출봉은 세계적으로 볼 때 수성화산체의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탐방객들에게는 수성화산활동과 지형·지질학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경관적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
- ③ 수성화산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수성화산의 특징을 비롯하여 성산일출봉 주변 신앙리층 화석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태이다.
- ④ 갈수록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들의 답압에 의한 미고화된 지층이 파괴되고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 ⑤ 탐방로 하산길이 새롭게 조성되었으나 성수기 때 일출봉 탐방로 혼잡현상은 여전하다.
- ⑥ 탐방객들에게 지형 및 지질현상을 설명하는 시스템이 한정되어 있다. 일출봉 정상에서 탐방객 구분이 없이 한 차례 설명이 전부이다. 초·중·고·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연령대별 해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탐방객들로 하여금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자원 보존의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⑦ 탐방로 일부 구간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라산 방향으로 볼 때 전면에 펼쳐지고 있는 오름, 관광명소, 마을 등을 알려주는 안내지도가 전무하다. 일출봉 등정에 따른 빼어난 경관체험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⑧ 일출봉 해상을 돌아보는 수상보트 이용 해상탐방은 지형 및 지질 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⑨ 성산포만 내수면 조개잡이 체험어장의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2) 인문자원 분야

- 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의 자연자원과 유산마을의 인문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 ② 탐방객 급증으로 관광 성수기 때에는 성산 마을 입구인 광치기 해변까지 약 1km에 걸쳐 전세버스와 렌트카 차량이 밀리는 등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③ 성산일출봉 진입 공간 등 도로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일출봉 탐방객과 일출봉 입구 등을 지나는 올레꾼들과 얽혀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 ④ 탐방객들의 성산일출봉 진입로가 방문객센터 방향과 매표소 방향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다,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성수기 때 매표소와 검표소의 혼잡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 ⑤ 탐방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는 방문객센터에는 탐방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CCTV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출봉 등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전화 등 비상연락망 체계 미흡하다. 관리 직원들은 일출봉 주차난 정리에 투입되는 관계로 탐방로 중간 중간에 상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⑥ 성산일출봉 관리 직원을 비롯하여 자연유산해설사들의 복장이 제각각이어서 탐방객인지, 관리직원인지, 해설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탐방객들의 편의 및 정보 제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⑦ 마을주변에 인공시설물인 숙박 건물과 도로가 난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축으로 인하여 친환경적인 세계자연유산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저해되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 ⑧ 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본 성산 마을의 지붕경관부터 조화롭지 못하다.
- ⑨ 해녀 물질 공연은 5명의 해녀가 오후 1시 30분과 3시에 하루 2회씩 20~30분 정도 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무동력인 배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연출하고 있으나, 단지 화산암반위에서 노를 젓는 모습만 연출함으로써 현장감과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녀체험의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⑩ 그동안 해녀들은 무속제의 공간인 일뿔당에서 한 달에 3번 내외로 물질작

업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 사유지가 팔리면서 일렉당이 매립되는 바람에 해녀들은 음력 2월 보름 영등굿에서만 제의를 지내고 있어서 심적인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 ⑪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단적인 사례로 관광지 주변 상가들만 난립 운영되면서 영업이 성업 중에 있으나 본래의 성산마을에는 탐방객들이 찾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마을 내의 상가영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은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
- ⑫ 유산마을의 역사문화체험 공간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유산마을로의 탐방객 유인책이나 체류기반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탐방객들은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일출봉탐방과 주변에 머물다가 그냥 일출봉을 떠나는 바람에 성산일출봉은 통과형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 ⑬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동굴진지와 제주4·3 양민 학살터에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안내표지판 1개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인근 주변 유채꽃밭에는 관광객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역사문화유산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의 관리부실을 체감할 수 있다.
- ⑭ 성산항에는 성산~우도 도항선이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우도 방문객들 대부분은 성산항으로 진입하는 마을 외곽도로만을 이용할 뿐 성산 마을을 들르지 않고 있다.
- ⑮ 성산 마을 내 역사문화관광지, 명소, 맛 집, 상업적인 숙박시설, 주민운영민박, 쇼핑시설 등 마을관광 안내지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있지 않다.
- ⑯ 성산 마을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자부심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마을 소득향상 등 주민복지 혜택 미흡으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용역을 실시하면서 마을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지만,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며 당국을 불신하고 있다.
- ⑰ 매년 1월 1일 성산일출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악화 시에는 해돋이를 감상하지 못함에 따라 일출봉 방문객들의 실망감이 크다.
- ⑱ 조선시대 선비 묵객들과 현대 시인들의 심상 공간의 장으로 일출의 희망과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미지가 있으나, 현지에는 그리운 바다 성산

포의 이생진 시비공원만 위치하여 있을 뿐이다. 예로부터 선비 묵객들이 성산일출을 보면서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는데 이들이 어떤 시상으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⑲ 마을 중심가에는 끝자리 날짜가 1일과 6일마다 오일장이 열리고 있어 주민소득이 기대되고 있으나,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오일장 운영은 낮 12시면 파장할 정도로 한산하다.
- ⑳ 마을 한 복판에 송신철탑 등 KBS 제주송신소가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협소한 성산 마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3) 기회

#### (1) 자연자원 분야

- 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지오파크 인증으로 인한 성산일출봉의 화산지질 및 지형학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학계에서도 수성화산활동의 교과서로서 재조명하고 있다.
- ② 유네스코 인증이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로 인하여 성산일출봉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제주도내 단일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등 중화권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③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평가는 6년마다, 세계지오파크 평가는 4년마다 시행됨으로써 성산일출봉의 지질 및 지형자원의 보전과 활용 노력, 유산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려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④ 유산마을인 성산리는 비록 육계도(고성리에서 진입과정)와 내수면 다리인 한도교(오조리에서 진입과정)로 외부 마을과 연결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륙의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할 경우, 세계자연유산마을로서 성산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개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계 지오파크이자 국가 지오파크 제1호 가운데 하나인 성산일출봉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⑥ 주변 바다와 내수면의 청정 환경 이미지도 지형 및 지질분야 못지않게 돋보인다.

(2)인문자원 분야

- ①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의 단절상태를 끊고, 통과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은 현재의 일출봉 주차장 이전이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성산마을 내수면 쪽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입안하여 정부의 기획재정부 투융자 심사를 신청 중에 있다. 주차장이 이전될 경우 탐방객들은 마을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하여 마을을 경유하고 일출봉을 등정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 내 상가영업 등 마을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② 제주관광개발공사에서 2013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정부의 제주도 세계지오파크 마을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성산리 마을의 소득 작목 개발에 기대를 갖게 한다.
- ③ 성산일출봉 관광지가 내수면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육지부와 여객선 운항으로 접근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④ 올레길 제1코스가 성산마을과 일출봉 입구를 통과하고 있음에 따라, 올레길과 성산일출봉 탐방과 섬지코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경우, 올레 탐방객들의 방문형태를 체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 ⑤ 화산섬 제주에서 처음으로 해가 떠오르는 곳, 자연자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곳,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하고 독특한 설화, 해녀들의 삶의 현장, 통한의 근현대 역사문화가 생생한 곳, 선비 묵객들과 시인들의 심상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제주지역 동부의 해상 요충지 등 성산일출봉과 성산마을 일대에는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 자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으로의 개발 잠재력이 제주도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다.

#### 4) 위기

##### (1) 자연자원 분야

- ① 관광행태가 성산일출봉 탐방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성산일출봉은 일출봉대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파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성산리 마을은 마을대로 지역적인 고립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 ② 탐방객이 갈수록 급증함에 따라 탐방객 정원제 등 탐방객 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답압으로 인한 일출봉 원형 훼손뿐만 아니라 탐방객들로 인한 혼잡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 ③ 방문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인하여 내수면의 조류생태 환경 악화 또한 우려가 된다.

##### (2) 인문자원 분야

- ①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형 65대, 소형 152대 등 모두 217대 주차능력에 머물고 있는 일출봉 입구의 주차장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마을도로체계 개선, 마을 내 상가영업 활성화 등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주차장 이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일출봉과 성산마을과의 단절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 ② 현재 물질작업을 시연하는 해녀들은 77명으로 7명 또는 8명을 1개조로 하여 10개조로 나누어 공연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60대 후반 고령인데다, 젊은 해녀양성 방안마저 전무한 상태여서 장차 제주해녀문화의 단절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③ 일출봉 입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등 관광위락시설은 지역주민보다 외부인의 운영이 많고 시설 또한 난립되어 있다. 이로 인한 영업주들의 이기주의 팽배 등으로 간판정비와 같은 친환경적인 세계자연유산마을의 환

경개선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④ 성산일출봉 경관이 뛰어난 마을 해안에 호텔 등 상업적인 관광시설이 추진되는 데 따른 경관 파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 ⑤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오파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금처럼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와 지자체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⑥ 매년 1월1일 개최되는 성산일출제 행사가 기상악화에 대비하는 차선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방문객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결국은 새해 일출제 행사를 외면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 ⑦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오일시장은 향후 먹거리 장터 운영 등 탐방객들을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을 활성화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 ⑧ KBS 제주송신소가 현재의 위치에 계속 존재할 경우, 면적이 협소한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경관 훼손이 갈수록 심해지고 유산마을의 발전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 ⑨ 성산일출제는 처음에는 성산마을회에서 자체 주관하였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예산지원을 내세워 서귀포시와 성산읍 단위로 이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성산 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 상실감에 빠져 있다. 주민들은 이의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국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 5) SWOT 분석에 의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과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SWOT 분석은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표 27)과 같이 7개의 콘텐츠로 집약하여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27> 성산일출봉 SWOT 분석에서 과제로 집약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구분	성산일출봉 SWOT 분석에서 제기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 분야
자연 자원 분야	△성산일출봉은 수성화산체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관적 가치가 더 부각 △탐방객 답압에 의한 자연훼손 우려 △탐방로 하산길 혼잡 여전 △계층별, 연령대별 해설 전문화 부재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인식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산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 일대의 수상보트의 일출봉 해상 탐방에는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전무 △성산포만 내수면 조개잡이 체험어장에 안전요원 미 배치	해양 관광 활성화 및 내수면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인문 자원 분야	△성산일출제가 마을회 주관에서 읍단위로 확대 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상실감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고유성, 장소성, 정체성 유지위해 성산일출제의 마을회 개최 요망 △최근 10년(2004-2013) 1월1일 해돋이 감상 단 3회에 그침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 성산 마을주민들에 의한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
	△성산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 해너물길공연 인기를 끌고 있으나 현장감과 역동성 미흡 △해너 체험 기회 부재 △해너들의 고령화	제주해너의 삶 체험 지속화
	△일제 강점기 일본군 동굴진지 현장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미흡 △제주 4·3사건 유적지 양민 집단 학살터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미흡	일제 강점기/제주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개발
	△선비 묵객들이 성산일출봉 일출 장면의 장관을 많은 시상으로 읊었으나 음미할 장소 부재	선비 묵객들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개발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부재로 유산마을은 탐방객들이 찾지 않고 갈수록 단절되면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일출봉 주차난으로 유산마을 내부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대형 관광버스 및 렌트카, 지역 통과차량들로 정체 △서민들의 소득창출 장소인 오일장의 제 기능 미흡 △KBS 제주송신소의 존재로 세계자연유산 경관훼손, 주민들 건강 우려 등 마을발전 걸림돌	유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이렇게 제안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은 전국의 각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의 토대로 활용하였다.

## 7.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에 대한 설문 조사

### 1) 설문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화산섬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6절의 성산일출봉 SWOT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사례연구 지역인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각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성산일출봉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동기,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등 현재적 관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둘째, 성산일출봉 방문객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전문가 관점, 전국적인 전문가 관점, 그리고 미래의 전문가 관점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의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2) 조사 설계

본 설문 조사는 (표 28)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현재적인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지역적인 전문가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오투어리즘을 이해하고 있는 학계, 관광관련 종사자, 해당분야 공무원, 언론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NGO 등 제주도 내 각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국적인 전문가 관점에서의 설문 조사는 지오투어리즘을 이해하고 교육하고 있는 전국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이메일 응답방식을 통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미래의 전문가 관점에서의 설문 조사는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과 접수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8> 성산일출봉에 대한 설문 조사의 개요

구분	성산일출봉 방문객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현재적 관점	미래 전문가 관점	지역 전문가 관점	전국 전문가 관점
조사기간	2014. 3. 8.~3. 9.	2014. 3. 14.~4. 4.	2014. 3. 14.~3. 24.	2014. 3. 14.~4. 4.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	우편발송 및 접수	일대일 면접	이메일 응답
표본추출	성별·연령별 전국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 할당	구분 없음	구분 없음	구분 없음
유효표본	189명	188명	61명	69명

### (3) 설문지 설계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설문과 관련, 응답자의 방문횟수, 방문 형태, 체류형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방안’ 보고서(2011)의 설문조사 문항을 참고하였다. 방문 목적, 만족 이유 및 불만족 이유를 묻는 다중 응답 문항은 본 연구의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집단,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역시 응답자의 방문횟수, 방문 형태, 만족도의 문항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방안’ 보고서(2011)의 설문조사 문항을 참고하였다.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 및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묻는 다중 응답 문항은 본 연구의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항 보완은 학계의 자문을 구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29> 설문 조사 대상 집단별 설문지의 구성

성산일출봉 방문객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기본) 성별	(기본) 성별	(기본) 성별	(기본) 성별
(기본) 연령별	(기본) 연령별	(기본) 연령별	(기본) 연령별
1. 방문 횟수	1. 방문 횟수	1. 방문 횟수	1. 방문 횟수
2. 방문 형태	2. 방문 형태	2. 만족도	2. 방문 형태
3. 체류 형태	3. 만족도	3. 만족 이유	3. 만족도
4. 방문 목적	4. 만족 이유	4. 불만족 이유	4. 만족 이유
5. 만족도	5. 불만족 이유	5.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5. 불만족 이유
6. 만족 이유	6.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6.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7. 불만족 이유			

#### (4) 분석 방법

4개의 집단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 버전 18.0을 사용하여 각 문항을 코딩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은 응답 항목의 빈도와 구성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의 설문항목에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 조사의 결과는 3개 집단별 1순위 결과와 1~7순위를 결과를 각각 도출하였고, 전체적인 1~7순위는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 2)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총 189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8	51.9	
	여성	91	48.1	
연령	20대	33	17.5	
	30대	42	22.2	
	40대	44	23.3	
	50대	34	18.0	
	60대 이상	36	19.0	
방문 횟수	1회	107	56.6	
	2회	51	27.0	
	3회 이상	31	16.4	
방문 형태	개별관광	162	85.7	
	단체관광	27	14.3	
방문 체류기간	당일형	98	51.9	
	1박 이상	91	48.1	
방문 목적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37	19.6	
	탁월한 경관 감상	63	33.3	
	해돋이 현장 체험	5	2.6	
	역사문화의 현장 탐방	1	0.5	
	제주해녀의 물질 공연 감상	0	0	
	해양 관광 체험	0	0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방문	79	41.8	
	기타	4	2.1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78	41.3
		만족	85	45.0
보통		24	12.7	
불만족		1	0.5	
매우 불만족		1	0.5	

만족 이유 (다중 응답)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62	17.8
	탁월한 자연경관	160	46.0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25	7.2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6	1.7
	해돋이 장면	13	3.7
	제주해녀의 물질 공연	10	2.9
	해양 관광 체험	6	1.7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4	1.1
	주민의 친절	7	2.0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8	2.3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3	0.9
	주변관광지와 연계용이성	41	11.8
	기타	3	0.9
	불만족 이유 (다중 응답)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	49
탐방로 혼잡		32	12.9
편의시설 미흡		12	4.8
식음료 바가지요금		10	4.0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미흡		11	4.4
자연훼손 우려		22	8.9
해돋이 보지 못함		11	4.4
해녀 물질 공연 미흡		4	1.6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		45	18.1
해양관광 체험 미흡		4	1.6
향토 음식 및 숙박 불만		2	0.8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		22	8.9
유산마을 환경개선 미흡		4	1.6
주민 불친절		1	0.4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미흡		15	6.0
기타		4	1.6
총계		189	100.0

방문 횟수는 1회 방문(56.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2회(27.0%), 3회 이상(16.4%) 순이었다. 방문형태는 단체관광(14.3%) 보다 개별관광(가족관광 포함)(85.7%)이 압도적이었다. 방문 체류형태는 당일형(51.9%)과 1박 이상 체류형(48.

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방문 목적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방문(41.8%), 탁월한 경관 감상(33.3%),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인식 체험(19.6%)에 이어 소수 응답으로 해돋이 현장 체험(2.6%), 역사문화의 현장 탐방(0.5%)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해녀의 물질공연 감상, 해양관광 체험은 응답자가 없었다.

성산일출봉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45.0%)과 매우 만족(41.3%) 등 긍정적인 답변이 86.3%로 압도적인 반면, 불만족(0.5%)과 매우 불만족(0.5%)은 극소수에 그쳤다.

특히, 성산일출봉 방문 전반에 대한 만족 이유(또는 매력요인)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탁월한 자연경관(46.0%)이 가장 많은 빈도 분포를 보였다. 이어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17.8%), 주변 관광지와 연계 용이성(11.8%),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7.2%), 해돋이 장면(3.7%), 제주해녀의 물질 공연(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만족 이유(또는 개선사항)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19.8%),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18.1%), 탐방로 혼잡(12.9%), 자연훼손 우려(8.9%),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총 188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31)과 같다.

방문 횟수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1회 방문(41.0%), 등재 전과 후 방문한 적 없음(20.7%), 2회(17.6%), 등재 이전 방문(14.4%) 등 순이었다. 방문형태는 개별 관광(31.5%) 보다 단체관광(68.5%)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49.7%)과 매우 만족(12.1%) 등 긍정적인 답변이 61.8%로 나타났으나, 매우 불만족(20.8%)과 보통(17.5%)의 응답도 적지 않게 보였다.

특히,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 이유(또는 매력요인)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탁월한 자연경관(46.3%)이 가장 많은 빈도 분포를 보였다. 이어 관광지 접근의 용

이성(12.2%),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12.2%), 주변 관광지와 연계 용이성(10.1%), 해돋이 장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만족 이유(또는 개선사항)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자연훼손 우려(25.0%),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20.0%), 방문객센터의 정보제공 미흡(16.0%), 탐방로 혼잡(9.0%),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1	59.0
	여성	77	41.0
연령	20대	180	95.7
	30대	7	3.7
	40대	1	5
	50대	0	0
	60대 이상	0	0
방문 횟수	세계자연유산 등재 전/후 방문한 적 없음	39	20.7
	등재 후 1회	77	41.0
	2회	33	17.6
	3회 이상	12	6.4
	등재 이전 방문	27	14.4
방문 형태	개별관광	47	31.5
	단체관광	102	68.5
만족도	매우 만족	18	12.1
	만족	74	49.7
	보통	26	17.5
	불만족	0	0
	매우 불만족	31	20.8



만족 이유 (다중 응답)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23	12.2
	탁월한 자연경관	87	46.3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23	12.2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7	3.7
	해돋이 장면	16	8.5
	제주해녀의 물질공연	0	0
	해양 관광 체험	3	1.6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0	0
	주민의 친절	2	1.1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3	1.6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4	2.1
	주변관광지와 연계용이성	19	10.1
	기타	1	0.5
	불만족 이유 (다중 응답)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	6
탐방로 혼잡		9	9.0
편의시설 미흡		3	3.0
식음료 바가지 요금		5	5.0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미흡		3	3.0
자연훼손 우려		25	25.0
해돋이 보지 못함		6	6.0
해녀공연 미흡		0	0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		20	20.0
해양관광 체험 미흡		2	2.0
향토음식 및 숙박 불만		0	0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		4	4.0
유산마을 환경개선 미흡		1	1.0
유산마을 주민 불친절		0	0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미흡		16	16.0
기타		0	0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1순위 빈도)	지형/지질학적 가치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76	40.4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68	36.2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16	8.5
	제주해녀의 삶 터	4	2.1
	관광해양 체험	18	9.6
	심상 공간	1	0.5
	주민들의 일상생활	5	2.7
	기타	0	0
총계		188	100.0

성산일출봉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를 묻는 다중 응답에서 1순위 빈도는 지형/지질학적 가치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40.4%)과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36.2%)가 높은 선택을 받았다.

<표 32>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76 (40.4%)	50 (26.6%)	17 (9.0%)	11 (5.9%)	18 (9.6%)	7 (3.7%)	9 (4.8%)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68 (36.2%)	27 (14.4%)	22 (11.7%)	17 (9.0%)	24 (12.8%)	14 (7.4%)	15 (8.0%)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16 (8.5%)	32 (17.0%)	50 (26.6%)	42 (22.3%)	24 (12.8%)	15 (8.0%)	8 (4.3%)
제주해녀의 삶 터	4 (2.1%)	29 (15.4%)	23 (12.2%)	42 (22.3%)	42 (22.3%)	26 (13.8%)	21 (11.2%)
해양관광 체험	18 (9.6%)	38 (20.2%)	49 (26.1%)	41 (21.8%)	19 (10.1%)	17 (9.0%)	6 (3.2%)
심상 공간	1 (0.5%)	4 (2.1%)	11 (5.9%)	13 (6.9%)	35 (18.6%)	57 (30.3%)	66 (35.1%)
주민들의 일상생활	5 (2.7%)	8 (4.3%)	15 (8.0%)	22 (11.7%)	26 (13.8%)	50 (26.6%)	62 (33.0%)
기타	0 (0%)	0 (0%)	1 (0.5%)	0 (0%)	0 (0%)	2 (1.1%)	1 (0.5%)

(표 32)의 우선순위 빈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중요도 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1순위에 7점, 2순위에 6점, 3순위에 5점, 4순위에 4점, 5순위에 3점, 6순위에 2점, 7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에서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항목별 전체 우선순위는 (표 33)과 같다.

<표 33>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이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우선순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항목	(가중치 부여)
1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1031
2위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931
3위	해양관광 체험	860
4위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829
5위	제주해녀의 삶 터	675
6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486
7위	심상 공간	423

#### 4)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총 61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34)와 같다.

성산일출봉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26.2%)과 매우 만족(19.7%) 등 긍정적인 답변이 45.9%로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49.2%)과 매우 불만족(3.3%) 등 부정적인 응답이 52.5%로 절반을 넘었다.

불만족 이유(또는 개선사항)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21.2%)과 자연훼손 우려(18.2%)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이어서 탐방로 혼잡(10.9%)과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 미흡(10.9%),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6.6%), 유산마을 환경개선 미흡(5.8%)과 방문객센터의 정보제공 미흡(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2	68.9
	여성	19	31.1
연령	20대	1	1.6
	30대	7	11.5
	40대	26	42.6
	50대	23	37.7
	60대 이상	4	6.6
방문 횟수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1회	9	14.8
	2회	5	8.2
	3회 이상	41	67.2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전 방문	6	9.8
만족도	매우 만족	12	19.7
	만족	16	26.2
	보통	1	1.6
	불만족	30	49.2
	매우 불만족	2	3.3
만족 이유 (다중 응답)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10	8.6
	탁월한 자연경관	28	24.1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15	12.9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12	10.3
	해돋이 장면	12	10.3
	제주해녀의 물질 공연	11	9.5
	해양 관광 체험	3	2.6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5	4.3
	주민의 친절	2	1.7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3	2.6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7	6.0
	주변관광지와 연계용이성	8	6.9
	기타	0	0

불만족 이유 (다중 응답)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	9	6.6
	탐방로 혼잡	15	10.9
	편의시설 미흡	3	2.2
	식음료 바가지요금	3	2.2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미흡	3	2.2
	자연훼손 우려	25	18.2
	해돋이 보지 못함	3	2.2
	해녀 물질 공연 미흡	3	2.2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	29	21.2
	해양관광 체험 미흡	2	1.5
	향토음식 및 숙박 불만	5	3.6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	15	10.9
	유산마을 환경개선 미흡	8	5.8
	주민 불친절	1	0.7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미흡	8	5.8
	기타	5	3.6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1순위 빈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30	49.2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16	26.2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2	3.3
	제주해녀의 삶 터	5	8.2
	관광해양 체험	3	4.9
	십상 공간	0	0
	주민들의 일상생활	2	3.3
	기타	3	4.9
총계	61	100.0	

성산일출봉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1 순위는 지형/지질학적 가치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49.2%)과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26.2%)가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제주해녀의 삶 터(8.2%), 해양관광체험(4.9%),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3.3%), 유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3.3%) 등 순으로 소수의 지목을 받았다. 여기서 기타의 의견으로 성산일출봉 탐방객 총량제 등 자연환경보존 방안수립(3.3%)이 1순위로 제시되었다.

<표 35>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30 (49.2%)	19 (31.1%)	3 (4.9%)	5 (8.2%)	2 (3.3%)	0 (0%)	2 (3.3%)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16 (26.2%)	12 (19.7%)	6 (9.8%)	3 (4.9%)	12 (19.7%)	5 (8.2%)	6 (9.8%)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2 (3.3%)	7 (11.5%)	19 (31.1%)	12 (21.4%)	8 (13.8%)	6 (10.3%)	7 (11.5%)
제주해녀의 삶 터	5 (8.2%)	12 (19.7%)	13 (21.3%)	15 (26.8%)	8 (13.8%)	3 (5.2%)	5 (8.2%)
해양관광 체험	3 (4.9%)	6 (9.8%)	10 (16.4%)	12 (21.4%)	14 (24.1%)	10 (17.2%)	0 (0%)
심상 공간	0 (0%)	3 (4.9%)	3 (4.9%)	3 (5.4%)	7 (12.1%)	18 (31.0%)	5 (8.2%)
주민들의 일상생활	2 (3.3%)	2 (3.3%)	7 (11.5%)	6 (10.7%)	7 (12.1%)	16 (27.6%)	21 (34.4%)
기타	3 (4.9%)	0 (0%)	0 (0%)	0 (0%)	0 (0%)	0 (0%)	15 (24.6%)

(표 35)를 토대로 전체적인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중요도 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1~7순위에 7~1점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는 (표 36)과 같다.

<표 36>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우선순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항목	(가중치 부여)
1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367
2위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278
3위	제주해녀의 삶 터	267
4위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242
5위	해양관광 체험	217
6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143
7위	심상 공간	831

### 5)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총 69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37)과 같다.

성산일출봉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53.1%)과 매우 만족(10.9%) 등 긍정적인 답변이 64.0%로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35.9%)의 의견도 적지 않게 보였다.

특히,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 이유(또는 매력요인)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탁월한 자연경관(38.8%)이 가장 많은 빈도분포를 보였다. 이어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21.4%),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15.5%), 해돋이 장면(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만족 이유(또는 개선사항)를(을) 묻는 다중 응답에서는 자연훼손 우려(18.2%),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18.2%), 탐방로 혼잡(15.2%),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13.6%), 방문객센터의 정보제공 미흡(13.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0	87.0
	여성	9	13.0
연령	20대	0	0
	30대	2	2.9
	40대	25	36.2
	50대	30	43.5
	60대 이상	12	17.4
방문 횟수	세계자연유산 등재 전/후 방문한 적 없음	5	7.2
	등재 후 1회	16	23.2
	2회	20	29.0
	3회 이상	9	13.0
	등재 이전 방문	19	27.5
방문 형태	개별관광	35	54.7
	단체관광	29	45.3

만족도	매우 만족	7	10.9	
	만족	34	53.1	
	보통	0	0	
	불만족	23	35.9	
	매우 불만족	0	0	
만족 이유 (다중 응답)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22	21.4	
	탁월한 자연경관	40	38.8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16	15.5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2	1.9	
	해돋이 장면	7	6.8	
	제주해녀의 물질공연	0	0	
	해양 관광 체험	0	0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1	1.0	
	주민의 친절	0	0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1	1.0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1	1.0	
	주변관광지와 연계용이성	1	1.0	
	기타	0	0	
	불만족 이유 (다중 응답)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	9	13.6
		탐방로 혼잡	10	15.2
편의시설 미흡		2	3.0	
식음료 바가지요금		1	1.5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미흡		2	3.0	
자연훼손 우려		12	18.2	
해돋이 보지 못함		1	1.5	
해녀 물질 공연 미흡		0	0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		12	18.2	
해양관광 체험 미흡		2	3.0	
향토음식 및 숙박 불만		3	4.5	
유산마을의 역사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		2	3.0	
유산마을 환경개선 미흡		1	1.5	
주민 불친절		0	0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미흡		9	13.6	
기타		0	0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1순위 빈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57	82.6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9	13.0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0	0
	제주해녀의 삶 터	1	1.4
	관광해양 체험	2	2.9
	심상 공간	0	0
	주민들의 일상생활	0	0
	기타	0	0
총계		69	100.0

성산일출봉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1 순위로는 지형/지질학적 가치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선택되었다. 이어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가 지목되었다. 그러나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유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1순위로 전혀 지목을 받지 못하였다.

<표 38>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57 (82.6%)	7 (10.1%)	2 (2.9%)	1 (1.4%)	1 (1.4%)	0 (0%)	1 (1.4%)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9 (13.0%)	23 (33.3%)	6 (8.7%)	10 (14.5%)	6 (8.7%)	6 (8.7%)	7 (10.1%)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0 (0%)	12 (17.4%)	13 (18.8%)	8 (11.6%)	13 (18.8%)	12 (17.4%)	9 (13.0%)
제주해녀의 삶 터	1 (1.4%)	12 (17.4%)	26 (37.7%)	19 (27.5%)	6 (8.7%)	3 (4.3%)	0 (0%)
해양관광 체험	2 (2.9%)	8 (11.6%)	8 (11.6%)	11 (15.9%)	18 (26.1%)	13 (18.8%)	7 (10.1%)
심상 공간	0 (0%)	1 (1.4%)	3 (4.3%)	6 (8.7%)	9 (13.0%)	21 (30.4%)	27 (39.1%)
주민들의 일상생활	0 (0%)	4 (5.8%)	9 (13.0%)	12 (17.4%)	14 (20.3%)	12 (17.4%)	16 (23.2%)

(표 38)의 우선순위 빈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중요도 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1~7순위에 7~1점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항목별 전체 우선순위는 (표 39)와 같다.

<표 39>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항목별 우선순위

우선순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항목	(가중치 부여)
1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459
2위	제주해녀의 삶 터	309
3위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302
4위	일제 강점기/ 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241
5위	해양관광 체험	233
6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199
7위	심상 공간	141

## 6) 설문 조사 결과의 집단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 방문 형태와 목적 측면

첫째, 방문객들은 개별관광(85.7%)으로 성산일출봉을 찾았고, 당일 통과형(51.9%)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의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의 연령대가 거의 20대(95.7%)라는 점에서 미래의 잠재적인 제주방문객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지오투어리즘 관련 분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지오투어리즘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성산일출봉이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전과 이후에도 방문한 적이 없음(20.7%)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주로 단체관광(68.5%)을 통해 방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화산섬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으로써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관

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제주관광 형태가 단체보다는 개별관광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에 대한 지오투어리즘 관련 설문조사는 잠재 시장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셋째, 지오투어리즘을 이해하고 있는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은 성산일출봉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3회 이상 방문(67.2%) 등 응답자의 90.2%가 등재 이후 1회 이상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성산일출봉 관광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느 다른 집단보다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오투어리즘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의 교수들은 전국적인 전문가 집단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성산일출봉을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2회(29.0%), 1회(23.2%), 3회 이상 방문(13.0%) 했거나 등재 이전 방문(27.5%) 등 성산일출봉 방문경험이 92.7%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들의 설문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의견 이상으로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의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적이고 전국적인 시각으로 제시하였다고 여겨진다.

## (2) 방문 만족도 측면

설문 조사 결과, 4개 집단의 성산일출봉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표 40)과 같다.

<표 40> 4개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도 비교

구분	성산일출봉 방문객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매우 만족	41.3%	12.1%	19.7%	10.9%
만족	45.0%	49.7%	26.2%	53.1%
보통	12.7%	17.5%	1.6%	0
불만족	0.5%	0	49.2%	35.9%
매우 불만족	0.5%	20.8%	3.3%	0

성산일출봉 방문 시 매우 만족과 만족 등 긍정적인 답변은 현지를 방문한 관광객(방문객)이 8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 64.0%,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집단 61.8%이었는데 비해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은 절반 이하인 45.9%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등 부정적인 답변은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이 52.5%로 가장 높았고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도 35.9%라고 응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 답게 성산일출봉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3) 방문 만족 이유 측면

4개 집단의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이유(또는 매력 요인) 비교는 (표 41)과 같다.<sup>22)</sup>

<표 41> 4개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 이유 비교

구분	성산일출봉 방문객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② 17.8%	② 12.2%	⑤ 8.6%	② 21.4%
탁월한 자연경관	① 46.0%	① 46.3%	① 24.1%	① 38.8%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④ 7.2%	② 12.2%	② 12.9%	③ 15.5%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⑨ 1.7%	⑤ 3.7%	③ 10.3%	⑤ 1.9%
해돋이 장면	⑤ 3.7%	④ 8.5%	③ 10.3%	④ 6.8%
제주해녀의 물질 공연	⑥ 2.9%	0	④ 9.5%	0
해양 관광 체험	⑨ 1.7%	⑦ 1.6%	⑨ 2.6%	0
유산마을의 역사 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⑩ 1.1%	0	⑧ 4.3%	⑥ 1.0%
주민의 친절	⑧ 2.0%	⑧ 1.1%	⑩ 1.7%	0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⑦ 2.3%	⑦ 1.6%	⑨ 2.6%	⑥ 1.0%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⑪ 0.9%	⑥ 2.1%	⑦ 6.0%	⑥ 1.0%
주변관광지와 연계 용이성	③ 11.8%	③ 10.1%	⑥ 6.9%	⑥ 1.0%
기타	⑪ 0.9%	⑨ 0.5%	0	0

22) <표> 안에 표시된 ①, ②, ③, ...은 빈도수 비율이 높은 순위를 나타냄.

4개 집단은 공히 성산일출봉 방문 만족 이유(또는 매력 요인)로 탁월한 자연경관을 제1로 꼽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각 집단별 특성에 따라 만족 이유를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고객인 방문객과 미래의 고객인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은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 용이성을 제2와 제3의 비율로 많이 선택한 반면, 지역의 고유한 관광 상품이나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낮게 선호함으로써 단순하게 경관 감상이나 편리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과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은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 이유의 제2와 제3의 비율로 높게 선택함으로써 관광 상품이나 프로그램 또는 체험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4) 불만족 이유 측면

4개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불만족 이유(또는 개선사안) 비교는 (표 42)와 같다.

<표 42> 4개 집단별 성산일출봉 방문 불만족 이유 비교

구분	성산 일출봉 방문객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	①19.8%	⑤6.0%	④6.6%	③13.6%
탐방로 혼잡	③12.9%	④9.0%	③10.9%	②15.2%
편의시설 미흡	⑥4.8%	⑧3.0%	⑦2.2%	⑤3.0%
식음료 바가지요금	⑧4.0%	⑥5.0%	⑦2.2%	⑥1.5%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미흡	⑦4.4%	⑧3.0%	⑦2.2%	⑤3.0%
자연훼손 우려	④8.9%	①25.0%	②18.2%	①18.2%
해돋이 보지 못함	⑦4.4%	⑤6.0%	⑦2.2%	⑥1.5%
해녀 물질공연 미흡	⑨1.6%	0	⑦2.2%	0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	②18.1%	②20.0%	①21.2%	①18.2%
해양관광 체험 미흡	⑨1.6%	⑨2.0%	⑧1.5%	⑤3.0%
향토음식 및 숙박 불만	⑩0.8%	0	⑥3.6%	④4.5%
유산마을의 역사 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	④8.9%	⑦4.0%	③10.9%	⑤3.0%
유산마을 환경개선 미흡	⑨1.6%	⑩1.0%	⑤5.8%	⑥1.5%
주민 불친절	⑩0.4%	0	⑨0.7%	0
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미흡	⑤6.0%	③16.0%	⑤5.8%	③13.6%
기타	⑨1.6%	0	⑥3.6%	0

4개 집단의 불만족 이유(또는 개선사안)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객의 경우 ‘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탐방로 혼잡’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의 경우 ‘자연훼손 우려>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방문객센터의 정보 제공 미흡’을 우선 꼽았다.

또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의 경우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자연훼손 우려>탐방로 혼잡=유산마을의 역사 문화 정보 제공 및 체험 미흡’을,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은 ‘자연훼손 우려=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탐방로 혼잡>진입로 및 주차장 불편’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4개 집단은 불만족 이유로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을 높게 지목하면서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자연훼손 우려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개발에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5)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우선순위 측면

##### ① 1순위 지목 빈도

각 집단별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1순위 지목 빈도는 (표 43)과 같다.

<표 43> 3개 집단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1순위 지목 빈도

구분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1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2위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3위	해양관광 체험	제주해녀의 삶 터	해양관광 체험
4위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해양관광 체험	제주해녀의 삶 터
5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주민들의 일상생활	
6위	제주해녀의 삶		
7위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3개 집단 모두가 제1순위로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의 경우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주민들의 일상생활,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항목을 제1순위로 꼽은 유효 표본이 없었다.

<표 44> 3개 집단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 비교

구분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전국 대학의 교수
1위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2위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해녀의 삶 터
3위	해양관광 체험	제주해녀의 삶 터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4위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5위	제주해녀의 삶 터	해양관광 체험	해양관광 체험
6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민들의 일상생활
7위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② 가중치를 부여한 우선순위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각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앞서 언급한 1순위 지목 빈도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의 차이가 있었는데,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집단은 해양관광 체험을 3순위, 제주해녀의 삶터를 5순위로 선정한 반면에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은 제주해녀의 삶터를 3순위, 해양관광 체험을 5순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전국 대학의 교수 집단은 제주해녀의 삶터를 2순위로, 해양관광 체험을 5순위로 선정함으로써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6) 시사점

설문 조사 결과, 4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와 함께 공통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사례 연구 지역인 성산일출봉을 대상으로 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이의 콘텐츠 발전방안에 관한 토대를 도출할 수 있었다.

### ① 자원 보존과 활용 측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에 대해 자연자원 분야인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인문자원 분야인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제주해녀의 삶터를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훼손 우려 등도 제기하였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인 성산리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순위는 교육학 용어로 볼 때, 자원배분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책목표 중 필요성·중요성·긴급성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먼저 채택이 되는 순서 내지는 중요도를 의미한다. 결국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는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의견들은 구체적으로 성산일출봉 탐방객 정원제 등 적정 수요 관리체계 구축,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기별·주제별·수준별로 강화하는 방안,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매년 1월 1일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확대하는 방안, 제주해녀 물질공연의 품질 향상 등을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안내 및 서비스 개선 측면

응답자들은 성산일출봉에 소재한 세계자연유산 방문객센터의 정보제공과 유산마을의 역사 문화 정보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안내 및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방문객센터의 정보제공과 안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육성 보장하고, 유산마을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동굴진지와 4·3 양민 학살터에는 해설사 없이 안내 표지판 등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반하여, 인근 주변 유채꽃 밭에는 기념 촬영하는 관광객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유산마을의 역사 문화 체험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할 것이다.

### ③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

응답자들은 진입로 및 주차장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동안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과의 단절이 일출봉의 주차난으로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마을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어왔다는 점에서도 주차장 이설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차장을 현재 위치에서 마을 밖 공유지 등으로 이전할 경우, 방문객들은 걸어서 유산마을을 지나면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마을주민 차원에서는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산일출봉 입구의 상가시설 난립에다 마을의 전반적인 지붕경관 역시 세계자연유산마을로서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마을환경 개선노력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 ④ 잠재시장 인지도 향상 측면

응답자들은 성산일출봉을 방문할 때 체류기간을 당일 통과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산마을 또는 주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세계자연유산 가치 인식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8.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성산포 지오투어리즘 설문 조사 결과,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 분야는 1순위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2순위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3순위 ‘제주 해녀의 삶터’, 4순위 ‘일제 강점기 및 제주 4·3사건 등 역사문화의 현장’, 5순위 ‘해양관광 체험’, 6순위 ‘주민들의 일상생활’, 7순위로 ‘선비 묵객 및 시인들의 심상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5가지를 논의키로 하고 우선순위 결과 1~5위를 준용키로 하였다. 여기에는 지오투어리즘이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6순위에 그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논의에 포함시켰다. 그 대신에 5순위에 오른 ‘해양관광 체험’ 분야는 부득이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5개의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분야 가운데 핵심적인 콘텐츠 1개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핵심적인 콘텐츠 없이 각각의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성산일출봉 관광과의 차별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콘텐츠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고유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콘텐츠여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설문 결과에서 2순위로 나타난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를 핵심 콘텐츠 분야로 선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성산일출봉은 2007년 유네스코로부터 지형 및 지질자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산마을과 공존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이 지형 및 지질자원으로 형성된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를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분야의 핵심으로 꼽은 것이다.

이와 함께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콘텐츠와 공존하

는 콘텐츠를 (표 45)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절은 이들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표 45>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콘텐츠와 공존 콘텐츠

구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우선순위 분야	우선순위를 준용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핵심 콘텐츠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주민들이 주관하는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
공존 콘텐츠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인식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존 콘텐츠	제주 해녀의 삶	제주 해녀의 삶 체험 지속적인 관광자원화
공존 콘텐츠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개발
공존 콘텐츠	주민들의 일상생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1)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

### (1) 현황

성산일출제는 1994년 1월 1일 일출봉 정상에서 새해 소망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축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1월 1일 황홀하고 장엄한 해돋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일출제는 2015년 1월 1일 방문객과 주민들이 화합과 희망을 기원하는 감동의 축제로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

2015년 새해 첫날 맞이하는 제22회 성산일출축제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한국생태관광 10선, 한국관광 50년 기네스 12선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제주의 랜드마크 성산일출봉에서 치러집니다. 축제방문객 및 도민의 소원 성취와 만사형통을 바라며 지역특산물 홍보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창출로서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축제입니다.

다. 신이 빛어 놓은 듯한 성산일출봉의 일출은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장엄합니다. 송구영신의 특별한 추억과 황금빛 바다 성산일출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제주 관광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성산일출축제 안내 홈페이지, <http://70ni.seogwipo.go.kr>).



(그림 35) 2014년1월1일 성산일출봉 정상에서의 일출 장면(위)과 일출 소원 빌기(아래 왼쪽)와 일출 후 환호하는 탐방객들(아래 오른쪽)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성산일출제는 성산포 출신 시인이면서 고대 해로 탐험가로 잘 알려진 채길웅씨(예명 채바다)의 제안에 힘입었다(성산리 마을회, 2004).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은 비록 서울에 있지만, 시인으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부에 비해 소외된 지역문화의 발전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1988년부터 매년 1월 1일 고향 성산포의 일출봉 정상에서 시낭송을 시작하면서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무대에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시를 낭송하게 하면 그것이 문화예술인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성인들을 포함하여 20~

30명 정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점차 제주지역에 알려지면서 50명, 100명씩 시낭송 참여자가 많아졌다. 이를 지역의 문화 페스티벌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1993년 성산리 청년회 등 마을회에 새해 희망을 기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의 장으로 키우자며 매년 1월 1일 성산일출제 개최를 제안하게 되었다. 처음 몇회는 제주도내 문단을 이끄는 원로 시인들까지 참여하는 등 당초 취지가 성과를 거두는가 싶었다. 그러나 성산일출제는 성인들의 무대로 변모해 버렸다(채바다, 2014년 3월 3일 면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성산일출축제의 행사 주제 등은 (표 46)에 요약하였다.

<표 46> 제1회(1994년 1월 1일)~제21회(2014년 1월 1일) 성산일출축제의 주제

연도별 1월1일 일출제 개최 기준	행사 추진 주제 및 내용	행사 주최
1994.1.1 (제1회)	일출에 맞춘 새해소망 기원 행사 전개 - 성산리 마을 차원에서 행사 시작	성산리 청년회
1995.1.1. (제2회)	‘희망의 새해’ 광복기념과 소망 기원 행사	성산리 청년회
1996.1.1. (제3회)	2002년 월드컵유치 소망기원	성산리 청년회
1997.1.1. (제4회)	새해 소망기원 문화 행사 전개	성산리 청년회
1998.1.1. (제5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걸음주’	성산리 청년회
1999.1.1. (제6회)	‘잘 감싸, 혼저 읊싸, 새천년이여’	성산리 청년회
2000.1.1. (제7회)	‘새 천년의 빛, 평화의 소리’	성산리 청년회
2001.1.1. (제8회)	‘새로운 도전, 21C 시작’	성산리 청년회
2002.1.1. (제9회)	‘2002 월드컵, 통일월드컵은 성산일출제로부터’	성산리 청년회
2003.1.1. (제10회)	‘희망과 도약, 밝은 미래, 새 희망의 꿈을 성산일출로’ - 성산읍 차원 행사로 격상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04.1.1. (제11회)	‘새해 희망과 꿈은 성산일출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05.1.1. (제12회)	‘새해 희망과 꿈은 성산일출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06.1.1. (제13회)	‘새해 희망과 꿈은 성산일출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07.1.1. (제14회)	‘새해 희망과 꿈은 성산일출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08.1.1. (제15회)	‘일출봉에 솟는 해, 왕 복 받읍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09.1.1. (제16회)	‘세계자연유산을 품은 성산일출 왕 복 받읍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10.1.1. (제17회)	‘시(詩)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경인년 희망맞이’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11.1.1. (제18회)	‘희망의 빛, 행복의 바람, 신묘년 새해맞이’	미실시(구제역여파)
2012.1.1. (제19회)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만나다’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13.1.1. (제20회)	‘성산일출, 그 아름다운 설레임’	성산일출축제위원회
2014.1.1. (제21회)	‘역동하는 제주! 달리자 성산일출, 그 찬란함 속으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출처 : 성산읍과 성산리사무소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2) 비판적 진단

지금까지 성산일출제에 대한 진단은 공적기관의 평가와 SWOT 분석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 본다.

공적인 축제평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는 2006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축제들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다. (표 47)과 (표 48)은 성산일출제에 대한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를 요약, 인용한 것이다.

<표 47> 2012년 1월 1일 해돋이를 감상 못했을 때의 성산일출제 평가(요약)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및 개선 사항
<p>1. 축제의 의의 : 새해를 맞이하는 강점을 살려 도민화합과 관광객의 공유라는 상징성을 지닌 의미 있는 축제. 세계자연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p> <p>2. 프로그램 구성 : 은갈치 시식, 감귤시식 등 성산마을의 특산물 홍보와 7대 자연경관 선정 축하테마 중심에 부합되도록 노력.</p> <p>3. 방문객 참여도 : 바람의 언덕 포토존, 특산물 체험장 등 부대행사 참여도가 증대.</p> <p>4. 주민 참여도 : 부녀회, 어촌계, 청년회, 개발위원회 등 중심으로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 제공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자긍심을 높여 마을 공동체의식 향상 계기.</p>	<p>1. 날씨 문제 :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시설을 확실하게 갖추어야함. 이는 매번 거론되는 사항으로 기상악화에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하여야함.</p> <p>2. 프로그램 구성 : 기존의 공연중심보다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p> <p>3. 방문객을 위한 기획 : 한해에 대한 정리와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p> <p>4. 각종 안내 및 편의시설 : 외국인들을 위한 대기실 등 지원 공간 배치 필요.</p>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백서(2011)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48> 2014년 1월 1일 해돋이를 감상했을 때의 성산일출제 평가(요약)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및 개선 사항
<p>1. 축제의 의의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한국생태관광 10선, 한국관광 50년 기네스 12선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산일출봉에서 새해 해돋이를 콘텐츠로 한 대표적인 화합축제임.</p>	<p>1. 프로그램 구성 : 여전히 공연중심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이어져야할 것임</p> <p>2. 공간 배치 : 부수의 위치 선정이나 방문객의 동선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성,</p>

<p>2. 프로그램 구성 : 지난해 2일에서 3일로 확대 개최하여 각종 체험행사 및 문화공연을 첫날 개최하여 그동안 관람형 축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평가.</p> <p>3. 세련된 개막식 : 지역인사들의 축하인사 등으로 인한 개막식 지연을 탈피하는 등 예전의 축제 개막식의 지루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음</p> <p>4. 주민 참여도 : 지역 화합형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p>	<p>운영했으나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간 배치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p> <p>3. 부대행사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통혼례체험, 연 만들기, 감귤요리 만들기, 야광페이스페인팅, 소망 우체국 운영 등 부대행사를 운영하였으나 방문객의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p> <p>4.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 축제 홍보마케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관광객과 도민 방문이 잘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사고 대비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p>
--	---

총 합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축제기간을 3일로 늘리는 등 노력이 었보였으나,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나 매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년 축제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성산일출봉이라는 장소성과 해돋이라는 축제의 콘텐츠는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야외축제라는 특성으로 인한 기상에 대한 민 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백서(2014)를 연구자가 재구성.

본 연구의 SWOT 분석 결과로 볼 때, 강점으로는 무엇보다 영주십경(瀛洲十景)<sup>23)</sup> 가운데 제1경인 성산출일(城山出日)의 실제적인 장소로써 매년 일출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성산일출(城山日出)을 원래의 성산출일로 복원하여 역사문화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sup>24)</sup>

23) 우리는 예로부터 漢孛山을 瀛洲山, 濟州를 瀛洲라고 한 까닭이 그 천혜의 자연경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왔다. 하지만 조선 유학자들의 瀛洲十景詩에 따르면, 修身과 爲己之學, 그리고 兼善天下라는 儒家的 修養論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문학적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주가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낯선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濟州의 지역특수성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느끼는 ‘낯섦’이 자연경관에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주가 진정한 仙境이 되려면 고감과 반성, 그리고 소통적 공간으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瀛洲十景의 제목과 차례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리된 것은 제주출신 梅溪 李漢雨(1818-1881)에 의해서다. 梅溪의 瀛洲十景은 ‘城山出日, 紗峯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籟牧馬’ 순이다. 여러 문인들이 그의 시에 화운함으로써 이후 梅溪의 영주십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김치완, 2012).

2014년까지 21회째 이어져온 성산일출제는 성산일출봉이 갖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새해 첫 날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상징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년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새해 희망과 함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매력물로서 이만한 관광자원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산일출제가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 성산리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선도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축제의 방향은 방문객과 주민들이 보다 자주 접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하겠다.

그러나 성산일출제의 약점 또한 두드러진다. 비나 눈 또는 흐린 날씨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해돋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성산일출제가 기본적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상악화는 본질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일출제에 방문객이 몰린다는 사실은 새해 첫 날이라는 상징성이 모두에게 희망의 꿈을 부풀게 하기 때문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대안 성격의 일출행사 준비는 방문객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산일출제의 위기는 앞서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조차 참여형 또는 체험형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예년처럼 관람형이나 무대형에 치우치게 될 때,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공식적인 탐방코스는 성산일출제 행사만을 위한 1회성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성산일출제를 통한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인식 제고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고 성산일출제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과 위기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얻어질 수 있다. 행사주최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나간다면 문제는 풀릴 수 있

24) 성산일출(城山日出)이란 호칭은 일제 강점기에 발견된 ‘濟州道實記’에 日出로 잘못 쓰여 진 이후 ‘증보 제주탐라지’에 그대로 답습하여 성산일출로 받아 쓴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오문복 편저, 영주십경 시집, 2004). 出日은 솟아오르는 해를 뜻한다. 그러나 日出은 솟아 오른 해(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성산출일(城山出日)로 표기되고 호칭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문헌자료는 1702년 탐라순력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영주십경의 제1경도 성산출일이다. 시인 묵객들의 작품에는 모두 성산출일로 표기되어 있다. 城山出日을 城山日出로 부르는 것은 영주십경의 사봉낙조(紗峯落照)를 사봉조낙(紗峯照落)으로 표기하여 그 뜻과 의미를 크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옛 조상들의 지혜로운 뜻을 바로 잡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학들의 도리요, 예의라고 판단된다(채바다, 제주광장 2014년 4월18일자).



다. 그렇지 않고 예년처럼 손쉽게 연예인 초청 무대행사 위주로 외부 용역에 행사를 맡겨버리거나, 행사가 임박해서야 예전의 문제 해결을 위한 1회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행태는 스스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차버리는 격이다.

### (3) 콘텐츠 개발 방안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또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현대의 축제 개념은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축제는 일상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통풍구 역할을 한다. 즉, 현대관광은 현재의 개념 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정신적, 육체적 의욕 창출에 더 많은 가치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축제가 담당하게 된다. 둘째, 축제는 환상(fantasy)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과장성과 삶에 대한 긍정성을 고양시킨다(김선희, 2007).

지역 축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의 목적달성과 참가자의 가치창출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 축제는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장소성 강화, 지역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 한다(윤남경, 2013).

성산일출제는 해마다 1월 1일이면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역 축제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제주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지가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성산일출제는 성산일출봉이라는 빼어난 경관이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출제는 희망과 즐거움과 함께 인문학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에 진정한 선경(仙境)이 되려면 교감과 반성,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서 재 발견되어야 한다(김치완, 2012). 제주의 대표경관인 성산일출봉 역시 성산일출제를 통해 교감과 반성, 소통의 공간이자 희망과 감동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제주지역의 대표축제로 각인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성산일출제는 희망의 축제, 소통과 화합의 축제, 감동과 즐거움의 축제 등 3가지 메시지를 갖는 축제로 개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로써 성산일출제는 희망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의 보물섬 제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돋이를 맞이하며 새 희망과 함께 꿈의 성취를 기원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성산일출제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단 1회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연중으로 확대하여 매월 1일, 1년에 12회 성설화하여 개최하는 방안이다. 차선택으로 4계절을 기준할 경우에도 봄의 시작인 3월 1일,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 가을의 시작인 9월 1일, 겨울의 시작인 12월 1일 등 성산일출제를 4회 개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관광 중에서 성산일출봉을 선호하는 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중국 현지 홍보에 이어 일출봉 정상에서 성산일출제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내 관광지 가운데 성산일출봉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부터 이들이 좋아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성산일출제를 예고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이들은 성산일출봉을 올라 이국에서의 해돋이 장면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일출제 행사를 성산리 마을 단위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성산읍 자생단체에서 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다. 당초 일출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단위로 개최권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세계자연유산 마을이 갖는 고유성, 상징성, 장소성과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단, 마을에서는 행사추진을 위한 재정보화가 어려우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유산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성산일출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주최하고 성산리 마을회에서 주관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일출제의 연중 상설화 방안은 기상악화 시 새해 1월 1일 해돋이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부터 해소할 수 있다. (표 50)에서 보듯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새해 1월 1일 첫 해돋이를 감상한 경우는 단 3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매월 1일 일출제를 실시했을 경우, 1년에 평균 6.8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비록 날씨라는 특수한 기상상황을 통계로 견주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자료는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추진에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표 50> 최근 10년(2004~2013년) 1월 1일 성산일출봉 일출 감상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 1일 일출관측	감상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감상	불가	불가	감상
10년 사이 일출 감상	일출 감상 기회 3회에 그침									

출처 : 제주지방기상청(<http://www.jeu.kma.go.kr>)을 연구자가 재구성.

<표 51> 최근 10년(2004~2013년) 매월 1일 성산일출봉 일출 감상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월1일 일출 감상 연평균	7회	7회	4회	4회	9회	8회	7회	6회	7회	9회
일출 감상	매월1일 일출제 행사의 경우, 연평균 6.8회 일출 감상 가능									

출처 : 제주지방기상청(<http://www.jeu.kma.go.kr>)을 연구자가 재구성.

두 번째 메시지로서 성산일출제는 소통의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최대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불통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계 등 우리사회 전반을 보면 그들만의 소통이고, 남들과는 담을 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산일출제가 소통의 축제로서 그러한 담을 허무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서로 이념의 덩어리에 걸려 허우적대는 사회지도층을 비롯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스승과 제자, 장교와 사병,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모와 자식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이해관계자들이 일출제에 참여함으로써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소통의 축제는 (표 52)와 같은 방안으로 예시할 수 있다. 신년 1월 1일 일출제는 새해맞이 축제, 2월 1일 일출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축제, 3월 1일 일출제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축제, 4월 1일 일출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 5월 1일 일출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축제, 6월 1일 일출제는 장교와 사병이 함께하는 축제가 된다. 또한 7월 1일 일출제는 다문화 가정의 함께하는 축제, 8월 1일 일출제는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축제, 9월 1일 일출제는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축제, 10월 1일 일출제는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축제, 11월 1일

일출제는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축제, 12월 1일 일출제는 마을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사회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축제로 예시할 수 있다.

<표 52> 매월 1일 소통의 축제로 가는 성산일출제의 예시

개최일	성산일출제 함께하는 사람들	개최일	성산일출제 함께하는 사람들
1월 1일	모두가 함께하는 새해맞이	7월 1일	다문화 가정과 함께
2월 1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8월 1일	외국인들과 함께
3월 1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9월 1일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4월 1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10월 1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5월 1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11월 1일	종교인들이 함께
6월 1일	사병과 장교가 함께	12월 1일	모두가 함께하는 송년축제

세 번째 메시지는 감동과 즐거움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꿈과 희망을 담은 자작시를 낭송할 수 있다. 자작시는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띄워 보낸다. 참가자들은 일출의 영험을 빌어 무사안녕 등을 기원하며 서로를 축원할 수 있다. 자작시 낭송과 풍선 날리기는 자신에 대한 감동이다.

이 과정에서 일출봉 정상에서 해돋이를 향해 희망과 꿈을 소망하면 일출봉을 지키는 제주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sup>25)</sup>의 영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설에서 또 다른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미 성산일출봉 오르면서 탐방로 상에 우뚝 서 있는 기암 등경돌(그림 36) 앞에서 가족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면서 네 번의 절을 하였기 때문이다.<sup>26)</sup> 이는 또 다른 즐거움의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5) 제주 섬을 창조했다는 설문대할망은 거인이다. 여신에 대한 설화는 전도에 걸쳐서 채집되고 있다. 가장 오랜 문헌기록으로는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 내에서 구전되고 있는 전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신의 거대한 몸집에 관한 것들이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쌓을 때 흙을 치마폭에 담아 날랐다. 치마에 구멍이 뚫어져서 거기서 흘러내린 흩더미들이 한라산 기슭에 있는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다(김순이, 2001).

26) 성산일출봉 정상 탐방로 상에 있는 등경돌/ 징경돌 바위 설명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이 바위를 성산마을 주민들은 등경돌(燈檠石), 또는 징경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바위 앞을 지나는 주민들은 네 번씩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두 번의 절은 옛날 제주섬을 창조한 어질고 아름다운 여신 설문대할망에 대한 것이요, 또 두 번의 절은 고려 말 원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그림 36) 성산일출봉 탐방로의 등경돌

또 하나의 제안은 성산일출봉에 랜드마크적인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상악화 시 해돋이를 감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성산일출봉 분화구 내에 랜드마크적인 일출제 상징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분화구 내에 이동이 가능한 대규모의 목재 데크에 꽃화분으로 일출장면을 조성하는 방안, 해돋이 방향인 분화구 동쪽 끝에 해돋이 장면을 담은 대형 걸개사진을 임시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천연기념물인 성산일출봉의 분화구는 절대 보존지역인 핵심지역이다. 결국 분화구 내에 해돋이 상징물 조성문제는 문화재청 문화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데다 환경단체들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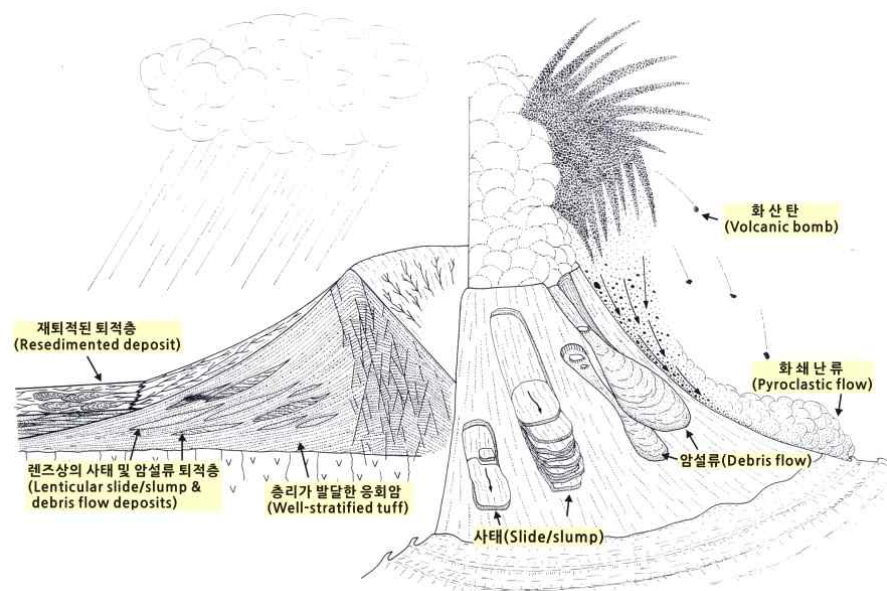
---

바친 김통정 장군에 대한 것이다. 설문대할망은 치마폭에 흙을 퍼 날라 낮에는 섬을 만들고 밤에는 이 바위 위에 등잔을 올려 놓고 흙을 나르느라 헤어친 치마폭을 바느질했다. 이때 등잔높이가 낮아서 작은 바위돌 하나를 더 없어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김통정 장군은 성산마을에 성을 쌓아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다. 등경돌 아래에 앉아 바다를 응시하고 때로는 바위 위로 뛰어 오르며 심신을 단련했다고 하는데 바위의 중간에 큰 발자국 모양이 패인 것도 이 때문으로 전한다. 예전에는 마을주민들이 이 바위 앞에서 제를 지내 마을의 번영과 가족의 안녕을 빌었으며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도 김통정 장군의 정기를 받은 이 바위의 수호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 글쓴이 성산리 마을회.

## 2)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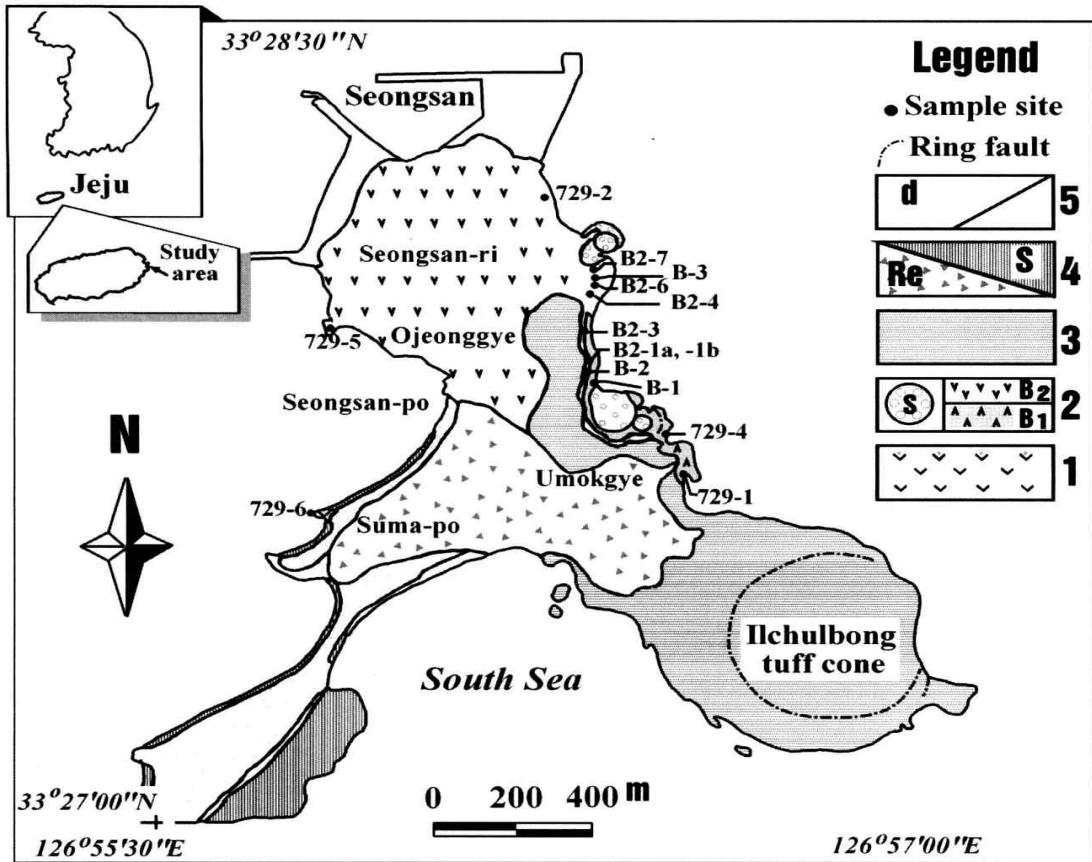
화산섬 제주의 동쪽 성산반도에 고성(古城)처럼 자리한 성산일출봉은 분화구 바닥이 해발 90m, 높이 180m, 직경 600m, 동서 길이 450m, 남북 길이 350m, 지층의 경사가 45°에 이르는 유리질의 화산재층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응회구이다. 해수면이 현재와 같았던 약 5,000년 전, 얇은 해저에서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생겼다.<sup>27)</sup>



(그림 37) 성산일출봉의 형성 및 재퇴적 과정에 대한 모식도

출처 : Sohn & Chough(1992), 박기화 등(2006).

27) 마그마나 용암이 물과 만나면 급격히 식고 물은 끓게 된다. 이런 냉각과 가열반응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수성화산 분출이라 한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 1,200℃가 넘는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한 것이 바로 1963년 아이슬랜드의 섯치(Surtsey) 화산과 5,000년 전 성산일출봉을 만든 수성화산활동의 원인이다.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분출한 화산재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흑색유리와 같다. 이렇게 생긴 유리질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소규모 화산체를 응회구 또는 응회환이라 한다. 응회환은 분화구가 대체로 크고 깊으며 분화구 주변의 화산재층이 작은 경사(15° 이내)와 낮은 높이(100m 이내), 그리고 넓은 분포를 갖는다. 반면 응회구는 분화구가 지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나타나고, 화산재층이 큰 경사(30° 내외)와 높이(100m 이상)를 갖는다(박기화 등, 2006).



(그림 38) 성산일출봉 및 주변 지질구조

(1 : 표선리 현무암, 2 : 성산리 현무암(B1=lower lava, B2=upper lava), 3 : 일출봉 응회암, 4 : (Re)일출봉 reworker tuff(S=신양리층), 5: 사구층, 해변)

출처 : 고정선 등(2007).

수성화산 분출로 인해 수백m 높이의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친 화산재와 화산력들은 화구 주변에 한 겹씩 쌓이며 다른 화산에서는 보기 힘든 뚜렷한 층리를 만들어 갔다.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임에 따라 안식각이 30°를 훨씬 넘는 가파른 경사면을 가진 응회구가 형성되어 간 것이다. 경사도가 30° 이상인 응회구의 사면에서는 종종 크고 작은 사태가 일어났고 지층의 변형이 일어났다. 화산분출이 끝난 후에는 빗물과 유수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 일출봉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동된 퇴적층이 쌓이게 되었다. 바닷가까지 운반된 화산기원의 쇄설물들은 파도와 해류의 퇴적작용으로 신양리층을 만들었다. 일출봉과 섭지코지 사이에는 약 3km에 이르는 매우 긴 타원형의 해변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해변 사면을 따라 신양리층의 노두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성산일출봉은 파도의 침식에 의해 서쪽 사면을 제외하고는 깎아 지르는 듯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때문에 이 응회구는 분화구 내부 퇴적층으로부터 가장가지 지층까지 화산의 뛰어난 지질단면을 선사하고 있다. 해안절벽을 따라 응회구 분출 및 성장기간 중에 만들어진 퇴적 동시성 단층과 균열, 분출 도중 일어난 사면붕괴로 생긴 사태와 쇄설류 퇴적층, 물기를 머금은 세립의 화산재가 굵은 화산암편에 둘러불어 만들어진 부가화산력, 습한 화쇄난류에 의해 형성된 점착연흔, 그리고 다양한 내부구조를 지닌 얇은 층상의 응회암 등 다양한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성산일출봉의 분출 도중 화구 속으로 다량의 물이 스며들었으며, 분출한 화산물질들이 매우 습하고 끈적거렸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산일출봉과 유사한 수성화산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성산일출봉은 전형적인 응회구 지형과 해안절벽 노두를 따라 다양한 퇴적 동시성 구조들과 내부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 많은 지질학적, 지형학적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화산체이다. 이 단면에는 일출봉 응회구의 탄생과 성장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교과서적인 다양한 증거들이 잘 나타나있다(제주 세계자연유산 등록신청서, 2006;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신청서, 2010).



(그림 39) 성산일출봉 남쪽 수마포 해안가의 화산기원 1차 퇴적 지층(절벽 하단)과 침식에 의한 2차 퇴적 지층(절벽 상단)



(그림 40) 성산일출봉이 파도 등에 씻기며 만들어진 신양리층 노두

## (2) 비판적 진단

성산일출봉에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SWOT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강점으로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 지오파크 인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상 제고가 두드러진다. 또한 제주 관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국제관광지의 인지도 향상을 견인하는 수성화산체라는 점과 조망권 탁월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확대된 경관

출처 : 전용문(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공

반면, SWOT 분석에서 나타난 약점으로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성화산체의 모식임에도 불구하고 화산지질 및 지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보다는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세인 5,000년 전에 분출한 수성화산체이지만 현재는 활화산이 아니어서 분화구에서 수증기 분출과 같은 화산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 수성화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성화산의 특징을 비롯하여 성산일출봉 남쪽 해안가 신양리층 화석과의 연관성 부각이 미흡하다는 점, 탐방객 급증으로 탐방로 혼잡이 여전하다는 점과 이들의 답압으로 인한 지층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 지형 및 지질 설명 표지판 부족으로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이해와 자연자원 보존의식을 높이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현재의 관광형태가 단순한 통과형 탐방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일출봉은 일출봉대로 탐방객 급증에 의한 자연 원형 훼손이 본격화될 우려가 크고, 성산리 마을은 마을대로 지역적인 고립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들 문제점을 분야별로 진단하여 보면, 방문객을 위한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의 부재가 우선 두드러진다. 판단하건대, 1일 평균 9,000명 내외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성산일출봉에서 관광객들을 일일이 통제하고, 이들에게 일출봉이 세계가 인정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형 및 지질자원들의 노두를 직접 관찰토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일출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우며 체험도 병행하는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이유는 관광매력은 관광지만이 갖는 고유의 자연자원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로서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는 일출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가 진행되면 원래의 모습을 복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산리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인 터진목 일대에서 성산일출봉 남쪽 사면 해안 수마포까지 구간에는 신양리층, 해빈, 모래언덕, 해안절벽 등 다양한 지형 지질과 응화구 노두가 존재하고 있다. 반대방향인 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 역시 층리 발달을 비롯하여 해안절벽, 화쇄난류 노두 등 다양한 지형 지질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2). 그럼에도 지형·지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부재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림 42) 응회구 가장자리 화쇄난류 퇴적작용을 보여주는 노두(우뭇개 해변)

출처 : 전용문(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공

따라서 성산일출봉의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QR 코드<sup>28)</sup>의 스캔만으로 정보를 얻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배우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동행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3) 성산일출봉 방문객센터(왼쪽)와 내부의 제주 세계자연유산 사진전시회

28) QR 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매트릭스) 형식의 코드를 말한다. 'QR'이란 'Quick Response'의 머리글자이다.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QR코드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광고판·홍보지·포스터·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이를 위해 방문객 센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문객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은 종합적인 관광안내센터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방문객들이 지형 및 지질 자원을 비롯하여 유산마을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전시실과 가상 체험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상 탐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체험, 수학여행 학생들과 일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교육 및 전시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탐방로의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객센터의 또 다른 기능은 가이드 관광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이 질 높은 교육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설사들이 다양한 방문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설사용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윤석훈, 2011)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설명 표지판의 경우, 제주도내 다른 관광지에 비해 각각의 뷰포인트별로 해당 그림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서 설명 안내판 인프라 부분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설명 표지판을 보다 쉬운 말로 풀어쓰고 관련 사진을 확대하되, 내용은 간략하게 줄여 다양한 계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4) 성산일출봉 탐방로에 설치된 지질설명 표지판

탐방로의 경우, 그동안 정상에 오르는 코스와 하산 코스를 동시 운영함으로써 빚어진 탐방로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9월 정상

에서 하산하는 탐방로를 새롭게 조성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림 45> 2013년 9월 새롭게 조성된 성산일출봉 탐방로 하산길

그러나 비나 눈 날씨에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탐방객 혼잡 시 미끄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탐방로 상행길이나 하산 길에는 미끄럼 주의를 알리는 계도 안내문이 울타리에 붙여놓고 있어 효과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일출봉 탐방로는 경사가 급하여 탐방객은 울타리 주변보다는 계단을 보면서 오르고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는 사소한 작은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경우, 지역주민 14명과 일반 제주도민 8명 등 22명이 하루 8시간씩 윤번제로 조를 짜서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2시간 간격으로 일출봉 정상에서 방문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등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까지 곁들이면서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주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사들의 역할은 정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탐방로 뷰포인트별 경관 해설 또는 거대한 기암괴석의 형성 원인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문객이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원할 경우, 가이드 관광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하루 평균 9,000명 내외의 방문객들이 좁은 탐방로를 집중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 관광은 현실적으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해설사들은 해마다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있지만 해설사가 갖고 있는 지식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등급화가 필요한데도 일괄적인

해설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해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인식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실습 차원의 학생단체 등 방문객들 스스로에 의해 일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리 당국은 급증하는 방문객들의 주차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세계자연유산 일출봉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을 하든가, 아니면 해설사들로 하여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선책부터 속히 강구해야할 것이다.

### (3) 콘텐츠 개발 방안

지형 및 지질자원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의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개발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 활용해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유능한 인력 확보, 방문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민간·관계·학계·언론계 간 협조체계 구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비판적 진단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는 설명 표지판 개선 및 확충, 방문객센터의 기능 보강, 해설 시스템의 맞춤형 제공, 정상 탐방로 개선, 탐방객 정원제 도입, 새로운 탐방 코스 개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각급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이 빠질 수 없다. 지역의 구성원들부터 지형 및 지질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설명 표지판 또는 안내 표지판의 개선과 확충이 시급하다.

성산일출봉을 찾는 탐방객들은 대부분 단체관광객들이나 개별관광객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 개별관광객들을 위한 교육관광 시설의 설치와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관광객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이 설명 표지

판을 읽으면서 성산일출봉의 가치와 생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명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가이드의 설명 없이도 성산일출봉의 생성과정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지판은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눈에 읽어낼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서술적이되 간단명료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에는 사진이나 모식도 같은 이미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성산일출봉의 뷰포인트별로 설치된 설명 표지판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표지판 수를 더 늘리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표지판에는 QR code를 설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윤석훈, 2011).

방문객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방문객센터는 정보제공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의 방문객센터는 탐방객 안내 사무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대기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규모부터 협소하다. 전시실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진 등을 전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상 탐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체험, 수확여행단 등의 학생이나 일반 탐방객들을 위한 홍보 및 체험 전시관 역할도 역부족이다. 방문객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 구축을 위한 인원 충원과 시설 확충 등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해설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는 방문객센터의 기능보강과도 연관이 된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관리하는 곳이 일차적으로는 방문객센터이기 때문이다. 현행 해설 시스템은 2인 1조로 이루어진 해설사들이 일출봉 정상에서 2시간씩 교대로 머물면서 탐방객들에게 화산섬 제주와 성산일출봉의 탄생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문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수준의 탐방객들을 위한 맞춤형 해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준 높은 해설과 해설사 동반 가이드 관광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해설사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자연유산과 세계 지질공원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 스토리텔링 관점에서의 접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는 새로



운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제주의 자연환경이 우위를 확보하면서 이를 특화시킨 스토리텔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서현정, 2011).

정상 탐방로 개선문제는 일출봉 정상탐방 하산 길을 새롭게 개방함으로써 그동안 하나의 탐방로로 인해 극도의 혼잡을 초래해온 성산일출봉 탐방의 최대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물론 방문객센터는 성산일출봉 곳곳의 안전을 살피는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지켜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일출봉의 경사가 심해 눈, 비 날씨 등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된다. 계단 중간 중간에 미끄럼 사고 주의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탐방객 정원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방문객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정상 탐방로가 갈수록 혼잡하고, 자연훼손 우려도 커지는 상황은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저해하는 일이다. 방문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한해 탐방 정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급증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혼잡한 성산일출봉 탐방로 입구

실례로 대만의 예류 지오파크의 경우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자연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었다. 지오파크 당국은 해결책을 찾고자 관광객들의 방문 시간대를 장기관찰 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들은 연중 3월, 4월, 5월, 10월, 11월에 몰리고 있었다. 하루 중에는 오전 9시 30분~11시대와 오후 1시 30분~3시 사이에 집중되었다. 관광객 대부분은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단체 관광객들이었다. 당국은 바로 이러한 점이 예류 지오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입한 방안은 성수기 시간대의 관광객 수를 2,500명을 상한으로 하는 관광객 총량제 실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관광 가이드에게는 이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다. 예류 지오파크 관광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매년 3~5월과 10~11월, 시간대는 오전 9시 30분~11시대와 오후 1시 30분~3시대에 적용하고 있다. 관광당국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이러한 예약 시스템을 점차 실시하면서 2013년부터 피크시간대 방문객이 2,500명을 경우 공원입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성산일출봉의 경우에도 시간차를 두고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현재 정상탐방에는 평균 50분 내외가 소요되고 있다. 하루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50분 간격으로 일정 수의 탐방객으로 제한하고, 이를 전광판을 통해 알리는 방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탐방정원 제한에 걸려 입장하지 못한 방문객들은 50분 간격으로 입장을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문객센터를 찾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산마을의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 개발과 관련, 성산일출봉 남쪽과 북쪽 해안 곳곳에는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출봉의 생성 등 수성화산 폭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형 및 지질경관자원과 노두들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동굴진지와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터의 현장들이 생생하다. 이처럼 성산 마을 일대에는 역사문화유산 자원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자연자원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로는 제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산일출봉의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고루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의 운영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성산일출봉의 탄생 과정, 성산일출봉과 같은 수성화산이 지닌 지질학적 중요성, 다른 으뜸

들과 비교하여 성산일출봉이 지니는 차별적 가치, 그리고 성산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관광을 제공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윤석훈, 2011).

제주지역의 각급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학생들 대상일 경우 일부 학교에서 야외학습 등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노르웨이 게아 노르베기아 지오파크(Gea Norvegia Geopark)의 사례는 수범적이다.

게아 노르베기아 지오파크는 초등 및 중등의 각급 학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 2시간 외에도 야외실습과 관련 1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4명의 프리랜서 가이드를 포함하여 많은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다양한 대상별 가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참여 유경험자 중 많은 사람들은 지역 가이드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지역의 관광진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동굴연구소, 2010).

지역주민들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제주 세계 지오파크 대표명소의 하나인 수월봉 트레일 행사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주민들의 사례 역시 평가할 일이다.

수월봉과 당산봉, 자구내 포구 일대는 지질학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풍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탐방객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세계 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다. 지질공원 트레일은 다른 이벤트성 행사와 달리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탐방객들에게 주민이 직접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민 해설사들은 몇 날 며칠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려야 했다. 바쁜 농번기에도 마을을 위해 농사일을 멈추고 교육을 받았다. 그 결과 주민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마을에 대한 학술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는 탐방객들에게 막힘이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마을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탐방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광훈, 2012).

### 3) 제주해녀의 삶 체험 지속화

#### (1) 현황

해녀란 바다에서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하여 진북, 소라, 미역, 우뚝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해녀의 본 고장인 제주에서는 이들을 ‘잠수’, ‘잠녀’라 부르기도 한다(박찬식, 200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2009. 11. 4.)에 의하면 해녀는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하였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민속학적, 여성학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함께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에만 귀하게 존재하는 여성 나잠업자라는 점과 바다환경을 개척하면서 생태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환경에 적응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제주의 전통적인 생업이면서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보존 전승해왔다는 점에서 제주의 대표성을 강조해왔다(좌혜경·권미선, 2009).

제주전통문화연구소(2014)가 조사한 ‘제주해녀 생애사 보고서’<sup>29)</sup>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출신 전·현직 해녀 2명에 대한 생애사가 구술사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8세 때부터 해엄을 치다 해녀 물질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물질하러 간 적도, 일본으로 나간 적도 없다. 오로지 성산포에서 태어나 성산포 바다

---

29) 제주해녀는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형 의제들 가운데 ‘독특한 해양 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 후속사업으로서 제주해녀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구술조사가 요청되었다. 2012년 현재 제주도내 해녀는 4,574명으로 100개 어촌계별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급격하게 해녀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해녀들의 일생에 대한 구술조사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5월 사단법인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2014년 1월 제주도내 65세 이상 전·현직 해녀 102명을 대상으로 한 ‘숨비질 배왕 늑주지 아녀-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이는 제주해녀의 고령화와 그로 인한 문화단절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제주해녀의 역사문화 전승보존 정책에 수립에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4)

에서 한평생 물질로 생을 살아왔다. (...). 마을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은 집집마다 중요한 소득원이었고,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였다. 성산포 해녀들은 공동으로 미역 채취 작업을 하여 초등학교를 지었고, 마을 안길의 아스팔트 포장과 전기를 가설하는데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 세 가지는 마을 해녀들이 공동으로 물질을 하여 해 놓은 일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이다. 미역을 캐어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으려 했던 일, 통조림 공장에 다녔던 일, 해녀 고무 옷에 눈이 번쩍 뜨였던 일, 일출봉 바다에 한번 나가면 소라 한 아름씩 캐어 안거나 전복 하나는 캐고 왔던 일, 바다의 경계를 지키려고 사돈을 맺네 안 맺네 하며 인근 마을 주민들과 다투었던 일, 몰래 들어오는 잠수기선을 잡으러 다녔던 일 등 이젠 다 옛날 일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도 생각하면 그 살아온 날들이 꿈꿈 하다(신영춘 할머니. 89세).

1남4녀 중 차녀로 14세 되던 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물질을 시작하였다. 물질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경상남도 양포와 모포에서 천초, 미역 같은 해초 채취 작업을 하였다. 육지에서 물질을 하여 번 돈으로 마을 안에 밭을 샀고, 시집을 가고 이불 혼수 등을 다 마련하였다. 우체국 공무원이던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간호에 아이들 학비까지 시작해 남편을 사별한 뒤에 보니 빛이 1억이 넘었다. 낮에는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밤에는 저녁 버스로 친정 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빛을 다 갚았다. (...). 그래도 살아오는 동안에 바다 물질은 친정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먹을 쌀이 없어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고 올케는 어머니 모르게 쌀 한말을 더 퍼주고, 이튿날에도 가서 쌀을 빌려오고, 사흘째도 빌려오고, 그러나 나흘째는 더 이상 가지 못했다. 그게 한 두 번이지, 더는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다에는 내가 못했던 잘했던 간에 물질을 하러 가면 돈벌이가 되고 저녁밥을 할 쌀을 살수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바다에 나가면 문어 하나라도 잡아오면 쌀 한 되 값은 된다. 며느리가 넷 있지만 이젠 물질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고생하였기에 물질을 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마을어장은 아마도 다이버들의 몫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다이버는 절대로 안 된다(이옥희 할머니. 77세).

성산리 어촌계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성산리에 거주하는 해녀 수는 이들 생애사 증언자들을 포함하여 전·현직 80명이다. 하지만 현재 물질작업에 나서는 해녀는 77명이다. 이들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의 해녀가 절반을 넘는다(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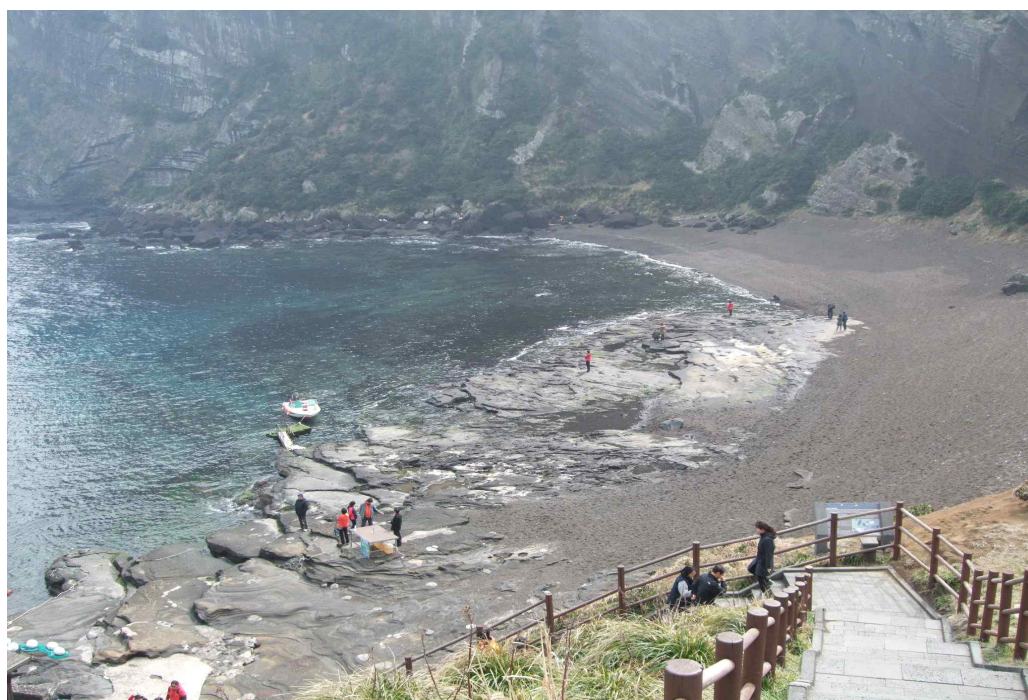
성산리 해녀들의 물질공연은 성산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에서 오후 1시 30분과 3시 등 1일 2회에 걸쳐 소요시간 30분 내외로, 현직 해녀 77명이 1일 7명씩 10개조로 나누어 시연하고 있다. 공연은 태풍이나 호우 등 기상악화가 아닌 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이루어진다.

<표 53> 성산일출봉 해녀 물질공연 참여 연령대 현황

(2014년 2월 현재)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해녀 물질공연 참여	6명	32명	31명	8명	77명
전·현직 해녀 수	6명	32명	31명	10명	80명

출처 : 제주시 성산읍 성산리 어촌계(2014. 2. 28.)



(그림 47) 성산일출봉 북쪽 해안가인 우뚝개 전경

빼어난 경관으로 알려진 우뚝개 해안의 해녀의 집은 성산리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과 전복죽 등을 파는 곳으로 1987년 5월부터 직판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의 물질공연은 2007년 6월 제주도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으로 등재된 직후인 8월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상설 운영되고 있다. 2013년까지는 서귀포시에서 지원 운영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해녀들에게 출연금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8) 우뭇개 해안에서 해녀 물질공연 중 해녀노래 장면(2014년 2월 28일)

공연 방식은 해녀소개, 해녀노래와 장단, 앞바다 물질작업, 해산물 채취, 해녀와의 기념촬영, 해산물 판매 및 시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개조 7명에서 5명이 한 팀(나머지 2명은 물질공연 동안 직판장 운영)을 이루어 해녀 잠수복을 입고 해안가 암반에서 1명은 이어도사나로 시작하는 해녀노래 5곡 내외를 부르며, 1명은 노를 젓는 모습을 연출하며, 나머지 3명은 테왁<sup>30)</sup> 장단에다 후렴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이어 5명의 해녀들은 바로 앞바다에 들어가 물질 시연을 한다. 해녀들이 문어

30) 제주어 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에 따르면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을 의미한다.

등 해산물을 직접 잡아내는 장면이 국내외 관광객들은 박수로 해녀들에게 환호를 보내곤 한다. 마지막 단계는 물질 작업을 마친 해녀들과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공연은 끝을 맺게 된다. 관광객들은 해녀들이 운영하는 해녀의 집에서 방금 채취한 문어를 비롯하여 소라, 해삼, 전복 등을 구입하여 시식할 수 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밝히고 있는 해녀물질 공연의 목적 또는 기대효과는 세계자연유산에 걸맞게 제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해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해녀의 전통문화계승에 기여하며, 물질공연과 연계한 청정 수산물 판매를 통해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은 (표 54)에서처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 공연을 시작한 이후 2012년 12월 현재까지 총 22만7,690명(내국인 11만5,440명, 외국인 11만2,250명)이 공연장을 방문하였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판매한 수익금도 20억2,000만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4> 성산일출봉 우뚝개 해녀의 집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	해녀물질 상설공연장 방문객 수(명)			해산물 판매 수익금(천원)	비고(공연일)
	계	내국인	외국인		
2007년	9,480	5,470	4,010	59,275	(8~12월)
2008년	25,190	13,600	11,590	171,002	307일 공연
2009년	29,450	16,570	12,880	350,292	319일 공연
2010년	48,720	23,870	24,850	333,231	306일 공연
2011년	58,590	30,800	27,790	500,532	320일 공연
2012년	53,830	24,030	29,800	607,356	324일 공연
총계	227,690	115,440	112,250	2,021,688	평균 315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2) 비판적 진단

SWOT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녀 물질공연의 강점은 일단 제주바다의 생태환경과 조화된 전승문화의 콘텐츠로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특히 성산리 해녀들은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앞바다 현장에서 직접 물질작업을 시연하고 있는데다, 관광객들의 공연장 접근이 용이하여 제주의 해녀문화를 쉽게 관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게다가 해녀들은 물질작업을 끝낸 뒤에도 사진 촬영 요청에 제대로 응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등 제주해녀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해녀물질 공연에 대한 약점도 노출되고 있었다. 이를 공연관람 부분과 체험참여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공연관람 부분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위해 무동력 배를 저으면서 바다로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냥 해안가의 평평한 화산암반 위에서 바닷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인 노를 한 개만 덜렁하게 지참하고서는 노를 젓는 시늉만 연출함으로써 현장감과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녀물질 공연시간을 공원 내 방송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는 있으나, 일출봉 입구에 있는 기존 전광판이 15년 이상 되어 낡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녀물질 상설 공연장에서의 방송 또한 공연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방송장비가 낡아 실제 공연 소리가 수시로 끊기고 있으며 마이크도 1개만 사용됨으로써 해녀노래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방송 내용은 해녀들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성산일출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 시키는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은 물론 성산일출봉 바다의 청정해역 이미지도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녀문화 체험참여 부분에서는 실습 프로그램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녀 체험이라는 것은 해녀복인 고무 잠수옷을 입는 체험에서부터 바닷물에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도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 현직 해녀들의 도움으로 실제 바닷물 속으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해녀들만의 공연으로 끝나고 있다.

더군다나 성산일출봉을 방문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해녀물질 공연시간이 오후 2회에 국한됨으로써 오전 10~11시대를 전후하여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해녀물질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은 미래에 기회의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SWOT 분석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성공적으로 등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지역의 전통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성 보전, 그리고 문화의 고유성을 지켜나가는 방안으로써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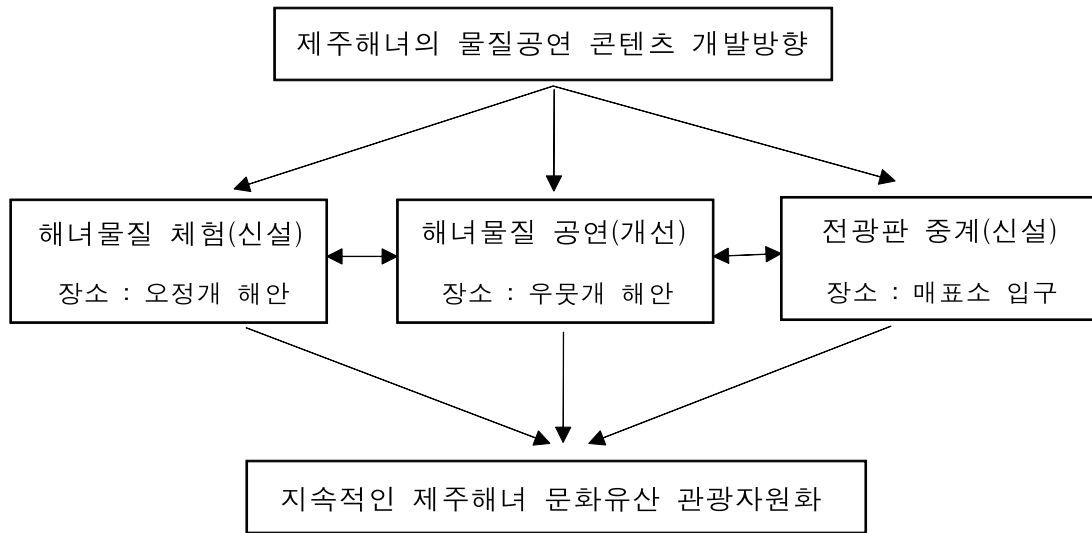
그러나 미래의 위기요인 또한 갈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은 해녀물질 공연자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젊은 해녀를 양성하는 방안마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녀물질 공연이 결국에는 질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하는 문제까지 제기된다. 장차에는 해녀물질 공연이 단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 (3) 콘텐츠 개발 방안

유산은 과거 인류생활의 흔적이며 역사적 산물로서 후대에 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은 인간의 문화적 행위결과에 의하여 획득되고 전승되어온 유·무형의 자료를 총칭한다. 특정 문화집단의 삶에 대한 지혜가 함축된 공동유산으로서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예술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전통적인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식, 민속, 예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전명숙, 2005).

문화유산관광의 형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교육적인 요소이다(이주희·문종태, 2002). 이 경우에 있어서 관광객은 보고, 배우고,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에듀테인먼트의 복합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문화유산지역을 방문한다(조계중, 2007).

제주도의 문화유산인 해녀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전통문화방식의 생활과 점점 멀어지고 서구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전통생활방식에 의거하여 존재 하였던 문화유산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홍준 등, 2010).



(그림 49)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향  
출처 : 연구자가 구성

제주해녀는 제주문화의 10대 상징물로 지정되었다.<sup>31)</sup> 그러나 최근 들어 해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자료에 따르면 1965년 2만3,000여 명에 이르렀던 제주도내 해녀는 2013년 말 기준 4,441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비중도 60대 이상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를 ‘한국 최초의 워킹맘(working mom·일하는 엄마)’이라고 칭하였다. 한국 여성의 독립성과 강인함을 상징하지만, 최근 해녀 지원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 2014년 3월 30일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성산리 해녀 역시 10년 전인 2005년 100명에서 2014년 2월 현재 80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52)에서 나타나 있듯이 60대 이상이 92%(74명)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해녀를 문화관광자

31) 200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화를 상징하는 10대 상징물로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 4·3,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을 선정하였다. 제주해녀의 선정배경은 제주여성의 표상이자, 제주여성문화의 아이콘이라는 것이었다.

원화로 보존, 승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녀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 매력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여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의 콘텐츠 개발 방안은 바로 이러한 차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물질공연은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연중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성산일출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걸맞는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어야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콘텐츠 개발은 (그림 47)에서처럼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향과 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세우고 출발해야한다. 이는 해녀물질 공연 관람 장소와 체험 장소를 구분하고 별도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3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해녀물질공연은 현재와 같은 우뚝개 해안에서 실시하되 공연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뚝개 북쪽의 오정개 해안에서는 새롭게 해녀물질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산일출봉 대표소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해녀물질공연의 품질개선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공연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녀전문 해설사 및 통역사 배정, 노후화 된 방송장비 교체, 해녀노래의 현장감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테우’ 또는 소형 낚싯배의 고정 배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후에 현장의 공연해설 방송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방송을 통해 해녀들은 한번 잠수하면 깊이 20여m의 물속에서 1~2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점, 해녀들은 이러한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씩 생활화해온 강인한 여성이라는 점, 해녀들은 바다의 물질작업과 육지의 농사일까지 부지런히 오가며 삶의 체계를 축적하고 전승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의 해녀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시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오후에만 2회 공연은 오전 시간대 탐방객들에게 제주문화유산의 향유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시간대 몰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공연시간을 오전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해녀물질 체험 프로그램의 신설 방안이다.

현재의 물질공연 장소와 다른 곳으로 인근의 오정개 해안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물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물질체험이기 때문에 물속 깊이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체험 희망자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해녀 잠수복 입기 체험, 지급되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서의 호흡법과 잠수법 및 해녀장구 사용법을 배운다. 이어 오정개 해변에서 해녀 잠수복과 물안경,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기, 바다 물속으로 잠수하기, 해산물을 채취하기 등의 순서대로 해녀물질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림 50) 해녀 체험장 예상되는 성산일출봉 북쪽 해안가 오정개

이 과정에서 해녀체험 지도자는 굳이 전문적인 현직 해녀일 필요는 없다. 지역의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해녀물질 교육과 안전교육을 시켜 이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의 체험을 교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해녀자원의 고갈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해녀 체험 어장에서는 해녀노래 부르기 체험과 ‘불턱’ 체험 코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불턱은 예전에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올려 바람을 막은 곳을 말한다. 해녀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질작업 전과 후에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다. 물질 작업 후에는 불을 피워 몸을 덥히는 장소이다. 한마디로 불턱은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매우 중요한 공간인 셈이다. 특히 불턱은 해녀들간의 정보소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질서를 배우기도 하다. 상호협조를 재확인하며 의사결정과정과 물질학습이 이루어지던 곳인 것이다. 그러나 각 어촌계마다 해녀의 집이 축조되면서 불턱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해녀 체험 어장에서의 불턱 체험은 또다른 추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불턱 체험을 고령 등을 이유로 현재 물질작업을 쉬고 있는 해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자들은 소라 꼬치구이를 시식하면서 원로해녀들의 생애사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해녀물질공연 시간을 방송으로 예고하고 있다. 매표소 입구의 전광판을 통하여 물질공연 시간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존의 전광판을 다목적 자동시스템을 갖춘 전광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설치되는 전광판은 해녀물질공연 장면을 현장에서 중계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으로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

대형 전광판을 통한 해녀물질공연 중계는 일출봉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결국 공연관람으로 이어져 제주의 전통 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제주해녀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는 현재와 같은 관람형에서 탈피하여 관광객들이 이질적인 고유 전승문화를 체험하며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구현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 4)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 (1) 현황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이를 품은 성산리의 역사문화자원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설화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일출봉의 지형·지질경관, 탐라시대의 유물·유적지, 조선시대의 옛 지도들과 화첩, 일제 강점기의 군사시설 현장, 해방이후 제주 4·3사건 양민학살과 고문의 현장이 그 것이다.

이들 자원만을 놓고 보더라도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은 제주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 설화에서부터 근현대의 가슴 아픈 역사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존하지도, 인식하지도, 유산자원으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물론 유산마을 주민들까지 제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치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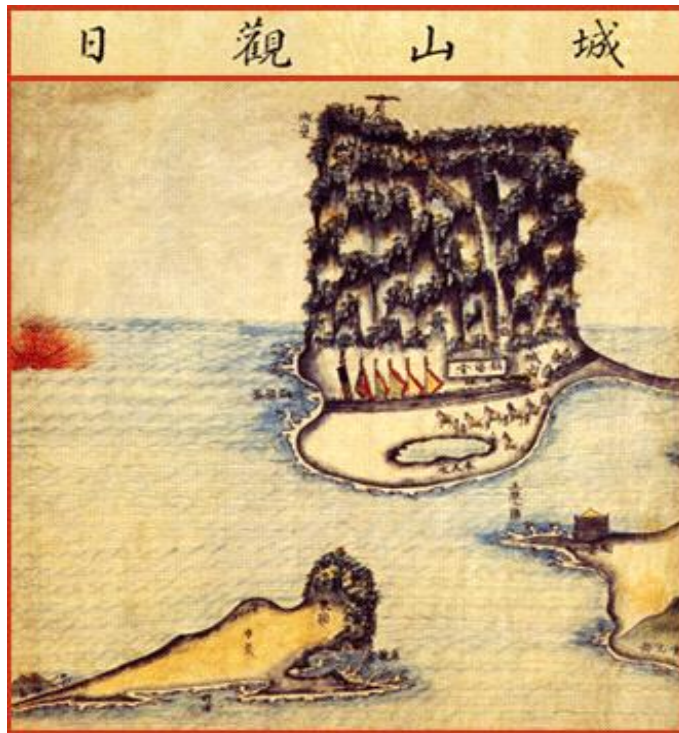
앞 절 성산일출제의 소망 기원 스토리텔링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제주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 설화는 거녀(巨女)였던 당신의 몸체만큼이나 성산반도에 거대한 몸체로 들어서있는 성산일출봉과 관련이 깊다. 일출봉의 분화구가 설문대할망이 백록담에 걸터앉아 빨래를 할 때 빨래를 담았던 바구니 또는 바느질 도구를 담았던 상자라고 한다거나, 설문대할망이 바느질을 할 때 등잔불을 올려놓아 불을 켜던 바위를 등경돌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내용 등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옛 지도들과 화첩은 당시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의 존재를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들이다. 옛 지도의 경우, 조선시대에 제주도의 단독지도로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탐라도’는 1682년에서 1702년 사이인 17세기 말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도에는 성산일출봉의 모습이 성처럼 강조되어 그려져 있고, 육계도인 성산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오상학, 2010).

조선시대 제주 유일의 화첩(畫帖)인 ‘탐라순력도’<sup>32)</sup>에 그려진 ‘성산관일(城山觀日)’(그림 51)은 300년 전 성산일출봉 일대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산리 마을회는 다음과 같이 ‘성산관일’을 풀이하였다.

일출봉은 마치 병풍처럼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져 있으며, 절벽의 사이사이에 나무숲이 울창하다. 산 밑에서 정상까지 ‘각교(刻橋)’라고 표시하고 계단들이 그려져 있는데 극히 가파르다. 각교라는 표현으로 보아 일부 벼랑을 파내어서 계단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출봉의 동쪽 끝에 봉수대인 ‘성산망(城山望)’이 표시되어 있고, 이형상 목사는 이곳에서 일출을 구경했다. 산발치 북쪽에는 현재의 수마포구 위쪽 언덕으로부터 오정개 위 언덕까지 석성이 둘러져 있다. 성안에 이 목사가 방문하기 100년 전에 김상헌이 묵었다는 ‘진해당(鎭海堂)’의 ‘구지(舊址)’ 즉, 옛터가 표시돼 있다. 일종의 객사터 역할을 했던 이 건물은 이 목사가 오기 전에 헐린 듯하다. 성 밖 현재의 오일시장 터 인근에 ‘봉천수(奉天水)’가 있어 우마를 먹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림에 나타난 일출봉의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일출봉 앞면(동북쪽)의 절벽이다. 지금은 깎아지른 벼랑이지만, 당시에는 온전한 모습이며 절벽 군데군데 나무숲이 우거져 있었다(성산리 마을회, 2004).

32)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 이형상(1653-1733)이 제주도로 도임하던 해인 1702년 10월 제주목관을 출발하여 동-남-서쪽을 돌아 다시 제주목까지 순력했던 내용을 화공 김남길이 그려 이듬해에 완성하였는데, 화첩의 크기는 가로 35.5cm×세로 55cm이다(고창석, 2000). 회화사적으로는 감상용 그림이 아닌 실용적 목적을 띠고 제작된 의제적인 기록화이지만, 순력도라는 제명의 기록화로서는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예일 뿐 아니라, 당시 해외로 인식될 정도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도 지방의 관아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하게 여겨진다(홍선표, 1994).



(그림 51) 탐라순력도의 성산관일

성산리에는 탐라시대<sup>33)</sup>부터 관련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고 있다.

탐라시대 관련 유적으로는 성산포구 서방파제 인근 언덕에 성산리 유물산포지가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유물은 모두 광지리식 토기편들이다. 탐라시대 전기 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성산포는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인 마을보다는 방어시설로서의 역사가 더 깊다. 일설에 의하면 처음으로 방어시설이 들어선 것은 1271년(고려 원종 12) 삼별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 관련 유적으로는 성산성이 있다(그림 52). 임진왜란

33) 탐라시대는 제주도에 특정 지배 계층이 등장하여 정치 체계화되는 단계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시대에 해당한다. 탐라국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제·고구려·신라와 각각 교역한 것으로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는 바다 건너 일본과 당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탐라시대는 교역의 중심적 주체에 따라 전기(기원후 3~6세기)와 후기(기원후 6~10세기)로 크게 구분된다. 전기는 마한과 지속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후기는 마한이 백제에 병합되면서 교역 주체가 백제로 전환된 기원후 6세기 중반 이후에 해당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1592-1598)이 발생하자 이경록 제주목사가 1597년(선조 30년) 성산을 천혜의 요새지라 하여 왜구가 침입하여 오면 최후의 보루로 삼고자 수산진성을 현재의 성산일출봉 밑 주차장 일대로 옮겼다. 선조 34년(1601) 안무사로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이 남긴 남사록에는 이를 최악의 계략이라고 나무라고 있다. 성산성 규모는 길이가 2,000여 자, 높이 9자로 수 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범위가 컸으나, 성 내에 물이 없어서 성 밖 1리의 물을 사용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주차장 토산품점이 들어서있다. 또한 일출봉 정상에 봉수대가 있었던 모습은 탐라순력도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그 지점의 위치는 정확히 할 수 없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그림 52) 옛 성산성의 추정 터

성산리 마을은 제주도의 모든 마을이 그렇듯이 일제 강점기에 이어 해방공간의 제주 4·3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만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일제 강점기시대 성산일출봉의 남쪽 해안가에 구축된 동굴진지들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 위기에 몰린 일본군의 자살 특공 기지였다. 조성윤(2008)에 따르면 일본군의 자살특공대는 미군 상륙용 선단이 상륙을 시작하기 전에 선박을 공격, 침몰 또는 파손시키는 임무를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이다.<sup>34)</sup>

34)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부터 제주도에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여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본토결전(本土決戰)을 준비하였다. 그해 일본군은 ‘결호작전(決號作戰)’이라는 본토 방어 작전을 수립하였다. 결호작전 지역 중 1호부터 7호까지는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제주도는 일본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결7호 작전’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었다. 일본군은 작전 수행을 위해 1945년 8월 종전 무렵까지 무려 7만5천여 명이나 되는 병력이 제주도에 주둔하였다. 당시 제주도 인구 23만 여명의 32.6%나 되는 규모였다. 이들의 임무는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제주섬 전체를 요새화

일출봉 해안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그림 53)은 콘크리트로 구축된 벙커 2곳과 갱도식으로 굴착된 진지 16곳 등 모두 18곳이다. 이들의 내부 총 길이는 514.7m에 이른다. 입구를 기준으로 동굴진지 전체의 직선거리가 470m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25m, 나머지 대부분은 20~30m 길이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동쪽 동굴진지 앞 해안 조간대상에는 특공정 발진을 위한 유도로 시설로 추정되는 시멘트 시설 3곳이 썰물 때만 볼 수 있다.<sup>35)</sup>



(그림 53) 검은색으로 동굴 입구가 드러난 일본군 동굴진지

하는 것이었다(조성운, 2008; 강순원, 2008).

일본군은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럴 경우 일본 본토는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정세판단을 하고 있었다. 즉,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남단과 중국을 연결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와 중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었다. 일본 전쟁 수뇌부는 미군 등 연합군이 제주도에 상륙한 뒤 공격거점을 만들 경우 중국대륙으로부터의 물자공급이 끊기고 이와 동시에 일본 본토 공격의 거점진지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35) 일출봉 특공기지 구축에는 제주도민들보다는 다른 지방 주민들, 특히 전남지방 광산노동자들이 대거 강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1945년 1월20일쯤 광양광산 노동자들이 3차례에 걸쳐 800명 정도가 성산일출봉으로 동원됐다고 한다. 동굴진지는 구멍을 뚫고 다이어마이트를 집어넣어 폭파시키고, 곡괭이로 다듬는 식으로 구축했다. 일출봉 동굴진지는 6개월 만에 끝마쳤다고 한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일출봉 해안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일제 침략상을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서 당시의 실상을 통해 평화를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조성윤, 2008, 128). 2006년 12월 4일자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11호로 등록되었다.

화산섬 제주에서 20세기 지역사회를 뒤흔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제주 4·3사건이다.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6)</sup>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내 거의 모든 마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을 모른 채 희생이 되었고, 평화롭기만 하던 제주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성산리 마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성산리는 지금은 해안도로 등이 생겨 인근마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 말엽인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바닷물 때에 따라 육지 길로의 연결이 닫히고 열리는 육계도였다. 따라서 당시 성산리는 육지와 유일한 연결로였던 고성리와 성산일출봉으로 이어지는 ‘터진목’의 좁은 길만 막아버리면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산리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주 4·3사건 발발 초기에 단 한 차례의 지서 습격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 이후로도 무장대로부터 이렇다 할 기습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서북청년단<sup>37)</sup>의 존재는 성산면 관내의 다른 마을 주민들

36) 제주 4·3 특별법의 원래 명칭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3특별법에 의해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를 확정하는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0월 31일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 되었던 잘못,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를 하였다. 진상보고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대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4·3특별법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수를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37)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의 사회개혁 당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상실하여 남하한 세력들이 19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결성한 극우반공단체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자에게는 무조

과 인근 구좌면 주민들에게 몸서리치는 악몽이었다. 특히라면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그 곳에 한번 잡혀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산면과 구좌면 등을 총괄했던 서청 특별중대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횡포를 자행하면서 인민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 과거에 수감이 되었다는 이유, 도피자 가족 또는 이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 이승만 사진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 일본군이 버리고 간 다이어마이트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 등 갖가지 죄명을 붙여 잡아 온 무죄한 양민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다가 대부분 총살하였다. 그 학살의 현장이 성산리의 터진목과 우뭇개 동산이다.

터진목이라는 지명은 터진 길목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실제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산리는 물때에 따라 육지 길이 열리고 닫혔다. 이후 주민과 행정당국이 공사를 벌여 육지와 완전히 이어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일대를 터진목이라 한다. 성산면 주민의 희생은 대부분 서청 특별중대에 의해 터진목에서 총살되었다. 당시 성산면에서는 몸서리치는 공포의 장소였다. 뿐만 아니다. 구좌면과 표선면의 일부 주민들도 이곳 터진목에서 총살되었다.

4·3 당시 악명을 떨쳤던 서청 특별중대의 주둔지는 당시 성산동초등학교 건물이었다. 이 학교 건물에 서청 특별중대가 주둔하던 시기와 주둔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증언에 의하면 약 100여 명이 3개월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 학교의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각처에서 붙잡아온 주민들을 학교 앞 담장 너머의 주정공장 창고를 이용하여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곳 창고에서 매일같이 고문에 못 이겨 질러대는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성산리의 한 주민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고문을 당해 결국 들것에 실려 터진목에서 총살당했다(성산읍, 2005).

---

건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제주도 4·3 사건에서 미군정은 서북청년단의 이러한 성향을 이용, 미군정의 명령에 대항하는 지역에 이 세력을 파견하여 민중들을 공격하는 하수인으로 삼았다. 이들은 봉급 없는 경찰 보조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을 위하여 갈취와 약탈, 폭행을 무수히 진행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54) 서북청년단이 주둔하였던 옛 성산동초등학교의 폐건물

현재 성산리에 남아있는 4·3 유적은 악명 높은 서청 특별중대가 주둔하였던 당시 성산동초등학교<sup>38)</sup> 건물로 현재 마을 중심부인 통밭알 옆에 건물 뼈대만 남아 있다(그림 54). 주민들을 고문하였던 초등학교 옆 감자창고는 허물어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학교 건물은 기와지붕이 완전히 무너지고 벽체마저 파괴된 채로 폐가 처럼 방치되어 있다.



(그림 55) 터진목 4·3 유적지 안내판(왼쪽)과 제주 4·3 성산읍희생자위령비

38) 성산동초등학교는 1946년 2월 개교한 성산공립국민학교가 1950년 10월 개명한 것으로, 이후 1957년 6월 성산 국민학교로 개명하였고, 1972년 12월 지금의 성산일출봉 주차장으로 이전한 뒤, 1988년 10월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1996년 3월 성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현재 터진목 입구에는 제주 4·3 유적지라는 안내판과 함께 성산읍 희생자 위령비, 희생자를 추념하는 시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55). 또한 성산읍 4·3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터진목 도로변 담벽에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으로 학살된 곳임을 알리는 석재로 된 위령 패널을 설치한 상태다.

## (2) 비판적 진단

성산리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화는 주로 근현대사의 유적과 그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자원인 일본군 동굴진지와 제주 4·3 유적지의 실상을 살펴보면, 관광자원 또는 관광 매력물은 있으나 방문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없다. 또한 제대로 된 탐방코스도 전무한 상태로 진단된다.

첫 번째, 성산일출봉 일본군 동굴진지의 경우다. 일출봉 남쪽 해안인 수마포 해변에서 동쪽 새끼청산 방향으로 전체 직선거리 500m 남짓한 구간의 일출봉 응회암 사면에서 동굴진지가 18곳 구축되어 있다.

이곳의 동굴진지는 제주도내 다른 어느 곳보다 다양한 일본군 군사시설로 남아 있다.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출봉 동굴진지는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오면서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마포 해안에서 제일 먼저 관측되는 콘크리트 병커형 동굴진지(사진 가운데 꺼멥게 원으로 보이는 곳)의 경우, 마을 해녀들의 탈의장 등 작업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훼손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내부는 물질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쌓여있다. 물질작업 후 차가워진 몸을 덥히거나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우면서 생긴 그을음 흔적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림 56) 수마포 해안가의 일본군 동굴진지 설명표지판

특히 이 앞에는 일대의 동굴진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표지판이 다음의 내용을 담은 채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그림 56).

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 이 시설물은 제주도민들 보다는 다른 지방 주민들, 특히 전남지방 광산노동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구축되었다. 1기는 'ㅍ'자형, 나머지는 'ㅡ'자형으로 모두 18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형 동굴진지는 신요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고로 구축되었다. 신요는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한 수상 특공 병기이다. 시설 부대와 주둔 부대 등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 일본군 주둔 실상과 침략 야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내용을 읽고, 과연 설명 표지판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일본군의 주둔 실상과 침략 야욕을 생생히 이해할 수 있을지, 또는 공감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이러한 표지판 하나 만을 갖고서는 일본군 동굴진지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며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일출봉 동굴진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역사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인식을 높이는 공간으로서의 관광자원화는 요원할 뿐이다.

일본군 동굴진지는 일제의 침략야욕의 뚜렷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상을 통해 평화를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 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조성운, 2008). 전쟁유적지는 일반적으로 전투가 있었던 장소를 가리키지만, 좀 더 넓게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 철거된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같은 일제의 군사시설은 아픈 역사의 현장이자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형 팻말이나 다름없는 안내판 1개만으로 그 실상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전쟁 유적지로서 갖는 의미를 축소 또는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아울러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질 뿐이다.

두 번째, 제주 4·3사건 유적과 현장의 경우다. 관련된 곳은 서청 특별중대 주둔지인 옛 성산동국민학교 건물, 무고한 양민 학살터인 터진목과 우뚝개 동산 등 3곳이 대표적이다.

옛 초등학교 건물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건물 지붕이 전부 파괴되어 없어진데다 벽체마저 상당부분 훼손된 채로 건물 뼈대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고한 주민들을 감금하고 고문하였던 학교 건물 옆 감자창고는 완전히 허물어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당시의 학교 운동장 역시 블록을 제조하거나, 낚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장비를 버리거나, 일부 관광유흥시설을 보관하는 곳 등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머지 않아 옛 초등학교 건물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성산면과 구좌면 주민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통한의 장소이다. 이곳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역사 박물관화하여 후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현장을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가슴 아픈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 표지판조차 하나도 없다.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터진목의 경우, 4·3 유적지임을 알리는 입간판이 터진목 입구 도로변 인도에 붙여 세워져 있다. 성산일출봉 경관이 뚜렷한 터진목 모래언덕에는 ‘제주 4·3 성산읍 희생자위령비’가 무고한 양민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있을 분이다. 또한 발걸음을 마을 쪽으로 옮기면 인도변 제방에는 희생자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석제형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57).





(그림 57) 성산리 터진목 인도변에 설치된 석제형 위령 패널

(그림 57의 석제 패널에 새겨진 내용) 이곳 성산포 터진목 해안가 모래밭 일대는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이 지역 무고한 양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와 무참히 학살된 곳입니다. 어미의 등에 업힌 젓먹이에서부터 80 넘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총과 칼과 죽창에 찢려 비명에 가신 곳입니다. 아버가 아들을, 아들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젓먹이가 엄마를 찾던 울부짖음이 아직도 귓전을 때립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시는 모든 이들과서 추모의 뜻으로 바치는 꽃잎을 이 돌에 새겨서 4백 여 영령들이 영면하심을 빕니다. 2012년 11월5일 성산읍 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일동.

그러나 위의 석제 패널에 새겨진 내용만 놓고 보면, 이곳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곳이구나 하는 단순한 사실 외에는 그러한 사건이 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만 더할 뿐이다. 무엇보다 제주 4·3사건이란 무엇이며, 그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무고한 양민희생 등 해방공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58) 양민 집단학살터였던 성산일출봉 우뚝개 동산

해녀물질 공연장을 가는 길목에 있는 우뚝개 동산(그림 58)의 경우는 더 언급할 나위가 없다. 양민들의 집단 학살터 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물론, 당시의 흔적이라고는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현재의 일출봉 주차장 옆 너른 초원으로 남아있는 당시의 현장은 1년 열 두 달 내내 국내외 관광객들만 떠들썩하니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다. 관광객들은 과연 이곳이 가슴 아픈 상처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다(그림 58).

이상을 종합하면, 성산일출봉 해안가 일대와 성산 마을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설명 표지판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림 59) 한산한 터진목 4·3 유적지와 봄비는 노란 유채꽃밭

터진목 도로변 제주 4·3 유적지 와이드 패널 쪽 도로변에는 차량이 한 대도 주차하지 않은 채 한산한 반면, 반대편 노란 유채꽃밭 앞에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차량들이 줄을 지어 주차하여 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관광객들의 무관심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 (3) 콘텐츠 개발 방안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개발은 일제의 침략과 4·3사건 참상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형상화<sup>39)</sup>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다르게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일컫는다(네이버 지식백과).

다크 투어리즘에 있어 역사사건의 형상화와 관련,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장소의 재현이다. 장소의 재현에 있어

39) 형상화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 특히 어떤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이른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go.kr>).

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기념비와 기념관 또는 박물관이다. 국내의 다크 투어리즘은 기념비나 기념공간을 제공하는 가시적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크 투어리즘의 가장 큰 목적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가시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의 경험적 형상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방문객들에게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험적 형상화는 관광코스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경험적 형상화를 위해서는 해설자가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지만, 상황에 따라 스토리텔링 적용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스토리 라인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식 등도 사용될 수 있다(송재호 등,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성산일출봉 일본군 동굴진지, 제주 4·3사건 집단 학살터인 터진목과 우뚝개 동산을 소재로 한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을 경험적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적 형상화 방안은 유적지 현장을 소규모의 전시장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역사적 현장으로서 방문자 및 체험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려면 이들 현장에서 발굴된 스토리 라인을 해설사가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면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즉, 경험적 형상화에 이상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발발에서부터 전개과정, 사건 종료 등의 스토리 라인을 설명하는 안내판들을 현장 공간에 들여놓는다면 해설사의 상주여부에 관계없이 방문자 및 체험자들의 정보 습득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성산일출봉 일본군 동굴진지를 그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수마포 해안가의 동굴진지 앞에 홀로 세워진 안내패널을 중심으로 팔각정과 같은 소규모의 쉼터부터 만들 일이다. 다음 단계는 동굴진지에 관한 일련의 전개과정과 의문들을 스토리 라인으로 정리한 패널들을 설치하는 것이다(그림 60). 이 방안은 다크 투어리즘 스토리텔링 코스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0) 일본군 동굴진지를 설명하는 패널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일출봉 남쪽 수마포 해안의 소규모 쉼터 예상지(흰색 점선 원내)

이와 함께 제주도내 청소년들로 하여금 18곳의 동굴진지별로 ‘평화’, ‘사랑’ 등의 내용을 담은 설치예술과의 만남의 공간을 연출토록 한다면 역사교훈의 장이자 문화창조의 장으로서도 관광자원화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제주 4·3 사건 당시 양민 집단 학살터의 경우에도, 앞서 동굴진지에서 제안한 방안을 터진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터진목 4·3 유적지는 제주 4·3 성산읍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진 곳과 바로 이어진다. 성산일출봉의 경관을 근접거리에서 조망하는 등 이미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별도의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지 않고도 (표 55)에서 보듯이 4·3 사건의 배경과 발발, 사건 전개과정, 한라산 금족령 해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 전개과정을 스토리 라인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패널들을 설치하면 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이곳에도 팔각정과 같은 소규모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다(그림 61). 이렇게 되면 제주 4·3사건과 터진목 집단 학살터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와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0) 근대 역사문화시설 활용사례로 섬아트문화연구소(소장 김해근)은 2005년 8월13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진지동굴 일대 등에서 ‘2005 Wind Art Festival’을 개최하였다. 이 가운데 ‘일제 진지동굴과 설치예술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에서 송악산 진지동굴 내부에 설치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이 문화창조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문순덕·박찬식, 2013).

<표 55> 제주 4·3 사건 전개 상황

사건 발생 연·월·일	사건 내용
1947. 3. 1	제주민전 주최 제28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응원경찰의 발포로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주민 6명 사망, 8명 중경상이라는 '3·1사건' 발생.
3.10	제주도청을 시작. 3·1사건에 항의하는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단체에서 민·관 총파업 돌입.
6. 6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에게 집단폭행 당한 세칭 '6·6사건' 발생.
1948.2월말	남로당 제주도당 '신춘회의'에서 강·온파의 논쟁 끝에 12대 7로 무장투쟁 방침이 결정됨.
4. 3	제주도에서 무장봉기 발발.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 사망. 350여 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새벽 2시를 기해 제주 도내 12개 지서를 공격,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
4.28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 진행. 72시간 내 전투중지 등 합의.
5. 1	세칭 '오라리 방화사건' 발생해 평화협상 파기.
5.10	5·10선거 실시. 제주도 62.8%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 북제주군 갑·을 2개 선거구 과반수 미달로 선거무효.
5.31	제헌국회 개원.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
10.11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설치.
10.17	송요찬 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km이상 지역 통행금지 명령. 어길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문 발표.
10.19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발생.
1949. 1.17	'북촌사건'발생. 군인들이 기습받은 보복으로 조천면 북촌리를 모두 불태우고 이튿날까지 주민 400여명 집단총살.
3.21	제주도의 재선거를 1949년 5월 10일 시행한다고 공포.
6. 7	무장대 총사령 이덕구, 경찰에 의해 사살.
10. 2	제주비행장 인근에서 '1949년 군법회의' 결과 사형 선고된 249명에 대한 총살형 집행, 암매장.
1950. 6. 25	6·25전쟁 발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하달. 전국 요시찰인 전원 즉시 구속 지시.
7. 2	토벌대, 예비검속으로 제주읍 주정공장에 수감했던 사람들을 사라봉 앞 바다에 수장시킴.
7.29	서귀포경찰서 관내에 예비검속 됐던 수감자 150여 명이 끌려 나가 바다에 수장됨
8. 4	경찰, 제820명 예비검속. 제주경찰서·주정공장 등지에 수감 된 예비검속자 제주항 앞바다에 수장됨.
8. 19	19일 밤~20일 새벽까지 제주경찰서에 수감되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제주비행장에서 총살된 후 암매장.
8. 20	모슬포경찰서 관내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이 군에 송치, 송악산 첫알오름에서 집단총살 됨. 당국의 제지로 6년만에야 시신을 수습한 대정면 희생자 유족들은 시신을 구분할 수 없자 적당히 유골을 맞춰 132기의 봉분을 만들고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라 칭함.
8.30	김두찬 해병대 정보참모,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에게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명령 및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렸으나, 문형순 서장은 '부당함으로 미이행(未履行)'이라며 거부.
9. 1	인천상륙작전
10.10	제주도지구의 계엄 해제
1951. 4.24	제주 경찰, 1950년 10월 1일~1951년 4월 22일까지 7개월간 무장대 사살 56명, 무기노획 소총 11정, 수류탄 2발, 경찰 17명 사상(사망 15, 부상 2), 자위대 24명 사상(사망 11, 부상 11, 행방불명 2), 민간인 42명 사상(사망 1, 부상 3, 납치 38)등의 전과 발표.
1953. 5. 1	무지개부대 작전 종료
1954. 1. 1	이경진 제주도경찰국장, 잔여무장대는 6명 뿐이라고 발표
1954. 9. 21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

출처 : 제주 4·3 평화재단(www.jeju43peace.or.kr)를 연구자 재구성.



(그림 61) 제주 4·3사건을 설명하는 패널들이 들어설 수 있는 터진목 모래언덕의 소규모 쉼터 예상지(흰색 점선 원내).

특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발굴 정리할 때 (표 55)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문형순 당시 초대 성산포 경찰서장의 역할을 스토리 라인에 포함한다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의 명령을 뿌리치고 학살 위기에 내몰린 민간인들을 살려낸 경찰서장이 있었다. 초대 성산포 경찰서장이던 문형순씨(1901~미상, 평북 출신)다. 문 서장은 1950년 8월30일 해병대 정보참모 김두찬 중령으로부터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 의뢰의 건’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1948년 제주도 계엄령 실시 후 구속 중인 예비검속자 중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 총살을 집행해 9월6일까지 육군본부에 보고토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4·3사건에 이어 6·25 전쟁까지 터지자 시국불안을 우려, 정권 비판자 등을 잡아 구금하거나 감시했다. 바로 이런 인물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이었다. 문 서장은 공문을 받자마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글을 덧붙여 되돌려 보내고 총살집행을 거부했다. 당시 예비검속으로 제주도민 수천 명이 희생을 당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 서장이 있었던 성산포에서는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있었지만 단 6명만 희생되었다. 문 서장은 성산포경찰서로 옮기기 전 모슬포 경찰서에서도 서북청년단이 조서를 날조해 학살하려던 주민 100여 명을 살려내기도 했다. 문 서장의 의로운 행동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윈들러’에 비유하여 ‘제주판 윈들러’로 불리고 있다. 제주 4·3 사업소는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의로운 사람’ 코너를 만들어 문 서장의 행적을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4년 2월21일자).

성산 마을의 또 다른 4·3 양민 집단 학살터였던 우뚝개 동산 역시 터진목과 똑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말 기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성산일출봉 관광지 내에 현재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우뚝개 동산은 탁 트인 경관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크 투어리즘 개발 잠재력은 터진목에 뒤지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성산일출봉 일대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의 재현이라는 다크 투어리즘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지오투어리즘 코스의 다양성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5)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1) 현황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품고 있는 성산리의 총 면적은 1,224,456㎡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 세계지오파크 마을 가운데서 면적이 가장 협소하다. 그 중 대지 면적 216,967㎡, 밭 241,495㎡, 임야 353,661㎡ 규모이다. 지형적 특성 상 땅이 비좁고 척박한데다 해풍이 심한 관계로 경작지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포지역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농업보다는 수산업이 발달하였다. 주민 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남성 890명, 여성 797명 등 1,687명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전체의 약 60%, 식당과 상가 등 관광업 종사자가 30%, 야채 등을 경작하는 농민이 1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성산리는 예전부터 항만이 발달하여 수산업을 이용한 제조업이 크게 발전하여 제주도 동부의 어업전진기지로 육성되었다. 또한 해상 항로의 개설로 교통의 요충지로까지 발전하면서 서귀포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할 정도였다.

그러나 예로부터 잘 나갔던 마을 성산리의 지금은 더 잘나가는 마을로 발전하



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자연유산이자 제주도 최대의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품은 유산마을답지 않게 유명세와는 단절된 느낌이다. 관광 공간과 마을 공간이 서로 연결 기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관광객과 주민들간의 흐름 역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 마을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개선 없는 이름뿐인 유산마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sup>41)</sup>

이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일시장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성산포의 오일장은 1935년 3월 처음 개장된 이래 매순(每旬)의 1일과 6일 열려오면서 성산지역 최대 규모로 서민들의 생활필수품 구입과 지역토산물 판매장으로 활력이 넘쳤다. 그러나 1962년 성산면사무소(지금의 성산읍사무소)가 고성리로 이전하는 것과 발맞추어 오일장도 교통상의 불편을 들어 고성리로 이전이 추진되었다. 성산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확정되자, 대안으로 성산포와 우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성산 오일시장은 절대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결국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성공하여 오늘에 이른다(성산리 마을회, 2004).

현재 성산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오일시장은 공유지로서 총면적 1,655㎡(501평)에 매장 면적 513㎡, 점포수 30개소로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상인은 10여명에 남짓하고 거래가 한산하여 낮 12시면 파장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국내외 탐방객의 기하급수적인 방문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에 걸맞는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마을주변이 어울리도록 지붕개량과 간판정비, 마을안길 돌담 정비, 오일시장 정비 등 총 27억 원 규모의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

41) 성산리 주민대표인 성산리장 정영기(2014년 2월 28일, 3월 15일, 5월 18일), 해뜨는 마을 성산리 편찬위원장 한천복(2014년 3월 3일), 전 성산리 어촌계장 고송환(2014년 3월 1일) 면담 결과.



(그림 62) 성산리 오일시장 전경

이런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매년 1월1일 해 뜨는 마을을 상징하는 고유의 성산 일출제가 주민화합과 마을 번영의 기회로 승화되고, 이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마을로서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 비판적 진단

성산리 마을회(2004)는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훨씬 이전부터 성산지역 관광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자원 의존형 관광개발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 및 관광상품 부족,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차질로 관광객들이 체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미흡,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경유형 관광지화에 따른 역효과 및 부작용 대두, 자체 홍보노력의 미흡, 지역에 적합한 개발철학의 부재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이 같은 마을회의 진단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당시의 상황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산일출봉 방문객 급증에 따른 주차난이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을 태운 대형 전세버스들과 렌터카 차량들이 마을 내 일출봉 진입도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바람에 도로 자체가 완전 불통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 매연발생 피해에다 교통 안전사고 우려, 일상생활 불편 등 고통이 가중될 구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림 63) 일출봉 주차난으로 마을도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일출봉으로 향하는 관광객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주민소득사업 추진에 앞서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전 등을 포함하여 유산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당국에 요구하는 실정이다.

세계자연유산마을로서 자부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출봉이 연 300만 명이상이 찾는 제주도 대표적인 관광지라 하지만 주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기대이하이다. 현재 유산마을의 숙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은 주차장 이전이다. 이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차장이 이전되어야 방문객들은 걸어서 마을을 지나고 일출봉으로 입장하는 동선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일출봉 주차장은 대형 버스 65대와 승용차 152대 등 최대한 217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 이러한 규모로는 방문객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연평균 28% 이상 급증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오후 시간대면 일출봉 방문객을 태운 전세버스와 렌터카들이 성산마을 도로는 물론이고 고성리에서 진입하는 광치기 해변까지 약 1km의 도로를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성산포만 내수면 앞도로인 서성로까지 차량들이 장기 점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이다, 제주 세계 지질공원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제주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주차장부터 포화상태다. 이는 결국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부터 안 되어 있다는 얘기다. 우리 마을주민들의 요구는 세계자연유산에 걸맞게 인프라 즉, 주차장 이전 확장문

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관련 용역과 문화재청의 자문을 거쳐 현재보다 2배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성산포만 내수면에 교량 형으로 조성키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600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예상되다보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의 숙원사업은 KBS 제주송신소의 이전이다. 그렇지 않아도 면적이 협소한 성산마을에 거대한 송신철탑 등을 갖춘 송신소가 2만 평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마을 발전에 걸림돌이다. 특히 송신소는 세계자연유산마을의 경관에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일부 주민들은 송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세 번째의 주민숙원은 오일시장의 민속 매일시장화 추진이다. 재래시장인 오일시장을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민속시장으로 활성화하게 되면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정영기 성산리장, 2014년 5월 18일 면담).

### (3) 콘텐츠 활성화 방안

유산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은 한마디로 명소 만들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명소 만들기는 지역주민, 지역자원, 관광객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관광활동을 매개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이진희, 2008).<sup>42)</sup> 본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의 핵심 콘텐츠로 제안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가 성산마을의 또 다른 명소 만들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산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은 앞서 마을대표가 제시한 3가지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숙원사업은 현재의 일출봉 주차장 이전이다.

그동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일출봉 주차장 이전 확충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2

42) 명소 만들기는 외부자본 또는 기업이 자본에 의해 지역사회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소 만들기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지역주민이 지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경관, 고유한 문화유적, 역사적 전통, 유형의 문화재, 독특한 지역의 특성 등을 활용하여 장소성을 부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고, 새로운 명소로 부각될 것이다(이진희, 2008).

010년부터 관련연구 용역의 문화재청 승인을 거치는 등 현재 주차 규모(버스 65대와 승용차 152대 등 217대 수용)보다 2배가 넘는 500대 수용 규모(버스 120대와 승용차 380대)의 주차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산포만 내수면에 교량형으로 이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600억 원 가운데 국비가 420억 원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 의지가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유네스코가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키로 하면서 IUCN이 권고한 방문객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IUCN의 권고는 국가가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은 성산일출봉의 주차장 이전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국가 지원은 타당성을 갖고도 남는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국비 투자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다면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지위 상실 위기가 초래되는 초유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64) 성산일출봉 내수면 주차장 조성(안)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두 번째 숙원사업은 KBS 제주송신소의 이전 문제다. 제주송신소는 1978년 11월 현재의 성산리 301번지에 73,172㎡(22,000여평, 잡종지) 규모로 설립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제주송신소는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정부시책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시설이라는 점에서 특혜를 누려왔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최근 제주송신소의 이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볼 때, 송신소의 철탁은 경관상으로 어울리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과도한 전자파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송신소의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송신소 시설의 이전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갖출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타 지역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내 무인도 등에 송신소 시설을 갖추는 것이 경관적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상으로도 바람직하다(제주발전연구원, 2011).

마을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성산리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가 극히 한정된 상황에서 73,172㎡이라는 땅이 폐쇄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화시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면적만 해도 성산리 대지 면적 규모의 33.7%나 된다. 주민들은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세계자연유산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으로 송신소 이전을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 65) 성산리에서 차지하는 KBS 제주송신소의 땅 규모(흰색 점선 원내)

세 번째 숙원사업은 오일시장의 민속 매일시장화 추진이다. 현재 장터 점포가 간이천막 30곳 있지만 상인은 13명에 불과한데다, 성산수협 앞 대도로변과 성산과 출소 일대 도로변에서도 장이 열리는 관계로 낮 시간대를 넘겨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오일시장의 토지가 공유지라는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토속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운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국은 장터의 매장을 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주고,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성산일출봉 탐방객과 올레 탐방객들의 눈과 입에 맞는 상품을 갖추어 나간다면 오일시장의 옛 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더욱 고무적인 것은 본 연구가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3개의 탐방코스 종착점이 바로 오일시장이라는 점이다. 탐방객들은 자연스럽게 오일시장에서 선보이는 특산물 등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 9. 지오투어리즘 코스 개발

성산일출봉과 성산 마을 일대의 빼어난 지형 및 지질자원과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하는 지오투어리즘 코스는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 그만큼 일출봉 일대에는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자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출봉 해안절벽을 따라 응회구 분출 및 응회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동시성 단층과 균열, 사면 붕괴에 의해 생긴 사태, 쇄설류 퇴적층, 화산폭발 당시 물기를 머금은 화산재가 화산 암편에 들러붙어 생겨난 부가화산력, 화쇄난류에 의해 형성된 점착연흔, 다양한 내부구조를 지닌 얇은 층상의 응회암, 일출봉이 파도 등에 씻겨 형성된 신양리층, 화산폭발시 화구로부터 날아온 화산탄이나 화산암괴가 화구 주변에 쌓인 화산재 등이 퇴적층 표면에 꽃이면서 그 충격으로 퇴적표면을 마치 습곡처럼 아래로 휘어지는 모양을 한 탄낭구조(그림 66) 등 다양한 지형 및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윤석훈, 2011).



<그림 66> 성산일출봉 남쪽 절벽 하단부에 나타나 있는 탄낭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오투어리즘 코스가 상설화되지 않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7년째를 접어들고 있다. 특히 지오투어리즘 추진을 중요 목표로 삼고 있는 제주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로 인증을



받은 지도 4년째 되고 있다.

그러나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코스 개발은 그 당위성에 관계당국도 공감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실시하고 추진 계획 등을 입안해 왔지만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sup>43)</sup>

이에 본 연구는 성산일출봉만이 갖는 유일한 장소성과 상징성, 정체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3가지의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 코스의 컨셉은 ‘일출제와 함께하는 성산일출봉 탐방’으로 설정하였다. 탐방 코스는 큰 열개는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맞이하는 아침 해돋이에 희망을 실는 일출제를 시작으로 성산일출봉의 탁월한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인식 체험, 유산마을의 역사문화유산 탐방, 마을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체험하는 수순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일 1일 거행하는 일출제 행사와 함께 공식 행사로 치러지게 되며 낮 12시 이전에 모든 일정이 끝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공식적인 ‘일출제와 함께하는 성산일출봉 탐방’은 매일 1회씩 연 12회 실시하게 됨으로써 제주지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코스와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 A는 일출봉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제주 해녀와 시인과 함께하는 길’로 제안하고자 한다. 탐방코스 B는 일출봉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역사문화 현장 탐방의 길’로 제안한다. 탐방코스 C는 성산포만

---

43) 이와 관련 그동안 연구논문 및 용역 보고서를 통해 성산일출봉 북쪽 해안과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형 및 지질학습장 개발 프로그램 및 탐방로들이 제안되어 왔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경우,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좁은 면적에다 연구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의 연구 내용 또는 보고서의 결과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성과물로 “성산일출봉 주변 야외 학습장 개발”(고동림, 2004),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한번 둘러볼까요?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제주도 지구과학교사연구회, 201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보존 및 활용방안(윤석훈, 2011),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제주발전연구원,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아니지만, 제주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 가운데 한 곳인 서귀포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의 경우는 평가할 일이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2011년 9월부터 지질 트레일 코스가 개발되어 국제 트레일 대회 및 체험행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세계 지오파크의 또 다른 대표명소인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경우도 제주관광공사의 후원을 받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와 사계리 주민들의 참여 속에 2014년 3월 지질 트레일 코스가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된 지질 트레일 코스는 이들 2곳뿐이다.

과 성산마을을 돌아보는 ‘세계자연산마을 오일장 가는 길’로 제안한다.

그동안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지질트레일 코스는 주로 일출봉 북쪽 해안과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개발, 제안되어 왔다. 또한 성산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벨트로 개발하는 논의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3개 코스는 새로운 핵심적인 콘텐츠를 선도로 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형 및 지질 트레일 코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와 성산마을의 인문자원들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핵심적인 콘텐츠는 성산일출제를 매월 1일 연 12회에 걸쳐 연중 상설 개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일출제와 함께하는 성산일출봉 탐방’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성산일출봉’이란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1) 탐방코스 A : 제주해녀와 시인들과 함께하는 길

일출봉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A 코스는 <성산일출봉 입구~탐방로 상행길~일출봉 정상에서 열리는 성산일출제 참여~탐방로 하산길~우뭇개 동산~우도 조망~우뭇개 해안~지형·지질 탐방로(일출봉 북쪽 절벽의 지형경관 및 지질 노두 관찰)~해녀 물질공연~일출봉 출구 북쪽 주차장~올레 1코스~오정개 해안(해녀물질 체험)~이생진 시인의 시비공원~성산포만 내수면 통발알~서북청년단 주둔지(옛 성산초등학교 터)~오일시장>에 이르는 약 3km 내외의 코스다.

이 코스는 매월 1일 아침 성산일출봉 등정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감상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의 실현을 다짐할 수 있다. 하산해서는 우뭇개 해안의 일출봉 북쪽 절벽에 드러나 있는 수성화산 분출에 의한 일출봉 응회구 형성과 응회구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화쇄난류의 퇴적작용을 보여주는 노두 관찰, 빼어난 지형경관 등을 감상 또는 해설이 있게 된다.

이어서 탐방객들은 오전 특별무대로 진행되는 해녀물질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sup>44)</sup> 바로 연이은 북쪽 바닷가 오정개 해안에는 해녀물질 체험장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를 지나면 ‘그리운 성산포’라는 시집으로서 성산포를 희망과 그리움

44) 현재 성산마을의 해녀물질 공연은 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산일출제 행사 때에는 이에 맞춰 해녀들의 특별공연 방식으로 오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는 심상의 공간으로 알린 이생진 시인의 시비공원까지 문화탐방 코스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코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산 마을 서쪽에 시원하게 뚫린 서성로 해안도로에서 드넓은 내수면과 통밭알에서 성산포만 일대를 조망한다.



(그림 67) '제주해녀와 시인과 함께하는 길'인 탐방코스 A와 주요 사이트

이곳은 여름철에는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하고, 겨울철에는 철새들의 월동을 지켜보는 탐조활동이 가능하다. 이어서 내수면 서성로 도로와 인접한 마을 어귀에 있는, 제주 4·3사건 당시 서북청년단의 고문이 자행되었던 옛 성산초등학교 터를 찾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탐사 마지막으로 마을 중심에 있는 오일시장에서 특산품을 구입하고 토속음식을 맛보면서 주민들의 일상과 만나는 과정으로 이 코스는 끝을 맺게 된다. 연구자는 A 코스를 '제주해녀와 시인들과 함께하는 길'로 명명하고자 한다.

## 2) 탐방코스 B :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의 길

일출봉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B 코스는 <성산일출봉 입구~탐방로 상행길~일출봉 정상에서 열리는 성산일출제 참여~탐방로 하산길~남쪽 주차장~수마포 해안~일본군 동굴진지 탐방로~지형·지질 탐방로(남쪽 절벽의 지형경관 및 지질 노두)~너른모살~터진목 4·3 유적지~신양리층 관찰~성산포만 내수면 통발알~서북청년단 주둔지(옛 성산초등학교 터)~오일시장>에 이르는 약 5km 내외의 코스로 참가자들의 능력에 따라 코스 조정이 가능하다.



(그림 68)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의 길'인 탐방코스 B와 주요 사이트

이 코스는 A 코스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출봉 등정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감상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의 실현을 다짐할 수 있다. 하산해서 일출봉 남쪽 절벽의 수마포 해안으로 진입하면 동쪽으로 직선거리 400여m 구간에 일제 강점기 때 제주도를 요새화시키기 위해 구축된 일본군 동굴진지들이 무더기로 연이어

있다. 같은 구간에는 수성화산폭발 당시 일출봉 형성과정과 응회구 내부구조를 밝혀주는 지질 노두들이 뚜렷하다. 해안가 절벽에는 지층의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층부와 하층부의 지층이 뚜렷하다. 성산일출봉 분출 당시 화산탄들이 날아 떨어지면서 형성된 탄낭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분출 당시 해수면의 위치와 분출 후의 해수면의 높이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수성화산의 분출과 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자 현장들이다.

화산분출 이후 일출봉이 파도 등에 씻겨 침식되어 쌓인 신양리층에는 약 5,000년 전부터 쌓여 만들어진 조개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 신양리층의 내륙쪽은 모래층에 덮여있 관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닷가 쪽은 간조 시에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신양리층 곳곳에는 포트홀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마포 해안에서 남쪽으로 응회구의 풍화로 이루어진 검은 모래 해안도 돋보인다.

오래전 성산 마을이 육계도였음을 알려주는 터진목에는 제주 4·3사건 유적지가 있어 근현대 역사문화 탐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B 코스는 A 코스와 같은 과정이다. 성산 마을 서쪽에 시원하게 뚫린 서성로 해안도로에서 드넓은 내수면과 통밭알에서 성산포만 일대를 조망한다. 여름철에는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하고, 겨울철에는 철새들의 월동을 지켜보는 탐조활동이 가능하다. 이어서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제주 4·3사건 당시 서북청년단의 고문이 자행되었던 옛 성산초등학교 터를 찾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뒤 마을 중심에 있는 오일시장에서 특산품을 구입하고 토속음식을 맛보면서 주민들의 일상과 만나는 과정으로 이 코스는 끝을 맺게 된다.

이 코스의 해설 포인트는 일출봉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난 성산일출봉 응회구의 내부구조, 동굴진지와 제주 4·3사건의 역사성, 신양리층의 형성과정 등이다. 연구자는 이 코스를 ‘근현대 역사문화 현장 탐방의 길’로 제안하고자 한다.

### 3) 탐방코스 C : 세계자연유산마을 오일시장 가는 길

성산마을 내수면과 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C 코스는 <성산일출봉 입구~탐방로 상행길~일출봉 정상에서 열리는 성산일출제 참여~탐방로 하산길~일출봉 주차장~마을 중심가~성산포만 내수면 통밭알~서북청년단 주둔지(옛 성산초등학교 터)~오일시장>에 이르는 약 2km 내외의 코스다.



#### 4)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의 특징

이들 3개의 지오투어리즘 코스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3개의 지오투어리즘 코스를 선도하는 성산일출제는 새해 1월1일에 국한되는 행사가 아니다. 매월 1일, 1년 12회에 걸쳐 열림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둘째,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성산일출봉의 지형 및 지질자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며 체험할 수 있는데다, 성산포만 내수면의 생태환경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제주해녀문화를 배우고 일제 강점기 일본군 동굴진지와 제주 4·3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탐방하게 됨으로써 제주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넷째, 참가자들은 성산마을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은 오로지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오투어리즘은 마을주민들에 의해 매월 1일 개최되는 성산일출제를 필두로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이 지금까지의 단절을 끊고 상생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10. 지오투어리즘과 지역 공동체의 공존 모색

본 연구는 성산일출봉 사례 연구를 통해 지오투어리즘과 지역 공동체 즉,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한 3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핵심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앞 절에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를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의 핵심 콘텐츠로 선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현재

의 관광 방식에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징성과 고유성을 지닌 매력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은 외형적 성장의 관광 방식은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의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패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의 지속은 유산마을을 갈수록 고립화시킬 뿐이다. 결국 마을주민들에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제주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명소라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오히려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형 및 지질자원이라 할지라도 일반 방문객들한테는 다소 생소하거나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가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성산일출제의 연중 확대 상설화’를 핵심 콘텐츠로 선정하여 구체성을 모색하였다.

방문객 규모로 평가할 때, 성산일출봉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외 관광객 300만 명이 방문함으로써 화산섬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관광 유형의 개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이 공존하지 못하고 갈수록 고립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본 연구의 SWOT 분석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느냐가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행사하는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핵심적인 콘텐츠라고 하여 반드시 새롭거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지역 공동체와 같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같이 있을 유일한 상징적인 콘텐츠, 누구에게나 친숙한 매력적인 콘텐츠이면 될 것이다. 사례 연구 지역인 성산일출봉의 경우, 그러한 매력적인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이 성산일출제를 매월 1월 연 12회 확대 개최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은 자연자원보다는 인문자원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것은 지형 및 지질자원은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일반인들로부터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인문자원은 우리가 일상 접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자연자원보다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탐사코스는 마을 경유를 지속해야 한다.

모름지기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라면 유산마을인 성산리도 관광마을로서 역동성을 지녀야 당연하다. 그러나 성산일출봉은 방문객들로 넘쳐나고, 유산마을은 방문객들이 찾지 않는 실정이다. 유산마을은 체류기반조차 미흡하여 방문객들은 일출봉 탐방 후 바로 이동하는 바람에 통과형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역경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가장 큰 원인은 성산일출봉 주차장이 마을 내부는 고사하고 마을 외곽지도 아닌 곳인, 일출봉과 바로 인접한 관광 목적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문객들의 동선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출봉을 오르고 내리면 더 이상 없다. 최선의 대책은 방문객들의 동선을 마을을 거치도록 연장시키는 일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산포만 내수면으로 주차장 확장 이전이 실현된다면 방문객의 동선은 자연스럽게 마을을 경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산일출봉 관광은 유산마을과 공존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의 실현으로 나가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을경제의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비록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인 성산리의 사례이지만, 지오투어리즘 코스의 마을 경유 지속화는 주민소득 향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앞으로 탐방코스 개발에 마을경유 방안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평가는 실제 성과와 계획된 성과를 우선 비교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관광 관리계획의 목적, 실행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당초 계획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들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미래에 닥칠 예상되는 위기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안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례 연구 지역인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의 평가와 모니터링은 자연 및 인문 자원들의 완전성(보전성)을 유지·향상·복원하고,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최소화·완화시키는 데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육지와 바닷물이 만나 지형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침식작용만 하더라도 일출봉 응회암을 깎아내고 깎여나간 물질들은 유수와 해류의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어 퇴적이 된다. 이러한 작용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방문객들에 의한 지표면 침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성산일출봉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유용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윤석훈, 2011).

그럼에도 이러한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산일출봉만 하더라도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과 급증하는 방문객에 답압과 침식 등 두 가지의 큰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은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실현을 위한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VI. 결론

화산섬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브랜드에 힘입어 2013년 사상 처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라는 메가 투어리즘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관광객의 수적 증가에 치중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담론이 확산되고 관광지과 지역 공동체와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시급한 현안에 직면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유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산섬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나아가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오파크의 대표 명소이며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 논문과 관련 보고서 등의 국내외 문헌 연구, SWOT 분석과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SWOT 분석은 학계·관광·행정·NGO·주민대표 등 제주도내 각계의 이해관계자 14명과 현지 동행 인터뷰 방식으로 2014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1차 성산일출봉 방문객 189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2차 설문 조사는 이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69명 및 대학원생/학부생 188명,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메일과 우편 응답 및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논의의 전개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을 ‘Geological Tourism’이란 협의적 개념에서 ‘Geographic Tourism’이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

속가능성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 관광이다. 기존의 대중관광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존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적으로 관광지와 주민, 방문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2. 지속가능한 새로운 관광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은 1990년대 초기에는 지형 및 지질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적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광의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상의 범위 역시 지형 및 지질자원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자연은 오랜 세월동안 제주인들의 역사·문화와 삶이 깃든 인문화 된 자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지오투어리즘 논의는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화산섬 제주의 지형 및 지질자원의 가치를 감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존 마인드를 길러준다. 이와 함께 제주의 탄생 설화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와 제주 4·3사건 등 근현대사에 이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이로써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3.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실천 사례 지역 5곳을 조사하였다. 이들 지역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환경적·사회문화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다양한 연령 계층의 방문객들을 위한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과 지역의 각급 학교와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해마다 방문객들을 보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테마가 있는 이벤트, 급증하는 방문객에 의한 환경파괴 예방대책인 피크 시간대 방문객 정원제 예약 시스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공동체 기반관광을 구축한 사례 등을 보여주었다.

4. 제주관광이 지속가능하려면 화산섬으로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이의 실현에 있어 적합한 새로운 관광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산섬 제주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 지오파크 등 유네스코 브랜드를 갖추고 있어 국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여건이 풍부함에도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 제주지역의 지오투어리즘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5.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내 각계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SWOT 분석과 전국의 4개 집단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산일출봉의 연중 확대 상설화’, ‘지형 및 지질자원의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해녀의 삶 체험 지속화’,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5가지 콘텐츠 개발 방안을 선정하였다.

6.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은 자연 및 인문자원의 콘텐츠들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관건으로 판단하였다. 성산일출봉의 경우 ‘성산일출봉의 연중 확대 상설화’가 지역의 장소성, 상징성, 정체성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7. ‘성산일출봉의 연중 확대 상설화’는 매월 1일 1년 12회에 걸쳐 유산마을 성산리 주민들이 주관토록 제안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유산마을이라는 자부심이 갈수록 약화되던 주민들에게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출제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매월 주제별로 참석토록 함으로써 일출제가 희망의 축제, 소통의 축제, 감동과 즐거움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과정에는 스토리텔링 연계 개발은 필수적이다. 일출제에 참가하는 탐방객들은 우선 탐방로 상에 우뚝 서 있는 기암 등경들 앞에서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이어 일출봉 정상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염원하면 제주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과 장엄한 일출의 영험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8.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방문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의 파괴 방지를 위한 탐방객 정원제부터 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명 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내용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 방문객센터의 적극적인 기능 보강,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해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9. ‘제주해녀의 삶 더 지속화’ 분야는 해녀문화의 유산관광 자원화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일출봉 북쪽 우뚝개 해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녀물질 공연부터 현장감 있게 보안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인근의 오정개 해안에서 방문객들이 해녀물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성산일출봉 입구 대표소 전광판을 통해 물질공연과 체험 모습들을 현장 중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0.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탐방’ 분야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동굴진지 탐방과 제주 4·3 유적지 탐방으로 구분하여 콘텐츠의 내실화를 모색하였다. 동굴진지의 경우, 일출봉 남쪽 수마포 해안에 쉼터 성격의 소규모 정자를 시설하여 이곳에 동굴진지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하는 패널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터진목 제주 4·3 유적지에도 쉼터 성격의 소규모 정자를 설치하고 4·3 사건의 발발 경위에서부터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는 패널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탐방객들은 해설사의 상주 없이도 관련 정보를 얻는 등 일본군 동굴진지와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분야는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갈수록 방문객이 급증하는 반면에 유산마을인 성산리는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일출봉과 단절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은 3가지의 대표적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현재 과포화 상태의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전 확충 문제, 그렇지 않아도 가용 토지면적이 협소한 성산 마을에 2만평이 넘는 땅을 장기 점유하면서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경관마저 해치고 있는 KBS 제주송신소의 이전 문제,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현 오일시장의 토속음식점·특산물 판매점 운영 등 매일 민속시장화 추진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이들 사업들은 세계자연유산 일출봉과 유산마을의 공존여부가 달린 현안으로 제주도 당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12.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로 3가지를 제안하였다.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 A는 일출봉 북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주해녀와 시인과 함께 하는 길’이 된다. 탐방코스 B는 일출봉 북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근현대 역사문화 현장 탐방의 길’로 제안하였다. 탐방코스 C는 성산포만 내수면과 마을 중심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세계자연유산마을 오일시장 가는 길’로 명명하였다. 이들 탐방코스는 공히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주민들이 주관하는 일출제를 정점으로, 유산마을 중심가의 오일시장에서 주민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과정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성산일출봉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 3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핵심적인 지오투어리

즘 콘텐츠를 개발해야한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의 마을 경유가 지속화되어야 한다. 셋째, 이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관광지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하는 토대로써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관광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를 제주의 지형 및 지질자원뿐 아니라 문화·역사와 주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실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주관광을 대표하는 성산일출봉과 유산마을인 성산리의 심화되는 단절 양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콘텐츠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존의 장을 모색하였다. 셋째, 국내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지리학, 지형학, 지질학, 관광학 등 각 분야에서 별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제학문간 연계와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3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차원의 지오투어리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지오투어리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의 올바른 구현에 더 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오투어리즘 전문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전문해설사로 양성하는 방안과 제주도내 대학의 지리교육과 등 관련분야 졸업생들을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마을차원에서 지역특산품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오투어리즘 탐방코스를 마을을 경유하는 이유 중 하나가 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큰 틀의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연계 개발과정에서 ‘해양관광 및 내수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선비 묵객들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개발’ 분야를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지오투어리즘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본격화된다면 제주지역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지와 주민들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강미희·박찬우·이영주·김성일, 2006, “제주도를 방문한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여행 특성”, 한국임학회지, 95(6), 759-767.
- 강순원, 2008, “태평양전쟁과 제주도 내 일본군 군사유적의 실태”,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조성운 엮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59-196.
- 강정희, 2005, 초등 지역이해 교육에서 위치와 영역 파악의 중요성-제주도를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중훈, 2006, 성산일출봉 참여 동기 유형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동립, 2004, 성산일출봉 주변 야외 학습장 개발,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창택, 2004, “지속가능성의 윤리와 생태체계의 가치”, 철학연구, 99, 1-22.
- 공우석, 2008, 한국의 자연지리-생물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동희, 2011, “제주도 지오파크의 발전적 콘텐츠 개발-산방산·용머리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8(3), 1-10.
- 권동희, 2012, “제주도 지형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1), 1-12.
- 권동희, 2013,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하롱베이의 지형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1-12.
- 권상철, 2001, “제주도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상충”, 자연보존, 114, 51-55.
- 김규호, 2001,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관광”, 김성일·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125-156.



- 김근미, 2001, Geotourism 대상 지역의 지질공학적 특징 및 장기 보존 기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미·김성수·박형동, 2000, “국내 Geotourism 대상 지역의 보존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 대한지질공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발표논문집, 155-160.
- 김기순, 2007,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 사례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52(3), 11-43.
- 김대관·김동렬, 2001,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광의 역사적 흐름”, 김성일·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35-66.
- 김범훈, 2013,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476-493.
- 김범훈, 2013,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과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탐라문화, 44, 83-120.
- 김선희, 2007, “지역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의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관광협회, 31(1), 405-420.
- 김성섭·이희승, 2008, “한국관광상품에 대한 지불의사 가격추정을 통해 가치측정 및 관광자 특성 분석 : 신 생태관광 상품인 동굴관광에 적용”, 호텔경영학연구, 17(1), 175-198.
- 김성일, 2001, “지속가능한 관광과 미래 과제”, 김성일·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13-34.
- 김성일·강미희, 2002, 생태관광(ecotourism), 트래블 애널리스트.
- 김창환, 2009, “한국에서의 지오파크 활동과 지리학적 의미”, 한국지형학회지, 16(1), 57-66.
- 김치완, 2012, “영주십경으로 본 조선 유학자의 선경 인식과 태도”, 대동철학, 59, 131-155.
- 노명준, 2003,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 박경, 2012, “한국지형학회지를 중심으로 본 지형학과 토양지리학의 발달”, 대한지리학회지, 47(4), 474-489.
- 박경·김창환, 2012, “강원도 양구·화천 일원의 분지지형과 지오투어리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9(4), 97-108.
- 박미수, 2007, “생태축제 브랜드와 축제 이미지 일치성에 관한 연구 : 무주 반딧불축제를 사례로”, 관광경영연구, 10(1), 27-44.
- 박민영, 2012,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민영·박경, 2012,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175-187.
- 박석희, 2001, “전통적 대중관광의 문제와 대안”, 김성일·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67-94.
- 박지현, 2006, “21세기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법학논문집, 30(2), 203-229.
- 박찬식, 2005,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좌혜경·고창훈·권상철·김동윤·문무병·박찬식·안미정·이경주·정광중·한림화,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107-136.
- 변형석, 2010, “지속가능한 관광과 사회적 기업”, 한국관광정책, 41, 34-41.
- 서현정, 2011,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의 과학테마북 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관·우경식·권창우·김련·전용문, 2009, “지질유산과 지질 모니터링 :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질학회지, 45(6), 751-770.
- 송재호·이성은, 2004, “관광지속가능성 측정 : 제주도 사례”, 관광연구, 19(2), 193-211.
- 신연재, 2007, “지속가능한 개발의 적실성과 한계”, 국제정치연구, 10(1), 33-41.
- 양영근, 2007, “제주마 보존과 제주경마공원의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 지역개발연구, 2, 157-180.
- 오상훈·강성일, 2005, “제주지역 펜션사업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식과 수용”, 관광학

- 연구, 29(1), 191-208.
- 오상훈 · 이성은, 2002,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2002년도 한국관광학회 제51차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149-164.
-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생태 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정준 · 이후석, 2003, “포스트모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제주도의 아부오름을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17(1), 101-116.
-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I-서귀포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 윤남경, 2013, 지역축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용택, 2004, “제주인과 오름-오름의 총체적 가치 평가를 위한 시론-”, 탐라문화, 24, 89-115.
- 윤유식 · 장양례, 2012, “지속가능한 에코투어리즘을 위한 환경교육의 생태관광체험 기대, 방문성과 및 생태관광 지지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관광경영연구, 16(3), 253-270.
- 이수진, 2012, 지질관광 동기와 서비스 품질이 관광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제주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은 · 최환석, 2010, “저탄소 관광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발 : 개념과 과정을 통한 개념 정의와 측정 방법 검토”, 관광경영연구, 14(1), 109-129.
- 이진희, 2006, “서귀포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2), 251-264.
- 이진희, 2008, “제주도의 명품 · 명소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23, 171-210.
- 이희연 · 차승훈, 2004, “관광지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의 적용과 평가 시스템 구축”, 2004년 한국관광학회 제55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41-450.
- 전명숙, 2005, “한국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05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2), 75-80.

- 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 전영권, 2010,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53-69.
- 전영권, 2012, “대구 팔공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한국지형학회지, 19(2), 51-58.
- 정강환, 2000, “지질관광 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 분석과 관광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81-296.
- 정광중, 2009, “제주도의 마을-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는 공간”, 문화와 현실, 제주문화포럼, 13, 80-90.
- 정광중, 2012, “제주의 숲, 꽃자왈의 인식과 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11-28.
- 정대연,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환경영향평가, 12(1), 60-64.
- 정원옥 · 정평희, 2010,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 및 훼손유형”, 국립공원연구지, 1(4), 255-259.
- 정필모 · 서종철 · 전영권 · 신영규, 2010,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17(2), 77-86.
- 조규성, 2013, 지질관광 학습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지구과학 개념구조 변화,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윤, 2008, “일제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7-158.
- 좌혜경 · 권미선,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229-259.
- 최영국, 2000,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 223, 6-19.
- 최영국, 2001, “환경용량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김성일 · 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95-124.
- 한승희, 2012, ‘구곡’에 관한 지형경관 분석과 스토리텔링-대구 · 경북권을 사례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철호·최상훈, 2007,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위한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태안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회지, 28(1), 75-86.
- 현미열·조옥희, 2012, “경마장 이용객의 도박중독 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4), 589-598.
- 현홍준·서용건·고계성, 2010,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481-515.
- 황경수·고태호, 2004,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제주도 송악산 관광지구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8(3), 51-72.
- 허민·민재웅·장성재·고영구·김주용, 2011, “전남 동부 연안권 및 섬진강 유역권의 지질관광(Geotourism) 가능성 고찰 :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고생물학회지, 27(2), 261-276.

## 2. 국내 보고서 및 기타

- 강미희, 2007,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및 성공모델,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UNWTO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제회의 자료집.
- 강신겸·최영국·김성진·윤양수, 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 조건, 국토연, 2004-16.
- 경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9,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및 학술조사보고서.
- 고계성, 2013,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와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자료집.
- 고광훈, 2012, 수월봉 대표명소의 지질공원 인증 전후의 차이점과 문제점, 국가 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 공청회 자료집.

- 고광훈 · 고길립 · 전용문, 2013, Changes in Local Communities after Designation as a Global Geopark, The 3rd Asia-Pacific Geoparks Network Jeju Symposium Abstracts Book, September 7-13, Jeju KAL Hotel.
- 김남조, 2010, 지속가능한 관광의 국제적 흐름 및 전망, 국내·외 지속가능한 관광의 현재와 미래-한국관광산업 혁신 2010 지속가능한 관광정책포럼 시리즈 I.
- 김남조 · 조광익, 1998,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과 지역주민 참여, 한국관광연구원.
- 김범훈, 2011, 제주 세계지질공원 1주년 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제주발전포럼, 39.
- 김범훈, 2012, Global Geotourism의 최근 동향과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제주지질연구소 지질관광 활성화방안 워크숍 자료집.
- 김성진 · 변재윤 · 김윤영, 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 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성용, 2004, CT로서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 분석,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 김성일 · 강미희 · 이영주 · 장호찬, 2008,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위한 비전과 단계별 전략 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김진성 · 변재윤 · 김윤영, 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종일, 2012, 관광과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286.
- 김철원, 2013,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전략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김태운, 2012, 유네스코 3관왕 · 세계7대자연경관 관리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제주발전포럼, 43.
- 남제주군 생산읍, 2005, 생산읍지.
- 문순덕 · 박찬식, 2013, 제주 근대 역사문화 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재청, 2006,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
- 박기화·안주성·기원서·박원배, 2006, 제주도 지질여행(증보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 변미리·김묵한, 2012, 미래 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경관 변화, 서울연구원.
- 서용건·김영남·조정인·이보흠·김세미, 2012,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요약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 성산리마을회, 2004, 성산포지-해 뜨는 마을, 미술출판 파피루스.
- 신동일·정지형, 2013, 중국의 여행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
- 심원섭, 2010, 최근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주요 정책이슈, 그리고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개원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우경식, 2013, 지질공원의 의미와 국가지질공원의 전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석훈, 201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보존 및 활용방안,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이석호, 2010, 최근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주요 정책이슈, 그리고 전망 : 토론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개원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이성용·김태운·박원배·신동일·엄상근·최영근, 2011,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이수재, 2014, 국가 지질트레일의 정책적 방향, 제주관광공사·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트레일 추진위원회, 제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방안 및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집.
- 이수재·이영준·김지영·이정현, 2003,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수재·김지영·이영준·사공희·이은재, 2008,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과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수재·사공희·최준규·문유리·이명진·김은영·최돈원·이광춘·조홍섭, 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재성, 2010, 관광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최근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개원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정승훈·송재호, 2013, 미래 환경변화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 제주발전연구원.

정영근, 2002, WSSD 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4, 숨비질 배왕 늬주지 아녀-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서귀포시(III) 성산읍·포선면.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11, 2011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14, 20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II)-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 성산리, 도서출판 각.

제주특별자치도·한국동굴연구소, 200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하수정, 2012, 지속가능의 오·남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명확화 필요성, 한겨레경제연구소(HERI) Insight.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국가지질공원사무국, 2013, 지질공원안내서.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국가지질공원사무국, 2013, 국가지질공원 Symposium 자료집.

한국관광공사, 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연구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한국지질자원연구원·경기대학교, 2005, 제주 자연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학술용역보고서.



### 3. 국내 신문 및 인터넷 언론 기사, 보도자료

- <연합뉴스> 2013년 3월 18일자.  
<제민일보> 2013년 3월 1일자.  
<제민일보> 2014년 5월 6일자.  
<제주의소리> 2012년 2월 8일자.  
<제주의소리> 2013년 6월 25일자.  
<제주의소리> 2013년 9월 11일자.  
<제주일보> 2005년 4월 2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보도자료> 2013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 2012년 5월 31일자.  
<제주광장> 2014년 4월 18일자.  
<헤드라인제주> 2014년 1월 4일자.

### 4. 해외 논문 및 단행본

Allan, M., 2012, *Geotourism-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Motivation For A Geotourism Experience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ermany.

Bimie, P. and Boyle, A., 2002,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UK.

Boley, B. B., 2009, *Geotourism In the Crown of the Continent : Developing*

*and Testing the Geotourism Survey Instrument(GSI)*, Thesis presen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Recreation Management, The University of Montana, USA.

Briha, J., 2009, Geological heritage and geoconservation in Portugal, in de Carvalho, C.N. and Rodringues, J.(ed.), *New Challenges with Geotourism*, (Proceedings of the VIII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Portugal, 31-35.

Burlando, M., Firpo, M., Queirolo, C. and Vacchi, M., 2009, A new strategy to promote sustainable tourism in Beigea Geopark(Italy), in the Carvalho, C.N. and Rodrigues, J.(ed.), *New Challenge with Geotourism*, (Proceedings of the VIII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Portugal, 54-55.

Butler, R., 1998, Sustainable tourism-looking backwards in order to progress?, in Hall, C. M. and Lew, A. A.(ed.),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London, 25-34.

Cotter, G. and Hannan, K., 1999, *Our Community Our Future : A Guide to Local Agenda 21*,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Environ Australia.

Cowie, J. W. & Wimbleton, W. A. P., 1994, The World Heritage List and its relevance to geology, in O'Halloran, D., Green, C., Harley, M., Stanley, M. and Knill, J.(ed.), *Ge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Geological Society, London, 71-73.

Crawford, J., Young, C. and Miall, S., 2002, Sustainability Tree, (Presentation at the *Sustaining our communities - International Local Agenda 21 Conference 2002*), Adelaide, Australia.

De Bruyn, H. E. C. and Klopper, H. B., 2005, Strategic management in the tourism establishment, in Bennet, J. A. and Strydom, L.(ed.), *Managing tourism services-A Southern African perspective*, J. L. Van Schaik Academic, Pretoria, South Africa, 148-149.

- Dowling, R. K., 2008, The Future of Geotourism(Power Point Presentation at the *3rd International UNESCO Conference On Geopark*), Osnabrück, Germany.
- Dowling, R. K., 2011,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 1-13.
- Dowling, R. K. and Newsome, D., 2006, Geotourism's issues and challenges, in Dowling, R. K. and Newsome, D.(ed.),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UK, 242-254.
- Dowling, R. K. and Newsome, D.(ed.), 2008, Geotourism(Proceedings of the *Inaugural Global Geotourism Conference, 'Discover the Earth Beneath our Feet'*), Fremantle, Western Australia, 17-20 August, Promaco conventions Pty, Ltd.
- Dowling, R, K, and Newsome, D., 2010a, The future of geotourism : where to from here,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 *Geotourism-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231-244.
- Dowling, R, K. and Newsome, D., 2010b, Geotourism : a Global Activity, in Dowling, R, K. and Newsome, D.(ed.),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1-17.
- Farsani, N. T., Coelho, C., Costa, C. and Carvalho, C. N., 2012, *Geoparks and Geotourism : New Approaches to Sustainability for the 21st Century*, Brown Walker Press, Florida, USA.
- Frey, M. L., Schäfer, K., Büchel, G. and Patzak, M., 2006, Geoparks-a regional, European and global policy, in Dowling, R. K. and Newsome, D.(ed.),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UK, 95-117.
- Gates, A. E., 2006, *Geotourism : a perspective from the USA*,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UK, 157-179.
- Gorman, C, E., 2007, Landscape and Geotourism : market typologies and visitors needs, *European Tourism and Environment Conference : Promotion and Protection, Achieving the Balance*, Dublin, Ireland.

- Gray, M., 2004, *Geodiversity : Valuing and conserving abiotic nature*, John Wiley and Sons Ltd, New York.
- Hall, C. M. and Lew, A. A., 1998, The Geography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in Hall, C. M. and Lew, A. A.(ed.),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London, 1-12.
- Harrison, N. E., 2000, *Constru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lbany,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ose, T. A., 1995,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 ston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10(2), 16-17.
- Hose, T. A., 1996, Geotourism, or can tourist become casual rock hounds?, *Geology on your Door-step*, *The Geological Society*, 207-228.
- Hose, T. A., 2003, *Geotourism in England : A Two-Region Case Study Analysis*, Unpublished Ph.D thesis, Department of Ancient History and Archaeology, University of Birmingham.
- Hose, T. A., 2006, Geotourism and interpretation,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UK, 221-241.
- Hose, T. A., 2007, Geotourism in Almeria Province, southeast Spain, *Preliminary Communication*, 55(3), 259-276.
- Hose, T. A., 2008, Towards a history of geotourism : Definitions, antecedents and the future, in Burek, C., Prosser, C.(ed), *The history of geoconservation*, The Geological Society, London.
- Hose, A. T., 2011, The English Origins of Geotourism(as a Vehicle for Geoconservation) and Their Relevance to Current Studies, *Acta geographica Slovenica*, 51(2), 343-360.
- Hughes, K. and Ballantyne, R., 2010, Interpretation rocks! Designing signs for geotourism

- sites,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184-199.
- Ielenicz, M., 2009, Geotope, Geosite, Geomorphosite, *The Annals of Valahia University of Tărgoviște, Geographical Series*, Tome 9.
- Joyce, E. B., 2008, *Geosites of Australia : preparing an inventory and framework for the Global Inventory of the IUGS*, School of the Earth Scienc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Joyce, E. B., 2010, Australia's geological heritage : a national inventory for future geoparks and geotourism,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27-45.
- Karkut, J., 2010, Reconsidering the boundaries and applications of Geotourism - lessons learnt from tourism at Mount Vesuvius,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88-99.
- Kavčič, M., Stupar, M., Peljhan, M., Režun, U., 2009, Geopark Idrija-thematic trails, in the Carvalho, C.N. and Rodrigues, J.(ed.), *New Challenge with Geotourism*, (Proceedings of the VIII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Portugal.
- King, L. M., 2010, Geotourism in the Hawaiian Island,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114-125.
- Komoo, I., 1997, Conservation geology : A case for the ecotourism industry of Malaysia, in Marinos, P.G., Koukis, G.C., Tsiambaos, G.C. and Stournas, G.C.(ed.), *Engineering Geology and the Environment*, Balkema, Rotterdam, Netherlands, 85-95.
- Lee, A. A. and O'Neil, L. J., 2004, Framework for sustainability : a conceptual model of a complex system, Vicksburg, Mississippi, *Ecological Resources Branch,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ERDC), USA.*

- Malaki, A., El Wartiti, G. F., Zahraoui, M., Kharbouch, F., El Mahi, B. and Fadli, D., 2008, Volcanic geosites of the Tabular Middle Atlas of Morocco : A Tool for public education, recre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33rd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Oslo 2008*, Norway.
- Mao, I., Robinson, A. M. and Dowling, R. K., 2009, Potential Geotourists : An Australian Case Study, *Journal of Tourism*, 10(1), 71-80.
- Martini, G., 2011, Geo, Geopark, Geotourism Basic Concepts, *International Seminar for Future Progress of Jeju Island Global Geopark & National Geoparks Network*, Jeju, 28 May 2011.
- Moreira, J. C., Jorge, M. A., Dropa, M. M., Horodisky, G. S., Souza, L. F., Mongruel, L., Guimarães, C. J., Maio, C. A. and Stachowiak, P. R. B., 2010, The realization of the 'Tourism Studies Week - SESTUR' as a mean of disseminating Geotourism in Paran , Brazil, paper prepared for *the 2nd Global Geotourism Conference, Mulu, Sarawak, Malasia*, 17-20 April 2010.
- Moufti, M. R., N meth, K., Murcia, H., Lindsay, J. M. and El-Masry, N., 2013, Geosites of a steep lava spatter cone of the 1256 AD, Al Madinah eruption, Kingdom of Saudi Arabia, *Central European Journal of Geosciences*, 5(2), 189-190.
- Newsome, D. and Dowling, R. K., 2006, The scope and nature of geotourism, in Dowling, R. K. and Newsome, D.(ed.),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UK, 1-12.
- Newsome, D. and Dowling, R. K., 2010, Setting an agenda for geotourism,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UK., 1-10.
- Newsome, D., Dowling, R. K., & Leung, Y., 2012, The Nature and Management of Geotourism : A case study of two established iconic geotourism, *Tourism Management*

- Perspectives*, 19-27.
- Newsome, D., Moore, S. A., & Dowling, R.K., 2013, *Natural Area Tourism : Ecology, Impact and Management*, Channel View Publications, Bristol, UK.
- Ollier, C., 2012, Problems of Geotourism and Geodiversity, *QUAESTIONES GEOGRAPHICAE*, 31(3), 57-61.
- Pralong, J., 2006, *Geotourism : A new Form of Tourism utilising natural Landscape and based on Imagination and Emotion*, *Tourism Review*, 6(3), 20-25.
- Robinson A. M., 2008, *Geotourism : Who is a geotourist?*, *Inaugural National Conference on Green Travel, Climate Change and Ecotourism*, Adelaide SA, November 2008.
- Schutte, I. C., 2009, *A Strategic Manage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tourism in South Africa*, Dissertation submitted in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t the Potchefstroom campus of the North-West University.
- Slomka, T. and Kicinska-Swidarska, A., 2004, Geotourism-the basic concepts, *Geotourism*, 1, 2-6.
- Slomka, T., Kicinska-Swidarska, A., Doktor, M., Joniech, A., Mayer, W. and Slomka, E., 2006, Catalogue of Geotouristic Sites in Poland, *GEOTOUR*, Poland.
- Slomka, T. and Mayer, W., 2010, Geotourism and geotourist education,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UK.
- Stokes, A. M., Cook, S. D. and Drew, D., 2003, *Geotourism : The New Trend in Travel*,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USA.
- Thompson, A. . and Strickland III, A. J., 1995, *Crafting and implementing strategy, Text and readings*, 6th edition, Bobotá Irwin, Chicago, USA.

- Vanhove, N., 1997, Mass Tourism : benefit and cost, in Wahab, S. and Pilgram, J.J.(ed.),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 :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Routledge, London, 74-75.
- Vollmer, L-M. and Megerrle, A., 2004, Networking in geotourism-A successful way to promote geological heritage, in poster presentation at *the 32nd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Florence, Italy.
- Weaver, D., 2006, *Sustainable tourism : Theory and practice*, Amsterdam,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Wight, P., 1998, Tool for sustainable analysis in planning and managing tourism and recreation in the destination, in Hall, C.M. and Lews, A.A.(ed.), *Sustainable Tourism of a Geographical Perspective*, Prentice Hall, 75-91.
- Wittlich, C. and Palmer, S., 2010, Geotourism product interpretation : Rangitoto Island, Auckland, New Zealaand,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 *Geotourism :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158-171.

## 5. 해외 보고서 및 기타

- APEC TOURISM WORKING GROUP, 2010, *Effective Community Based Tourism : A Best Practice Manual*, 1-146.
- Brodhag, C., 2011, Implement of ISO 26000 Guidance : Process of negotiation and content, *Partnership Fair Working Session ISO 26000*,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OIF).
- Buckley, R., 2009, *Ecotourism : Principles and Practices*, CABI, UK.
- Conservation International an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5, *Linking Communities, Tourism and Conservation-A Tourism Assessment Proces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of Australia Government, 2004, *Steps to sustainable tourism : planning a sustainable future for tourism, heritage and the environment*.

Dredge, D., 2008, Managing Local Tourism Master Class: Eastern Metropolitan Regional Council Workshop Materials, *Southern Cross University*, Tweed Heads, Australia.

Gebhard, K., Meyer, M. and Roth, S., 2007,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Planning in Biosphere Reserve-A Methodology guide-, *Ecological Tourism in Europe(ET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07, *South Australian Tourism Plan 2009-2014*.

Joyce, E. ., 2008, Geosites of Australia : preparing an inventory and framework for the Global Inventory of the IUGS, *School of Earth Science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Pollock, A, 2013, Six reasons why mass tourism is unsustainable, *Guardian Sustainable Business blog*([www.theguardian.com/sustainable\\_business](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_business)).

UNEP, 2004, *Principles on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Tourism*.

UNEP, 2011, Towards a green economy :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n Pratt, I., 2011, *Investing i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cy-Tourism*, New York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WTO, 2005, *Making Tourism More Sustainable : A Guide for Policy Makers*.

WTO, 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Guide for Local Planners*, Madrid, Spain : WTO.

WTO, 1996, *What Tourism Managers Need To Know : A Practical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Tourism*.

WTO, 1997, *Tourism 2000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for Asia-Pacific*.

WTO, 1998, *Guide for Local Authorities on Development Sustainable Tourism*.

WCED, 1987, *Our Common Future*.

## 6. 국내외 웹사이트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박종관 교수의 Let's go 지리여행(<http://www.jotra.com>)

성산일출축제 안내 홈페이지(<http://70ni.seogwipo.go.kr>)

세계일보 홈페이지(<http://www.segye.com>)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www.unesco.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http://www.dymbbook.co.kr>)

제민일보 홈페이지(<http://www.jemin.com>)

제주일보 홈페이지(<http://www.jejunews.com>)

제주도 세계지질공원(<http://geopark.jeju.go.kr>)

제주지방기상청(<http://www.jeju.kma.go.kr>)

제주특별자치도(<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http://www.hijeju.or.kr>)

지오아카이브(<http://blog.naver.com/geoarchiv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http://www.kigam.re.kr>)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

Brodhag, C.(<http://www.brodhag.org>)

CNN홈페이지(<http://www.cnn.com>)

Crawford, J., Young, C. and Miall, S.  
(<http://www.adelaide.sa.gov.au./soc/pdf/crawford.pdf>)

English Riviera Geopark(<http://www.englishrivierageopark.org.uk>)

Global Geoparks Network(<http://www.globalgeopark.org>)

IHMC Cmap Tools([http://enviro.lclark.edu/Concept\\_maps](http://enviro.lclark.edu/Concept_maps))

Maureen Hart-Sustainable Measures  
(<http://www.sustainablemeasures.com/Suatainaility/index.html>)

National Geographic(<http://www.nationalgeographic.com>)

National Geographic, Center for Sustainable Destinations  
(<http://travel.nationalgeographic.com/travel/sustainable/geotourism>)

Sierra Forest Legacy(<http://www.sierraforestlegacy.org>)

The Sustainable Leader(<http://www.thesustainableleader.org>)

Wikipedia(<http://en.wikipedia.org>)

## 부 록

### 부록 1.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대학원생/학부생 소속대학 명단

☞ 건국대 지리학과, 경북대 지리교육과, 경북대 지리학과, 경상대 지리교육과, 경희대 지리학과, 고려대 지리교육과, 공주대 지리교육과, 공주대 지리학과, 관동대 지리교육과, 대구대 지리교육과, 동국대 지리교육과, 상명대 지리학과, 서울대 지리교육과, 서울대 지리학과, 서원대 지리교육과, 성신여대 지리학과, 신라대 지리학과, 전남대 지리교육과, 전남대 지리학과, 전북대 지리교육과, 청주대 지리교육과, 충북대 지리교육과,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대학 가나다순).

- (이상 23개 대학의 대학원생/학부생 188명 응답)

### 부록 2.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교수 소속 대학 명단

☞ 강원대 지리교육과, 건국대 지리학과, 경북대 지리교육과, 경북대 지리학과, 경상대 지리교육과, 경희대 지리학과, 고려대 지리교육과, 공주대 지리교육과, 공주대 지리학과, 관동대 지리교육과,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대구대 지리교육과, 동국대 지리교육과, 부산대 지리교육과, 상명대 지리학과, 서울대 지리교육과, 서울대 지리학과, 서원대 지리교육과, 성신여대 지리학과, 신라대 지리학과, 이화여대 지리교육과, 전남대 지리교육과, 전남대 지리학과, 전북대 지리교육과, 청주대 지리교육과, 충북대 지리교육과,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대학 가나다순).

- (이상 27개 대학의 교수 69명 응답)





#### 부록 4. 성산일출봉을 사례로 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제주도 내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김범훈 입니다. 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오투어리즘은 일반적으로 지형 및 지질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까지를 포함할 때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산일출봉은 국제적으로 지형 및 지질자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해녀의 삶 터, 일제 강점기에 최후의 방어진지로 구축된 요새화 현장,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터 등 생생한 역사문화의 현장이며, 조선시대 선비 묵객들과 현대 시인들의 심상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전적으로 학위논문용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귀중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결과에 원하시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연 구 자 : 김범훈(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이 메 일 : kimbh0307@hanmail.net /휴대폰:010-3639-0678  
지도교수 : 손명철(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

\*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제주 성산일출봉은 2007년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함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등재 이후 성산일출봉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이상      ④ 등재 이전에 방문하였음

2. 성산일출봉 방문 후 일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만족 또는 매우 만족에 표시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세요)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하신 이유(또는 매력 요인)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해당 되는 사항을 전부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관광지 접근의 용이성      ② 탁월한 자연경관

- ③ 세계자연유산의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 ④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 ⑤ 해돋이 장면
- ⑥ 제주해녀의 물질공연
- ⑦ 해양관광 체험
- ⑧ 유산마을 성산리의 역사문화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 ⑨ 유산마을 주민의 친절
- ⑩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 ⑪ 방문객센터의 안내 서비스 및 정보제공
- ⑫ 주변 관광지와 연계 용이성
- ⑬ 기타: ( )

4.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에 표시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세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신 이유(또는 개선사항)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해당되는 사항을 전부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 ① 진입로 등 교통운영체계 및 주차장 불편
- ② 탐방로 혼잡
- ③ 각종 편의시설 미흡
- ④ 식음료 바가지요금
- ⑤ 해설 프로그램 및 설명 표지판 미흡
- ⑥ 자연훼손 우려
- ⑦ 해돋이 장면 보지 못함
- ⑧ 해녀물질 공연 미흡
- ⑨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미흡
- ⑩ 해양관광 체험 프로그램 미흡
- ⑪ 향토음식 및 숙박시설 불만
- ⑫ 유산마을 성산리의 역사문화자원 안내 정보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 미흡
- ⑬ 유산마을의 경관 등 환경개선 미흡
- ⑭ 유산마을 주민들의 불친절
- ⑮ 방문객센터의 안내 서비스 및 정보제공 미흡
- ⑯ 기타:( )

5.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활성화 우선순위를 각 항목의 ( )에 아라비아 숫자(1~7)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 △지형/지질학적 가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 ( )
- △제주의 첫 해돋이 장소 ☞ ( )
- △일제 강점기/4.3 등 역사문화의 현장 ☞ ( )
- △제주해녀의 삶 터 ☞ ( )
- △해양관광 체험 ☞ ( )
- △선비 묵객과 시인들의 심상 공간 ☞ ( )
- △유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 ( )
- △기타: ( ) ☞ (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입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여
-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⑥ 60대 이상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성산일출봉을 사례로 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학원생/학부생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김범훈입니다. 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오투어리즘은 일반적으로 지형 및 지질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까지를 포함할 때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산일출봉은 국제적으로 지형 및 지질자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첫 해돋이 장소, 제주해녀의 삶 터, 일제 강점기에 최후의 방어진지로 구축된 요새화 현장,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터 등 생생한 역사문화의 현장이며, 조선시대 선비 묵객들과 현대 시인들의 심상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 대학의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 대학원생/학부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전적으로 학위논문용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귀중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결과에 원하시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연 구 자 : 김범훈(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이 메 일 : kimbh0307@hanmail.net /휴대폰:010-3639-0678

지도교수 : 손명철(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

\*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제주 성산일출봉은 2007년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함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등재 이후 성산일출봉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 ① 등재 전·후 방문한 적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⑤ 등재 이전에 방문하였음

2. (방문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세요) 귀하의 방문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개별관광(가족관광 포함)    ② 단체관광

3. (방문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세요) 일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ABSTRACT

The volcanic island Jeju, listed as the World Natural Heritage by the UNESCO, has witnessed an age of mega tourism in its history with 10 million local and global visitors in 2013. Despite its external growth and an increasing number of tourists, however, tourism in Jeju Island finds itself drawn into environmentally, socio-culturally and economically negative discourses to the extent that tourist destinations become further disconnected from the local community. Simply put, tourism in Jeju Island is in an urgent condition that requires sustainable qualitative growth strategie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pays attention to geotourism, emerging globally as a new type of sustainable tourism.

The present study aims to seek for measures to activate geotourism for the benefit of sustainable tourism in Jeju and thu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existence between tourist destinations and local community. Seongsan Ilchulbong Peak located on the eastern seashore of Jeju Island has been chosen as the site for this case study. Seongsan Ilchulbong is the UNESCO-designated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d a globally renowned geopark. As for study methods, local and global literature review including relevant reports, SWO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ere used to discuss the topic.

In the early 1990s, geotourism was discussed in a narrow sense focusing on geomorphology and geological resources. At the turn of the century, however, a broad concept focus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 place has officially come the fore, extending the scope of a place to not only geomorphology and geological resources but also to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Jeju's history, culture, and nature are humanized with Jeju's local history, culture and life. In this vein, this study reasons that geotourism in Jeju Island should be

extensively applied as a broad concept.

Here, the sustainability of tourism in Jeju Island is critically diagnosed from environment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n terms of environment, large-scale development including golf courses for tourists is considered to threaten the eco-system of Gotjawal, which serves as the lung for vegetation in Jeju and the ground-water recharge furrow. In view of socio-culture, gambling addiction issues of those who use Jeju Racecourse and the resultant severity have been diagnosed. In light of economy, the controversial privatization and land sales surrounding Seopjikoji in the Seongsanpo Marine Tourism Complex are discussed. These are the cases of development eventually causing negative discourses that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community.

To activate geotourism around Seongsan Ilchulbong, this study has conducted SWO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From the analysis and survey, measures for activating 5 content areas were derived, i.e. year-round Seongsan Ilchul Festival ;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ncreasing the awareness of geomorphology and geological resources; continual experience of Jeju Haenyeo's life ; visiting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s ; and betterment of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As for the measures for activating geotourism in Jeju Island, whether to develop core contents driving natural and humanistic resources is regarded as the key to secure sustainability. As for Seongsan Ilchulbong, 'year-round Seongsan Ilchul Festival' was found to be an appropriate core content representing local place-ness, symbolicity and identity.

Furthermore, specific measures for the year-round Seongsan Ilchul Festival were proposed. That is, the Seongsan Ilchul Festival should be held 12 times a year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by the residents of the heritage village Seongsanli with the suppor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Group, which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ing

Seongsan Ilchulbong as a sustainable heritage such that local residents could retrieve the pride in their World Heritage Village. For instance, conflicting parties in society may participate in the Seongsan Ilchul Festival with a monthly theme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Then, relevant strategies were developed to turn the Seongsan Ilchul Festival into a festival of hope, communication, impression and fun.

Among the measures to activate the geotourism around Seongsan Ilchulbong, the 'betterment of quality of life for local people' was perceived as the foremost issue in real life. Seongsan Ilchulbong is a tourist destination representing Jeju, attracting an increasing number of tourists, while it is not the case with the Heritage Village. Thus, the disparity between the village and the popular destination Seongsan Ilchulbong is increasing. This issue was addressed here from the perspective of dealing with the residents' long-cherished projects. First, the village's overarching issue is the invasion of privacy due to the over-saturated parking lot for Seongsan Ilchulbong, which should be moved and expanded. Also, the KBS' transmitting station occupying the land of the small village and spoiling its landscape need be moved. The issue of opening the current folk market daily instead of every five days is urgent for income generation for residents. These projects are significant for the coexistence of the World Natural Heritage Seongsan Ilchulbong with the Heritage Village, calling for an determined action by the provincial authorities.

Here, three integral issues were derived in relation to realizing the sustainable Jeju tourism from the case study on Seongsan Ilchulbong. First, core geotourism contents held by local residents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e village center should be consistently included in the geotourism course for visitors. Third, every stakeholder should participate in relevant monitoring and evaluation, which is expected to activate geotourism in Jeju Island as the foundation for coexistence between tourist attraction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ree ways. First, it suggests a new potential way

to realize sustainable tourism in Jeju by extending the scope of research on geotourism, emerging lately and globally as a sustainable type of tourism to humanistic resources associated with the geomorphological landscape and geological resources on the volcanic island Jeju endorsed by the UNESCO. Secondly, the present study provides an underdrawing of a sustainable place of coexistence via development of connected contents for activating geotourism as an effort to sort out the worsening disconnection between Seongsan Ilchulbong representing tourism in Jeju Island and the Heritage Village Seongsanli. Third, in that domestic research on geotourism is subjected to distinct logical arguments and perspectives in geography, geology, geomorphology and tourism, this study elicit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nterdisciplinary ties.

This study is limited to suggesting general directions without empirical efforts to shed light on the measures for activating sustainable geotourism in Jeju. Also, regarding the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contents for activating geotourism around the Seongsan Ilchulbong area, this study failed to discuss 'Developing programs for experiencing the inland waters and marine tourism' and 'Developing imaginative space with classical scholars, calligraphers and poets' due to priorities. Further studies should overcome those limitations and delve into geotourism from the disciplinary perspectives in order to drive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and geotourism in Jeju Island in favor of coexistence of residents with tourist attractions.

Keywords: tourism in Jeju Island, sustainable tourism, geotourism, content activation, Seongsan Ilchulbong Peak.